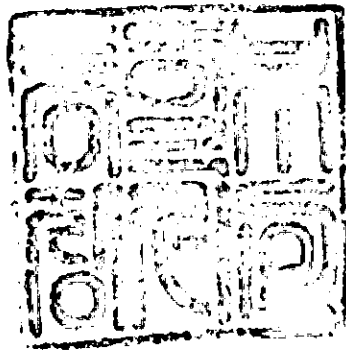


제3차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신문기사집

〈2001. 2. 26 ~ 2. 28〉



통 일 부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동안 3차례의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2차례에 걸친 생사·주소확인, 1차례의 서신교환을 실시하여

- 남과 북 모두 3,600여명의 가족과 친척이 상봉하였으며 10,000여명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일대진전을 이루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일에 대해 참고자료로 남기고자 제1·2·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관련 국내 신문기사를 정리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권 : 제1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0.8.15-18)
- II 권 : 제2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0.11.30-12.2)
- III 권 : 제3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1.2.26-28)

기사집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편집하였습니다.

- 첫째, 시간대별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일자, 조·석간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둘째, 신문기사는 10개 종합지와 4개 경제지를 대상으로 하여, 편집순서는 스트레이트, 스케치, 해설 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문기사가 많은 날은 신문사별(가나다 순)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기사집이 남북관계 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1. 3.

통일부 인도지원국



일반 기사





## 오늘 3차 이산상봉

남북한은 26일 3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한다. 남북한 각각 100명씩으로 구성된 이산가족 방문단은 이날 비행기편으로 서울과 평양에 각각 도착한 뒤 오후 단체상봉을 갖고 28일까지 2박3일동안의 일정에 들어간다. 방문단은 26일 단체상봉을 가진 뒤 27일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과 평양의 고려호텔에서 각각 2차례씩의 개별상봉을 갖는다. ▶관련기사 22면

북측 방문단은 단장인 김경락(金京洛) 조선직업자회 중앙위 상무위원 등 140명으로 이뤄졌고 남측 방문단은 단장인 장정자(張貞子) 대한직업자사 부총재 등 150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평양에 갈 남측 이산가족 100명은 26일 낮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모여 개인집 사전점검을 마치고 한치의 방북 안내 설명회에 참석했다.

한편 대한직업자사와 북한직업자회는 26일 3차 이산가족 방문단 후보자 가운데 상봉대상자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파 상봉이 어려운 후보 각 1명씩을 교체했다. 남측 후보로는 이재필씨(71·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를 김명수씨(86·서울시 중랑구 면목동)로 교체해 북측에 홍보했다.

북한 직업자회도 이날 방문후보자중 리은주씨(74·여)가 중병을 앓고 있어 고선유씨(67·여)로 교체한다고 홍보해 왔다. ●이석우기자 swlee@dailyc.com

상봉의 날 밝았다 제3차 이산가족상봉 남측 방문단으로 26일 평양으로 떠나는 선우낙순 할머니(73)가 26일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삼촌과 동생의 환송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이연희기자 ul@dailyc.com

## 대한매일

2001. 2. 26 (월)



설리는 마음 누나와 여동생 등을 만나기 위해 방북하는 조한수(80·오른쪽 앉은이)씨가 2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토비에서 환송 나온 부인 김유순씨와 두 아들 두성·두섭(왼쪽부터) 씨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o@hani.co.kr

## 남북 이산가족 오늘 3차방문

100명씩 4~5차례 상봉

남북 이산가족 3차 교환방문이 각 100명씩 26~28일 서울 동안 서울과 평양에서 이뤄진다.

이번 3차 방문은 26일 북쪽 고려민항 특별기가 서울 방문단을 김포공항까지 태워오고 남쪽의 평양 방문단을

다시 실어가는 형식으로 시작된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번 교환방문 기간 동안 단체상봉 한차례, 개별상봉 2차례 등 모두 4~5차례의 가족 상봉 기회를 갖게 된다. ▶관련기사 14면

정부와 대한직업자사 관계자는 26일 "이번에도 성묘나 가정방문, 동숙 등은 불가능하지만 이튿날은 사실상 하루종일 남북의 이산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게 되는 등 상봉 기회를 늘리고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omed@hani.co.kr

## 한겨레

2001. 2. 26 (월)

## 한국경제

2001. 2. 26 (월)

## 오늘 3차 이산상봉

남북한의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1백명이 26일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가족과 친척을 만난다. ▶관련기사 39면

남측에서는 장정자 대한직업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이산가족과 지인인 및 취재단 등 모두 1백51명이, 북측에서는 조선직업자회 김경락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1백40명이 북측 고려항공편으로 각각 평양과 서울에 도착해 2박3일간의 상봉일정에 들어간다.

# 오늘 3차 이산상봉

## 南北 100명씩 교환

남과 북, 각 100명으로 구성된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이 26일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해 이산 반세기 만에 꿈에도 그리던 가족과 만난다.

이를 위해 북한 김경락(金京洛)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북측 이산가족 100명은 지원인원 26명, 취재단 13명과 함께 이날 아침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오전 10시반경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대한적십자사 장정자(張貞子)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측 방문단 100명은 지원인원 30명, 취재단 20명과 함께 북측 방문단이 타고온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낮 12시경 김포공항을 출발해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어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과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각각 여장을 풀고 오찬을 한 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남측 방문단은 고려호텔에서, 북측 방문단은 서울 센트럴시티 말레니움홀에서 각각 단체 상봉의 시간을 갖는다.

이들은 27일 두 차례 더 상봉 기회를 가진 후 28일 아시아나항공편을 이용해 귀환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남측 이산가족 100명은 25일 오후 1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모여 간단한 사전 통간찰차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적의 방북 안내설명회를 들었다. 또 45세 미만의 방문자들은 북측의 요청에 따라 총역 예방주사를 맞았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世界日報

# 오늘 서울-평양서 3차 이산상봉

## 남북한 100명씩

3차 이산가족 상봉이 26일부터 2박3일간 서울과 평양에서 이뤄진다. 평양을 찾는 남측방문단은 장정자(張貞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단 20명 등 모두 151명이며 서울에 올 북측방문단은 북한 적십자회 김경락(金京洛)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26명, 취재단 13명 등 140명으로 이뤄졌다.

북측방문단은 고려항공편으로 26일 오전 10시30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짐을 풀다.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센트럴시티에서 단체상봉을 가진다. 남측방문단은 낮 12시30분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숙소인 고려호텔에 이장을 풀고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단체상봉이 이뤄진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4일 3차 이산가족 방문단인 이재환(기·서울시 서대문구 흥재동씨)의 북측 상봉 대상자인 조카가 건강상 이유로 상봉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 김평수(86·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씨)로 교체했다. 북한 적십자회도 이날 방문단중 리은주(여·74)씨가 중병을 앓고 있어 고선휴(여·67)씨로 교체했다. <관련기사 5-29면>

/윤성환기자 shyoon@sgt.co.kr



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로비 동쪽센터에서 상봉예정자인 주정순 할아버지 가족이 한친 표정으로 본인확인용 사진을 받고 있다. /원유현기자

# 오늘 서울·평양서 이산상봉

## 28일까지 사흘간

남북 이산가족 3차 방문단이 울릉도 처음으로 26일부터 사흘간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교환 방문한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인 이번 방문단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반포 센트럴시티 6층 빌레나

인홀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첫 단체상봉을 갖는다. ★관련기사 39면

방문단은 남북 이산가족 각 100명씩에 지원인원·취재단을 포함해 남측(단장 장정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151명, 북측(단장 김경락 남북적십자회 담수사대표)은 140명이다.

/김홍길기자 91anycall@sed.co.kr

# 중앙일보

# 오늘 이산 상봉

## 서울·평양 100명씩

남북한 이산가족 각 1백명이 26일부터 사흘간 서울과 평양에서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가족·친지와 상봉한다. <관계기사 5, 30면>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상봉 행사를 위해 평양에서는 한국적십자사 장정자(張貞子)부총재를 단장으로 지원인원 30명·취재단 20명을 포함한 1백51명

의 방문단이 평양으로 가고, 북측에서는 북한적십자회 김경락(金京洛)중앙위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지원인원 26명·취재단 13명 등 1백40명이 서울에 온다.

상봉 첫날인 26일에는 북측 고려항공을 이용해 상봉단이 남측을 오가며, 마지막날인 28일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투입된다.

평양에 갈 남측 이산가족 1백명은 26일 오후 1시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모여 통간 절차를 마친 뒤, 방북 안내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영중 기자

# 한겨레

# 남북 이산가족 오늘 3차 상봉

## 100명씩 3일간 서울·평양 교환방문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26일부터 3일간 서울과 평양에서 실시된다. /관련기사 25-27면

남측 평양방문단은 장정자(張貞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김만수씨(79) 등 이산가족 100명, 수행원 30명 등 151명으로 구성됐다.

북측 서울방문단은 김경락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강두수씨(68) 등 이산가족 100명, 수행원 26명 등 140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북측의 서울방문단에는 남북시인 정지용(鄭芝翥)씨의 아들 구인씨

(67)와 집단제조 연술사이자 '피바다가극단' 총장인 김수조씨(69), 공운예술가 정두명씨(67) 등이 포함돼 있다.

북측 상봉단은 이날 고려항공을 이용해 서울에 먼저 오게 되며 이어 남측 방문단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한다.

교환방문단은 체류기간 중 26일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두차례의 개별상봉, 한두차례의 공동식사, 한차례의 현상상봉과 참관 등을 하게 된다.

최재영기자

cynews@hanjerye.com





김성근기자

이제야 만나는구나...

말을 만나러 북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25일 이태순씨(84·왼쪽)가 서울 북대월드호텔에서 부인과 기쁜 표정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아버님 상봉 명단에 넣은건 가족 쉽게 찾으려는 뜻일것”  
정지용시인 ‘南·北 아들’ 오늘 만나

‘늦은 밤 동쪽 끝으로/옛이야기 지 켜내는 심계천이 외로아 나가고, 얼 북녘이 황소가/대산과 금빛 계곡은 울음을 푸는 곳, 그 곳이 캄하 풍연 날 잊힐라야’로 시작하는 한국의 대표적 서정시 ‘향수’집 지은 정지용 시인의 큰아들 구관씨(72·사진)와 셋째 아들 구인씨(67)가 26일 만난다. 그러나 북에서 오는 동생들을 만나는 형의 마음은 기쁨과 안타까움이 교차한다. 구인씨가 남쪽의 가족을 찾기 위해 보내온 명단에 아버지 이름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북한 행적이 조곤이라도 더 자세히 밝혀지기를 바랐는데 동생조차 아버지를 남쪽에서 찾고 있으나...”

정씨는 그러나 “구인씨가 아버지 이름을 명단에 넣은 것은 나를 좀더 쉽게 찾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구인씨가 북한에서 정치인의 행적일 수순문해 조금이나마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정시인이 남북한 것은 6·25 두 달여 뒤, 서울 북변동 자택에서 두분별 출하년 그가 “잠시 시대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행방불명됐다. 구인씨는 정시인이 심종되자 “아버지 집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그걸로 자신도 행방불명됐다.



北 50년 9월 사망주장 “아버지행적 더 알고파”

북한은 95년 6월 ‘통일신보’에 ‘정시인이 북으로 오면 중 경기 동두천 소요산 기슭에서 미군 비행기의 기총탄을 맞고 숨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최근 발간한 ‘조선대백과사전’ 17권에는 사망 원인·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개성적인 민요를 시인으로 8·15 이후 진보적 문화운동에 참여한 정시인이 50년 9월25일 사망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남쪽의 구관씨와 막내딸 구원씨(66)는 “평양교회사(교도소) 복격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ihawc@kyunghyang.com](mailto:ihawc@kyunghyang.com)

‘피바다 가극단장’  
南가족 뜬눈

3차이산상봉 방북단 이모저모

“격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3차라며 식상해 하지만 우리는 치욕이라 한없이 가슴이 뻘뻘합니다”

3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평양으로 가는 가족들과 북에서 오는 가족을 맞을 남쪽 친지들은 25일 밤을 뜬 눈으로 지냈다. 미국에서 온 형제들과 노모는 70세가 다 된 아들 선물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북한 집단제조 분야의 독보적 존재인 피바다 가극단 총장 김수조씨의 조카 김복겸씨(53) 가족은 김씨 집에 모여 밤새 얘기꽃을 피우며 상봉을 준비했다.

김씨는 “남시 3삼밖에 되지 않아 기억은 별로 없지만 정말 만나보고 싶다”며 “이모 할머니께서 참손이 오신다는 소식에 어린애처럼 좋아하셨다”고 전했다.

6·25 당시 원북단 김수조씨는 현재 북한 피바다 가극단 총장으로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행사 때 집단제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연출한 공로로 ‘광화국 영웅’ 칭호까지 받았다.

김씨는 “아버지까지 당시 북한으로 가 소식이 끊겼다”면서 “아버지 소식도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관혼 예술가 정두명씨(67)를 맞은 노모 김인순씨(89)와 동생 두원씨(60) 가족은 온통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미국에 가 있는 정씨의 두 형제도 이날 밤 귀국했다. 가족들은 두명씩 부부할 위해 급반지도 준비했고 조카들을 위해 시계도 샀다. 노모 김씨는 두명씨의 종하고 때 사진이 담겨 있는 앨범을 쓰다듬었다.

김씨는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 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이연봉 집을 떠나지 않다가 몇년 전에야 여의도로 이사를 왔다”며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다 천주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방북단은 이날 오후 1시 집결지인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방북교육을 받으며 설레는 마음을 달랬다.

동생들을 만나러 가는 양성철 할머니(81·사진 왼쪽)는 배웅 나온 아들 조용혁씨(45·사진 오른쪽)와 함께 앉아 여동생 2명과 남동생 1명, 시누이 2명에게 총 5개의 앨범에 사진을 차례차례 정리해 넣었다. 가족 주소와 연락처, 앨범에 정리한 사진설명 등 정리한 내용도 코팅해서 선물가방에 넣었다.

양할머니는 “이제 동생들의 얼굴도 가물거리지만 직접 만날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기쁘다”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임영주·이호승기자 [www.va@kyunghyang.com](http://www.va@kyunghyang.com)



“아버지의 최후 함께 밝혀왔으면”

■ 北동생 만나는 정지용시인 큰아들 구관씨

“아버지집 유난히 빠랐던 동생의 눈망울을 뵈세기가 흘러서야 다시 보게 됐구려...”

“향수(鄕愁)로 대표되는 정지용(鄭芝溶) 시인의 큰아들 구관(求官·74·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씨는 북한에 사는 셋째 동생 구인(求寅·60)씨와의 상봉을 하루 앞두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린다”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정구관씨가 25일 통화도중 북의 동생을 만날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도훈식기자 pedo@kcdaily.com

동생이 아버지 빠랐었는데... 살아있는 것만해도 고마워

21살과 17살이던 두 형제가 헤어진 것은 지난 50년 7월 하순. “문화과 동맹” 소속 후배 작가들을 따라 나신 부친 정시인을 수소분하기 위해 집을 나선 게 마지막이었다.

구관씨는 “어릴 때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동생은 명랑하고 해학을 좋아했던 아버지와 꼭 닮아 예술가가 될 줄 알았다”면서 “97년 중국 연변 작가연맹이 주관한 지음문학제에 참가했다가 “동생이 북에서 방송국기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

어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웠다”고 전했다.

구관씨는 “동생은 만나면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아버지의 최후 순간을 함께 밝혀보고 싶다”면서 “남북 당국도 역사 속에 갇혀진 민족시인의 최후를 밝히는 데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인동환기자 sunstory@kcdaily.com

“업고다니던 두살배기 알아볼지”

■ 피바다가극단 김수조 총장 조카 특검씨

26일 북에서 오는 ‘피바다가극단’ 김수조(金壽祖·70) 총장의 조카 김복검(金福謙·53·서울 은평구 신사동)씨는 세상 때 북으로 떠난 삼촌과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심혈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대들 나의 방송국에서 합창단을 지휘했던 김씨의 부친 수희(壽熙)씨도 김총장과 함께 월북했다. 나머지 3형제는 행방불명됐다.

삼촌 고교때 예술재능 탁월 친척들 사진모아 앨범 준비

김씨의 넷째 삼촌인 김총장은 북에서 ‘김일성상’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등 북한이 지향하는 집체 예술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김씨는 지난 세월 ‘행쟁이의 자식’이라는 오명과 함께 위직은 업두도 내지 못한 채 연회사의 촉재될 김수해야 했다.

김씨는 “아버지와 네분 삼촌 중 수조 삼촌만 살아계신 것 같다”면서 “하루종일 두살배기 조커를 업고 다니며 귀여워하셨는데 알아보지



김복검씨가 25일 삼촌과의 상봉을 앞두고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최병규기자 cbk91065@kcdaily.com

모르겠다”는 말로 그리움을 대신했다. 김씨는 “전말 당시 경북고에 재학했던 삼촌은 음악, 발레에 심취하는 등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삼촌에게 전하려고 최근 친척들의 사진을 골고루 모아 50여 장짜리 앨범을 만들었다.

●박희삼기자 youngtan@kcdaily.com

기쁨·슬픔 뒤엎켜 밤새 뜯는

■ 3차 이산상봉 앞둔 표정

50년 세월을 기다려온 북녘 피붙이들을 만나러 평양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모인 100명의 방북단은 오랜 세월 쌓인 그리움의 빛깔이 다르듯 ‘희망’의 표정도 달랐다.

방북 100명 잠실롯데호텔에

북녘의 어머니와 아내, 아들들 만나러 간다는 이우성(76·경기 파주시)씨는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라며 침심회를 찾았다. “늙은이가 주책맞게 얼마나 울었는지...” 집집시간보다 30분 일찍 롯데월드호텔에 달은 이씨는 설렘으로 웃다가 초조함으로 울기도 하면서, 감정의 감곡잡 잡지 못했다.

북녘 아내 김복여(79)씨와 아들 딸 4명을 만날 이재배(84·서울 강남구 도곡동)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냥 빨리 가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씨의 남편 큰아들 이창준(47)씨는 “아버지가 흥분해서서 되레 건강이 나빠졌다”

며 걱정했다.

“구급에 동동 떠가는 기본이야.” 결혼 2년 만에 자식도 없이 헤어진 북녘 아내를 만나는 A(73)씨는 빙그레 먼 미소조차 거두지 못했다. A씨는 양복 안주머니에 실려 췌편 금반지집 보여주며 “북쪽 아내 주려고 남쪽 아내 팔래 가져왔다”며 “살아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함박 웃음을 지었다.

방북단은 오후 2시30분께 호텔 3층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방북 안내설명회’를 듣고 저녁 8시께 식사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다.

정지용시인 두 아들 상봉채비

한편 방북단을 기다리는 남녘 가족들도 설렘에 더딘 하루를 보냈다. 정지용 시인의 큰아들 정구관(73·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씨는 동생 구인씨를 기다리며 “아버지를 찾아 17살 때 떠난 동생이 환관이 훌쩍 넘어 다시 아버지집 찾아 남쪽으로 온다니 슬픔과 기쁨이 엉켜 잠마저 달아났다”고 말했다.

김아리 기자 eri@hani.co.kr

한국경제

잠 못 이루는 ‘父情’

남측 최고령 전회련씨

“아이들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하고 평생을 바꿨어. 이제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며칠째 잠이 안오는구먼”

남측 이산가족 방북단 중 최고령자인 전회련(91·서울 중랑구 퇴계동·시진) 할아버지는 50년만에 큰아들 재원(64)씨 등 북에 두고 온 4남매를 만날 생각에 언일 밤잠을 삼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평북 정주가 고향인 전씨는 지난 51년 1·4 후퇴 당시 아내 김순희(시망)씨와 재원씨 등 7남매를 남겨두고 서울로 급히 피란했다. 인민군 전용을 피하기 위해

홀로 남쪽으로 왔던 전씨는 그때가 생이념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전씨는 “당시 10세 안팎이던 7남매의 유망졸만한 모습이 평생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면서 “만난다고 하니 기쁘면서도 그 어린 것들이 벌써 셋이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을 잊지 못했다.

전씨는 “얼마 안되는 재산이라도 다 털어 북의 자식들에게 주며 사회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정부가 신문을 재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털어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 “이산 51년보다 하루가 더 긴 느낌”

訪北 상봉단 이모저모

“51년을 헤쳐는 그리움속에 기대어있던 하루가 이렇게 긴 줄을 예전에 비해 느끼지 못했어요.”

민애기 침도와 소식조차 모른 채 헤어져 살아온 피망이와의 만남을 앞둔 이산가족들은 25일 기대와 설렘속에 떠난 시간의 흐름을 모래시계 상봉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관악으로 떠나는 100명의 방북 이산가족들은 산기슭 표방속에 이날 추후 집결지인 서울 잠실 롯데

‘선물꾸러미 풀었다 묶었다’ 확인

“눈 많이 내려 못가나” 괜한 걱정도

워트호텔로 모여 한적으로부터 방북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미리 미 탈러화로 완장을 하고 혹시 빠진 게 없나 선물꾸러미를 다시 살펴보는가 하면 상봉을 앞둔 함육들의 어린시절 및 고향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등 마음은 상봉장에 가 있었다.

북에 생존해 있는 아내 김복여(79)씨와 네명의 아들 딸을 만나게 된 이재배(82·서울 강남구도곡

동씨는 “23일 눈이 많이 내려 혹시 북쪽에 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다”면서 “빨리 가족을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의 여동생 위순(72)씨를 만나게 된 손성권(79·서울송파구산천동)씨는 “50여년간 헤어졌던 여동생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임우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며 “3차 방북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한시도

동생 생각이 머리속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향인 경북 용암포에 아직도 살고 있는 동생 셋과 만날 장재국(82·대구시남구대명동)씨는 “아직도 민애기 믿어지지 않는다”며 헤어짐이 잘못돼 상봉이 무산되는 게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했다. 노환으로 다리가 불편한 장씨는 “적십자사에서 잠깐 걸어주겠지만 견디지 못한 몸으로 고향까지 가는 길이 무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동생들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천중·이정은기자  
skylce@sgt.co.kr

## 중앙일보

# “정지용 50년 9월 사망”

최근 발간 北조선대백과  
장소·사망원인은 안밝혀  
셋째 아들 南서 형 상봉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행방불명돼 그동안 생사가 알려지지 않았던 ‘민족시인’ 정지용(鄭芝溶)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밝힌 북한측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鄭시인은 1902년생으로 내면이면 탄생 1백주년이 된다.

북한이 최근 발간한 『조선대백과사전』 17권에는 ‘개성적인 민요풍의 시인으로 8·15 이후 진보적 문화운동을 펼쳐온 鄭시인이 50년 9월 25일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 사진은 그러나 鄭시인의 사망원인·장소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鄭시인은 50년 7월 경기도 고양군 녹번리(현 서울 녹번동) 지역에서 후배·제자 문인들과 함께 집을 나간 뒤 실종돼 사망과 관련된 갖가지 추측과 소문이 돌았었다.

이와 관련, 북한에 살고 있는 鄭시인의 셋째 아들 구인(求眞·68)씨는 95년 6월 북한 ‘통일선보’에 “아버지가 북으로 오던 중 경기도 동두천 소요산 기슭에서 미군 비행기의 기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인씨는 3차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으로 26일 서울을 찾아 남한의 형과 여동생을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남쪽에 거주해온 큰아들 구관(求寬·73)·막내딸 구원(求苑·66)씨는 그동안 鄭시인이 평양교회소(교도소) 목격으로 시간했다고 믿어 왔다.

4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김관순(90년 사망)씨가 50년 12월 펴낸 회고록에서 “鄭시인이 우의협동 혐의로 50년



북한 통일선보 1995년 6월 17일자에 실린 북측 삼남 구인씨(○)의 환갑 사진. 사진 밑에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환갑상을 받은 장구인과 가족들’이란 설명이 있다.



故 정지용 시인

제 믿어온 것이다.  
柱씨는 그에 9월 23일 유언군의 폭

7월 북한군에 의해 서대문형무소로 수감됐으며 이후 평양교회소로 이감돼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와 같은 감방을 썼다”고 해 남측 가족들은 그럴

격 때 자신은 평양감옥을 탈출했지만 鄭시인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평론가 김양수(68)씨 등은 “鄭씨가 미군 포로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미군에 의해 일본 오키나와에서 총살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구관씨는 25일 “동생이 아버지께 대한 모든 의문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식 기자  
<jipol@joongang.co.kr>



북한에 살고 있는 동생을 만나러 가는 이산가족 양성정(78·여)씨의 아들 조중혁씨(○) 등 가족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줄 달러를 봉투에 넣고 있다. 변선주 기자

### 상봉 좌절된 이산가족들

## “北 아들 이미 사망” 南 어머니 쓰러져

“5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말입니다.”

3차 이산가족상봉 방북단에 선정돼 큰아들 이송영(53)씨를 만날 꿈에 부풀었던 이재원(71·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씨는 엄청난 심박감을 느끼고 있다. 누씨는 당초 방북단에

선정되지 못했으나 방북을 포기한 신청자들이 생겨 지난 22일 명단에 오르는 행운을 잡았다. 하지만 북측이 “아들이 아파 상봉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북단에서 제외할 것을 통보해 왔다.

특히 큰아들이 누씨를 삼촌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를 더욱 민감하게 하고 있다.

누씨 부부는 1951년 당시 내란배기였던 송윤씨를 부모·형에게 맡겨놓고 두삼째가 둘째 아들 송길(51)씨만 데리고 왔었다. 누씨는 할기미나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 큰아들을 놔두고 월남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

16년째 중풍을 앓아 왼쪽 몸을 쓸 수 없는 부인 민정업(73)씨는 상봉 좌절 소식에 충격

을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대신 이들은 25일 남북 서신교환 대상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누씨는 “편지만 교환하면 뭐한니까, 아들을 만나고 나서 죽을 겁니다”라며 한 맺힌 가슴을 풀어내었다.

또 북측 조카 정진복(67)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방북단에 포함됐던 김신옥(93·여·강원도 춘천시)씨 역시 떠난데 방북이 취소됐다. 당초 만나기를 기대했던 큰아들 정진영(71)씨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기 때문이다.

술씨는 일곱 자녀 중 함께 월남한 막내아들 진웅(58)씨와 실종됐던 큰아들을 제외한 5명을 모두 전쟁 때 잃었다. 이경희 기자

<dunglc@joongang.co.kr>

열일곱 내 아우 꿈엔들 잊힐리야...

# “우리 밤새워 크게 울어보세”

정지용시인 아들 구관씨 오늘 北동생 상봉

## 재회 설레임에 어제밤 하얗게 2차방문때 탈락 실망 말끔히

“넓은 법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층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26일 서울 반포 센트럴시티에서 이뤄지는 제3차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정지용 시인의 아들 구관(73·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씨는 며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헤어질 당시 동생 구인(67)씨의 해맑은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설렜기 때문이다.

‘열일곱살 소년이 이젠 일흔이 다 됐는데 얼마나 늙었는지...’ ‘그 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다 새벽을 맞았다.

구관씨는 6·25때 “행방불명 된 아버지를 찾으러간다”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당시 미처 피란을 못한 정지용 시인은 교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 녹번동(옛 경기도 녹번리) 저택에서 두둔불출하며 글읽기로 소일하던 중 “시내에 갔다오겠다”며 나간 뒤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남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친이 ‘월북시인’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구관씨는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한때 광부생활을 하는 등 어렵게 살아왔다. 이 때문에 그는 지난 88년 선친의 작품이 해금되기 전에는 자식들은 물론 부인(송연아·66)에게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숨겨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제2차 이산가족 상봉 때 북측 후보자 명단에 동생 구인씨가 포함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 놀랐었다.

98년 중국 연변에서 ‘지용제’를 열었을 때 그곳 문인들에게서 ‘정지용 시인의 아들 구관씨가 북한에 살아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 이상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지냈었다.

서울에 사는 여동생 구원(66)씨와 함께 선친의 사진과 시 ‘항수’를 노래로 만든 테이프를 준비하고 형제상봉의 날을 손꼽으며 지냈지만 아쉽게도 구관씨는 2차 방문단의 최종 명단에서는 빠져 있었다. 그 때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



구관씨가 51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해맑았던 동생의 모습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 /최홍수기자

었다. 다행히 이번 3차 북측 이산가족 상봉 단 최종명단에는 동생의 이름이 포함돼 이날 센트럴시티 메리어트호텔에서 꿈에 그리던 형제상봉의 감격을 누리게 됐다.

구관씨는 “구인이가 이번에 상봉대상 남측가족 명단에 아버지의 이름을 넣은 것은 ‘정지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나를 찾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는 “구인이는 아버지의 예술적인 재능을 물려받은 탓인지 피아노를 잘 쳐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었다”고 회상했다.

구관씨는 동생에게 줄 선물과 관련 “생각 같아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만 될 원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고심을 했다”며 “아버지 관련 사진과 책, ‘항수’를 노래로 만든 테이프는 기본적으로 준비했고 여기에 양복갑 한벌과 신발 등 생필품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인이를 끌어안고 마음껏 울어보고 싶다”는 구관씨의 마음은 반백년 만에 만난 동생의 손을 잡고 선친이 노래했던 대로 실개천이 흐르는 고창(충북 옥천)의 들녘으로 벌써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 朝鮮日報

2001. 2. 26 (월)

# “4살꼬마가 이제 57살... 알아볼수 있을는지”

## 이산상봉단 訪北전야 표정

3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전날인 25일, 남측 방북단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 투숙해 방북절차를 밟은 뒤 흥분과 설렘의 하룻밤을 보냈다.

최고령자인 전희연(91)씨를 포함, 100명의 방북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호텔에 도착했다. 고향입에 중풍증세를 보이는 이후성(84) 할아버지는 손녀들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수속을 밟았다. 이 할아버지는 “어머니와 둘째아들(56)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

아들과 딸 2명을 만나러 간다는 김병순(79) 할아버지는 북에 두고 온 부인

(사망)의 사진을 내보이며 “평생 간직하며 새 장가를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1·4후퇴 때 헤어진 둘째아들을 만나러 가는 손사정(90) 할아버지는 차매증세로 말을 제대로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만이들 응복(60)씨는 “3년전부터 치매를 앓던 아버지 대신 내가 갈까도 했지만 평소 아버님께서 둘째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셨다”고 했다. 6·25 당시 학도병으로 낙동강전선에 참전했던 이병송(74) 할아버지는 두 남동생을 만난 예정이지만 “익혼녀와 그 뱃속에 있던 아이는 생사확인 불가능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애중해했다. 47년 원남하면서 북에 두고 온 만이들(57)을 만나러 간다는 정사옥(76) 할머니는 “4살짜리 꼬마가 57세 노

인이 됐더니 알아볼 수 있을는지 걱정”이라고 했다.

방북단들은 오후 2시30분부터 ▲건강에 유의할 것 ▲북한에서의 일정 ▲호텔 이용방법 등 방북지교육을 받았다.

## 무료로 보청기 지급받기도

교육장 앞에서는 한 보청기 업체가 시가 20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무료로 나눠줘 10명이 이를 받아가기도 했다. 방북단은 오후 6시30분부터 상경레일 견한 만남을 가진 뒤 오후 8시부터 2인1실로 배정된 방에 들어가 오지 않는 잠을 청했다.

／崔宰赫기자 jchoi@chosun.com /송영기기자 roadrunner@chosun.com



◇北에 갈 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26일 평양으로 떠나는 남측 방북단의 짐을 호텔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다. /崔宰赫기자 jchoi@chosun.com

이번 방문단 교향의 특징은 이벤트성 행사를 줄인 대신 가족들 상봉시간을 늘리는 등 내실화했다는 점이다.

먼저 서울 방문단에 내실화의 해답이 돌아왔다.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평양을 오갈 3차 이산가족 방문단의 체류일정은 남북한이 서로 다르다.

서울에 올 북측 방문단은 첫날 단체상봉, 이튿날 두차례 개별상봉과 공동중식·석식, 송별상봉 등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10시간10분 정도 가족들과 만난다.

이에 반해 평양에 올라갈 남측 방문단은 이튿날 공동중식이 없

### 이벤트 줄여 10시간10분 6차례 만나

고 단체상봉과 개별상봉도 각각 30분씩 짧아 다섯차례에 걸쳐 8시간10분 정도만 만날 수 있다. <입장표 참조>

정부 당국자는 "당초 이튿날 중식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서로 편한 대로 하자고 답을 해와 '우리라도 상봉시간을 늘려주자'고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숙소는 2차 때와 같이 잠실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로 잡혔고, 서울의 집단체상봉 장소는 서초동 센트럴시티 매표니업 홀로 결정됐다.

남북한은 이벤트를 포함해 세차례의 방문단 교향으로 모두 6천여명이 생사·주소를 확인하고, 3천4백여명이 상봉을 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이영중 기자 <yilee@joongang.co.kr>

시간	서울	평양
10:30		북측 방문단 서울 도착
26일	12:30	남측 방문단 평양도착
	15:30-18:00	단체상봉 (센트럴시티 매표니업홀)
		단체상봉 (고려호텔)
27일	10:00-12:00	개별상봉(숙소)
	12:00	공동중식
	13:00	개별상봉(숙소)
	15:30	개별상봉(숙소)
	16:20-18:30	송별상봉(중앙극장)
28일	07:00-08:10	가족별 분홍상봉 (롯데월드호텔 주차장)
	10:00-11:00	북측 방문단 평양 도착
	10:50-11:30	가족별 분홍상봉 (고려호텔)
	12:30-13:30	남측 방문단 서울 도착



남측방문단 訪北교육 26일 평양으로 떠나는 3차 이산가족 남측 방문단이 2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방북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이종렬기자

## 이벤트행사 최대 억제 가족과 많은 시간 배려

### 3차 남북이산 상봉 어떻게

3차 이산가족 교향방문은 이벤트성 행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실질적인 상봉 위주로 짜여져 있다.

서울에 오는 북측방문단은 첫날 단체상봉, 이튿날 두차례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및 석식, 송별 상봉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0시간 정도 가족과 만난다. 반면 평양에 올라가는 남

측은 공동중식을 제외하고 가족을 만난다. 오랜만의 가족 상봉으로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참관도 준비된다. 서울에서는 창덕궁이 예정돼 있고 평양에서는 평양교예극장에서 북측의 자란거리인 교예 공연을 관람한다. 당초 남측은 참관행사를 생략하고 개별상봉 시간을 더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방문 셋째날 양측 방문단은 숙소에서 서울과 평양으로 떠나기 앞서 가족과 헤어짐을 달래기 위한 30분 정도의

### 北 6차례 10시간 南 5차례 8시간

### "참관 행사 줄이자" 제의 北거부

측방문단은 이튿날 공동중식이 없고 단체상봉과 개별상봉 각각 30분씩 짧아 5차례에 걸쳐 8시간 정도 가족과 함께 한다.

방문 첫날인 26일 평양 고려호텔과 서울 롯데월드호텔에 여장을 풀 양측방문단은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평양의 고려호텔과 서울 센트럴시티 매표니업홀에서 단체상봉으로 가족과 첫 대면을 한다. 이어 오후 6시30분부터 양측의 집합 식사 총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 뒤 일정을 마친다.

방문 둘째날 서울에서는 2차례 개별상봉과 공동 중식 및 석식 등 4차례에 걸쳐, 평양에

의 송별 상봉이 진행된다. 선출규정은 부모에겐 송갑 한발, 형제자매에겐 가마은 선물은 한 수 있고 현금은 500달러 이하라는 2차 상봉때 규정 그대로다. 그러나 이번 방문단 선장과진에서 남북 각 2명의 후보자가 방문단에 포함되기도 상봉을 거부했다. 상봉 대상자가 원래 찾고자 했던 가족이 아니거나 밤 때문에 거동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는 부모형제와 처자식 등 직계가족이 생존해 있을 때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함을 의미한다. /윤상환·박호근기자 shyoon@sgt.co.kr



서울 일정		평양 일정	
10:30	김포도착(고려호텔)	12:30	순애병원도착
2/26 (월)	12:00-14:30 : 오전도착 및 식사	2/26 (월)	13:30 : 고려호텔 도착 및 중식
15:30-18:00	단체상봉(센트럴시티)	16:00-18:00	단체상봉
18:30	평양이산가족상봉회 주최	19:00	평양이산가족회 주최
10:00	개별상봉(숙소)	10:00	개별상봉(숙소)
12:00	가족중식 중식	12:00-14:00	중식
2/27 (화)	13:30-15:30 : 개별상봉(숙소)	2/27 (화)	14:30-16:00 : 개별상봉(숙소)
16:20	함관(전서경)	17:00	교예공연 관람
19:00	가족들의 석식 (롯데월드호텔 고려호텔주차장)	19:30	가족들의 석식(고려호텔)
2/28 (수)	10:00 : 리포유방(아시아나 항공)	2/28 (수)	12:30 : 평양도착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양성정씨가 아들 조용희씨와 함께 평양서 만남 친지들에게 전해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원유현기자

# 6차례 10~12시간 만나

■ 오늘부터 3차 이산상봉  
지원단 포함 140명씩  
韓赤, 총재회담 제의키로

세번째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이 26일 서울과 평양을 상호 방문해 2박3일간 반세기동안 헤어졌던 혈육들과 만난다.

단장인 김경락(金京落) 북측 중앙위 상무위원과 지원인원 26명, 취재진 13명, 북측 이산가족 100명 등 140명의 북측 방문단을 태운 고려항공 특별기가 26일 오전 10시3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남측 단장인 장정자(張貞子) 한적 부총재와 남측 이산가족 100명 등 남측방문단은 이 특별기를 이용해 곧바로 평양 순안공항으로 출발한다.

상봉 일정 북녘에서 온 가족들은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2회, 동석(同席) 식사 2회, 환송 상봉 1회 등 모두 6차례의 만남을 갖는다. 시간으로 보면 대략 10~12시간이다. 하지만 평양에서는 가족 동반 오찬(27일)이 성사되지 못해 상봉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 방문단의

서울	3차 이산가족 방문단 일정	평양
10:30 북측방문단 김포 도착		12:30 남측 방문단 순안공항 도착
12:00 롯데월드호텔 도착·오찬		13:30 고려호텔 도착·오찬
15:30 단체상봉(롯데월드)		16:00 단체상봉(고려호텔)
18:30 환영만찬(한적총재 주최)		19:00 환영만찬(북측중앙위장 주최)
10:00 개별상봉(롯데월드호텔)		10:00 개별상봉(고려호텔)
12:00 가족동석 오찬		12:00 오찬
13:30 개별상봉(롯데월드호텔)		14:30 개별상봉
16:20 청덕궁 관광		17:00 교예 공연관람
19:00 가족동석 만찬		19:30 가족동석 만찬
07:00 환송 상봉		09:00 환송상봉
10:00 북측방문단 서울 출발		12:30 남측상봉단 순안공항 출발

숙소, 상봉장 등은 2차 때와 동일하다. 교통편은 고려항공이 26일 남북 이산가족을 서울과 평양으로 실어나르고, 상봉일정이 끝나는 28일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하게 된다. 한편 서영훈(徐英勳) 한적 총재는 서울에 올 김경락 북측 단장에게 향후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설치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남북 적십자 총재 회담을 제의할 계획이다.

이산가족 주요 변면 대부분 2차 상봉단 후보였던 북측 이산가족 중 눈에 띄는 인사는 '향수(乡愁)'의 작가 정지용(鄭芝溶) 시인의 아들 구인(求寅·67)씨로 서울에서 형

구관(求寬·73)씨를 상봉한다. 또 집단체조 연출의 대가 김수조(69·피바다 가극단 총장)씨는 장조카 김복겸(金福謙·52)씨를, 작곡가 정두명(67·공훈 예술가)씨는 동생 두환(62), 두호(55)씨를 만난다. 남측 방문단에는 유일하게 어머니(강오옥·93)를 만날 이후성(76)씨와 부인을 상봉할 최고령자 이제배(94)씨 등이 포함됐다. 상봉 전날 표정 26일 평양으로 향할 남측 이산가족 100명은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모여 설레는 밤을 함께 보냈다.

/이영섭기자 youngle@hk.co.kr

# 서울-평양 '봄눈녹인 눈물재회'

## 남북 이산가족 200명 3차상봉

남북의 이산가족이 26일 오후 서울과 평양에서 꿈에도 그리던 협육과 만났다.

북측의 서울 방문단 이산가족 100명은 이날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서울에 도착, 숙소인 서울 갑실롯데월드호텔에 여장을 풀고 집식식사를 한 뒤 오후에는 반포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남측 가족들과 단체상봉을 가졌다. <관련기사 3·23면>

충남 출신 정종득씨(70)는 남측의 아버지 정무희씨(87)를 만나 서울과 평양의 이번 방문단 가운데 유일하게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또 귀주악으로 북한에서 공훈예술가 칭호를 얻은 장두명씨(67)는 어머니 김인순씨(89)와 동생 장부환씨

(62)를, 집단체조 연출로 피바다가극단 총장이 된 김수조씨(69)는 조카 김복걸씨(52)를 만났다.

충북 출생의 김두식씨(70)는 재남 가족 가운데 최고령인 어머니 허계씨(92), 삼촌 태길씨(80), 동생 안식씨(66) 등과 재회했다.

남측 방문단 장정자 단장은 서울 출발 인사말에서 "협육에 대한 애뜻한 정과 남북간 평화와 화해협력의 열망은 7000만 거래의 꿈을 안고 북녘의 형제자매를 만나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전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장단장은 이어 "오늘의 방문이 남북 이산가족간 생사·주소 확인, 자유로운 서신교환과 상봉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되게 하

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북측 고려항공편으로 이날 낮 평양에 도착한 남측 방문단의 최고령자인 이재배씨(94)는 남측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에 두고 온 아내 김복여씨(79)와 아들 참환씨(63), 딸 명실(56) 순옥(53)씨를 만났다.

또 북측의 조카가 간감상 이유로 만날 수 없는 이재배씨(71·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대신 교체된 김명수씨(86·남·서울 중랑구 면목동)는 평양에서 사촌 김덕수씨(58)와 상봉했다.

이날 장정자 단장과 북측 방문단 김경라 단장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장애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과 서연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방문, 단담을 나누고 이산가족 인정의 상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문화일보

2001. 2. 26 (월)

## 내외경제

2001. 2. 26 (월)

## 남북 이산가족 3차상봉

오늘 100명씩 서울·평양 교환 방문

남북한 양측에서 각각 100명으로 구성된 제3차 이산가족교환방문단이 26일 서울과 평양을 방문, 헤어졌던 협육을 50여년 만에 2박3일 동안 상봉한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로 치러지는 교환방문 행사에 서울을 방문한 북측방문단(단장 김경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상무위원) 140명은 고려항공 특별기 편으로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며 장정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측방문단 151명은 이비행기로 11시께 평양을 향해 이날 낮 12시쯤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관련기사 27면

방문단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센트럴시티와 평양 고려호텔에서 단체 상봉 및 환영만찬에 참석, 재회한다.

박준환 기자/p120u@ned.co.kr

## 남북 3차 이산상봉

100명씩 오늘부터 서울-평양에

남북 이산가족 각 100명이 26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반세기만에 가족·친지들과 상봉한다.

<관련기사 3·30·31면>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상봉행사를 위해 북측 조선중앙적십자회 김경라중앙위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지원인력 26명, 취재단 13명 등 141명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 상봉일정을 시작했다. 또 대한적십자사 장정자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남측방문단 151명(지원인력 30명, 취재단 20명)도 북측이 타고온 고려항공편으로 낮 12시30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서울에 도착한 북측 방문단에는 취주악으로 공훈예술가에 오른 정두명(67)씨와 집단체조(메스게임) 연출로 피바다가극단 총장이 된 김수조(69)씨 등이 포함됐다. <평양=공동취재단, 서의동·김석기자>

# “눈이 쌓여 처자식 못만날까 잠 못 잤다”

제3차 이산가족 남북 교환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찾은 26일, 반세기 동안 그리던 가족을 만난 이들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마구 쏟아냈다.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났을까, 그제야 서로 세월에 썩인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다른 험곡의 안부쯤 물었다. 며칠동안 참고 흐리던 눈물은 포근하고 맑게 개어 서울과 평양을 감았다.

○…오후 늦게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와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양측 방문단과 가족들의 집단상봉은 너무 짧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51년을 애타는 그리움 속에 기다려온 이들은 하루를 길고도 길게 보내려고 힘을 다했다.

서울의 가족을 만난 북한 방문단원들의 가슴은 갑작과 안타까움에 울렁거렸다. 굵던 얼굴은 주름살로 뒤덮였고 그 주름살은 기다림 때문에 더욱 깊이 패었지만 이들은 험곡을 보지마자 서로 첫 눈에 알아보고 손을 부여잡았다.

취주악으로 북한 공훈예술가에게 오른 정두명씨(67)는 남한에 사는 동생 두환씨(62)를 만나자 “이제 대체 얼마만이냐”며 말을 잊지 못했다. 피바다가극단 총단장 김수조씨(69)는 조카 북겸씨(52)를 만나 다른 가족의 안부를 물었다. 김지용 시인의 아들 구인씨(67)는 형 구관씨(73)를 만나자 “아버지가 남한에 살아가실지 몰랐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구관씨는 “너를 만나는 생각에 새벽 4시에나 잠이 들었다”며 손을 놓을 줄 몰랐다.

북의 아내 김복여씨(79)와 네명의 아들딸을 만난 남측 방문단 최고령자 이제배씨(82)는 “며칠동안 많이 내린 눈 때문에 오지 못할까 걱정 심초사했다”면서 정성스럽게 포장한 양말과 내의, 비상악이 든 선물꾸러미를 가족에게 전하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역시 북한에 사는 여동생을 만난 손성근씨(79)는 “지난 일주일동안

## 3차 이산가족 서울·평양 상봉 안팎

### 南최고령 이제배씨 北아내·아들딸 만나 北공훈예술가 “동생아 이제 얼마만이냐”

너를 만날 기쁨에 설레어 하루 한 두시간씩밖에 지지 못했다”며 여동생의 얼굴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동생 세명을 고려호텔에서 상봉한 장세국씨(82)는 “이것도 우리가 만났던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동생들의 손을 한꺼번에 잡고 놓지 않았다. 노환으로 다리가 불편한 장씨는 “이른 봄이 자주 짐신을 흐리게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보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통곡했다.

○…김경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사무위원을 단장으로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26명, 취재단 13명 등 140명으로 이뤄진 북측 방문단은 오전 9시30분 고려항공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을 떠나 오전 10시3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장경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우리측 방문단 150명도 북측이 타고온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낮 12시쯤 김포공항을 출발, 평

양에 들어갔다.

서울과 평양에 도착한 이산가족들은 롯데월드호텔과 고려호텔에 집을 뚫은 뒤 점심을 먹고 곧바로 단체상봉 행사에 참석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서울에서는 서영훈 한적 총재가, 평양에서는 장재인 북적 위원장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이산가족 교환방문 행사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프레스센터가 잠실 롯데월드호텔 지하 1층 사이에 현충에 설치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정홍보처에 취재신청 등록을 마친 취재진은 내신 63개사 766명, 외신 6개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베트남) 35개사 146명 등 모두 98개사 912명이었다.

사회부 정치부



“잘 다녀올게요”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25일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방북자 확인 절차를 마친 우리측 조현수씨(가운데)가 부인과 가족의 축하인사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한**





제3차 남북이산가족상봉 남북 방문단들이 26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버스에 올라 배웅 나온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김구철기자>

## 상봉횟수 6차례 11시간으로 늘려

### 3차 이산상봉 표정

26일부터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북양측이 지난해 8월과 11월 두차례의 상봉행사를 통해 경험을 쌓은데다 북측이 윤초부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적극성을 보여 어느때보다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에 이뤄진 2차 상봉때에 비하면 이번 행사는 준비단계부터 북측이 성의있는 태도로 임해 준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면서 "어느때보다 차분하고 내실있는 상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적 관계자는 "북측이 윤초부터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 추운 평양날씨에 대비 난방끄고 자는 연습

예고한데다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에도 전례없는 태도로 성의를 보였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측이 이번 상봉준비과정에서 남측에 먼저 상봉기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100명과 한적 장정 자부총재(단장), 최병보통일교육원장 등 남북방문단은 이날 오전 9시 양영식통일부차관, 홍양호통일부 인도지원국장 등 정부관계자와 한적 이병웅총재특보 등의 전송을 받으며 서울 잠실롯데월드호텔을 출발했다.

장부총재는 출발에 앞서 "평양이 날씨가 춥다고 해 난방을 끄고 자는 연습을 했다"며 "이산가족들이 다들 연세가 많아 우려했으나 어제 교육시간에 만나보니 다들 건강해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이병웅한적총재특보는 이날

잠실 롯데월드호텔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2차례는 상봉횟수와 시간이 5차례 8시간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6차례 10-11시간으로 늘어나 내실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특보는 "남측에서 올라가는 이산가족 중 휠체어 이용자 4명에 대해 북측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적은 건강상의 이유로 방북을 포기한 이재필(71)씨와 김신옥(여·94)씨 대신 김명수(86)씨와 우종련(여·71)씨를 새로 방문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북측 방문단이 머무는 잠실 롯데월드호텔 3층에 25일 정부합동지원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경비인력들을 배치했다.

<서의동·김석기자>

# “하늘도 기다림 아는듯 쾌청”

## 남북이산상봉단 표정

‘엷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사철 밭 벗은 안해...’

반세기 차마 꿈엔들 잊지 못했던 혈육의 옛 모습들. 26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하룻밤을 지낸 남측 이산가족 방북단은 아침 일찍부터 상기된 표정으로 출발 준비를 서둘렀다.

●...남측 이산가족 100명을 포함한 방북단 151명은 이날 대한적십자국이 마련한 버스 14대에 나눠타고 잠실 롯데월드 호텔을 떠났다. 공항 출발에 앞서 방북단은 배웅나온 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들이 준비한 선물은 내복 등 의류가 주를 이뤘으며 이불, 금반지, 시계 등을 준비한 가족이 많았다.

### жат족·쇠고기국으로 아침

상봉을 앞두고 복사뼈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오른 윤채금(69)씨는 “막내동생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는 날부터 하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며 벌써 눈물을 글썽였다. 공항에 도착한 남측 방북단은 북의 이산가족 방남단이 타고 온 고려항공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으로 출발했다. 가족들은 순안공항의 날씨가 좋다는 소식에 “하늘도 우리 기다림을 아는 듯하다”며 반겼다.

●...방북단 가족들은 설렘으로 잠을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식사를 서둘렀다. 일부 가족들은 아예 식사를 거른 채



건강하게... 남북이산가족교환방문 남측 방문단이 26일 오전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공항으로 떠나는 버스에 오를때 배웅나온 가족이 할머니를 환송하는 문구를 종이에 써서 들고 있다. <김구철기자>

호텔방에서 혹시 선물하나 빠지지 않았나 재차 점검하는 모습이였다. 이날 호텔측은 노령에다 긴장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 메뉴로 맛죽, 쇠고기무국 등 부담이 적은 한정식을 준비했다. 북의 누나 원정렬(80)씨를 만나러 가는 원수복(79)씨는 평양에 살던 당시 식물원을 운영했던 식물연구가. 원씨는 가족들 안부와 함께 “당시 식물원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 고령자 많아 건강에 신경

●...방북자 대부분이 70세 이상

의 고령인 때문에 적십자측은 밤새 상황실을 운영하며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였다

담당의인 적십자병원 내과 과장 서상렬(50)씨는 “노령자들의 건강을 밤새 객실을 오가며 체크했으나 큰 이상을 보인 이는 없다”며 “현 상태로는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상봉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방북단은 25일 오전 11시부터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 속속 도착, 방북교육을 받았다.

<박선호·고민구·김연근·이영희기자>

3차상봉 두여인의 망부가

50년 수절하며 기다렸는데...

“몰라보면 어찌나”

충북 연일순 할머니

나 죽으면 다른 데로 시집갈 거지?”

50년전 남편이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마음 속을 떠나지 않아 평생 수절하게 됐다는 연일순(71·충북 괴산) 씨. 칩순을 남기면서까지도 무던하게 살아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막상 26일 북에서 내려온 남편 권창직(72)씨에게 금가락지를 전달하는 연씨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기만 하다. 반세기의 그리움과 아삭함이 가득 배어 있는 금가락지 한쌍. 결혼 당시 변변한 예물하나 교환하지

금가락지 한쌍 선물 준비

못한 게 한이 돼 이번 재회의 선물로 연씨가 준비한 것이다.

임교부부로 소문났던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은 권씨가 전전 직후 마을 소방대회의에 갔다온다며 집을 나간 뒤였다. 영영 소식이 없자 주위에서는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연씨는 분명 살아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에 그동안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긴 세월동안 남편의 체취를 느끼다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괴산의 작은 집을 떠나지 않았던 연씨. 남편에게 이들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연씨의 눈에는 눈물이 주룩 흘렀다.

“아버님은 행방불명된 아들, 당신을 찾으며 시름시름 앓다가 전전 다 음해에 세상을 떠났지요. 어머니도 18년전 눈을 감으시기 전까지 당신 이름만 불렀어요.” 외동딸 권명옥(53·서울 구의동)씨가 고통학교를 할



연일순(왼쪽)씨가 남편의 옛날 사진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정세기자>

딸 언좌제 고통 가슴아파

업한 후 언좌제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번번이 낙방한 것도 연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딸 명옥씨가 “제발 호직에서 아버지 이름을 지우자”고 설득했지만 연씨는 “돌이거신 것을 확인도 못했는데 무슨 말이나”며 딸의 요청을 일축했다.

막연한 기대가 현실화한 이날 상봉의 그 순간까지 연씨는 “남편이 나 젊었을 적 모습만 기억하고 있어 몰라보면 어떻게 하느냐”며 수줍은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김상훈기자>

미운사람 매일 기도했는데...

“병석에서 맞다니”

서울 이인규 할머니

없어진 이씨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숨쉬는 것조차 버겁다. 목에 가래맺는 코드를 끼고 머느리의 병간호를 받은 지 벌써 6개월째. 50년 만에 돌아온 남편도 밭지만 병든 초라한 모습을 보여줘야하는 자신도 원망스럽다.

인천에서 농사일을 지던 남편 박창서(80)씨가 50년 8월 집을 나갔다 돌아오지 않은 게 50년의 생이별이 돼버렸다. 당시 남편은 동네최초로 ‘종이하우스’를 만들고 채소를 심었던 유능한 농사꾼이었다.

삼바느질 두아들 키워

삼바느질, 식당일 등 온갖 곳은 일을 하며 홀로 두 아들을 키워온 이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안수첩 따놓고 기도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병이 든 걸까. 지난해 쓰러진 뒤부터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언젠가 너희 아버지가 어디가에 살아 있다면 몸건강히 잘 살기를 바라야지. 그러나 살아오기를 바라는게 너무 큰 욕심같구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밤새 울었습니다.

이들 찬호(58)씨는 상봉 이틀째인 27일 이씨를 휠체어에 모시고 아버지를 만나러 갑 생각이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뵈고 벌떡 일어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분이 남은 여생 동안 함께할 수만 있다면 더 좋겠지만...”

<유희연기자>



남편을 만나는 이인규(가운데)씨가 휠체어에 앉아 남편 사진을 들여 보이고 있다.

<이정훈기자>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져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죽은 줄로만 알고 10년전부터 제사까지 지냈던 남편이었다. 하지만 언젠은 남편이 환하게 미소지으며 돌아옴 지 모른다는 생각에 50년 동안 대문을 열어 놔던 이인규(78·서울 신림동)씨. 자식들이 별세라 탐종고 움지도 못했던 이씨는 이제서야 가슴에 맺힌 한을 씻어내듯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씨는 격정부터 않았다.

남편을 만나도 인사말도 건낼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손발을 움직일 수



**후세기만의 고향길**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의 남측 방문단이 26일 오전 고려인 향 북대일드호텔을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2박3일 동안 평양 고려호텔에 머물면서 단체 및 개별상봉을 통해 50여년 간의 화해를 함께 한다. 정희조 기자/checho@ned.co.kr

## 5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혈육

### 3차 이산상봉 첫날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이 26일 서울과 평양에 도착, 50여년 간 헤어진 가족 친지와 감격적으로 상봉한다.

장장자(張貞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남측 방문단과 김경탁(金京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방문단은 공항 도착 직후 숙소

인 서울 집십 롯데일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로 이동해 여장을 풀고 오찬을 가졌다.

북측 방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평

이남 북측 방문단 취주악으로 공연예습가에 오른 정두명 씨(67)는 남한에 사는 동생 두환 씨(62)를, 집단체조(태스게임) 연습로 피바다가극단 총장이 된 김수조 씨(69)는 조카 북결

씨(52)를 만날 예정이다.

또 평양에 도착한 남측 방문단 최고

병자 이재배 씨(94)는 평양에서 북에 두고는 아내 김복여 씨(79)와 아들 창환 씨(63), 딸 명실(66)·순옥 씨(53)를 만난다.

### 오늘 오후 3시경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서울-평양서 각각 100명 단체만남

양에 가는 남측 방문단은 고려호텔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가족들과 단체상봉을 하게 된다.

### 눈감으며 '꿈에 그리던 故郷' 회상

는 아쉬움을 달렸다. "고향에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실 것 같은데..." "지척에 두고도 못 간다니..." 여기저기서 50여년 간 세월을 말해주는 빛바랜 가족사진을 주시하며 조용히 회상에 잠기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손흔들며 답례인사 여유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도

착, 모습을 드러낸 김정 양복, 한복 차림의 북측 방문단은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감추지는 못했다.

"환영합니다"라는 남측 사람들의 인사에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례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박지운·손수근 기자 goxhead@ned.co.kr

## 가족상봉 서울 여섯차례 평양 다섯차례

### 3차 이산상봉 일정

북한측은 공동중식 빠져 창덕궁·교예공연 서로 관람

서울간의 제3차 이산가족 상봉 일정에 들어간 남측 방문단은 26일 오후 서울의 센트럴시티 밀레니엄에서 고려호텔에서 단체상봉을 가진다 이어 28일까지 서울과 평양에 각각 머물며 반세기만에 그리운 가족들과 품감은 시간을 보낸다.

서울에 오는 북측 방문단은 첫날 단체상봉, 이튿날 두차례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및 석식, 송별상봉 등 총 여섯차례에 걸쳐 10시간 10분 정도 가족들과 만난다.

반면 평양에 유류가는 남측 방문단은 이튿날 공동중식이 없고 단체상봉과 개별상봉에서 남측보다 30분씩 짧게 예정되어 다섯차례에 걸쳐 8시간10분 정도 가족들을 만난다.

방문 첫날 먼저 북측 방문단이 오전 10시30분쯤 평양에서 고려호텔에서 김포공항에 들어왔고 이 항공기탑 이양, 남측 방문단 151명이 이날 낮 12시쯤 떠나 오후 1시쯤 평양에 도착했다.

평양 고려호텔과 집십 롯데일드호텔에 여장을 푼 남측 방문단은 호텔측이 준비한 오찬을 마친 뒤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고려호텔과 서초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에서 단체상봉을 했다. 이어 오후 6시30분부터는 흥분된 만남을 뒤로 한 채 남북 양측의 직십자사 총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첫날 일정을 마친다.

방문 이튿날부터는 본격적인 상봉 일정에 들어간다. 서울에서는 두차례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및 석

### 제3차 방문단 서울·평양일정

시 간	세 울	평 양
09:00~10:30	김포공항에서 상륙	고려호텔에서 상륙
11:30~12:30	남측 방문단 서울 도착	북측 방문단 평양 도착
15:30~18:00	단체상봉(고려호텔)	단체상봉(고려호텔)
19:00~20:30	가족 개별 상봉	가족 개별 상봉
07:00~08:10	김포공항에서 상륙	고려호텔에서 상륙
10:00~11:00	단체상봉(고려호텔)	단체상봉(고려호텔)
12:00~13:00	공동중식	공동중식
13:30~15:30	가족 개별 상봉	가족 개별 상봉
16:30~18:30	단체상봉(창덕궁)	단체상봉(창덕궁)
19:00~21:00	공동석식	공동석식
07:00~08:10	김포공항에서 상륙	고려호텔에서 상륙
10:00~11:00	단체상봉(창덕궁)	단체상봉(창덕궁)
12:00~13:00	공동중식	공동중식
13:30~15:30	가족 개별 상봉	가족 개별 상봉

식 등 네차례에 걸쳐 7시간 동안, 평양에서는 공동중식을 제외하고 5시간30분 동안 가족을 만난다.

오랜만의 가족 상봉으로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침관도 준비된다. 서울에서는 창덕궁이 예정돼 있고 평양에서는 평양 교예극장에서 북측의 자랑거리인 교예극관을 관람하게 된다. 방문 셋째날 남북 양측 방문단은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서울과 평양으로 귀환한다.

양측 방문단의 숙소인 잠실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는 서울과 평양으로 떠나기에 앞서 가족과 헤어짐을 달래기 위한 30분 정도의 송별상봉이 진행된다. 귀환 때는 북측 방문단이 아시아나 항공 OZ-1007편으로 먼저 서울을 출발, 평양으로 돌아가고 남측 방문단은 이 항공기를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면서 끝났던 2박3일간의 만남 일정을 막을 내린다.

# 국군포로 南가족 만났다

## 손원호·김재덕씨 평양서 동생상봉 北赤위원장 “조만간 면회소 설치될것”

### 서울·평양 3차이산상봉

26일 시작된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에서 국군포로 출신으로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손원호(75)·김재덕(69)씨가 남쪽의 동생을 각각 만났다.

위성중계된 조선중앙TV는 이날 저녁 8시 뉴스에서 평양 고려호텔의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소식급 보도하면서 손씨는 동생 준호씨(67), 김씨는 동생 재조씨(65)와 각각 만났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4면

정부 당국자는 “북한 거주 국군포로가 남측 가족을 만나기는 두번째”라며 “작년 12월 2차 상봉 때 남측 이형석씨(81)가 국군포로 출신 동생 정석씨

(70)와 만났으나 이첩 공개하면 향후 국군포로 상봉 사업이 무산된 우려가 있어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張在彦) 위원장은 이날 저녁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남측 상봉단 환영만찬회에서 “조만간 면회소가 설치될 것”이라며 이산가족 면회소 개설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장위원장은 만찬사에서 “평양상봉(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사이에 3차례의 교환방문,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 작업이 진행됐고 관 서신교환이 시범적으로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후 남측 상봉단장인 장정지(張貞子) 대한적십자



국군포로 김재덕씨(왼쪽)가 26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측의 동생 김재조씨를 만나 손을 붙잡고 있다.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

사 부총재와 만나 서영훈(徐英勳) 한적 총재가 자신과의 회동을 원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서총재의 구상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 이에 따라 남북적십자사 책임자간 회동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최재영기자·평양 / 공동취재단  
cyoung@k.yunghyang.com

# 남북32년... “엄마” “내딸아”

## 대한항공 女승무원 성경희씨 모녀상봉

### 사위·손자도 만나... “이젠 여한 없다”

“엄~마, 나 경희야” “너, ... 내 딸 맞아” “엄마...”

어머니도 딸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어머니는 뺨 곁을 다가온 딸을 한동안 쳐다만 봤고 딸은 낮은 목소리로 ‘엄마’를 계속 불렀다. 잠시 뒤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았다.

/ 관련기사 3·4·26·27면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첫날인 26일 평양 고려호텔 단체상봉장, 남측 방문자인 이후덕씨(77·여)가 1969년 대한항공 YS11편 강릉발 서울행 여객기에 승무원으로 탑승했다가 납북된 딸 성경희씨(55)를 만났다. 성씨가 북에서 맞은 남편 임영인(58·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딸 소영(26), 아들 성혁(24)씨도 나왔다.

이씨는 20대 딸이 초로의 여인이 돼 눈 앞에 있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

다. “없던 점이 생겼네”라며 눈가를 훑었다.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야, 전엔 제일 낯 낯한 줄 알았



납북전 성경희씨

는데 아니야, 딸도 만나고 3월15일 서신교환 대상에도 뽑혔어, 이젠 됐어”.

이씨는 사위 임씨가 인사말 하고 군인인 외손자 성혁씨가 기수경례를 하자 얼굴이 더욱 밝아졌다. 특히 외손녀 소영씨가 “작년에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손을 잡더니 ‘할머니가 평양에 온다고 알려주는 꿈을 꿴는 데 현실로 됐다’고 하자 자신의 남쪽 막내딸도 “비슷한 꿈을 꿴다”며 신기해했다.

성씨는 아버지 충영씨가 지난 79년



26일 고려호텔에서 32년 만에 어머니 이후덕씨를 만난 남북 KAL기 승무원 성경희씨(왼쪽)가 이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

숨졌다는 소식을 듣자 목놓아 울었다. “이번에 아버지가 30년전 사둔 시계와 목걸이, 내가 뜬 솜 등을 준비했어. 엽병도 세권 가져왔어”. 이씨는 성씨의 네 동생이 결혼할 때마다 성씨 뒤편으로 장만한 이불이 장롱에 한칸 가득 채우고 있다고 알려줬다.

이씨는 27일 개별상봉 때 음력 2월

12일(양력 3월6일)인 자신의 생일을 앞당겨 치를 계획이다. 서울서 케이크까지 준비해왔다. “네 얼굴을 직접 보고 목소리도 들었으니 여한이 없다”. 모녀는 만난 지 30분만에 30여년 이별의 아픔과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홍욱기자·평양 / 공동취재단  
wooly@k.yunghyang.com

# 그리움도 원망도 만나니 눈녹듯

## 69년 남북 성경희씨 평양온 어머니 회한의 만남 3차 이산상봉... 국군포로출신 2명은 동생 재회

이산의 아픔이 누군들 더하고 답하랴마는 남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도 햇속까지 슬팠던 세월을 뒤로 하고 얼얼의 정을 나눴다.

지난 69년 12월 남북된 대한항공 YS11호의 여승무원 성경희(55·咸敬姬)씨는 26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어머니 이후덕(77·李後德)씨와 32년만에 얼얼하고 눈물을 흘렸다. 남북 당시 23세 처녀였던 상씨는 어느덧 초로가 되어 북에서 김춘환 남편 임연일씨(58·김일성대 교수)와 딸 소영(26), 아들 성희씨(24)와 함께 어머니에게 큰 집을 옮겼다. ▶관련기사 3·22·23면

국군포로 출신인 손원호씨(75)와 김재덕씨(63)도 고려호텔에서 남측 동생 준호씨(67), 재주씨(65)와 재회했다. 국군포로 출신의 상봉은 남북 당국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보도하지 않기로 했으나 북한 중앙

TV가 이날 저녁 보도해 드러나게 됐다.

성씨 가족처럼 남북자 가족 상봉은 지난해 11월 남측 방문단으로 평양을 찾은 김상례씨(73)와 87년 남북된 동진호 갑판장 김희근씨(49)에 이어 두번째다. 손씨 등 국군포로 출신의 상봉도 지난 2차방문 때 이정석씨(70)와 남측의 형 형석씨(81)의 만남에 이어 두번째여서 앞으로 남북자 및 국군포로 출신의 상봉 확대가 기대된다.

이날 3차 이산가족 방문단 200명이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난 평양과 서울은 또 다시 눈물바다가 됐다. 세번째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이건만 아쉬움은 갈수록 깊어지고, 만남에 꺼지 못한 가족들은 선택된 방문단의 상봉을 눈길을 흘리며 지켜보다. 1,000만명에 이르는 이산가족들은 남북 당국이 한시비해 상봉의 정례화 및 면회소 설치에 힘을 모아주기를 기도했다.

앞서 남북한 이산가족들은 고려민항기편으로 서울과 평양에 각각 도착, 단체상봉을 가졌다. 고려호텔에서 남측 방문단 이후성씨(76)는 노환으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 강오복씨(94)를 51년만에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황체에어 앉아 방북한 손사집씨(90)도 50년만에 북측의 아들 양학씨(55)의 큰 집을 받았다.

센트럴시타에서는 정지용(鄭芝溶) 시인의 아들 구인(求寅·68)씨가 형 구관(求寬·74)·이동생 구원(求苑·66)씨와 만났다. 또 피미다가극단 총장인 김수조씨(68)가 조카 복경씨를 만나 이산의 한을 달였다.

●평양 공동취재단·이석우기자

swlee@kdaily.com

### 이산면회소 곧 설치

#### 장北赤위원장 밝혀

장재연(張在堯) 북한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26일 이산가족 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면회소가 조만간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민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남측 방문단 환영만찬에서 "두 차례의 생사·주소 확인작업도 진행했으며 끝났어진 가족 친척들의 서신교환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적십자 대표가 면회소가 곧 설치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공동취재단



### 인민군복차림 외손자

69년 12월 남북된 대한항공 여승무원 성경희씨(55·오른쪽 두번째)가 32년 만에 만난 어머니 이후덕씨(77)에게 거주경례하고 있는 인민군복 차림의 아들 임성희씨(24)를 바라보고 있다. 상씨의 딸 임소영씨(26)는 외할머니 이씨를 안고 있다.

●평양 시진공동취재단

# “엄마...” “내딸 맞니...”



평양-시인공동취재단

69년 KAL기 피랍사건으로 북에 끌려갔던 승무원 성경희씨(왼쪽)가 26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만난 어머니 이후덕씨와 얼굴을 두손으로 감싸안으며 흐느끼고 있다.

## 69년 被拉 KAL기 女승무원 성경희씨 初老의 모습으로 32년만에 어머니 만나 對南방송 활동- 김일성大 교수와 결혼

### 서울-평양 3차 이산상봉

“엄마, 엄마, 나 경희야...”  
“... 너 내 딸 경희 맞아?”  
모녀는 함박을 잊고 오열했다. 딸은 69년 대한항공(KAL)기 피랍사건 당시 스튜어디스였던 성경희(成敬姬·55)씨. 어머니는 그 딸을 가슴에 묻고 30여년을 살아야 했던 이후덕(李後德·77)씨. 분단의 비극이, 냉전의 고통이 이토록 곱까.

〈A29·30·31면에 관련기사〉

딸이 납북된 이후 이씨는 수도 없이 울었다. ‘북에서 결혼을 했다더라’, ‘대남방송 이나운서로 활동한다더라’는 등 딸에 대한 온갖 소문이 들리울 때마다 이씨는 가슴을 쥐어뜯어야 했다. “왜 하필이면 내 딸이나”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 딸이 26일 평양 고려호텔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 이씨는 30년 만에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다. 가슴에 걸려 있던 큰 돌덩어리가 비로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젠 여한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뭘 바라겠어. 너 만나려고 3월15일 한다는 서신교환 대상에

도 뽑혔는데 혹시 둘 다 안 해주니까 뼈단라고 했어.”

스물새살 꽃다웠던 딸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딸인 딸 이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웠을까. 이씨는 딸의 얼굴을 비비며 울었다. “얼굴에 점이 없었는데...”, 이씨는 쏟아져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씨는 딸을 만나기 전까지도 행여 딸에게 해가 될까봐 ‘아무 얘기도 안하고 듣고만 있어야지’ 하고 다짐했었다. 남북소식에 미친 듯이 길거리를 헤매던 입, 딸의 모습을 다시 보지 못하고 79년 세상을 뜬 남편. 기관원들의 집요한 감시 등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생각했기 때문.

하지만 딸을 본 순간 30여년의 실움이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눈물을 감추려 테이블 위에 얼굴을 파묻었지만 자신에게 큰절을 올리는 딸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에는 김일성종합대 교수인 사위 임영임씨(58)와 젊은 시절의 딸을 꼭 빼닮은 손녀 소영씨(26)와 군복 차림의 장성한 손자 성희(24)씨가 서 있었다.

소영이가 “작년 딸 품에 처음



남북당시의 성경희씨

보는 함아버지가 손을 꼭 잡더니 ‘할머니가 평양에 온다’고 알려줬어요”라고 말하자 이씨는 “남쪽에 있는 막내딸도 비슷한 꿈을

꿴다던데...”라며 또 울먹었다.

합충이 고향인 이씨는 1948년 먼저 월남한 남편을 찾아 첫머이 큰딸 경희를 입고 38선을 넘었다. 친신만고 곁에 남편을 만난 이씨는 2남3녀의 다복한 가정을 이뤘고 큰딸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KAL 승무원이 됐다. 하지만 행복은 69년 KAL기 납북으로 깨졌다.

납북된 후 딸 경희씨는 대남방송(구국의 소리 방송) 요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북한 당국은 경희씨가 남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김일성대 교수와 결혼시켰다고 92년 자수 간첩 오길남이 전하기도 했다.

이들 모녀를 포함한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은 이남 서울과 평양에서 그리던 협육과 감격의 상봉을 했다. 이들은 27일 4, 5차례의 상봉 기회를 더 갖고 28일 귀환한다.

〈이철희기자·평양=공동취재단〉  
klimt@donga.com

# 국군포로 2명도 南동생 만나

世界日報

2001. 2. 27 (화)

손원호·김재덕씨  
北 중앙TV 보도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은 26일 국군포로 출신으로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손원호(75)씨와 김재덕

(69)씨가 남쪽의 동생을 각각 만난 소식을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위성중계된 중앙TV는 오후 8시 정규 뉴스시간을 통해 평양 고려호텔에서 있는 남쪽 방문단의 단체상봉 소식을 전하면서 손씨가 동생 준호(67·경북 김주시)씨를, 김씨가

동생 재조(65·경남 남해군)씨를 각각 만난 소식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차 상봉 때는 이형식(69)씨가 전쟁중 포로로 잡힌 뒤 합북 화련에 살고 있는 형 이형식(80)씨를 만났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 국군포로출신 2명 南서 간 동생만나

이산가족 3차 상봉

6·25때 국군포로가 돼 북한에 살고 있던 손원호(75)씨와 김재덕(69)씨가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위해 평양을 찾은 남한측의 동생들을 26일 단체상봉장인 평양 고려호텔에서 각각 만났다. 이는 작년 11월 말 제2차 이산가족 상봉 때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이정석씨가 남측의 이형식씨를 만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손씨는 동생 준호(67)씨를, 김씨는 동생 재조(65)씨를 각각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전쟁이 갈라놓은 한제애를 달랐다. 북한 중앙TV도 저녁 8시 정규 뉴스 시간을 통해 이들의 상봉 장면을 보도했다. 북한 TV는 그러나 이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했다'는 식으로 보도, 이들이 국군포로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강남

의 센트럴시티에선 고 정지용(鄭芝庸) 시인의 둘째 아들 구인(68)씨 등 100명의 북측 이산가족들이 500여명의 남측 가족을 만났으며, 이어 평양 고려호텔에선 이재배(94) 할아버지급 비롯한 남한 이산가족 100명이 북측 가족들과 눈물 어린 포옹을 했다.

▶관련기사 3·4·30·31

북한측의 장재언(張在彦) 조선직업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남측 방문단을 위한 민전에서 연설을 통해 "조만간에 '면회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장정자(張貞子) 남측 방문단장으로부터 "서영훈(徐英勳) 총재가 장 위원장을 만나 이산가족 문제들을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긍정적이다"고 답변했다. /平壤=공동취재단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朝鮮日報

2001. 2. 27 (화)

한겨레

2001. 2. 27 (화)

# 국군포로도 혈육 상봉

손원호·김재덕씨 평양서 남쪽 동생 만나

남북 이산 3차상봉

3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간 남쪽의 동생들이 '국군포로'인 형들을 만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은 26일 밤 8시 정규뉴스 시간에 남측 방문단의 손준호(67)·김재조(65)씨가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 단체상봉장에서 한국전쟁 때 국군으로 참전했다 북쪽에서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 손원호(75)·김재덕(69)씨를 각각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2차 교환방문 때 남쪽의 이형식(80)씨가 평양에서 '국군포로' 출신인 동생 이정석(69)씨를 만난 데 이어 두 번째다. 방송은 손·김씨가 "국군살이를 박차고 인민군대에 입대해서 정조의 총을 잡았던 때를 회고했다"며 보도했다.

남북 인물은 2차 교환방문 당시에도 '국군포로' 가족의 상봉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남북의 입장이 정반대인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엮아고' (일

정시점까지 보도유예)를 유지해 왔다. 북쪽 태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들 가족들의 '상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편 서울과 평양 교환방문단 100명 씩은 이날 고려민항편으로 서해상 직항 로를 이용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해 2박 3일간의 상봉일정에 들어갔다. 남북 이산가족 200명은 이날 오후 서울과 평양에서 꿈에도 그리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반세기 동안 눈물을 머금고 숨죽여 키우던 이야기꽃을 피우며 분단의 설움을 달랐다. ▶관련기사 3·18·19면

평양 고려호텔 단체상봉장엔 55년 만에 유복자의 집을 받은 남측 부모들의 미안해 하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또 휠체어에 의지해 평양에 간 이 후성(76)씨는 역시 휠체어에 탄 재조(65)씨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북쪽의 어머니 장오복(91)씨와 아들 인수(55)씨 등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평양방문단 가운데 유일한 부모 상봉 사례였다. 서울에선 《향수》의 시인 정지용의

북쪽 아들 구인(68)씨가 남쪽의 형 구관(72)·구인(66)씨 등을 만났고, '공훈예술가'로 삼금관 조선인민군 군악대 각곡가 정두명(66)씨가 어머니 김인순(89)씨를 만나 복붙아 울었다.

한편 장재언 조선직업자회 중앙위원회장은 26일 평양 민수대에술극장에서 열린 평양 방문단 환영만찬에서 "조만간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방문단장인 장정자 대한직업자사 부총재 등 남측 관계자 5명은 이날 저녁 장재언 조선직업자회 중앙위원장을 방문했고, 김경락 서울 방문단장 등 북측 관계자들은 27일 오전 서영훈 한적 총재를 예방할 예정이다.

평양/공동취재단 politics@hani.co.kr  
서울/특별취재단 society@hani.co.kr



# 69년 피랍 대한항공 여승무원 성경희씨 남북 32년만에 “엄마”

## 어머니 이후덕씨와 평양서 감격의 재회 3차이산상봉... 南과北서 또 뜨거운 만남



남북당시 성경희씨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KAL) 여객기 공중납치로 납북된 여승무원 성경희(成慶姬·55·당시 23세)씨가 26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측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으로 온 어머니 이후덕(李後德·77세)를 32년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이로써 남측은 '납북', 북측은 '의거 납북'이라고 맞서는 납북자 문제를 이산상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관련기사 3-5-31면)

납북자 가족의 상봉은 지난해 12월 2차 상봉때 87년 서해상에서 납북된 공진호 감관장(姜進浩·50세)가 어머니 김삼례(74세)를 13년만에 만난 데 이어 두번째로 성사된 것이다.

이날 32년만에 만난 모녀는 서로의 얼굴 나누며 북받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아씨는 상봉장에서 어머니를 발견, 몇 걸음 다가온 딸을 한참 쳐다보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이어 성씨가 낮은 목소리로 “엄마”를 계속 부르자 결국 딸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성씨는 이날 남편 임영일(58)씨와 딸 임소영(26), 아들 임성혁

(21) 등과 함께 상봉장에 나왔다. 아씨는 해방 직후인 48년 시댁과 친정이 있던 합충에서 젓막이 큰딸 경희를 업고 남편을 찾아 납북했으며, 큰딸이 납북된 지 10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딸을 그리며 살아왔다.

KAL기 납치사건은 69년 12월 11일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 등 51명을 태우고 김포를 떠나 서울로 향하던 YS11양반여객기를 고강간첩 조창희(당시 42세)가 권총으로 기장을 협박해 월북한 사건이다. 북한은 70년 2월 탑승자중 승객 39명은 귀환시켰으나 성씨를 비롯한 승무원 4명과 승객 12명은 억류해왔다.

한편 남북한 이산가족 100명씩으로 구성된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은 26일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 반세기만에 꿈에 그리던 가족과 만났다.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 휴과 평양의 고려호텔에

서 이뤄진 단체상봉장은 지난해 8월과 12월에 이어 혈육들의 애절한 만남 속에서 눈물바다로 변했다. 이어 남측에서는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주최하는 만찬을, 북측에서는 북적 중앙위 명의의 만찬을 가진 뒤 숙소로 돌아와 첫날 밤을 보냈다.

한편 장재언(張在彦)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은 이날 환영만찬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면회소 설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훈기자 shyoony@sgt.co.kr



◇1969년 12월11일 피랍된 KAL 여승무원 성경희씨 오른쪽가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어머니 이후덕씨와 32년만에 눈물로 상봉해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拉北 32년... “내 딸 맞아”



남북당시 성경희씨

## 대한항공 女승무원 성경희씨 모녀 평양상봉

### 92년 딸 對南방송 나와 “살아있구나” 사위·손자 만나... “어한 없다” 흐느껴

업하고 대한항공에 승무원으로 입사한 씨가 남북당시 69년 12월 11일.

씨가 탑승했던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YS-11기가 고장간첩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된 것이다. 당시 씨는 비변이였지만 친구인 다른 승무원과 어울리기 위해 비행기를 탔었다. 승객 등 51명이 납북됐다.

씨의 북한 내 생활은 92년 5월 귀순한 대남공작원 오김남씨가 “밖에서 씨와 함께 ‘구국의 소리’(대남 선전방송) 방송요원으로 활동했다”고 증언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후 92년 8월 평양방송은 “KAL기 압박 이후 승무원들이 ‘의거입북 용사’로서 어디를 가나 환대 받았으며 북한 새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북한에 온 다음해 결혼해 1남1녀를 두었다”는 씨의 육성을 내보내기도 했다.

씨의 납북 이후 어머니李女士는 남편과 함께 딸의 송환운동을 전개했다. 93년 3월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가 북송될 때엔 “李노인이 송환됐으니 우리 딸도 곧 돌아오리라 믿는다”며 희망을 내비쳤던李女士. 이번 방북을 앞두고 축여 차질이 생길까 기자들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李女士는 “유난히 똑똑했던 건희를 만나게 된다는 소식을 며칠 전 듣고 너무 고마워 밤새 울었다”고 말하며 김포공항을 떠났었다.

이영중·이경희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58·김일성대 교수)씨, 손녀 소영(26)씨, 손자 성혁(24·군인)씨와 함께 나온 딸 건희씨가 낮은 목소리로 “엄마”를 계속 부르자 딸을 끌어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여한이 없어, 딸도 보고...” 아버지 成忠英(79년 작고)씨가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씨는 또다시 오열했다. 68년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를 졸업

“엄마.”  
“너 내 딸 맞아.”  
“엄마.”

3차 이산가족 방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이후덕(李後德·77·서울 노원구)씨가 1969년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납북된 딸 성경희(成敬姬·55)씨를 32년 만에 만났다. <관계기사 3면>

한국 현대사의 한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李女士는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사위 임인일

## 서울·평양서 3차상봉

3차 이산가족 방문단으로 서울·평양을 찾은 남북한의 이산가족 2백명이 26일 가족·친지와 분단 반세기 만에 만났다. <관계기사 3. 26. 27면>

오후 1시 8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장정자(張正子)한적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측 방문단은 숙소인 고려호텔에 여장을 풀 뒤 오후 4시 호텔 내 단체 상봉장에서 가족과 포옹했다.

앞서 고려항공편으로 오전 10시 29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김경락(金京落)북적 상무위원 등 북측 방문단은 숙소인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4시쯤 단체 상봉장인 반포의 센트럴시티 빌레니엄 홀에서 감각적인 상봉을 했다.

이산가족들은 남북한의 직십자사 총재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상봉 첫날 밤을 보냈다.



평양을 방문한 이후덕씨(77·㉠)가 26일 상봉장인 고려호텔에서 1969년 납북된 딸 성경희씨(55·전 대한항공 여승무원)와 만났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엄마” “너... 내딸 맞아?”

## 남북 3차 이산상봉 남북 女승무원 32년만에 모친 만나

### 스물셋 꽃답던 딸이 55세 두아이엄마돼

#### 교수와 결혼·대남방송도

“..엄마.”

“너... 내 딸 맞아?”

“엄마.”

3차 이산가족 방북단으로 참여한 이후덕(李後德·77·서울 노원구) 할머니가 1969년 12월11일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납북된 딸 성경희(成敬姬·55)씨와 상봉했다. 32년만이다. 이 할머니는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딸과 사위(임영일·58·김일성종합대 교수), 손녀(소영·26) 손자(성하·24·군복무)를 만났다. 상봉장에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딸을 보았으나 이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성씨가 몇 번 낮은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자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서울을 떠나오기 전 울지 않았다고 그렇게 약속했었던 허사였다. “난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야.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 할머니는 27일 개법 상봉 때 조촐한 생일잔치를 열 생각이다. 음력 2월12일(양력 3월6일)이 77회 생일. 서울에서 케이크도 준비해 왔다.

성씨는 납북되기 전날 제주를 다녀와 비번이었는데 동료 승무원인 성경숙(창덕여고 동창)씨가 “같이 강릉에 가자”고 해 근무를 바꿔 따라 나섰다. “제주에 갔다면 내일 쉬니까 일찍 돌아오라”는 당부가 마치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납북된 성경희씨(왼쪽)가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32년 만에 어머니 이후덕씨를 만나 얼굴을 만져보며 오열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납북 당시 성경희씨.

막 끝이었다. 다음날 대한항공에서 납북 소식을 전해왔다.

★관련기사 30면  
이화여대 사회생활과를 나와 1968년 대한항공에 입사.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딸이었다. 글쓰기를 좋아해 함께 수필집을 내주고 약속하는 등 친구 같은 만렙이었다. 납북 소식에 미친 듯이 길거리걸 헤맸다. 당시 전매청 공무원으로 근무

하던 성씨의 아버지 성충영씨는 다행히 납북자 가족들과 함께 ‘귀환 촉구 운동’을 벌이다 1979년 세상을 떠났다.

딸의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1992년. 지수 김형 오김남씨의 부인이 북에서 딸과 함께 지냈던 인연으로 소식을 전해왔다. 김일성종합대 교수와 김은했고,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에서 일한다고 했다.

사위에게는 반지와 시계, 손자 손녀들에게는 내의와 스웨터를 선물로 준비했다. 딸에게는 30년 전에 아버지가 사 두었던 시계, 목걸이, 그리고 손수 쓴 습과 코트류 행거다. 딸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편지 등을 정리해 3권의 앨범으로 묶었다. 동생 4명과 조카 10명이 써 준 편지도 함께 넣었다. /평양·공동취재단

## 국군포로 2명도 평양서 가족상봉

### 北 중앙TV방송 이례적 보도

26일 진행된 3차 이산가족 방북단의 평양 단체상봉에서 남북 이산가족 2명이 반세기동안 헤어져 있던 국군포로 2명을 만났다.

남측 손준호(77·경북 경주시)씨는 이날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국군포로 출신인 형 원호(75)씨와 조카들을, 김재조(65·경남 남해군)씨는 형 재

덕(69)씨와 조카들을 각각 상봉했다. 한국전쟁 외종에서 북한군에 붙잡혀 50년간 북한에서 살고 있는 손씨는 함북 회령시에, 김씨는 함북 청진시에서 살고 있다. ★관련기사 31면

이와 관련, 북한 중앙TV방송은 이날 8시 정규뉴스에서 이들을 ‘의거자’로 지칭하면서 “손원호씨는 남에서 온 동생에게 국군살임을 박차고 인민군대에 입대해서 정의의 총을 잡았던

때를 회고하면서 민족의 입원으로서 자기가 겪어온 인생 깊은 참으로 울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생존 국군포로와 남측 가족의 상봉을 허용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것은 생존 국군포로를 낚은 차원의 이산가족으로 보고 이질 문제 해결에도 응용할 수 있다는 지세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30일 2차 방북단에 생존 국군포로 가족 이형석씨를 포함시켜 평양에서 국군포로 출신의 동생인 이정석씨와

상봉도록 했었고, 북측은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명섭기자 younglee@hk.co.kr  
평양=공동취재단

### 서울·평양서 감격의 첫방

남북 이산가족들이 세번째로 서울과 평양을 교란방문, 꿈에 그리던 한옥을 만나 이산의 한을 풀었다. 3차 남북 이산가족 방북단 각 100명은 26일 오후 서울 센트럴시티와 평양 고려호텔에서 각각 헤어친 가족들과 단체상봉 시간을 갖고 남북 직접사사가 주최한 환영민찬에 참석했다.

★ 관련기사 5·30·31면  
/김성호기자 shkim@hk.co.kr  
◀ 2면에 계속됩니다



남북 여승무원 32년만에 상봉  
쓰다듬으며 오열하고 있다.

지난 69년 12월 남북된 대한항공 여승무원 성경희(55·왼쪽)씨가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32년만에 상봉한 어머니 이후덕(77)씨의 얼굴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서울·평양 눈물바다 3차 이산가족 단체상봉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이 26일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서울과 평양에 각각 도착, 꿈에도 그리던 합류를 만났다. ▶관련기사 38.39면  
방문단은 상봉 둘째날인 27일 숙소에서 두차례 개별상봉을 한 뒤 민천을 기갈 예정이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이날 국군포로 출신인 손원호(75)씨와 김재덕(60)씨가 남북 동생을 만난 소식을 보도했다.

정태웅 기자·평양공동취재단  
redael@hankyung.com



26일 오후 남한측 이산가족 방문단 일원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덕(77·오른쪽)씨가 고려호텔에서 지난 69년 남북된 딸 성경희(55·전 대한항공 여승무원)씨와 감격적인 해후를 하고 있다. 위쪽 사진은 남북 당시 성경희씨. /평양-사진공동취재단

69년 남북 KAL 女승무원 성경희씨

## 32년만에 어머니 재회

### 남북 3차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지난해 두차례 상봉에 이어 26일 또다시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 반세기 동안 헤어져 살아온 합류들과 만났다.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서울과 평양에 도착한 제3차 남북 교환방문 이산가족 각 100명은 숙소에서 짐을 풀 뒤 오후에는 단체심봉자인 서울 센트럴 시티와 평양 고려호텔에서 가족, 친척들을 만나 50년 이상의 한을 풀었다. ▶관련기사 38-39면

특히 이번 상봉단 중 지난 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피랍사건과 관련, 당시 남북된 승무원 성경희(55)씨가 어머니 이후덕(77)씨와 평양에서 32년 만에 만나 지난 2차 때 87년 남북된 동진호 갑판장이 남한의 어머니를 만난 것과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정례화될 것임을 내비쳤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어 각각 만천에 합석한 뒤 숙소인 서울 잠실롯데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2박3일 일정의 첫 밤을 보냈다.

/오철수기자 cs0h@sed.co.kr

### 서울경제

2001. 2. 27 (화)

# “50년 불효자...” “살아줘 고맙다...”

## 北공훈예술가 2인 '드라마'

“와 이렇게 놀았어”

까까머리 중학생에서 반백의 노인이 돼 돌아온 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노모(老母)는 무심한 세월을 원망했다. 취주악의 대가로 북한에서 공훈예술가로 성공한 아들 정두명씨(66)는 노모 김인순씨(91)에게 큰 잡을 한 뒤 잡에 인겨 “어머니, 이저사 나타나 죄송합니다”라며 읊조렸다. 어머니는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준 것만도 고맙다. 북에서 성공했다지...”라며 장성세과 준비한 5톤짜리 금반지를 아들의 손가락에

- 취주악 대가 정두명씨  
“北서 성공” 노모에 큰절 위로
- 피바다가극단장 김수조씨  
사망한 뉘 편지글 전달 ‘똥곡’

끼었다. 아들은 공훈예술종과 표창장을 내보이며 그동안 자식 생각에 잘못이른 어머니의 걱정을 달어드렸다.

두명씨는 동생 두환씨(62)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50년만에 나타난 불효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며 “그래도 어머니와 너희들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말한다. 죽이 버렸다. 상봉을 위해 25일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날아온 동생 숙희씨(64)와 두환씨(62)는 “오빠가 그리울 땐 오빠가 밴드활동 때 사용한 트럼펫을 펼면서 달랬다”고 회상했다.

기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린 가족들은 어렵게 서울 미곡에서 살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겨우 웃음을 찾았다. 동생 두환씨는 “어렵 적에는 형과 함께 돌고



북한 방문단의 김수조씨(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8일 단체상봉에서 남쪽의 조카들에게 김정일(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선물로 건넨 뒤 함께 민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제공: 두환씨

돌 잡으러 한강을 뛰어 다녔다”며 “지금도 형과 함께 놀던 때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북한 집단제 조연출의 거장인 피바다가극단 총장 김수조씨(69)는 50년만에 서울에서 만난 조카 복근씨(52)를 부둥켜 안은 채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북한에서 무수한 가극을 연출, ‘민민예술인’ 칭호까지 받은 그이지만 막상 자신이 ‘반세기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 되자 ‘방어리’가 돼 버렸다. 김수조씨는 차마 입을 열어지지 않는지 한참만에야 조카들이 궁금해 하는 형님 숙희씨(75)의 소식부터 털어놓았다. “너희 아버지는 큰 일을 하고 돌아가셨다. 내가 대신 아버지 소식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순간 복근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제야 아버지의 죽음을 심각한 듯 말

짜히 풍곡했다. 수조씨는 99년 사망할 때까지 평양연극영화대학 방송미술교장으로 재직해 수확씨가 남쪽 지식들에게 쓴 두루마리 편지글을 건넸다.

“남쪽에 두고온 너희들의 그리운 모습은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깊은 잠에 들지도 못하고 소스라쳐 깨어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97년 설날 아침에 너희들의 아버지 김수희)

김수희씨는 6·25전쟁 발발 직후 동생 수조씨와 월북하면서 아들 복근씨 등 남쪽 가족들과 이별했다. 수희씨의 딸인 정숙씨(51)는 남쪽 가족들의 사진을 모아 만든 앨범을 심층에게 보여주면서 지난 세월의 시계를 되돌리려고 애썼다.

김형기·임영주기자 hgi@yurghyang.com

## “우리 가족들은 어찌 됐나”

### 남북승무원 가족 희비

1969년 남북원 대한항공 여객기의 승무원과 승객 가족들은 26일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당시 함께 남북원 스텝어디스 삼경륙역과 그 어머니의 명양 상봉을 자신의 일인양 강박에 겨우 버텼다.

이들은 자신들도 언젠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흥분하면서 담장 뚫 수 없고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가슴을 쳤다.

의정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남북원 대한항공 승객 장기영씨(당시 41세)의 부인 이순남씨(69·경기 의정부시 초원동)는 이날 남북 직전에 남편과 함께 프른 빛바랜 가족사진을 만지며 눈물만 흘렸다. 이씨는 최근 박법원의 남편이 금에 보여 이번에는 꼭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남북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장씨는 당시 한 종업원의 가족을 찾아주려고 강릉에 갔다가 항공기로 돌아오다 변을 “제발 생사라도 알려달라” 당부했다. “3살난 아들을 데리고 정부에 적극적 자세 기대 추위에 멀며 허

루중앙 공항에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이 낫차 왔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65일 만인 70년 2월 14일 탑승자 51명 중 남편 등 12명을 제외한 39명만 관동점을 통해 송환될 때 이씨는 다시 한번 어린 4남매를 부둥켜 안고 통곡해야 했다.

이름 악문 끝에 아이들을 다 성장시킨 이씨는 “손자손녀들이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물을 따르다 ‘외국에 계신다’고 말해 주지만 ‘어는 나라냐고 물으면 눈물만 나온다’며 남편의 생사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애원했다.

프랍기에 승객으로 탔다가 32년째 돌아오지 못한 황원씨(당시 나이 38세)의 가족들은 3차 상봉에서 부졌지만



남북원 대한항공 승객 장기영씨의 부인 이순남씨가 26일 남북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장보·이진호기자

어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당시 모방송사에 근무하던 황씨는 서울 출장길에 비행기에 올랐다가 가족과 생이별했다. 황씨의 아들 인철씨(35·부천 소사구 고인동)는 “아버지의 빈 자리가 너무도 커 하루 할리 만나 아버지의 체취를 한껏 느끼고 싶지만 남북지라는 이유 때문인지 상봉도 쉽지 않습니다”라며 아쉬워했다.

인철씨의 부인 박모씨(34)는 “남북자 가족들의 괴우는 사실상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어찌는 남북자 가족의 손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성보·이심호·권재현기자 ysb1010@yurghyang.com

## 경향신문 ▶

2001. 2. 27 (화)

# '차마 꿈엔들...' 목멘 사부곡

## 故 정지용시인 세 자녀 포옹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더니 왜 이제야 돌아오니..."

'향수'의 시인 정지용(鄭芝庸)의 이들과 딸의 상봉은 시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헌(愴)으로 아로새겨졌다. 6·25 난리통에 아버지를 찾는다며 집을 나간 뒤 소식을 끊었던 정지용의 북쪽 아들 구인씨(67)와 남쪽 아들 구관씨(72·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딸 구원씨(66·서울 노원구 월계동).

50년 만에 알씨안은 형제들은 만나지마지 끌어 안고 흐느끼며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3남매는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구나"라며 그동안의 세월을 원망했다.

한참을 오열하던 형제들은 아버지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먼저 동생 구인씨가 "북한

**'향수' 낭송하며 상념 잠겨**  
**"金위원장도 아버님 평가"**  
**'왜 돌아가셨는지...' 탄식**

에서도 김정일 장군이 시문학에 조예가 깊어 아버지 김소월 시인을 최고의 예국시인으로 높이 평가. 출판량도 많이 간행해서 잘 알려져 있다"고 아버지를 자랑했다.

이에 구관씨도 "남한에서도 아버지가 (한동안 월북시인으로 외면당하다) 북권이 되어서 '지용문학제'가 있을 정도이며 연변에서도 아버지 시가 교과서에 실렸다고 전했다. 형은 이어 "내년에 연변에서 지용제를 열 계획인데 올 수 있겠느냐"고 말을 꺼내자 동생은 "확답은 못하지만 가능하면 참가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또 한번의 상봉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아버지 시에 대한 평가에는 남북 형제가 하나였지만 죽음을 둘러싼 의견은 여전히 엇갈렸다. 동생 구인씨는 아버지 소식을 묻는 형에게 "아



정지용 시인의 아들 구인씨(사진 오른쪽)가 26일 단체상봉에서 형 구관씨와 여동생 구원씨를 얼싸안고 오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버지는 북한으로 오시면 중 남한의 동두천 소요산에서 미군 비행기의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셨다"고 말했다. 북한 문학계의 기존 주장 그대로였다.

지금까지 남한에서는 정지용이 6·25전쟁 발발 직후 한동안 서울 녹번동 지역에서 두문불출하다 "시내 좀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으며 이후 무의향동 현역으로 50년 7월 북한군에 의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얼마 뒤 경양교화소(교도소)로 이감됐다가 목격에 시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아들의 상봉으로 풀림준 알았던 정지용, 그 죽음의 비범은 화해 노력에도 남북간에 여전히 남아 있는 암금처럼 아직도 180도 다른 주장 사이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구관씨의 아들과 딸이 작은아버지 구인씨에게 큰절을 올린 데 이어 구관씨가 "북한 학생들도 아버

지 시를 배운다는데 아버지 시 전집을 갖고 있느냐"고 물고는 준비한 "정지용 전집"을 선물했다. 아버지의 흔이 담긴 시 전집을 받아든 동생이 깊은 상념에 잠긴 가운데 형은 아버지의 대표적 시집시 '향수'를 펼치는 목소리로 낭송했다.

'검은 귀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쁜 것도 없는 사친 밥짓은 아내가 떠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줍던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어릴 적 귀에 익었던 아버지의 시가 낭송되면서 3남매의 얼굴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한편 동생 구인씨도 아버지의 문재(文才)를 돌려받아 양강도 방총위원회의 중서군 주재원 책감기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승기자 ihavoc@kyunghyang.com

## 끝내 부르지 못한 '아버지'

'조별집입니다. 아버지 가깝니다'

50년만에 아들 병철씨(57)를 만나러 간 남쪽 아버지 조구연씨(86·강원 횡성군 둔내면)는 26일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아들이 펼치는 손으로 쪽지에 글을 써내려 가는 것을 보다 모든 것이 자신의 죄인 양 억장이 무너졌다. 어디다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난 미안함과 다시 만난다는 반가움이 뒤섞인 체 평양을 찾았지만 환갑을 눈 앞에 둔 아들은 말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헤어질 때 서너살 밖에 안돼 얼굴 윤곽조차 흐릿해 예뻐했는데..."

얼굴이 가물가물해 못 알아볼까 걱정만 했던 아버지는 그 때서야 예사로 넘겼던 50년도 넘는 그 옛날 아들의 병치레를 기억해냈다. "맞아, 그 때 예

가 장티푸스를 앓았는지..."

해방 후 서울과 고향 영년을 오가며 잠시하던 조씨는 6·25 전쟁 전 큰 아들만 데리고 서울로 내려왔다. 막내 아들은 아직 4살밖에 안된 데다 장티푸스에 걸려 먼 길에 큰일이라도 날까 고향인 평북 영변에 두고 떠났다.

그러나 그것이 50년이 넘는 생이별의 시작이었다. 더구나 평생동안 눈에 밝히던 그 귀여운 아들이 병마로 말을 못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상봉장에 나온 아들이 말을 못한 채 눈물만 흘리지 아버지도 차마 아들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가슴 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조씨는 아들과 함께 상

**北아들 6·25때 장티푸스**  
**남겨두고 피란 언어장애**  
**쪽지에 글씨 '50년恨달래'**

봉장에 나온 여동생 하연씨(73)와 손녀 영숙씨(27)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해져 그제서야 겨우 얼굴을 들었다. "알아버지, 얼마 안 있으면 중 손자가 태어납니다"라는 귀여운 손녀의 말에 조씨는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맙다, 이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자기들 쪽 빼앗은 아들의,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할 안된다는 표정에 물끄러미 쳐다보면 아버지는 또 그만 눈물을 흘리내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아들의 쪽지를 보물인 양 고이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평양 / 공동취재단·이중근기자 hanubang@kyunghyang.com



'어보'

94세로 남측 상봉단 최고령자인 이재배씨가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의 부인 김복여씨에게 남쪽의 가족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누나'

북측 방문단 류흥구씨가 26일 선트럴시티에서 열린 제3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단체상봉에서 누나 류담씨(75)를 만난 채 환하게 웃고 있다.



'아버지'

남측 아들 황순종씨가 서울 선트럴시티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북측 아버지 황수씨에게 웃을 미련해 주기 위해 몸치수를 채고 있다.

## 수절아내 손잡고 "미안하구려"

○...이번 상봉에는 권과 달리 북한 아들과 남한 노모의 만남이 유달리 많았다. 북에서 온 아들 리순용씨(69)는 노모 어운희씨(90)를 만나자마자 바위에 업드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라고 큰절을 올렸다. 남측 노모 모기숙씨(84)를 만난 최경석씨(66)는 통역사에 앉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북한에서 고향을 그리며 부른 노래라는 "사랑가"를 부르고 "오미나, 기쁘죠, 영희! 다시 사랑요. 통일되면 모시고 싶겠어요"라고 말했다.

○...북측 방문단장 최고령자인 임동민씨(85)는 수절한 남측 아내 남상숙씨(81)를 만났으나 한동안 알아보지 못했다. 임씨는 "나도 70이 다 되어서야 결혼을 했다"며 남측에게 미안해 했다. 6·25 당시

### 3차상봉 **서늘**

활채어의 노모 끌어안고 '통일되면 모시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정선과 의사로 일하던 임씨는 한자문을 볼보다 북으로 끌려갔다. 오사가 한 통씩 달 순희씨(50)는 "타어나서 3달 동안 내 아버지와 헤어졌는데도 금방 느낌이 온다"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부인 남씨는 "나도 못 알아보았나 속가 난다"고 눈감조로 말하면서 자회에 가호한다.

○...북에서 내려온 남측 금중희씨(72)를 만난 연순씨(71)은 북괴괴산)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이내 눈물이 맺혔다. 연씨가 정병스레 재직의 선물로 준비한 심장병이 새겨진 금가락지를 받아온 권씨도 아내 연씨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민규씨(78·서울 관악구 신림동)도 다투를 잡가지 않고 기다렸다. 10년 전부터야 재시를 지낸 남측 박창서씨(80)가 돌아왔지만 TV를 보며 눈물만 흘렸다. 지난해 6월 결국 노숙으로 쓰러져 지금은 손발을 움직일 수 없고 인사할도 곤란할 뿐인 임씨 한쪽이다. 대신 아버지를 만나 남측 큰절을 올린 아들 천호씨(58)는 "27일 개성상봉과 꼭 어머니를 함께 여겨 모시고 오겠습니다"고 말했다.

정유마·임영주·이호승기자

## 치매노모 '애비냐' 10년만에 말문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3차에 걸린 구순 노모가 아들을 만나자 정신이 돌아온 듯 10년 만에 말문을 여는 진기한 일이 일어났다. 주인공은 이흥성씨(84)의 아내인 정오복씨(94)다. 정씨는 아들 이씨가 "어떻게 되었어요, 인나오실까봐 걱정했는데..."라며 울부짖을 때도 몰라보다가 "어머니 안수 아버지 왔어요"라는 딸들의 외침에 그쪽에서 "니가 안수야 비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의 부인 김선녀씨(74)는 이를 보자 놀란 듯 "어머님이 10년 만에 말문을 여셨다"고 말했다.

○...자 임동아씨요, 알아보시겠어요", 북측 아들이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11년 만에 만난 아버지 손시정씨(90)의 딸을 연방

### 3차상봉 **평안**

아내 상봉장 만나타나자 '재혼한게 맘에걸려' 눈물

은동아씨지만 친어에 걸린 아버지는 그저 한눈만 쳐다봤다. "아버지, 가시어머니(정모) 기억하세요. 그럼 평안동(평양)요", 인타끼운 딸스리에 손씨도 가끔은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눈물을 글썽이다가 순채 그렸는다는 듯 허공을 둘러 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11년 만에 아내와 아들을 만난 기쁨에 들뜬 김치현씨(79)는 아내 김계옥씨(70)가 함께 상

봉장에 나타나지 않자 눈물을 삼켰다. 예수당 당시 상봉 9개월이었던 아들 윤근씨(51)가 "아고서 못 나왔다"고 했지만 "재혼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아니냐"는 생각에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남쪽의 아내가 기본부터 소리를 천리고 했는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11년 1·4추진단 부인과 두 딸을 남겨둔 채 단신 월남한 이기찬씨(76)는 30년 동안 홀로 두 딸을 키운 북에게 미안한지 딸들부터 찾았다. 이씨는 두딸과 부인 김모씨(71)에게 다가가 "그날 만나면 모르면, 미안해"라며 흐느꼈다. 북측도 전용의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흘렸다.

이흥모기자·김영/공통취재단



# 눈물로 메운 '잃어버린 50년'

## 3차 이산상봉

이모저모

남북한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은 26일 서울과 평양에서 반세기 만에 감격적인 협육 상봉을 했다.

급던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검은 머리가 희얌하게 세 반백이 됐어도 이산가족들은 피붙이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헤어짐을 강요당한 분단의 역사에 대한 원망과 만남의 기쁨이 뒤섞여 눈물바다를 이뤘다.

### ■ 북측 방문단과 서울 표정

● 집단 상봉 "어머니, 불효자식이 50년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애비 노릇도 못한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오후 4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단체 상봉은 이산가족의 한을 한순간에 녹였다.

원산 경제대학 교수인 조원영(68)씨는 남측 어머니 김서은(87)씨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머리가 검구나"라며 머리를 쓰다듬



'서울의 밤' 26일 저녁 서울 반포 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적 주최 환영만찬에서 북측 이산가족들과 남측 인사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

## 69세 아들 노모 만나 "엄마 나 건강하지" 목소리·얼굴 담으려 녹음기·캠코더 동원 북적 관계자들 'YS회고록 논란' 거론 눈길

자 "하얀 머리로 오면 어머니 기분이 상할 것 같아 일부러 짧게 하고 왔다"고 말해 한 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남의 어머니 어문례(90)씨를 만난 북의 리승용(69)씨는 큰 소리로 "엄마, 나 건강하지"라며 "재롱"을 피며 반세기의 간격을 좁히려 애를 썼다. 김홍기(72)씨의 남측 가족들은 73년과 84년 각각 사랑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정을 놓고 대화할 나눠 주위를 숙연케 했다.

● 기록에 애쓰는 이산가족 1,2차 상봉과 달리 남북 가족들은 가족 목소리와 상봉 순간을 담기 위해 녹음기와 캠코더, 즉석 사진기까지 동원해 재회의 기쁨을 기록했다.

● 황체어 상봉 중풍과 병마도 반세기만의 만남을 막지 못했다. 황체어에 의지해 충남 부여에서 애플런스를 타고 온 강항구(80·충남 부여)씨는 북의 동생 서구(69)씨를 만났다. 중풍으로 말 못하는 그는 준비한 꽃다발을 동생에게 힘겹게 건네며 눈시울을 적

셨다. 어머니 모기술(84)씨를 만난 북측 최경석(67)씨는 "어머니, 저 만났으니 오늘부터 식사 많이 하시고 건강하세요"라며 동생들과 함께 황체어에 탄 어머니 주위를 돌면서 북한 노래 '시랑가'를 불러 기쁨을 대신했다.

### ■ 남측 방문단과 평양 표정

● 집단 상봉 남측 이산가족은 오후 4시부터 속수인 고려호텔에서 상봉을 시작했다.

최고령자인 이재배(94)씨는 북에 두고 온 아내 김복여(79)씨와 아들 창환(63), 딸 명실(56), 손욱(53)씨를 만나 "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울먹였고 임재희(85)씨는 1-4후퇴 때 헤어진 큰딸 효선(62)씨 등 4남매를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며 끌어 안았다. 차대 증세의 손사정(90)씨와 중풍을 앓고 있는 이후성(84)씨 등 거동이 불편한 방

북단 4명은 황체어를 타고 그리운 가족들과 상봉했다.

51년 헤어진 남편 이기천(76·전남 나주)씨를 만난 립보비(71)씨는 "기만히 앉아서 찬찬히 뜯어보니까 남편인 줄 알아보겠다"며 한동안 남편 얼굴만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세월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 환영 만찬 이날 저녁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선 남북 모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강조했다.

장재연 위원장 등 북측 관계자들은 환담도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 "남한에서 김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며 회고록을 둘러싼 남한 내부의 논란을 적극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 평양 공동취재단·최여경 이승하기자

kd@kdaily.com

## 대한매일

2001. 2. 27 (화)



남의 이후성씨(76)가 북의 어머니 장오목씨(94)를 만났지만 노모가 알아보지 못하자 여동생을 앞세우고 울먹이고 있다.



북측 방문단의 서기범씨(75)가 남의 아들 서강준씨(50)를 어루만지고 있다.



배승연 할머니(86)가 50년 만에 외사가 돼 나타난 북의 외아들 김중실씨(70)를 만나 활짝 웃고 있다.



남측 방문단 이금순씨가 평양 고려호텔에서 50년 만에 만난 아들들을 부둥켜안고 있다. ●서울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32년 생이별' 울음도 삼켰다

## 3차 이산상봉

69년 납북 KAL승무원  
성경희씨 母女 평양 해후

"엄마, 엄마..."  
"내 딸 맞지, 경희 맞지..."

지난 69년 12월11일 대한항공 강릉 발 서울행 YS11기에 승무원으로 탑승했다가 납북된 성경희(成敬喜·55)씨는 26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32년만에 만난 어머니 어후덕(李後德·77)씨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납북된 딸을 만나기만 기다리며 살아온 어머니 이씨는 처음엔 딸 경희씨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말을 잊지 못하다가 딸을 끌어안고는 활짝 눈물을 터뜨렸다. 헤어질 당시 스물셋의 꽃다운 처녀였던 딸은 어느덧 주름잡힌 초로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난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야. 간에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시신교한 명단에도 들어 변지까지 주고받을 수 있으니 이제

여한이 없어" 한동안 울먹이며 말을 잊지 못하던 경희씨는 북에서 결혼한 김일성대교수인 남편 임영일씨(68)와 딸 소영(26), 아들 성혁씨(24)를 소개했다. 군인인 성혁씨는 외할머니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 이씨는 손자를 껴안으면서 "손자, 손녀까지 보게 돼 너무 좋다"

말을 했다"고 신기해했다. 경희씨는 이화여대출 나와 지난 68년 대한항공 여승무원(스튜어디스)으로 취직했다. 69년 12월11일 강릉에서 승객 47명과 경희씨를 포함한 승무원 4명 등 51명을 태우고 서울을 향해 떠난 KAL기는 출발 직후인 낮 12시 30분쯤 간첩의 권총 위협으로 납북됐



피랍 KAL기 여승무원 성경희씨가 68년 이화여대 졸업 무렵 교정에서 정장차림으로 촬영한 모습.

● 대한매일 포토리브러리

질까와 서신 대상에서 때달라고 통일부에 봉사장하기도 했던 이씨는 이번에는 딸을 만나러 53년만에 다시 북녘 땅을 밟았다. 아버지 성씨까지 시샘할 만큼 사이가 좋았던 두 모녀는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다.

● 평양공동취재단

## "엄마 엄마..." "내딸 경희 맞지..." 부둥켜 안고 울부짖다 말도 잊지 못해 주름진 딸 얼굴 쓰다듬고 또 쓰다듬어

면서 기뻐했고 경희씨는 다시 어머니를 업싸안고 뺨을 비볐다.

그러나 어머니 이씨가 아버지 성충영(成忠永)씨가 지난 79년 작고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경희씨는 다시 한번 복놓아 울었다. 소영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꿈에 처음 보는 키 큰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더니 할머니가 평양에 온다고 알려줬는데 꿈이 이뤄졌다"고 어머니 경희씨를 위로했다. 이씨도 "지난해 딸들 막내딸 은희가 비슷한

다. 성씨는 납북 당일 비변이였으나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함께 납북된 여교동장 정경숙(鄭敬淑)씨의 제의로 근무를 바꿔 비행기에 올랐다. 당시 비행기 탑승 40일밖에 안된 햇병아리 스튜어디스였다.

어머니 이씨는 지난 48년 시댁과 친정이 모두 있는 함남 함흥읍 뒤로 하고 뒷머리 뺨을 얹은 채 먼저 월남한 남편을 따라 38선을 넘었다. 서신 교환 대상자로도 뽑혀 상봉명단에서 빠



26일 서울 반도 센트럴호텔에서 고 정지용 시인의 생전 세자녀가 51년만에 재회하며 오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북에서 온 구인씨와 남의 말형 구관씨, 여동생 구원씨.

● 사진공동취재단

## '향수' 詩 암송하며 눈물 포옹

### 정지용시인 두 아들 재회

"잠은 귀뿔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쁜 것도 없는 사철 밤빛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히라..."

정지용 시인의 맏아들 구관씨(74)는 3차 이산가족 북측 방문단의 일원으로 26일 남에 온 동생 구인씨(68)에게 아버지가 남긴 철후의 명작 '향수'를 암송해 들려줬다. 남이전 북이전 아버지에게 최고의 시인 대접을 받는 시인에 감격한 구인씨는 형이 암송하

는 시에 끝내 눈물을 흘렸다. 구관씨가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찾겠다고 집을 나선 네 뒷모습을 본 뒤 51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나게 됐구나"하고 소회를 털어놓자 구인씨는 "형님 많이 늙으셨습니다"고 두 손을 부여잡았다. 이들 두 형제와 여동생

구원씨가 협곡의 짐을 나눈 것도 잠시, '지팡스런 아버지 지팡'에 상봉 첫날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다. 구인씨가 "아버지는 북에서도 김소월 시인과 최고의 애국시인으로 합쳐서는 분"이라고 하자 구관씨는 "이곳(남한)에서도 아버지는 존경받는 분으로 88년 해금됐다"고 알려졌다.

양강도 방총위원회 중서군 주재원 책임기자로 일하고 있는 구인씨는 "아버지는 조선작가동맹(KAPF) 소속도 아니셨고 혁명적인 시를 쓰시는 분도 아니셨지만 주체문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됐다"며 "애국시인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은덕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인씨는 "아버지는 북한으로 오시던 중 남한의 소요산에서 폭사하셨다"고 북한 문화계의 주장을 거듭해 구인씨의 남행(南行)டிய으로 풀릴 것 같은 장시인 죽음에 대한 진실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구관씨는 "내년이면 아버지 탄생 100주년이 된다. 자네 강 (아버지)전집을 갖고 있는가"고 묻고는 '정지용 전집'을 동생에게 선사했다. 구인씨는 아버지의 전집을 끌어안고는 "아버지가 남한에서 추앙받는지 몰랐다"면서 "가족과 고향을 그리면서 50년간 아버지의 시를 외우고 또 외웠다"고 감격스러워했다.

● 이석우 이홍희기자 swbe@dailly.com



울고- 정지용 시인의 아들 구관씨(가운데)와 딸 구원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에서 북에서 온 동생이자 오빠인 구인씨(오른쪽)를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다.



뺨 비비고- 황해도 개성이 고향으로 51년 월남했던 이금순 할머니(80)가 26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50년만에 북에 두고온 아들 반호균씨(58)를 만나 뜨겁게 얼굴을 비비고 있다.

# “꿈엔들 핏줄이 잊힐리야...”

‘항수’ 정지용시인 세자녀 서울 상봉



## “아버지 찾으러 간 北동생 이제야...”

“전살바다에 출주는 밤물결같은 /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반세기 만에 만난 오빠와 누이는 아버지가 남긴 시 ‘항수(滄愁)’를 함께 낭송하며 뒷없이 흘러간 세월의 아픔을 달랠다.

6·25전쟁 때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 정지용(鄭芝溶)시인의 셋째아들 구인(求眞·67)씨를 만난 남쪽의 임 구관(求寬·73)씨와 여동생 구원(求苑·66)씨는 ‘아버지 찾으러 나갔다가 이제야 오는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꼭

보고 싶어했는데...”라며 통곡했다. 당시 배재중에 재학중이던 구인씨는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자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던 것.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온 가족이 나섰다가 그만 구인씨마저 연락이 끊겼다. 이 때 구인씨의 둘째형인 구이씨(70)도 함께 행방불명됐다.

정지용 시인은 6·25 발발 직후인 50년 7월 교직에서 물러나 서울 녹번동(옛 경기도 녹번리) 자택에서 글일기로 소일하던 중 후배, 제자 문인들과 함께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

북에서 방송기자로 일하고 있는 구인씨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 “10여년 전 총 통일신보에 박상수 시인이 아버지의 삶에 대해 쓴 글에 따르면 아버지가 북으로 가던 중 검기도 동두천 소요산 기슭에서 미군 비행기의 기총탄을 맞고 숨을 거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임 구관씨는 “내년에 아버님 탄생 100주년을 기해 중국 연변(延邊)에 아버지의 시비를 서울에 짓”이라며 동생 구인씨에게 ‘정지용 문학전집’과 ‘항수’ 등의 시를 노래로 만든 카세트 테이프를 선물했다. (전승훈·박운철기자)

raphy@donga.com

## 이념 찾은 北삼촌 情 못느낀 南조카

평양 5·1경기장의 10만 군중을 한치의 반침도 없이 지휘했던 ‘집단체조의 대가’는 50년 만에 만난 조카를 앞에서조차 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이에 비해 단단한 체구를 자랑하며 능률하게 상봉장에 들어온 북한 피바다극단 총장 김수조(金壽祹·69)씨는 김복경(金福鏡·52·서울 윤영구 신사동)씨를 비롯한 조카들과 이모 진양대씨(78)가 눈물을 글썽이 자 “앉자 앉자”하며 말했다.

수조씨는 복경씨의 아버지가 자 자신의 힘이었던 수희(壽喜)씨의 안부를 담담하게 전했다.

수조씨는 “지도자 동지의 큰 은공으로 영웅이 된 내가 석달 전부터 남에 있는 너희들을 생각하며 키운 것”이라며 3개의 종이상자에서 ‘김정일화’라는 꽃이 담긴 화분 3개를 꺼내 조카들에게 나눠줬다.

수조씨는 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집단제 조연출을 마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같이 “위대한 장군님 만세”를 부르자고 했지만 조카들은 어색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김국 수조씨는 혼자 “위대한 장군님 만세”를 불렀고 손을 맞잡고 있던 조카들은 언거주 줄한 자세를 취한 채 불끄러미 삼촌의 얼굴을 쳐다봤다.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던 삼촌 수조씨는 이 순간 조카들에게 자신한 삼촌이 아닌 듯했다. (이완배기자)

rorryery@donga.com

## “왜 아버지는 못오시나요”

피랍 KAL 機長 아들 유인민씨 절규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납북자들이 저만 남만이라도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69년 12월 피랍된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여승무원 성경희씨가 32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모습을 지키보던 유한민(柳漢旻·43·서울 노원구 중계동)씨의 마음은 복잡했다.

유씨의 아버지 유병하(柳炳夏·69)씨는 당시 납북된 여객기의 기장이었다. 북한 당국이 북에 잔류했다고 발표한 11인 중 한사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유씨는 사건이 터진 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집 앞에 줄지어 늘어진 고급 자동차들, 사람들이 쭈뼛 쳐다보는 마루,

그리고 드러누웠던 어머니. 어머니를 더욱 아프게 했던 건 몇 년 뒤 찾아온 중앙정보부 요원의 한마디였다.

“남편은 지금 북에서 재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유씨의 어머니는 그 이후 아버지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상봉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신경희씨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이제 제발 남북 정부 모두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유인민씨가 아버지 시종을 꺼내놓고 당시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러 달려가고 싶군요.”

이산가족의 상봉을 TV로 지켜보는 유씨는 속으로 피눈물이 흐르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듯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제3차 남북이산가족 단체 상봉이 이북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선트호텔에서 6층 밀레니엄홀과 평양 고려호텔은 가족들의 오열과 통곡으로 금세 눈물바다가 됐다. 수십년 만에 헤어졌다 다시 만난 가족들은 그동안 말린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상봉의 기쁨을 나눴다.

# “不孝子 이제야 왔습니다”

○...남측 상봉가족 중 최고령인 허계씨(92·여)는 북측방문단이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담배를 피우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해 의뢰인이 한때 긴장. 허씨는 아들 김두식씨(70)가 “어머니” 하며 반갑게 안기자 “이제야 돌아왔구나”라며 감개무량한 표정. 상봉시간 내내 모친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은 김씨는 “조금만 더 살아 계시면 제가 모시겠다”고 모친에게 건감을 당부.

## “형님 한달만 더 사셨으면”

○...북에서 내려온 최병희씨(73)는 큰형 형복씨(75)가 “드디어 동생을 만났다”고 상봉을 애대개 기다리다 지난달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졌다는 소식을 남측 가족들로부터 전해 듣고 통곡. 최씨는 “상봉명단에 포함된 직후 형님 몸이 좋지 않았다는 연락은 받았으나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 한달만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오열.

## 치매 불구 아들보고 눈물

○...북한 공훈예술가 정두명씨(67·평양시 낙랑구역 정백동)는 6·25 때 헤어진 어머니 김인순씨(89), 동생 두환(62·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두호(55·미국거주) 여동생 숙희씨(64·미국거주)를 얼얼한 고 상봉의 한을 풀었다.

서울 출신인 두명씨는 북한 취주악의 대가로 91년 김일성 영결식 때 연주한 취주악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편곡한 인물. 어머니 김씨는 치매증세를 보여 지난날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51년 만에 만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두명씨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허염없이 눈물만 흘리기도.

○...이번 3차 방문단은 이진 1, 2차 방문단보다 두드러지게 ‘장군님 은덕’을 강조. 당초 명단에 포



함되지 않았으나 막판 서울을 방문하게 된 고선후씨(67)는 취재진이 “형운”이라고 말하자 “형운이라기 보다는 장군님 은혜”라며 “우리 민족은 자책 힘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이날 오후 6시반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대한적십자사 서명훈 총재는 “북한 시일 내에 서신교환과 생사확인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환영사. 이어 북측 방문단 대표인 김경락 단장은 “6·15공동선언을 실현의 지름길로 삼아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 (전 황·정·위·용·기·자) jeon@donga.com

# “국군포로 댁이 살아있었네”



“돌아가신 줄만 알았습니다. 형님.” “그래, 그래. 그만 앉거라.” 정부가 국군포로로 파악하고 있던 형 김재덕씨(69)를 50년 만에 28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만난 김재조씨(65·경남 남해군)는 한순간 새삼이 믿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꿈에 그리던 형님을 눈앞에 마주한 흥분여 잠시 생각해 눈어버렸던 재조씨는 뭔가 생각난 듯 갑자기 형 재덕씨의 입을 벌려 치아를 확인했다.

## “인민군에 자원입대” 강조

그리고 던진 한마디. “맞구나, 맞아. 형님이 맞구나.” 재조씨의 눈에서는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형

제는 많았이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 재조씨는 이어 “형님 눈 위에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요”라며 형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귀가 어두워진 형은 눈시울을 붉힌 재 “공화국 품에서 드디어 동생을 만나게 됐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재조씨가 함수, 조카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동안 북측 기자가 재덕씨에게 헤어진 동기를 물었다. 이어 재덕씨는 “남반부에서 미군이 전쟁을 일으킨 뒤 나를 괴뢰군대로 끌어가면서 헤어지게 되었다”며 “미국놈들이 취어준 총을 동족의 가슴팍에 댄 수 없어 인민군에 자원입대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념’에 의한 이산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다.

같은 자리에서는 또 한 사람의 국군포로 가족이 감격의 상봉을 나누었다.

1950년 6·25전쟁 당시 국군 국방경비대에 근무했던 국군포로 손원호씨(75·함경북도 회령시)를 동생

## 戰死동지로 40년간 제사

전장이 끝난 뒤 국가로부터 형에 대한 전사 통지서가 나와 가족들은 원호씨가 이미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40여년간 제사까지 지내던 터였다. 전쟁 전 원호씨와 결혼한 함수는 수절한 채 혼자 살아오고 있다.

원호씨는 50여년간 중경건 남측 가족들의 소식을 전한 뒤 “북에서나마 이들을 풀어나 두고 행복한 가정까지 이루고 있다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이번에 내려가면 함수에게 잘 살고 있다는 말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태원기자·평양=공동취재단) scoop@donga.com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국군포로 출신인 김재덕씨(오른쪽)가 28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남측에서 온 동생 김재조씨(왼쪽)의 손을 꼭 잡고 감동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정일화 선물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선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남북이산가족상봉의 단체상봉에서 북측에서 온 숙부 김우씨(오른쪽)가 남측 조카들에게서 북측에서 가져온 김정일화 꽃을 선물하고 있다.



“의논자 인사 받으세요”

89년 의령군 KAL기 여승무원이었던 남측에서 가져온 어머니 이후덕씨(왼쪽)가 28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처음 만난 의산씨(오른쪽)를 만나 인사하며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

# 한눈에 “아버지” 통곡 90노모 손붙잡고 덩실

만남을 가로막은 분단의 더께는 추위가 물러가면서 찾아온 햇살 아래 또 한번 녹아내렸다.

백발이 되어 돌아온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찾는 아우성이 서울과 평양의 하늘에 울날렸다. 끌어안고 부비고 만져보는 얼굴엔 이념도 어찌지 못하는 뜨거운 혈액의 짐이 눈물 되어 흘러내렸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북쪽 이산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 단체상봉장에 들어 서자 남쪽 가족들은 대부분 자리에 서 일어나 애타워 활약을 찾았다.

남쪽 아버지 정무희(87)씨는 북쪽 아들 종득(67)씨가 상봉장에 들어서자 “종득아!”라고 외쳤고, 아버지를 발견한 종득씨는 한길음을 달려잡았다. 그는 “아버지, 종득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라며 아버지 품에 파묻혔다.

◇…북에서 온 리승용(60)씨는 노모 어문례(90)씨와 상봉 직후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춰 눈길을 끌었다.

리씨가 상봉 순간 “오머니! 건강 하십니까?”라고 안부질 물으며 큰 짐을 읊리자, 어머니 여씨는 “오! 내 장한 아들”이라며 손을 부여잡고 아들을 일으켜세웠다. 그리고 리씨는 어머니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오머니! 저 돌아왔습니다”를 외쳤다.

◇…남쪽 어머니 모기숙(84)씨를 만난 북쪽 최경식(66)씨는 뒤통이에 앉아 있는 노모를 끌어안고 노래를 불렀다. 다른 가족들도 최씨의 노래 가락에 맞춰 손뼉을 치며 장단을 맞췄다.

최씨는 “노래 제목은 ‘사랑가’라며 ‘북조선에서 고향생각이 날 때

부르던 노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오머니 기쁘시죠? 열려 마시라요. 통일되면 모시고 삼갔시요”라고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다짐했다. 어머니 모씨도 “그래 오래 살아 아지”라고 대답했다.

◇…50년이 지났지만, 형제들은 상봉 순간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았다.

홍안의 20대에 고향을 떠났던 북쪽 김인홍(72)씨는 반백의 나이를 훌쩍 넘어버린 남쪽 동생 인목(60)씨와 인한(64), 인탁(57), 인홍(52)씨 등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는 “인목이가? 이제 얼마 만인가?”라고 외치며 인목씨를 얼싸안았다. 이어 “형님!”을 외치며 달려드는 나머지 동생들을 하나씩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남쪽 동생들이 돌아가신 부모의 사진을 보여주며 “평생 형님을 기다렸다”고 말하자, 인홍씨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어머님! 아버지!”를 외쳤다.

◇…상봉장에서선 남과 북으로 나뉘어 반세기쯤 살아온 부부가 만나 눈시울을 젖게 했다.

남편을 기다리며 50년을 혼자 살아온 남쪽의 김선자(73)씨는 이날 남편 박홍열(77)씨를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아내 김씨가 건넨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며 “도대체 이게 누구냐”며 입얼이 확인하기도 했다.

남쪽의 가족들은 상봉이 시작된 뒤 10여분이 지나서야 겨우 흥분과 감격을 가라앉혔다. 상봉가족들은 탁자에 둘러앉아 선물을 건네고 사진첩과 편지들을 돌려보며 얘기꽃을 피웠다.

북일위제팀 society@hani.co.kr



26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남쪽의 노모 어문례(90)씨가 북에서 온 아들 리승용(70)씨와 손을 맞잡고 춤을 추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01. 2. 27 (화)

# 말못하는 아들과 ‘필담’ “큰딸 날 닮았어” 미소

남쪽 방문단 100명은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 2.3층에서 50년 동안 기다려온 북쪽 가족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했다. 상봉장은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감격과 원망과 안타까운 등으로 뒤얽힌 눈물바다가 되었다.

◇…평양 상봉은 오후 4시30분께 부터 시작됐다. 첫째로 말을 잊은 아버지 손사정(90)씨와 북쪽의 아들 양복씨의 안타까운 상봉장면이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챘다.

“저, 양복이예요. 양복이, 알아보 시겠어요?”

아들은 51년만에 만난 아버지의 팔을 연신 흔들며 봤지만 아버지는 그저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아들의 안타까운 말소리를 알아듣는 듯 손씨도 가끔 눈물을 글썽이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허공만 둘러봤다.

1.4후퇴 때 이모집에 맡겼던 막내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방북을 고집한 손씨는 과거는 기억하지만 현재를 헤아리지 못하는 증세를 보여 방북 단 선전 때 고심했다고 남쪽 관계자가 전했다.

◇…“아버지 저는 조병집입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어릴적 장티푸스를 앓아 말을 못하게 된 아들은 50년만에 아버지를 만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팔리는 손으로 쪽지 위에 글을 써내려가며 ‘눈물의 필담상봉’을 했다.

전쟁중에 아들 병참(57)씨를 고향 평북 연변에 두고 온 조구연(90·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씨는 아들이 전 해준 쪽지를 곁에 집어 양복 주머니에 넣었다.

평양으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들 병참씨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않던 조씨는 상봉장에서 눈물만 흘리는 아들을 보며 자신도 흐르는 눈물을 막지 못했다.

◇…부인 림보미(71)씨와 딸 이강연(53)·강옥(51)씨를 50년 만에 만난 이기찬(76·전남 나주시)씨는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테이블 위에 놓인 사과만 꺾어냈다.

“기만히 앉아서 찬찬히 뜯어보니까 남편인 줄 알아보겠다”는 림씨는 남편이 꺾어준 사과를 먹지는 않고 한동안 남편의 얼굴을 뚫어 쳐다봤다.

두 딸이 “아버지라니까 아버지인 줄 알지 슬피히 잘 모르겠다”고 속스러워하자, 딸들의 얼굴을 차분히 살펴보면 여씨는 “큰 딸은 나를 닮았고 작은 딸은 제 어미를 닮은 것 같다”며 비로소 미소를 잃었다.

◇…51년만에 아내와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들뜨던 김치문(79)씨는 부인 김계옥(70)씨가 상봉장에 나타나지 않자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헤어질 당시 생후 9개월이던 아들 용근(51)씨와 동생 치섭(59)씨는 “아파서 못나왔다”고 했지만 아내의 재가했다는 죄책감에 나오지 않은 것이 틀림없었다. 자신도 남쪽에서 이미 재혼한 터였다.

김씨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네 얼굴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지냈구나”라며 남쪽의 아내가 준 비례 준 내외와 집과, 시계 꾸러미를 부인 김씨에게 전해주라고 읊조르며 넘겨주었다.

평양/공동취재단 politics@hani.co.kr

# “너 내 딸 맞아”



상경희씨 어머니 상봉 인위

“엄마” “너 내 딸 맞아” “엄마”  
3차 이산가족 방북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이후덕(77·서울 노원구)씨는 1969년 12월11일 KAL기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납북된 딸 상경희(55)씨를 만났다. 32년만이다.

**얼굴 부비며 '보고 또 보고'**  
**시위·손자 감격의 첫 대면**  
**32년離散 한풀이 끝내 울음**

상경희는 상봉장 비탈에서 어머니께 큰절을 올렸다. 이씨는 연신 딸의 얼굴을 매만지며 “여기에 짐이 없었는데”라고 말하며 두 모녀는 얼굴을 가까이기도 했다. 상씨는 북에서 길었던 가족을 어머니께 소개했

다. 남편 임영일씨는 “어머니 품만 곱습니다. 반사위 인사 받으십시오”라며 인사하자 이씨는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손녀 소영씨는 “할머니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부둥켜안자, 이씨는 “이렇게 큰딸이 있었어”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특히 군인인 손자 성희씨는 이씨에게 거수경례로 인사했고 상씨는 “우리 딸아들이예요”라며 자랑스레 말했다.

이씨는 서울을 떠나오기 전 남북에 있는 자신들과 융지 않았다고 그렇게 약속했던만 허사였다. “난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야. 딸도 만나고 3월15일 한다는 서신교환 대상에도 뽑혔어.” 서신교환 대상자로 확정됐다는 소식에 이씨는 행여 상봉을 못할까봐 “나 편지 안하고 딸 만나고 읊게요”라고 봉일부에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딸다 하게 왔다고 축하한다는 말도 전해주었다고 한다. /평양=공동취재단



**남편·아들과 함께** -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전 KAL기 승무원 상경희씨가 가족과 함께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북 어머니 이후덕씨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아들 임상희, 남편 임영일, 상경희, 딸 임소영씨.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비번날 동료따라 나섰다 ‘생이별’

### 상경희씨 납북경위·근황

KAL기 여승무원이었던 상경희(55)씨가 납북된 것은 1969년 12월 11일의 일이다. 승객 47명과 승무원 11명 등 51명을 태운 KAL YS11 쌍만 여객기는 이날 낮 12시23분 강릉을 출발, 서울로 향하던 중 기수를 북으로 돌려 이날 오후 1시18분 원산 근처 신덕비행장에 착륙했다. 북한은 남북 66일만인 70년 2월 11일 탈출자 가운데 39명을 관문집을 통해 귀환시켰다. 당시 당국은 고장간첩인 조창희(당시 42세)가 권총으로 기장 유병히씨 등을 위협해 비행기를 공중납치했다고 발표했으며, 북한은 승무

원 4명과 승객 8명의 송환을 거부했다. 창덕여고 동기생인 상씨와 정씨는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와 연세대 도서관학과를 나와 각각 68년과 69년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상씨는 남북 당시 제주도출근 다녔다. 상씨는 “강릉에 같이 가자”고 재, 탑승한 것이다. 92년 자수한 독일유학생 출신 간첩 오갑남의 진술에 따라 상씨와 정씨는 대남심리전 공작기구인 한민전 산하 ‘구국의 소리’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상씨는 북한에서 조국통일연구원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으며 김일성종합대 교수인 임영일씨와 결혼했다. /공삼민기자 shyoon@sgt.co.kr

# 첫인사 나눈뒤 한동안 눈물 치아 확인하곤 “형님 맞네요”

## ■ 국군포로 평양상봉 안팎

남북간 최대 이산 현안이었던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북측은 2차 상봉 당시 납북여부인 김희근씨(52·동진호 김갑진)와 남측의 어머니 김삼례씨(73)에 이어 26일 시지된 3차 이산가족 교환행사에서 남북 대한항공 여객기 승무원인 상경희씨(55)와 어머니 이후덕씨(77)의 상봉을 허용했다. 또 이날 남북 가족과 국군포로 출신의 북측 가족이 평양에서 상봉한 사실도 먼저 공개했다.

북측의 이같은 행태는 이들 사안을 방분담 유지한 채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즉 납북자 각

## 北 명분지키며 현실적 접근 ‘특수 이산’ 방식 해법 수용 국군포로 본격 해결 계기로

각 ‘납북자’ ‘국군포로’와 ‘역거 입북자’ ‘인민군 지원 입내자’라고 같은 주장만 반복할 게 아니라 이들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이른바 ‘특수 이산가족’으로 해결하는 남북의 요청을 북측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 따르면 정전 협정 이후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는 모두 487명이며 국군포로는 351명이다. 그러나 납북자 가족모임은 납북자는 모두 491명, 귀환한 국군포로들은 비정규군인 학도병과 유격대원들 제외하고도 1,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후덕씨 모녀와 마찬가지로 이날 평양 고려호텔 단체상봉장에서 있던 국군포로 출신

의 북측 가족인 손원호씨(75)와 동생 준호씨(67)의 만남은 어색한 인사로 시작됐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첫 인사할 건너 뒤 한동안 눈물만 흘리며 침묵을 지켰다. 먼저 말을 연 것은 동생 준호씨. 그는 “엄심히 잘 살고 있고 아들을 두 명이나 두고 행복할 기쁨을 이뻐 고맙다”고 원호씨의 형수 김춘경씨(70), 조카 2명에게 인사했다. 이어 남측 가족들의 소식을 전했다. 원호씨는 국군 근무 도중 같은 부대에 있어 있던 이북 출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민군으로 넘어갔으며 입북 경위를 설명했다.

준호씨는 “전쟁이 끝난 뒤 형의 전 사용처서가 남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며 “세워준 흙이지만 형을 안아보는 데 힘들지

않았다”고 형육의 정을 표시했다. 이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선 비슷한 풍경이 연출됐다. 또다른 국군포로 김재덕씨(69)와 동생 재조씨(65)의 만남이었다. “형님, 돌아가신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래, 그만 앉거라”, 인사라 서로 품까지 못하면 재조씨는 형의 말이 편하지 않다고 형의 입을 벌려 큰 치아부터 확인했다. 북측이 솟은 어금니를 본 순간 “형님이 맞네요”라며 얼굴을 붉어지게 쳐다보고 귀가 어두운 형님은 “공화국 형에서 드디어 만나 뵈니까 됐다”며 동생의 손을 잡았다. 최재영기자 cyyoung@kyunghyang.com

## ‘YS회고록’ 평양서 화제

### 만찬장 北인사 ‘신병성 의문’ 박기룡 前총장 근황 물기도

26일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주최 환영만찬에선 최고 목회자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화제가 됐다. 장재언(張在彦) 위원장 등 북측 관계자들은 회고록 내용을 둘러싼 남한 정치권의 논란을 적극 거론하며 신병성에게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만찬장 레드 테이블에 앉은 북측 정무원장은 남측 정경자(鄭敬子) 단장 등과 환담 도중 “남한에서 김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며 북측 말을 꺼냈다. 장단장이 특이한 언급없이 슬그머니 넘어가려 하자 정위원장은 “하긴 남조선 사회는 마음에 안든다고 하면 인기가 있으니, 그냥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손을 아래쪽으로 두

드리는 시늉을 했다. 최윤식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곧 이어 “김전대통령이 북을 보지 않지요”라며 “그에서 현직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고 했다는 데 누가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남측 관계자가 “반이들이는 것은 각자 다르지 않겠느냐”면서 화제를 돌리려 했으나 최부위원장은 “민주당에서조차 북을 내지 못하게 했다면서요”라며 계속 YS를 잡고 넘어갔다. 이에 남측 관계자가 “책 읽 내고 안 내고는 변명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잠깐 끊고, 최부위원장은 이에 질세라 “남조선 사회는 현직 대통령 문제를 거론하는 구만요”라고 받아쳤다. 한편 북측 관계자들은 지난해말 세워진 박기룡(朴基龍) 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의 근황을 물기도 했다. 이흥욱기자·평양 / 공동취재단 woody@kyunghyang.com



북쪽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남측 김도기씨가 딸 김순희씨 등 가족과 만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먼산만- 남측의 이흥성씨가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의 동생들을 만나고 있는 사이 치매에 걸린 노모(오른쪽)가 멍하니 앉아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중풍아들 - 94세노모 힐체어 상봉



반세기만의 만남은 눈물뿐이었다. 그곳에는 이념도 체제도 없었다.

평양 고려호텔의 상봉장은 이산의 아픔과 재회의 기쁨이 교차하는 역사의 현장 그 자체였다.

**모자상봉** "엄마, 인수 아버지 왔어요." 이후성(76·경기도 파주시)씨의 어머니 장오복(94)씨는 50년만에 장남이 왔다는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채 한동안 멍곳만 쳐다보고 있었다. 창씨는 예초 북측에서 생존 사실 통보가 있을 때도 '거동 불합'이라는 표시가 돼 있었을 정도로 노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다.

후성씨도 자신의 품에 뛰어들며 "오빠, 왜 이제 왔어요"라며 울부짖는 여동생 리옥순(63)씨와 아들 리인수(55)씨, 부인 김선나(74)씨 등을 껴안고 한동안 알아들을 수 없는 의미다 북쪽을 내짚었다.

그런 뒤에야 바로 집에 어머니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어머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안나오십니까 걱정했는데..."

위에도 평산군 안선만이 고향한 이씨는 45년 아버지(4)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7남매의 가정으로 살았다. 정방에 대한 습관과 시달림으로 51년 1차

후퇴때 5세에 불과했던 아들과 가족들을 뒤로하고 "3일 뒤에 오겠다"며 약속하고 단신으로 얻어붙은 입진강을 건너 워남했다.

7년전 중풍으로 쓰러진 뒤 지금도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씨는 "파로 미련한 휠체어를 타고 평양 고려호텔 2층 상봉장, 어머니가 타고 있는 휠체어 옆으로 돌아왔다.

**부자상봉** "아버지 저는 조병철입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어릴적 장티프스가 걸려 말을 못하게 된 아들은 50년만에 아버지를 만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필리는 손으로 쪽지 위에 글을 써내려 갔다.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전쟁불에 아궁 조병철(57)씨를 고향 평북 연변에 두고 온 뒤 50년이 지난 뒤에야 만난 조구

이번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조씨는 상봉장에서 아들이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자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함께 상봉장에 나온 여동생 조희연(73)씨와 손녀 조영수(27)씨가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조씨를 위로했다.

**남매상봉** "언니, 내가 락순이야" "그래, 그래." 50년만에 만난 6남매는 오랜 침묵에 빠졌다. 북쪽에 언니와 동생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날 것 같이 기뻐하던 선우락순(鮮宇樂順·74) 할머니는 언니인 락희(76)씨와 여동생 영자(68)·인희(62)씨, 남동생 안구(65)·인윤(60)씨 모두가 상봉장에 나와 있는 모습에 가슴이 북받쳐 왔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선우 할머니는 이른이른 하던 기억을 더듬어 동생들의 이름을 한번씩 불러 봤다. 선우 할머니는 아버지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 장남 왔다는데도 한동안 먼곳만...

### 말 못하는 아들 쪽지로 의사전달

### 6남매 한데 모여 부둥켜안고 엉엉

연(86·강원도형성군)씨는 아들이 전달해준 쪽지를 곱게 접어 주머니에 집어 넣었다.

"헤어질 때 서너살밖에 안돼 얼굴 윤곽까지 흐려지는 것 같아 애태웠는데..." 50년의 세월이 부자를 갈라 놓았지만 흡사하게 자신의 얼굴을 닮은 아들을 쳐다보며 허일없이 눈물만 흘렸다.

광복된 뒤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장사하던 조씨는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 큰 아들만 데리고 서울로 내려왔다. 막내 아들은 아직 4세밖에 안된데다 장티프스가 걸려 부인과 함께 고향에 두고 왔다. 그러나 이것이 50년 생

오일했고 동생 영희씨는 언니의 초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주었다. 그러나 막내가 어머니를 최근까지 모시고 있었다는 말에는 "그래 내가 효자구나"라며 칭찬했다.

선우 할머니는 평양에서 교원으로 있던 남편이 1947년 워남하자 1년 뒤 한산된 아들의 손을 잡고 워남하면서 인제지에들과 헤어졌다.

당시 언니 락희씨는 시집을 가서 평양군에 살고 있었고 다른 동생들은 평남 대동군 부산면에 있는 선우씨 집성촌(集姓村)에 살고 있어 이집을 친정에 알리지도 못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어머니-** 반세기만에 돌아온 맏아들 김종실씨가 황제어에 얹은 노모 배중업씨의 얼굴을 두손으로 매만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화로라도-** 북측상봉단 감독희(오른쪽)씨가 28일 협수 권선부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휴대정화로 단체상봉장에 나오지 못한 남측 친지의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백발된 '노인아들' 보고 넋 잃어...

### 서울에서

36일 '남북 이산가족 3차 상봉'이 이뤄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빌레니엄휴은 반세기 '이산의 한'을 푸는 가족들의 감격적인 상봉으로 또 다시 눈물바다를 이뤘다.

**부자상봉** 북의 박장석(82)씨가 51년 만에 두 아들 친호(58), 찬복(53)씨 형제를 만나자 합막을 잊은 듯 손을 맞잡은 채 허겁지겁 눈물만 흘렸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은 채 북측 가족의 근황을 물었다.

박씨는 부인의 안부를 묻는 질문에 친호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나오실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안타까워했다.

북측 방문단 중 송남 출신의 정종복(66)씨는 이번 방문단 중 남한에서 사는 아버지 정부희(87)씨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정씨는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다"며 인신 아버지의 손을 어루만졌다.

**모자상봉** 북한에서 작곡가로써 공훈 예술가 칭호를 받은 정두영(67)씨는 노모 김인순(89)씨를 만나자 "필요자식이 이제야 왔습니다"라며 큰 감을 울리고 어머니 품속으로 달려들었다.

아들을 보고 놀랄까봐 미리 우황청심원까지 복용한 어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아들을 보고는 "누군지 모르겠네. 얼굴이 많이 변했어"라며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북에서 온 조기은(66)씨도 50여년만에 노모를 만났고 "어머니, 이제는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요"라며 뽀글뽀글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이은 삼의 노모 송오래씨를 만난 북의 아들 리강술(70)씨는 "어머니를 한번 안아 드리겠다"면서 송씨를 끌어안던 뒤 "어머니 이 아들이 백갑상을 차려 드릴 테니 놓일될 때까지 오래 사세요"라며 모친의 건강을 빌었다.

원산 경제대학 교수인 조원영(68)씨는 어머니 김서운(87)씨가 "나이가 들었는데 머리가 감구나"라며 머리를 쓰다듬자 "어머니 보러 오는데 하얀 머리로 오면 어머니 기분이 상할 것 같아 일부러 짧게 하고 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남의 어머니 어문래(90)씨를 50년만에 만난 북의 리승용(69)씨는 어머니를 만난 기쁨에 '엄마'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엄마, 나 건강하지"라고 묻는 등 '재봉'

들이 가져온 3kg312g의 손자 손녀와 증손자들의 사진을 보고 또 보면서 '북쪽 비드레'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원제어에 얹은 배중업(89·인천서구경서동) 할머니는 지난 뒤 반세기만에 돌아온 맏아들 김종심(71)씨의 손과 얼굴을 연신 '쓰다듬으며'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형제상봉** 김현숙(74·여)씨는 북측 동생 현숙(67)씨에게 "내가 현방불명된 뒤로 많이 찾았는데 이제야 왔구나"라고 말을 건네자 현숙씨는 "인민군 나가 조국통일하려 했는데 나를 찾았다고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북측 방문단 중 최인소자인 서희식(65·여)씨는 전쟁 때 헤어진 연나 혜식(70)씨와 이동생 장식(63)씨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실감

## 뇌졸중 부인 못나와 회한에 잠겨 손-얼굴 부비며 "죽어도 여한없다" "인민군 나가 조국통일 하려했다"

을 떨기도 했다. 중동중학교 3학년때 인민군에 징집됐던 최경식(66)씨는 8세 노모 모기숙씨를 멀리서 알아보고 뛰어가 큰절을 올렸다.

보라색 한복차림의 모씨는 남한에서 함께 살아온 김순씨(57)씨 등 3자매의 부축을 받으며 반세기만에 보는 아남을 품에 안고 활짝 눈물을 흘렸다.

1950년 고향인 충북 충주에 온다고 소식을 전한 뒤 연락이 끊어진 자식을 만난 어머니 허계(70)씨는 북에서 온 아들 김두식(70)씨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남측 가족 중 최고령자인 허씨는 아

이 나지 않는다는 듯 차분히 자리에 앉았다. 이어 혜식씨가 부모의 사진이 든 사진첩을 꺼내 한장 한장 넘기며 사연은 들려주자 손수건에 머리를 묻고 "어머니, 아버지"라며 뽀글뽀글했다.

송남 북어군에 사는 강강구(80)씨는 북에서 내려온 동생 서구(69)씨를 만나기 위해 외방중임에도 원제어에 의지한 채 그리던 막내동생을 만났다.

중풍으로 말을 할지 못한 채 흐느껴 울다 가족들을 시켜 준비한 꽃다발을 힘겹게 한손으로 동생에게 건네는 향구씨를 보고 서구씨는 이내 눈물을 쏟아냈다. /이천종·이정은·이상범기자 skylee@sgt.co.kr

# “꿈엔들 잊힐 리야...” 눈물 또 눈물



정지용시인 자녀 감격의 이후

“구인아! 살아 있었구나. 고맙다.” “오빠! 왜 이렇게 닮았어?” 26일 오후 제3차 이산가족 단체 시상식에서 50년 만에 만난 정지용(향수) 시인의 아들, 딸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향수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정지용 시인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차분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구인씨는 “어머니가 7년 아버지와 오빠를 예타게 그리다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통곡을 했다.

구인씨는 “내가 죽은 줄만 알고 60년 초직장리를 하고 재산을 지내었다”며 “98년 ‘지용재’에 합석키 위해 중국 옌볜에 갔을때 내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반신반의했다”며 아남의 상봉이 믿기지 않는 듯 구인씨의 얼굴을 부여잡았다.

“일복배기 황소기/ 해실과 금빛 계요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눈을 감고 힘이 없는 아버지의 시를 감상하던 구인씨는 “나 오늘 지나거나 그리던 고향에 왔노라! .../ 마중나온 형님도 누이도 장갑게 맞아주는데/ 저기 두 팔



“엄마만이나”

26일 오후 북측 방문단의 정구인(오른쪽)씨가 남측의 형 구관씨(가운데)와 여동생 구원씨, 민족 묘 만나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아버지 찾으러 나간다더니 왜 이제...” 세남매 열싸안고 아버지詩 ‘향수’암송 北구인씨 “조국 할매익자” 즉흥시 짓기도

정지용은 1950년 납북됐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버지를 찾았다고 길을 나선 북측이 구인씨와 셋째아들 구인(67세)도 실종됐다. 이번에 구인씨만 생존이 확인돼 시종애 온 것이다.

이날 상봉장에 들어서서는 백방의 동생 구인씨를 한눈에 알아본 형 구관(향수·73)가도 이진부 시씨는 “너 구인이 맞지? 구인아!”라며 동생을 끌어안고 마냥 눈물을 쏟았다. 이동생 구관(향수·66)씨도 “오빠! 아버지 찾으러 나간다더니 왜 이제야 온 거야”라며 구인씨의 등에 안기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자리에 앉아 50년간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작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구관씨가 “인민 일선지에 일본 유학생들이 주도해 (아버지의) 추모시비를 준비 중이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아 아버지 작품을 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구인씨는 “북에서 이동민화 산문집과 평론집에 수록된 아버지 작품을 가지고 왔다”고 답했다. 이 두 형제는 북학교에서 아버지의 작품이 실린 사상을 확인하면 시 속 저신들이 모르는 작품이 아니는지 묻기도 했다.

이들 형제는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을 물었고 일빠안은 한기애를 보러 한민족이 들고 동강나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피눈물을 삼기고 가슴으로 삼았겠는가/ 나는 북에서, 너는 남에서/ 끊어진 조국의 할매익자 라는 즉흥시로 화답했다. 구인씨는 “내가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지”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성현·이강은기자 shon@sgt.co.kr



“어보”

이산가족 상봉 첫날인 26일 남측의 이대 남상숙씨가 북측의 남편 임문민씨를 만나 손을 맞잡고 힘하게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경희씨 모친, 딸 상봉애 “우리도 만날수 있겠지” KAL납북자 가족들 희망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1969년 12월 ‘KAL 여객기 납북사건’ 당시 북에 억류된 11명중 한 사람인 여승무원 성경희(당시 23세)를 납북 어머니 이후덕(77)씨가 26일 평양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함께 납북된 사람들의 납북 가족들은 희망과 함께 안타까움을 감지 못했다.

당시 KAL기에 탑승했던 정기영(당시 40·시업)씨의 부

## 이전의 北일장서 진일보 남편·아버지 별기회 고대

인 이순남(69)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씨는 “같은 KAL 납북자도 만났으니 재발 남편유한인 만남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며 남편 생가에 눈물을 터뜨렸다.

KAL기 가장 유병하(당시 36)씨의 장남 유현민(41·회사원·서울 노원구)씨는 “어렸든 아버지를 만날 큰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유씨는 “남북지의 이산가족 상봉을 허락한 것은 이전의 북한 입장에서 진일보한 전향적 자세”라며 “남북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데 계기가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50년수절하며 당신만 기다렸어요”

■남상숙 할머니, 北 남편과 눈물의 포옹

“당신을 만나려고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26일 제3차 이산가족 단체상봉장인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 홀에 들어서서는 북측의 임분민(83)씨가 50년간 예타게 기다린 남편임을 확인한 남상숙(83)씨는 허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평생 마음에만 담아 두었던 이 말을 했다.

6·25전쟁이 타국 무렵 남씨는 서울에서 관리직사로 일했고, 임씨는 방위장으로 있었다. 국군 부

상자들이 늘어나자 임씨는 한자어를 늘보겠다고 정쟁터로 나갔던 게 이후 부부의 갈림길이 됐다.

임씨는 북에서 재능했지만 남씨는 남편이 돌아올 날 만큼 손잡아 기다리며 두 딸을 데리고 수절했다. 남씨는 “약국을 경영하며 평생을 번 재산을 털어 매일 한 입정된 터가 시가문들에 걸려 잃어버렸을 때 남편 없는 게 가장 가슴 아랐다”며 남편의 품에 안겨 다시금 흐느꼈다.

경기도 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큰딸 태희(53)씨는 “아버지 잘 한번만이라도 보고 두 눈을 감겠다는 어머니의 소원이 풀려 정말 기쁘다”며 환하게 웃었다.

상봉장에 들어서서 임씨가 남편임을 안눈에 알아봤다는 남씨는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며 “북에 있는 부인도 머느리들이 잘 해주어야 할 텐데...”라며 남편을 걱정했다.

/이성현기자 topbum@sgt.co.kr



# 32년만에 불러보는 “엄마…”

## 69년 拉北 KAL 女승무원 성경희씨 모친 상봉 23세 처녀가 55세 중년으로… 사위·손자도 소개

전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딸도 만나고 손자 손녀도 만나고…, 3월 15일 시작한다는 서신교환 대상에도 뽑혔어. 이젠 됐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어.”

이씨는 27일 개별상봉에서 조촐한 생일잔치를 열 생각이다. 음력 2월 12일은 자신의 77회 생일. 딸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라고 생각해 서울에서 케이크까지 준비해왔다.

/平壤=공동취재단

/安哲培기자 sbahn@chosun.com

“엄마!”  
“…너 내 딸 맞아?”  
“엄마…”

3차 이산가족 방북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이 후덕(李後德·77·서울 노원구)씨가 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여객기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납북된 딸 성경희(成慶姬·55)씨를 32년 만에 만났다. 남북 이산가족 간 상봉은 작년 12월 '2차 이산가족 상봉' 때 김삼래(74) 할머니가 87년 납북된 동진호 선원인 아들 강희근(50)씨를 13년 만에 만난 데 이어 두 번째다.

26일 오후 4시30분쯤 평양 고려호텔 이산가족 상봉장.

어머니는 몇 걸음씩 다가오는 딸을 쳐다보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딸이 낮은 목소리로 “엄마”를 계속 부르자 결국 말을 끊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서울을 떠나오기 전 남쪽에 있는 자식들과 “딸을 만나도 울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한참을 일싸안고 울던 딸이 어머니에게 큰절을 했다. 이씨는 딸의 얼굴을 매만지며 얼굴을 비볐다.

“엄마, 딸이야. … 이쪽은 아들이고.”

성씨가 어머니에게 외손녀(임소영·26)와 외손자(임성희·24)를 소개했다. 외국유학을 다녀왔다는 외손녀와 인민군 복장의 외손자가 이씨 품에 안겨 함께 울었다. 옆에 있던 사위 임인일(58·김일성종합대 교수)씨가 “어머니, 만사위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이씨는 상봉시간 내내 딸과 외손녀 손을 놓

지 않았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손자가 우황청심환 2개를 꺼내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드렸다. 이씨와 딸이 테이블에 앉아 얘기 나누는 동안 손녀는 할머니께 음료수를 드렸고 손자는 할머니 뒤에서 어깨를 열심히 주물렀다.

“난,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여객기 납북이란 비극적 사건으로 가족과 헤어졌던 23살의 꽃다운 처녀 성경희씨가 이제 1남1녀를 둔 55세의 중년여인이 돼, 북(北)으로 온 어머니(오른쪽)를 껴안고 눈물을 쏟고 있다. 성씨는 69년 12월 대한항공 스텝어디스로 일하다 여객기가 납북된 뒤 지금까지 억류됐었다. /平壤=시진공동취재단



◇납북 당시 성씨.



◇26일 오후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제3차 남북이신가족방문단 단체상봉에서 북측 숙부 김수조(오른쪽)씨가 남측 조카들에게 북에서 가져온 김점일회를 선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우린 언제쯤...”

### 69년 KAL 남북가족들

### 성경희씨 상봉에 '눈시울'

“우리는 언제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나요?”

69년 12월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사건' 당시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남북자 가족들은 이산가족 3차 상봉인인 26일 같은 사건으로 납북된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성경희(55·成慶姬)씨가 남(南)에서 온 어머니 이후덕(李後德·77)씨를 평양에서 만나는 장면을 TV로 바라보며 한숨 쉬었다.

납북된 장기영(당시 40세)씨의 부인 이순남(李順南·68)씨는 “남편은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과 함께 주문진으로 탈출을 보러갔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다”며 울먹였다.

이씨는 “지난 1월 중순 통일부에서 국장급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대한항공기 납북자 가족 3명과 남북 어린 가족 2명을 불러놓고 ‘우리(남한)가 납북자라고 주장해도 그쪽(북한)에서 자꾸 지진원복했다고 우겨 곤란한 입장’이라는 말을 했다”며, “그래서 ‘송환은 포기할 테니 3차 상봉단체라도 끼워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번에도 상봉단체에 뽑히지 못해 다른 가족들의 만남을 TV로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당시 영동방송(현 강릉MBC) 기자로 서울 출장길에 납북된 황원(65)씨의 며느리 박옥순씨는 “성경희씨 모녀의 상봉이 내 일처럼 기쁘다”며 “우리도 곧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 납북자 가족들은 “남한 전복을 목적으로 활동한 장기수 60명은 돌려보내 놓고 아무 죄 없이 끌려간 민간인들은 돌려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납북자들은 남한 정부의 무능 탓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라며 북에 납치된 가족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했다.

/全致植기자 callin-u@chosun.com  
/廉康溟기자 ksyoum@chosun.com

## 세상떠난 兄의 ‘애절한 편지’ 듣고...

### 피바다가극단 김수조총장 서울에 부친 사망소식 듣고 조카들 통곡

“아버지, 아버지는요?”

“너희 아버진 99년 돌아가셨어. 큰일하고 가셨다.”

북한의 작은아버지를 만난 조카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안부부터 물었다. 집단체조 연출의 대가로 작년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던 피바다가극단 김수조(金壽祖·70) 총장은 김복갑(金福甲·53·지영업·서울 은평구 신사2동)씨 등 세 조카에게 아버지 김수희(金壽熙·99년 사망)씨의 소식과 함께 편지를 건넸다.

“내 사랑하는 북갑·정순아. 남쪽에 두고온 너희들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깊은 밤에 잠들지 못하는구나.” 아버지가 97년 설을 맞아 친필로 작성한 편지를 읽던 김복갑씨는 아들·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글씨에 목이 매 말을 잊지 못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는 것은 네 아버지 뜻이 아니다”며 김 총장은 도자기 화반에 담긴 김정일화

(花) 세 포기를 꺼냈다. 또 김수희씨가 90·92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와 김일성 당시 주석으로부터 받았던 준박사증과 공헌예술가상을 건네줬다. 아버지 김수희씨는 30여년간 평양연극영화대 텔레비전 학부에서 방송학술강좌 강좌장으로 근무하다 99년 11월 숨졌다는 말도 전해졌다.

이 말을 전한 작은아버지 김수조 총장은 북한 최고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와 ‘인민예술인’ 칭호를 받았으며, 작년 10월 매들린 울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의 방북 때 평양 5·1경기장에서 대규모 집단체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연출했던 인물. 김 총장은 “너희 아버지와는 50년 겨울 추운 압록강가에서 우연히 만나 전선김비서령부연극단과 가극단에서 함께 일했다”며 “북의 방송 일꾼들은 모두 너희 아버지가 키운 제자들”이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목말라하던 부친의 소식을 들은 김복갑·정선(植善·여·50)·정숙(植淑·여·49) 삼남매는 “이 기쁜 날 조카들의 절 받으세요”라며 공개 양복·한복을 차려입고 테이블 앞에서 큰절을 했다.

/全成炫기자 danpa@chosun.com

# “꿈엔들 잊힐리아, 꿈엔들...”

## 정지용 시인 長男, 北동생과 '감격의 포옹'



51년 만에 재회한 형제는 서로에게 아버지의 소식부터 물었다. 형제의 아버지는 한국의 대표적 시인 시인인 정지용(鄭芝庸). 하지만 북에서도, 남에서도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 찾으러 갔다더니 드디어 왔구나.”

남쪽의 형 구관(求寬·73)씨는 이제야 돌아온 동생 구인(求寅·68)씨를 안싸안고 깊은 눈물을 흘렸다. 구인씨는 “아버지는 김소월 시인과 함께 북에서 최고의 애국시인으로 꼽힌다. 애국시인의 아들이라는 점 덕에 많은 은덕을 입었다”고 했고,

### “아버지는 南서 爆死” 北문학적 주장 되풀이 죽음의 진실은 안풀려

형은 말없이 들었다. 북의 동생은 그러나 “아버지는 북한으로 오시던 중 남한의 소요산에서 폭사하셨다”며 이미 알려진 북한문학계의 주장을 되풀이해 정지용 시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구관씨는 그러나 내내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다. 50년 7월 말 “행방 불명된 아버지 찾기”를 주제로 한 글이 나온 나날 어린 동생(당시 배재중2학년)이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생의 손에는 어느새 진주목이 지난 세월의 흔적으로 내리앉아 있었다.



○재3차 이산가족 상봉 첫날인 26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북에서 내려온 고 정지용 시인의 아들인 구인(오른쪽)씨가 남측 형 구관(가운데)씨와 여동생 구원씨를 만나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기쁜 날이 올 줄은..., 형님, 고생 많으셨죠?” 북의 동생은, 워북시인의 아들로 알려져 남한에서 힘찬 삶을 헤쳐온 형의 굵은 손마디를 연신 어루만졌다. 충남 보령 단광에서의 광부생활과 보따리장사로 굶어진 형님의 손마디에 동생은 목이 메었다. “71년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를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형 구관씨가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

애기를 꺼내자 구인씨의 눈시울도 붉어지기 시작했다. “오빠... 오빠... 뽕뽕하고 예뻐장 하던 오빠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한 막내 여동생 구원(求苑·67)씨도 말을 잊지 못했다. 연년생(同年生)이라서 가장 친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던 사이였다고 했다. 여동생은 죽은 줄 알고 69년 사망신고까지 했던 오빠의 얼굴을 연신 어루만지며 어렸을 적

모습을 찾으려 노력했다. “시 ‘고양’ ‘담수’ ‘호수’..., 기억나니?” 잠시후 남쪽의 형은 북의 동생에게 아버지가 썼던 시를 회재로 꺼냈다. 구관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문학은 배고픈 공부’라고 해서 문학 근처에는 업신도 못하고 돌아서 몰래 숨어서 시를 읽곤 했다”며 지난 세월을 더듬었고, 동생도 머리를 끄덕였다. /崔幸赫기자 jhchoi@chosun.com

# 세월도 멈춘 그순간 “형님... 형님 맞군요”

## 국군포로 출신 北의 兄 만난 김재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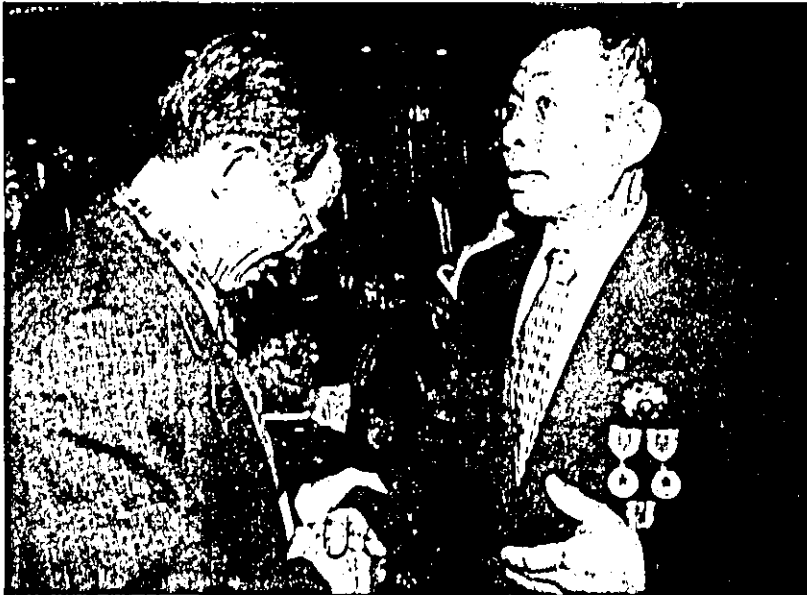
○6·25때 국군포로가 돼 북한에 살고 있는 김재덕(왼쪽)씨와 남측 동생 재조씨가 26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만나 지난 25년간 세월을 되새기고 있다. /주말=사진공동취재단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형님...” “그래 그래, 그만 앉거라.”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로 파악하고 있는 북쪽의 兄 김재덕(69)씨를 만난 남한의 동생 재조(65)씨는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한 자리에서 고향도 못하던 재조씨는 갑자기 형의 입을 빌리게 해 치아부터 확인했다. 뼈속이 쫓은 어금니들

본 순간 “맞구나, 맞아, 형님이구나” 하며 꼭 껴안았다. 재조씨는 “형님 눈 위에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라며 형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귀가 어두운 형 재덕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동생에게 다가가 “공화국 풍에서 드디어 동생을 만나게 됐다”며 동생을 껴안았다. 재조씨는 이어

서 미군이 전쟁을 일으킨 뒤 나팔과 퇴군대로 끌어가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됐다”며 “이 비극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기도 했다. 그는 또 “미국놈들이 쥐어준 총을 동족 가슴팍에 댈 수 없어 인민군에 자원입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군포로 출신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형 손원호(75)씨와 남한의 동생 준호(67)씨는 “반갑습니다”며 어색한 인사만 되풀이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주말=공동취재단

# 이젠 길이 열렸다



국군 포로 김재덕(左)씨가 평양을 방문한 남측 동생 김재조씨를 만나 손을 붙잡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됐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휠체어를 탄 아들 이후성(76)씨가 50년 만에 “어머니”를 목놓아 부를 때 어머니 장오목(94)씨는 먼 곳만 쳐다보았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휠체어에 몸을 싣고 힘겹게 상봉장을 찾았지만 가는 귀가 먹어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4 후퇴 때 “사흘 만에 돌아오겠다”며 집을 떠난 아들이 70을 훌쩍 넘겨 중풍에 걸린 채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 앞에 돌아온 것이다. “니가 인수 어비나.”

아들의 울음에 귀가 뚫린 어머니는 치매로 10년 동안 탄았던 말문을 열었지만 두 사람은 끝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두 손을 마주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주씨는 바로 앞에서 있던 아내를 쳐다보고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 인수(55)씨를 키우며 50년 세월을 수절한 아내 김선녀(74)씨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만 있어 주세요”라는 칠순 아들의 말에 구순 노모는 또다시 말문을 닫고 말았다.

○“저 암록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북쪽의 막내 아들(55)을 51년 만에 만난 손사정(90)할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아들이 연신 팔을 흔들어도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다. 아들이 연신 말을 걸자 가끔 정신을 차린 듯 눈물을 글썽이다 또다시 먼 허공만 둘러봤다. 보다 못한 남북측 관계자 10여명이 몰려와 아들을 대신해 할아버지에게 물어 도 말을 못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51년 만에 아내와 아들을 만나는 기쁨에 들뜬 김지문(79)씨는 아내 김계옥(70)씨가 끝내 상봉장에 나타나지 않자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헤어질 당시 생후 9개월이던 아들 용균(51)씨가 “아파서 못 나왔다”고 말했지만 재혼한 게 마음에 걸려 못 나온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역시 재혼한 김씨는 아들이 “위대한 장군님이 안 계셨으면 상봉은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철희 기자

## ‘휠체어 상봉’母子 눈물

남북을 막론하고 이산가족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며 서로의 얼굴을 매만진 뒤에야 신타래처럼 얽혀 있던 지난 세월을 풀어나갔다.

○“남북자 성경희씨에 이은 국군포로 출신들의 분단 반세기 만의 만남 때문에 고려호텔 상봉장은 또다시 눈물바다가 됐다.

남녘 동생 손준호(67)씨와 북녘 형 원호(75)씨는 “반갑습니다”라는 어색한 인사만 되풀이하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원호씨는 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 국방경비대에 근무했던 국군포로 출신.

전쟁이 끝난 뒤 전사봉지서가 남아와 준호씨 등 가족은 원호씨의 제사를 지내다 지난해 국방부가 국군포로에 원호씨가 포함돼 있음을 밝혀와 서둘러 이산가족 교환 방문을 신청

해 상봉이 이뤄진 것이다. 북한에서 재혼한 뒤 현재 단관 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원호씨는 “남쪽 형수는 수절한 채 혼자 살고 있다”는 동생의 말에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 또 김재조(65)씨도 국군포로 출신의 형 재덕(69)씨와 감격어린 상봉을 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이날 저녁 뉴스에서 손원호·김재덕씨가 남쪽의 동생을 만난 소식을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중앙TV는 “지난 전쟁시기 공화국으로의 거한 손원호와 김재덕은 남에서 온 동생에게 국군살이를 박차고 인민군대에 입대해 정의의 총을 잡았던 때를 회고하면서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은 참으로 울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어머니, 인수 아버지 왔어요...”

북측 상봉단은 예정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4시쯤 상봉장인 서울 반포의 센트럴시티 밀레니엄 좁에 들어섰다.



○...“어머니, 보고 싶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저는 북한에서 유명한 음악가가 됐어요.”

26일 서울 센트럴시티 6층 상봉장에서 어머니 김인순(金仁順·91)씨를 만난 북한 공훈예술가 정두명(鄭斗明·67)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훌륭한 작곡가로 대성했다니 이전 죽어도 이한이 없다.” 어머니 김씨도 아들을 껴안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鄭씨가 휘주악으로 편곡한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1994년 7월 김일성(金日成)주석 영결식장에서 연주했다. 그는 “중학교 때 나팔을 분 인연으로 인민군 군악대에 들어갔다가 음악대학을 졸업했어요”라고 말했다.

두명씨가 가족과 헤어진 것은 경기중학교 5학년이던 1950년, 9·28 국군 서울 수복을 보습여 앞둔 때였다. 퇴각하는 북한군에 잡혀간다고봐 서울 동묘 외가에 숨어있다 발각됐다. 두명씨는 6남매 중 둘째다.

○...북한 피바다 가극단장인 김수조(69)씨는 상봉장에 들어서자마자 조카인 북경(52)씨를 알아보고는 일문 물어안았다.

수조씨는 함께 원탁했던 북경씨의 아버지인 수희씨 소식을 전하며 “2년 전에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편지를 남겼다”며 편지를 건넸다.

“북경아, 정숙아. 남쪽에 두고 온 너희들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로 시작하는 수희씨의 편지를 읽는 북경씨와 이말 바리보는 수조씨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한편 김씨는 “이렇게 좋은 날 우는 것은 네 아버지 뜻이 아니다”며 북에서 준비해온 선물꾸러미를 풀었다. 선물은 도자기 화분에 담긴 김정일화 세 포기, 자신이 석달 전부터 직접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경씨는 “사랑하는 내 아들·딸아, 아버지 지식답게 살기를 바란다. 그래야 아버지는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대목을 읽다 말고 목놓아 울었다.

○...북측 방문단 중 송남 출신의 정종득(66)씨는 이번 방문단 중 유일하게 남한에

## 오고 가고 세번째



북한 인민군 군악대 작곡가 출신이며 공훈예술가인 정두명씨(67·○)가 상봉장에서 남쪽의 어머니 김인순씨(89)를 만나 표창장과 가족 사진 등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아버지遺書 읽다 통곡

사는 아버지 정무희(87)씨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정씨는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다”며 연신 아버지의 손을 어루만졌다.

재남 가족 중 최고령자인 허계(92)씨는 북에서 온 아들 김두식(70)씨의 손을 꼭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허씨는 아들이 가져온 북한의 손자·손녀와 증손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대견한 표정을 지었다.

두식씨는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증손자가 지난해 고등학교 컴퓨터 대회에서 1등을 했고 곧 김책공대에 들어가게 된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오후 6시20분부터 메리어트 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서영훈(徐英勳)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측 방문단을 위해 주최하는 만찬이 열렸다.

徐총재는 환영 만찬사에서 “남북은 이룬 시일 내에 생사 확인·서신 교환·면회소 설치 등을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북측단장은 답사에서 “새 세기 우리 민족의 통일 번영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잔을 들자”고 제의하자 테이블 곳곳에서 “통일을 위하여”라는 건배 구호가 터져나왔다.

만찬석상에서 경기중 6학년 때 월북했던 송희봉(69)씨는 남측 형제들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하자 “김일성 주석께서 60은 청춘, 90은 환갑이라 하셨다”며 환하게 웃음. 같은 테이블에 있던 북측 방문단 송정숙(68)씨도 “장군님께서 돌봐주시니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거들었다. 사회부

# 여보... 왜 이제 오셨나요

## 아들 보러 온 北 황창수씨, 아내까지 극적 상봉

“무정한 당신, 왜 이제야 오셨나요.” 눈물을 흘리는 백발의 부인들 앞에서 반세기 만에 돌아온 북한의 남편들은 고개를 푹低了.

스물여섯 굶던 아내 심재을씨  
北 남편과 옛 사진보며 눈물

서울에서 체신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6·25 때 북으로 간 안삼철(81)씨는 아내 심재을(77·서울 강남구)씨가 건넨 사진첩을 받아들고 오열했다.

사진첩에는 교복을 입은 안씨의 옛남 모습이 있었다. 그는 며느리와 손자 등 남쪽의 가족사진 위에 손을 얹고 일일이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들 안평(55·감정평가사)씨를 데리고 친정인 전북 군산에 가있느라 헤어졌던 아내 심씨는 굶다 굶던 스물여섯살.

그러나 세차게 심장수술을 받으며 몸무게가 40kg에도 못 미치는 할머니가 됐다. 다섯살때기 아들은 신원조희가 반목을 잡아 취업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등 고봉스런 청년시절을 보내고 머리칼은 반백이 됐다.

안평씨는 “한없이 원망하기도 했지만 서울대를 나오고 일본 유학까지 했던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 한켠에 늘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열 방법은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옛날 사진첩을 찾아 모았다고 했다.

치매 앓던 南 아내 오귀례씨

동갑내기 남편 멀쩡히 재회

오상렬(81)씨도 동갑내기 남측 아내 오귀례(81·경기도 고양시)씨를 만나 주름진 손을 움켜잡은 채



북측 상봉단 황창수씨(가운데)가 남측 딸 이순씨(오른쪽)의 오열 속에 큰딸 순요씨의 손에 이끌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말을 잊었다. 치매를 앓았던 부인 오씨는 최근 남편이 북에서 살아서 돌아온다는 소식에 정신이 맑아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봉장에 나왔다.

아들 장영(56·자영업)씨는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밥집을 잊은 채 상봉 준비를 했다”며 “덕분에 어머니 치매가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뜻밖의 부부상봉도 있었다. 서울의 아들을 만나러 온 황창수(84)씨는 6·25 때 헤어진 아내 송순

섭(82)씨가 나타나자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북한에서 재혼해 5남매를 둔 황씨는 아내도 재혼했을 것으로 생각해 상봉 대상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50년간 수집하며 남편을 기다려온 송씨는 헤어지기 전 모습 그대로 상봉장에 서있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세었을 뿐 한복을 차려입고 분단장까지 곱게 한 모습이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느냐”며 울먹이는 황씨에게 송씨는 “살이계신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밝게 웃었다.

농사꾼 지으며 4남매를 혼자 키운 송씨는 1991년부터 황씨의 제사집 지내왔다고 했다.

아들 순종(53·의류상·서울 동대문구)씨와 딸 순요(64)·이순(60)씨는 “그동안 밤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가 모처럼 웃음을 찾았다”고 말했다.

정현욱·정효식·손민호 기자 <gojhm@joongang.co.kr>

# “자식 기다리다 지쳐 반지 남기고 가셨군요”

## 北 조준기씨 '사망' 전해듣고 오열

“어머니, 조금만 더 살아계셨어야죠. 저 준기가 왔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셨나요.”

한국 전쟁 이듬해에 가족들과 헤어졌던 북측 상봉단 조준기(75)씨는 26일 상봉장에서 아들 경구(慶九·51·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씨로부터 급반지 한 쌍을 건네받고는 오열했다. 조씨의 어머니 유이분(1995년 작고·당시 88세)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남긴 선물이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모은 쌍짓돈으로 장만한 급반지였다.

“아버지가 아버지 내외에게 준다고 직접 주문하고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처럼 좋아하셨는데...”

어머니가 6년 전까지도 자신을 만날 날을 기다렸다는 것을 확인한 아들의 입술에는 “6년만 일찍 상봉기회가 왔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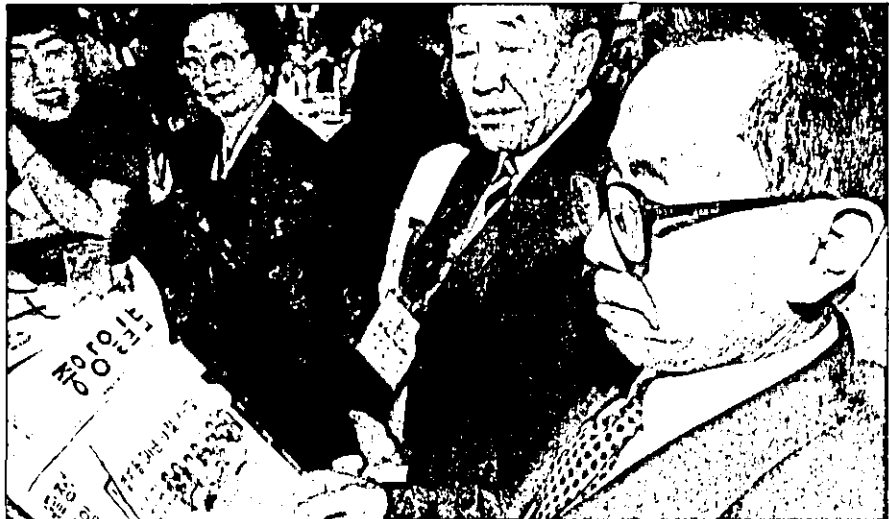
조씨가 늙은 어머니와 유복자처럼 자라는 외아들이 남한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92년, 중국에 있던 조

씨 치초카가 KBS 사회교육방송에 ‘조준기씨가 남측 부모와 형제들을 찾는다’는 사연을 대신 보내 준 덕분이었다.

택시기사이던 경구씨의 한 친척이 새벽에 우연히 이 방송을 들은 것이 계기가 돼 중국을 통해 조씨와 남측 가족 사이에 한 차례 편지가 오갔다. 조씨는 이때 어머니와 동생 윤기(68)·용기(64)·옥순(여·57)씨,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살아 있음을, 남측 가족들은 조씨가 북한에서 재혼해 2남4녀를 낳았음을 알게 됐다. 이후 어머니 유씨는 매년 명절마다 지내던 아들의 제사탕 중단했다. 대신 아들이 보낸 편지를 베껴머리에 놓아두고 매일 밤 꿈속에서 아들을 만났다. 그리고 95년 아들과 북한에 있는 새 며느리를 위해 반지 한 쌍을 남긴 채 영원히 아들을 만날 수 없는 세계로 떠났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농사를 지어온 조씨는 51년 여를 잠시 집을 비우는 바람에 부모·동생들과 헤어졌다. 당시의 아내는 그해 12월 경구씨를 낳고 반만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때문에 아들 경구씨는 할아버지·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심시훈 기자 <copipi@joongang.co.kr>



작고한 정지용 시인의 아들이 북측 방문단 정구인씨(가)가 형 구관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26일 서울 센트럴시티 상봉장에서 자신과 일가족에 대한 기사가 실린 26일자 중앙일보를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芝溶의 세남매 ‘향수’ 눈물의 낭송

“1950년 북한군이 후퇴할 때 아버지가 동두천 소요산에서 미군기의 기총소사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지도 몰라요.”

“넌 만나면 아버지 제삿날이라도 정확히 알게 될 줄 믿었는데...”

‘민족시인’ 정지용(鄭芝溶)의 장남 구관(求寬·73)씨와 셋째 딸 구원(求苑·66)씨는 26일 북에서 온 동생 구인(求眞·68·방송기자 출신)씨를 만나는 기쁨 속에서도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서로 확인못해 탄식

鄭시인은 50년 7월 동료·문인 후배들과 함께 집을 나간 이래 그간 미군 폭격 사망설, 평양 교화소(교도소) 폭사설 등이 나돌았음 뿐 정확한 사망 일시와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었다.

결국 남한에 살고 있는 鄭시인의 자녀들은 아버지 사망에 관한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해 아쉬움을 더했다.

鄭씨 형제는 이남 아버지의 대표 작

품인 ‘향수(鄕愁)’를 함께 낭독했다. 형제들은 아버지 이야기로 50년 이별의 한을 풀어나갔다.

“내년에 아버지 탄생 1백주년을 기념해 아버지가 유학했던 일본 교토(京都)에 사비(沙比)를 세울 예정이며 일본어로 아버지 시(詩)전집을 번역하고 있다.”(구관씨)

“북에서도 아버지를 김소월 시인과 함께 애국시인으로 높이 평가하는 등 존경하고 있어요.”(구원씨)

구원씨는 “30여년 동안 기자생활을 하며 아버지처럼 문필활동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정호식 기자 <jjipol@joongang.co.kr>



26일 오후 서울 센트럴시티 상봉장에서 북에서 온 정지용 시인의 아들 정구인(68·오른쪽)씨가 남쪽의 힘 구관(72·가운데)씨와 여동생 구원(66)씨를 만나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겨레

2001. 2. 27 (화)

#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50년 ‘향수’에 눈시울

본단의 급류에 휩쓸려 떠난 〈향수〉의 정지용 시인은 남과 북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가족마저 갈리놓았던 물살은 반세기가 지나 서야 여물지, 흩어진 가족을 잠시나마 한자리에 머물게 했다.

아버지를 찾아 17살 때 떠난 동생 정구인(68·기자)씨는 환갑을 훌쩍 넘기고 돌아왔다. 힘 구관(72·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씨와 여동생 구원(66)씨는 구인씨를 부둥켜안았다.

“왜 이제야 …, 어릴 때 모습이 하나도 없네!”

“어머니는? 어떻게 …,” 맑은 목소리 울었다.

“20년 전에 네 이름 부르며 돌아가셨다.”

“구익이 힘남, 들켜형님은?”

“하늘이 알겠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

토박난 가족 소식에 구인씨는 눈물을 머금었다.

혼돈의 시대는 시인을 시인으로 남게두지 않았다. 1950년 7월 서울에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이화여대 교수직에서 물러난 정지용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두문불출하면 되나”며 찾아온 친년 5~6명과 함께 서울 녹번동 집을 나간 뒤 소식을 놓았다. 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지만 돌아온 건 큰아들 구관씨 뿐이었다.

## 겨레의 만남

3차 이산상봉

### ■ 정지용 시인 3자녀

정 시인이 윤택한 것으로 알려진 뒤 남은 가족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구관씨는 연좌제에 묶여 변변한 직업도 갖지 못하고 보따리장사를 하거나, 비닐공장 등을 전전해야 했다.

시대를 두려워한 정 시인의 동료 문인들도 등을 돌렸다. ‘빨갱이’로 낙인찍힌 아버지의 시를 율조리는 것도 금기가 됐다.

구관씨가 아버지 흔적을 좇기 시작한 것은 우연히 문인 백철씨의 지서전에서 아버지를 언급한 대목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 10년

남짓 아버지의 발자취를 찾는 데 매달려 40여종의 자료를 모았다.

그는 아버지가 인민군에게 끌려가 서대문형무소를 거쳐 평양 교화소로 이감됐다가 미군 폭격에 숨진 것으로 믿어왔다.

정 시인의 시는 우여곡절 끝에 88년여야 해금됐다. 80년대 이후 자유실천문인협회의 문인들이 정 시인의 작품과 그 예술적 가치를 알리면서 마침내 문화적 복권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정 시인이 사라진 경위를 두고는 아직도 ‘남북설’, ‘월북설’ 등으로 분분하다.

구인씨도 “아버지는 북한으로 오시던 중 남한의 소요산에서 폭격을 맞아 돌아가셨다”며 예전 북한 문학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찾는 사람에 아버지 이름을 썼다는 질문에 구인씨는 “그런 적이 없다”며 “착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간 세월을 여물려온 형제는 더이상 아버지 얘기를 전전시키지 않았다. 남북이나 월북이나에 따라 남북의 어느 한쪽 가족들이 혹시 곤란해할까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듯했다.

“옛이야기 지출되는 실개천이 휘돌아가는 곳 …”, 그 고향에서 다시 어우러질 때야 형제는 마음속 아버지 얘기를 허심탄화하게 풀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 남북형제 서로 “…”

아버지 시 읊으며

그리움 이심전심

남·월북 ‘설’분분





“꿈이나 생사나” 북쪽 방문단 중 최고령인 의사 출신의 임문빈(86)씨가 26일 오후 서울 센트럴시티 이산가족 단체상봉장에서 가족들과 만나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고령 임문빈씨 남쪽 아내 재회

## “홀로 고생 많았소”

병원장 시절 헤어져...두만 어엿한 의사·약사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노부부는 서로 입을 열지 못했다.

26일 서울 센트럴시티 6층에 마련된 단체상봉장. 북녘에서 온 최고령자 임문빈(86)씨를 방문한 남녘아내 남상숙(84)씨가 먼저 인사를 했다.

“나 알아보셨소?” “못 알아보셨구만.”

반갑기 그지 없는 미소를 어색한 표정에 숨어보내던 남씨는 “왜 못 알아보냐?”며 안나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흰집했던 흑자색 남편도, 생기 넘쳤던 아내도 30대 모습은 50년의 세월 앞에 흐릿해지고 말았던 것이다.

깃난이되었던 두 팔이 50살을 훌쩍 넘긴 것을 본 임씨는 또 할 말을 잊었다.

한국전쟁 직후 서우 영동포에 있던 서울병원 원장이던 임씨는 가족들의 피난 권유를 뿌리치고 혼자 잘 돌보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선 ‘오빠생각’이란 노래도

못 들었어요. 아베 생각한다고...”

남 태희(54)씨와 윤희(52)씨는 아버지 가슴에 피문하며 인방아린 울음을 터뜨렸다. 서로를 위해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가족들의 약속처럼 돼 있었기 때문이다.

남씨는 신선의 도움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당시 37~1살배기였던 두 딸을 아베처럼 의사와 약사로 키워냈다.

태희씨는 고려대 의대를 나와 경기 수원시에서 소아과외원의를 운영하고 있고, 작은 딸 윤희(52)씨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결혼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약사로 일하고 있다.

“말씀을 잘 키워줘 고맙소, 고마워.”

아버지 품에서 잠시 벗어난 두 딸들은 마치 어느새 소녀들이 돼 녹음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꺼내 들고 아버지 목소리와 모습을 남으려 비헤 손을 놓았다.

■ 매일저널 society@hanu.co.kr

## 한겨레

2001. 2. 27 (화)

# “우리도 언젠가는...”

성경희씨 모녀 상봉소식에 희망·안타까움 교차

## 겨레의 만남

3차 이산상봉

### ■ 대한항공 남북자 가족

“언젠가는 우리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다시 키워줍니다.  
1969년 12월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사건’ 당시 돌아오지 못한 11명 가운데 한 사람인 여산 승무원 성경희(당시 23)씨를 남쪽 어머니 이후덕(77)씨가 만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함께 남북한 정거점(당시 40·시업)씨와 김봉주(당시 20)씨 가족들은 희망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듯 말을 잊지 못했다.

장씨의 큰아들 재석(42·경남 김해시 어방동)씨는 “눈이 많이 와(다른 교통편 대신)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그만 돌아오지 못하셨다”며 “금방 와서 놀아주신다고 했는데...”라며 말

을 잊지 못했다.

장씨가 돌아오지 못하자 삼남매 하던 어머니 이순남(68)씨는 남편이 하던 사업을 맡아 4남매를 키웠다. 남편의 귀환을 위해 30여년 동안 갖은 노력도 다했다. 국제인권위원회에 보낸 편지만도 1천여통을 남겼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언제나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재석씨는 “너무 힘들어 아버지 귀한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다시 기대를 갖게 됐다”고 했다.

남북 당시 영동방송(현 강릉 문화방송) 기자였던 김봉주씨의 동생 봉욱(58·시골도봉구상동)씨도 성경희-이후덕씨 상봉을 자기 임처럼 기뻐했다.

하지만 한 남북 소식에 쓰러져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진다 고 했다. “당시 어머니는 심장질환을 앓고 계셨죠. 형님이 납치됐다는 얘기를 차마 못하셨더라고요. 계속 숨길 수는 없어 시너달 뒤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 송죽에 쓰러진 어머니는 갈래 일어나지 못하고 몇달 뒤인 지난 70년 말 아들을 가슴을 붙은 채 세상을 뜨고 말았다.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자 가족들은 시간 직후 ‘납북자 가족모임’을 만들고 남북 규탄대회에 참여 북한에 가족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영동장 같은 남북한 긴장과 대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었다. 지난 73년부터는 모임도 흐지부지됐고, 가족들의 가슴앓이는 끝없이 이어졌다.

납북자 가족들은 지난해 8월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때부터 상사 확인과 상봉을 신청했다. 하지만 겨우 성경희씨만이 생사가 확인됐을 뿐, 나머지 가족들은 아직까지 협곡의 생사조차 모를 채 가슴만 태우고 있다. 동진호 납북 선원 등 300~400명으로 추정되는 다른 납북자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 매일저널 society@hanu.co.kr

### ■ 대한항공 납치사건이란

성경희(53)씨 가족의 운명을 바꾼 ‘대한항공기 납치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공항을 떠난 대한항공 여객기(YS-11)가 이튿 25분만인 낮 12시25분에 대한령 상공에서 남쪽에서 관동51년 북쪽 상지공작원 조성희(당시 42)씨에 의해 북쪽으로 피랍된 사건이다.

당시 ‘납북’된 사람은 승객 47명과

### 69년 대 관령상공서 북 공작원에 피랍

승무원 4명 등 모두 51명이었다. 북쪽은 사건 다음날 유병하·최석민씨 등 두 조공작원 앞세운 기자회견에서 “사건 입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 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 여론이 일자 1970년 2월14일 납북자 가운데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 등 11명을 뺀 39명만 만포집을

통해 돌려보냈다.

26일 평양에서 어머니 이후덕(77)씨를 만난 성씨는 그때 돌아오지 못한 두명의 여승무원 가운데 한명이다. 다른 이는 정진숙(55)씨. 이밖에 미귀환 승객은 김봉주·이동기·임희수·장기암·채진다·최정중·황원씨 등이다. ■ 매일저널 society@hanu.co.kr



“아이고 어머니” 26일 오후 몽양 고려호텔에서 남쪽의 아들 이우성(왼쪽에서 두번째)이 북쪽의 어머니 장오목(94)씨를 만났으니 지대해 걸린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머동상을 시이에서 풍경을 터뜨리고 있다. 몽양/공동취재단



“기쁨이예요” 북한 민원인 김연희(가운데)가 출신으로 공군소속이던 정두영(67)친목회 회장이 26일 서울 센트럴호텔에서 남쪽의 어머니 김민희(90)씨를 영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 조야” 정남 26일 몽양 고려호텔에서 민족친선대 미국군으로 참전했다 북쪽에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김지연(69)오복복)씨가 손을 잡고 호는는 남쪽 동생 지조씨(66)씨를 위로하고 있다. 몽양/공동취재단

51년만에 펼쳐어 상봉 이우성씨

“아들아 왜 이제야...”

노환 94살 노모, 장남 몰라보다 뒤늦게 눈물

한참을 흐느낀 뒤 어머니는 아들 이우성(77·경기 과천시)씨의 어머니 장오목(94)씨는 51년 만에 장남이 왔다는 소식을 접하며 눈물을 흘렸다. 장남이 왔다는 소식을 접하며 눈물을 흘렸다. 장남이 왔다는 소식을 접하며 눈물을 흘렸다. 장남이 왔다는 소식을 접하며 눈물을 흘렸다.

‘공군예술키’ 정두영씨 90살 노모 상봉

“오마니 제가 왔어요”

중학5년 의용군 징집때 한미다 말 못하고 이별

일몰 없지 못했다. 생전 어머니가 아들 이우성(77·경기 과천시)씨의 어머니 장오목(94)씨는 51년 만에 장남이 왔다는 소식을 접하며 눈물을 흘렸다. 장남이 왔다는 소식을 접하며 눈물을 흘렸다.

‘국군포로’ 김지연·손원호씨 남쪽에서 만나

“죽은줄만 알았는데”

가슴의 혼장 서막막 뜨거운 포옹·눈물로 녹여

을 잃었던 뒤 나를 따라온데로 끌려갔다. 미군들이 풀어준 것을 동족의 가슴에 털 수 없어 인민군에 자원입대했다. 장군님의 배려로 6남매 모두를 데려가지 보내고 잘 살고 있다. 가슴에 혼장 서막막 뜨거운 포옹·눈물로 녹여

겨레의 만남

3차 이상상봉

“돌이간 신 줄만 알았는데...” 정남 26일 몽양 고려호텔에서 민족친선대 미국군으로 참전했다 북쪽에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김지연(69)오복복)씨가 손을 잡고 호는는 남쪽 동생 지조씨(66)씨를 위로하고 있다. 몽양/공동취재단

# 수절아내 “어디갔다 이제 왔소”

## 3차 이산상봉

### ■ 평양상봉 이모저모

꿈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환유. 기쁨은 오열이었다. 26일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반세기 만에 가족과 재회한 남측 방문단은 세월 앞에 너무나 변해 버린 부모와 처자식의 모습에 또 한번 눈물을 쏟았다.

### 치매아버지 아들 못알아봐

○“아버지! 저 양복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14후퇴 때 이모집에 맡겼던 막내 아들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심장박동기까지 달고 방북한 손시정(90 경기 고양시) 할머니는 50년 만에 북에서 만난 아들 안국(55)씨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7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 온 할머니는 연신 팔을 흔들며 “가시어머니(장모) 기억 나세요”하며 옛 기억을 일깨우려는 막내 아들의 목소리를 잠깐 알아들었는지 눈물을 글썽하다가 이내 허공 바라보기를 반복했다.

○“여보, 그냥 만나면 모르겠어. 미안해.”  
14후퇴 때 부인과 팔을 두고 단신 월남했던

이기전(76·전남 나주)씨는 50년 동안 홀로 두 딸을 키운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내 곁으로 가지 못하고 딸들부터 찾았다. 큰 딸 강연과 둘째의 이름을 확인한 이씨는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냥 안아 주겠다”며 딸들을 힘껏 부둥켜 안은 뒤 그 제사야 맞은 편에 앉아있던 아내 립보미(71)씨 곁으로 다가가 “여보, 미안해”라는 한마디를 던지고는 흐느꼈다. 아내 립씨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흘렸다.

### 치매어머니는 극적 말문열어

○“어머니! 안수 애비가 돌아왔어요.”  
14후퇴 때 시골 만에 돌아오겠다며 집을 떠난 아들 이후성(76 경기 파주시)씨는 중풍에 걸린 채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 앞에 돌아 왔다. 치매에 걸려 10년 동안 말문을 닫아온 어머니 장오목(94)씨도 휠체어에 앉아 한동안 먼 곳을 바라보다가 “니가 안수 애비냐”며 극적으로 입을 열었다. 이들은 “죄송해요.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 있어 주세요”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잊지 못했다. 남쪽으로 내려와 3남 2녀를 둔 이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수절해 온 북의 아내가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라며 원망 섞인 통곡을 하자, 쌓인 한이 폭발했는지 눈조차 뜨지 못한 채 오열만 계속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YS회고록 北서도 화제

### “현직대통령 문제도 ○-이날 평양 만수대 남선 거론하는군요” 여측극장 환영만찬에서

북측 인사들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둘러싼 남북 내부의 논란을 불쑥 거론했다.  
장재언(張在彦) 북한 직접자회 위원장은 한담 도중 갑자기 장정자(張貞子) 남측 방문단장에게 “남한에서 김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화제를 꺼냈다. 장 단장의 대꾸가 없자 그는 “하긴 남조선 사회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면 (오허려) 인기가 있으냐”라며 손뼉 내지었다. 최윤식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장은 이 말을 받아 “회고록에서 현직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고 썼는데 누가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측 관계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 다르지 않겠느냐”고 대답하자, “남조선 사회는 현직 대통령 문제도 거론하는군요”라고 대꾸했다.

# “어머니 돌아가신줄 알았는데...”

### ■ 서울상봉 이모저모

빈백년 끊어진 할매이 다시 이어졌던 26일 오후4시께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 마련된 단체상봉장. 이산의 한을 토하느라 한동안 울음바다를 이뤘으니 곧 환유의 정을 재확인한 가족들의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기쁨의 장'이 됐다.

○북한 취주악의 대가로 1994년 김일성 영결식때 연주된 취주악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편곡하는 등 작곡가로 이름을 떨쳐 '공훈예술가' 칭호를 얻은 정두명(67)씨는 노모 김일순(89)씨를 만나자 미처 “불효자식이 이제서야 왔습니다”라며 큰절을 올리고 어머니 품속에 안겼다. 아들을 보고 놀랄까봐 우황청심환까지 복용한 김씨는 백발이 성성한 아들을 보고 “누군지 모르겠네. 얼굴이 많이 변했어”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 생사 확인때 형제만 찾아

○“어머니 필요자를 용서하세요.” 생존가족 확인때 형제만 찾고 어머니 이음진(87)씨를 찾지 않았던 북측방문단 김원중(68)씨는 품에 그리던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채 한동안 떨어져 있지 않았다.

네 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후 네 이름만 부르시다 세상을 등졌어.” 직접 마련한 금반지를 끼워주는 노모의 주절친 손을 잡은 이들의 얼굴은 환희와 희원이 뒤섞인 눈물로 범벅이 됐다. 김



‘김정일화’ 선물 북한 피바다 가극 단장인 김수조(오른쪽)씨가 북에서 가져온 ‘김정일화’를 남측의 조카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서울=사진공동취재단

기다림 끝의 짧은 만남이 끝날 때까지 노모는 이들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졌다.

### ‘50년만의 결혼예물’ 반지건네

○“제가한 줄로만 알고 50년 세월을 기다려온 남측의 아내를 찾지 않았던 북의 남편 황창수(84)씨와 권창희(72)씨는 아내들이 건네는 금반지를 채 까지도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당신 떠날 때 내가 언제까지라도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수”라는 아내 송순섭(82)씨의 말에 황씨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제가 했으면 어떻게 당신 얼굴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었겠어요.” 권씨도 아내 연일순(71)씨가 “50년만의 결혼예물”이라면서 건넨 금반지를 손에 쥐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연신 “이 사람이 나를 기다렸답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 “석달후 온다더니 50년이...”

○북의 아들 조원경(73·원산경제대학 교수)씨를 만난 어머니 김서운(87·충북 괴산군)씨는 “3개월 후에 돌아온다더니 50년이 지나서야 나타나면 어쩌냐”면서 “아무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모양”이라고 한동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나 혼자 나가 식구 불러 왔습네다. 딸이 돌아오네다”라는 아들의 말에, 노모는 “이들(손자)은?”이라고 물었다.

### “살아 또 너를 볼수 있을까”

○남측 가족 최고령자인 허 계(92·여)씨는 아들 김두식(70)씨에게 “네 아내 사진은 어디있냐”고 물어보는 등 북쪽 며느리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허씨는 “살아 생전 다시 너를 볼수가 있겠다”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자, 두식씨는 “어머니, 증손자가 지난해 컴퓨터대회에서 1등을 해 곧 김책공대에 들어갔네다”라고 자랑하는 등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26일 오후 서울 센트럴시티 단체상봉장에서 북에서 온 정지용 시인의 아들 구인씨(가운데)가 남쪽의 형 구관(왼쪽), 여동생 구원씨(오른쪽)를 만나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차마 꿈엔들 잊었겠느냐”

정지용시인 南北 두아들  
구관·구인씨 뜨거운 포옹  
부친 사망장소 얘기갈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서정시 '향수'로 잘 알려진 정지용(鄭芝溶) 시인의 남쪽과 북쪽 두 아들이 26일 반 백년만에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만나 '꿈엔들 잊힐리 없는' 상봉의 눈물을 흘렸다. 남쪽의 형 구관(求寬·73·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씨가 아버지의 시 '향수'를 낭송하자 북쪽 동생 구인(求寅·68)씨는 형을 바라보며 연신 눈시울을 흘렸다.

“아버지는 북한에서도 김소월 시인과 함께 최고의 애국시인으로 꼽히시는 분이였다”는 동생의 말에 형은 “이곳에서도 아버지는 아직도 존경받는 시인이다. 내가 북한에서 유명한 방송기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화답하며 애기꽃을 피웠다.

구관씨는 “전쟁 직후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찾겠다고 (내가) 집을 나선 이후 영영 못보는 줄 알았는데 반세기가 지나서야 다시 만나게 됐구나”라며 연신 동생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두 형제가 만났지만 정지용의 사망의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아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아버지의 사망 장소와 시기로 화제가 옮겨가자 이들의 '주장'은 엇갈리기 시작했다. 구관씨가 “아버지가 1950년 9월 평양의 교화소(교도소)에서 폭격으로 사망하셨다는 데...”라며 안타까워하자, 구인씨는 “아버지는 북한으로 오시던 중 의정부 부근 소요산에서 폭사하셨다”며 손을 내 저었다.

구인씨는 이어 “95년 6월 북한에서 발간된 '통일신보'에서도 아버지가 북으로 오시던 중 동두천 소요산 기슭에서 미군 비행기의 기총탄을 맞고 숨을 거뒀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사망시기도 밝히지 않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 “형님...” “그래...” 3차 이산상봉

■ 국군포로 두가족 평양상봉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  
입벌려 치아 확인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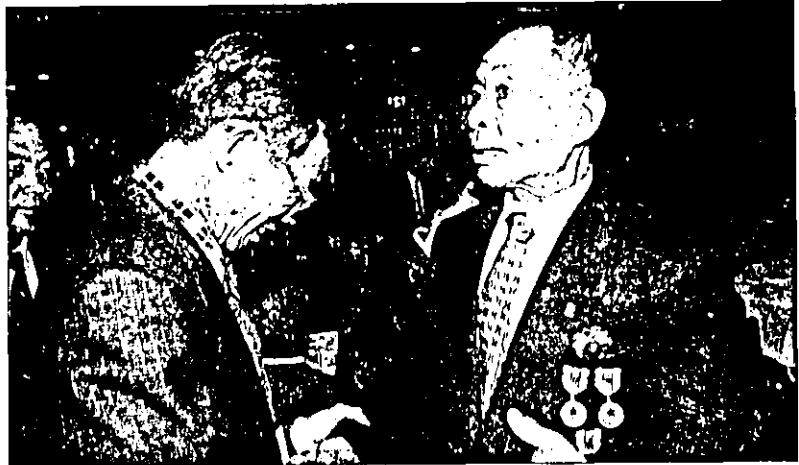
“뿔이किन줄 알았는데 형님.” “그래 그래 그만  
안이라.”

26일 정부가 국군포로로 파악하고 있던 형 김  
재택(69)씨를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50년만  
에 만난 남측 이산가족 김재조(65)씨는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자리에서 뿔떡도 못하던  
재조씨는 갑자기 형의 입을 벌려 치아부터 확인  
했다. 뼈쪽이 맞은 이금니와 본 순간 재조씨는  
“맞구나, 맞아. 형님이구나”라며 형님을 꼭 부둥  
켜 안았다. 재조씨는 이어 “눈 위에 같이 있었는  
데 지금은 없어졌네요”라며 형의 얼굴을 재차 확  
인했다. 귀가 어두운 재택씨는 동생에게 한발씩  
더 다가와서 “공화국 품에서 드디어 동생을 만나  
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 주위에는 조선중앙TV와 외신 기자  
들이 몰려들었고, 북측 기자는 재택씨에게 이산과  
정을 물었다. 이에 재택씨는 큰 목소리로 “남북부  
에서 미군이 전쟁을 일으킨 뒤 나탈 괴뢰 군대로  
끌어가 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가슴에 훈장 4  
개를 달고 나온 재택씨는 청진 나남기계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훈장을 받은 그 간의 사정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북한 TV는 이날상봉 정면  
과 ‘의거자’ 김재택씨의 사면을 자세히 전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측 동생 손준호씨와 북측 형 원호(75)씨는



남측 김재조씨(왼쪽)가 26일 평양 고려호텔 단체상봉장에서 국군포로 출신인 북측의 형 재택씨의 손을 부  
어잡고 한맺힌 눈물을 토해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상봉 후 어색한 인사만을 피뿌이하면서 한참동  
안 눈물을 흘렸다. 형 원호씨는 1950년 한국전쟁  
중 국군 국방강비대에 근무했던 국군포로. 준호  
씨는 형에게 “열심히 잘 살고 있고 행복한 기정  
을 이루고 있디니 고맙다”고 인사글 건넸다. 이  
어 상봉장에 나온 형수 김충경(70)씨와 조카 2명  
과 인사글 나누고 그 동안 끊어졌던 남북 가족들  
의 소식을 전했다.

원호씨는 이날 상봉에서 국군 근무 도중 같은  
부대에 있던 이북 출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민군으로 넘어갔다고 동생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원호씨는 “민족의 일인으로서 내가 걸

어온 인생 길을 참으로 잃었다”고 강조했다.

동생 준호씨는 전쟁이 끝나고 형의 전사통지  
서가 날아와 죽은 줄로 알고 제사글 지냈고, 전  
쟁 전 형수가 아득도 수질한 채 지낸다”는 사실을  
형에게 전달했다. 형 원호씨는 북쪽이 듣고만 있  
었다. 원호씨는 56년 재태하고 청진공대를 나와  
40년간 탄광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탄광 교관  
(교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군위를 동생에게 전  
하면서 그간의 한을 털었다. 준호씨는 상봉 후  
“50년이라는 세월로 형의 얼굴이 직장이 바뀌었  
지만 그래도 형을 알아보는데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왜 이제야 왔니...”

84세 어머니-北 큰아들 최경석씨 서울서 50년만에 재회

“경석아! 내 이대야! 왜 이제야 왔어.”  
전쟁 끝에 죽은 줄 알았던 큰 아들. 26일 반세  
기만에 “노릇없이 서울에 나타난 그 아들을 부어  
간고 모기술(84·서울 용산구) 할머니는 뿔뿔  
치며 뿔떡을 쏟아냈다. 평생 갖기던 모습만을 가  
슴에 담은 북의 아들 최경석(67)씨도 주름으로  
덮인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느라  
어머니가 뿔리분게 늙으셨어요. 모두 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언론사 기자생활을 했다는 경석씨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의용군으로 징발된  
뒤 소식을 끊겼다.

이남서울센트럴시티 뿔레니엄홀의 상봉장에는  
경석씨의 동생 8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동생들이  
“아버지가 평생 형의 사진을 수첩에 넣어다니시  
다. 4년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형을 그리워했다”  
고 전하자, 경석씨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큰  
접을 쏟았을 텐데...”라며 다시 고개를 떨쳤다. 의용

군에 끌려간 뒤 남동생 2명과 여동생이 태어난 때  
문. 명식(49)씨는 “말로만 들던 큰 형님을 이제서야  
뿔니 감개무량하다”며 손을 잡아달라고 청했고,  
형은 “어머니를 모시느라 수고했다”며 치을 받 동  
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눈물로 범벅이 된 형제들  
의 표정은 경석씨가 여동생 영순(59)씨에게 “어  
침 때 말 안듣는다고 넘어뜨려 생긴 이마출터  
가 아직도 남았구나”라며 새삼 미안해하면서  
웃음으로 바뀌었다. 동생들이 “어머니가 매일  
뿔뿔위로 가자고 지꾸 조르고, 청와대에 만  
원을 허자는 뿔에 혼쭐이 났다”고 형을 ‘원망’하  
고, 경석씨가 “어머니, 이제 제가 왔으니 걱정  
마시리요”라며 받아 넉넉 때는 폭소가 터졌다.  
김재태에 의지한 채 귀머지 어두워진 노모는 그  
런 만이의 얼굴에서 한 순간도 눈을 떼지않다가  
습머시 손을 다시 잡아끌었다. “네가 죽어 오지  
않을까봐 며칠동안 잠 한숨 못지고 기도했어. 이  
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널 따라가 살란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26일 서울 센트럴시티 단체상봉장에서 모기술 할  
머니가 뿔쳐어에서 일어나 아들 최경석씨를 부어  
안은 채 뿔떡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네가 정말 경희냐”

남북 KAL승무원 성경희씨 32년만에 어머니와 상봉

중앙=공동특재단

“엄마! 너 내골 맞아?” 63년 12월 남북한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복원해 남아 있던 성경희 씨(55)가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일원으로 평강을 방문한 어머니 이후라 씨(77)와 감격의 상봉을 했다.

어머니는 26일 평양 고려호텔 단차상봉장에서 몇 걸음 다가온 딸을 한참 쳐다보며 환동한 말을 잊지 못하다 딸이 “엄마를 계속 부르자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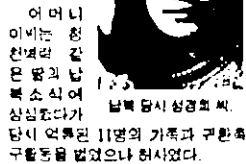
7년 이적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야. 전에는 내가 가장 불행한 걸 알았는데. 딸도 만나고 다들 알아서 신난대. 대상어도 고향어.”

그녀는 “이제 여한이 없다”며 27일 개별만남에서는 딸과 함께 자신의 77회 생일잔치를 열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 12일(양력 3월 6일)이 생일이지만 딸과 함께 잔치를 하고 싶어 서울에서 케이크까지 준비해 가져갔다.

당시 남북한 승객 47명 등 51명승무원과 함께 서울로 오던 항공기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성경희는 다른 승무원 3명 등 12명과 함께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이화여자 사회생활과를 나와 항공기 승무원으로 활동하던 그녀는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은 친구 같은 딸이었다.

성씨는 북소리도 고와 당시 TBC에서 항공리포트를 하기도 했다.



남북 당시 성경희 씨.

전매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성경희의 아버지 성경경 씨도 남북자가족회 활동을 벌이다 79년 세상을 떠났다.

딸의 소식을 전해들은 것은 지난 92년.

자수한 독일유학생 출신 북한공작원 오길남 씨(60)한테서 성경희가 대남특색방송 “구국의 소리” 방송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전해받은 것.

성씨는 북한에서 김일성종교대교수와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다. 상봉장에서 성씨는 아버지의 사망소식에 다시 한 번 오열한다.

어머니 이씨는 북에 있는 사위들과 내외와 스페터를 선물했다.

그리고 딸에게는 아버지가 30년 전 사준 시계, 목걸이 그리고 며칠 걸려 손수 쓴 술 코트 풍합 건넸다.

무엇보다 딸에게 공들여 전달한 선물은 앨범과 편지.

딸의 종교교 시집, 대학시절 그리고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정리한 앨범 3권과 남아 있는 동생과 조카들이 성경희에게 보낸 편지다.



북한 정치용 시인의 아들인 구인 씨(63·오른쪽)가 남북의 딸 구관 씨(72·가운데)와 여동생 구원 씨(66·를 26일 서울 선트호텔에서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홍 기자>



북에서 온 조기은 씨(70)가 어머니 김씨(85) 손을 잡고 고향의 봄을 부르고 있다. <시진공통특재단>

\*지면 사정으로 영어·한자 습니다

본면 의견·자료 social@mk.co.kr

‘鄉愁’ 들으며 50년 恨 달래

시인 정치용 협육들 만나

특별취재팀

그리운 아버지의 죽음을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서로 불행한 두 형제의 만남이 서울에서 극적으로 이뤄졌다.

“남은 법 동족 고향으로/옛 이야기 지을래는/실개천이 휘돌아...”

유권에게 익숙한 ‘향수(懷戀)’로 유명한 서정시인 정치용(鄭芝勇) 씨와 셋째 아들 정구인 씨(68)가 26일 북측 방문단으로 서울을 찾아와 딸 정구관 씨(72)를 만났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선트호텔에서 “반세기 만의 상봉”을 하면서 나는 정치용 씨의 두 아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로 대화를 시작했다.”

구인 씨는 “20년대 창작활동을 하였던 아버지는 조선작가동맹(KAPF) 소속도 아니었고 혁명적

인 시를 쓰시는 분도 아니셨지만 주체분화적인 관점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됐다”며 “미국시민인 아버지 덕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정구관 씨는 “항상 불행한 아버지를 찾았다고 집을 나서는 내 뒷모습을 본 지 꼭 50년 만에 구나”라며 “이렇게 기쁜 날 아버지의 시 한수 읽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한수를 낭송했다.

이에 대해 구인 씨는 “나 오늘 자나거나 그리운 고향에 왔노라/마중 나온 황남도 누이도 잠깐계 맞아 주는데, /저기 두 딸을 불러고 일사 안은 한겨레를 보라, 한민족이 불로 동강나 잡라지지 애향다면 /나는 북에서, 너는 남에서/돌어진 조국의 얼개를 잊지”는 축흥시로 답했다.

시인의 아들답게 형제간에 시를 주고받은 후에도 구인 씨는 “항남 많이 봤으셨습니까”라며 근황을 물었고 구관 씨는 “아버지 이름을 단 지용문학회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방문한 남측 이후성 씨(76)가 평양에서 어머니 장오독 씨(94·오른쪽)와 여동생 리옥순 씨를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평양시전공동회재단 >

## 生前에 쓴 편지보자 끝내 오열

### 집단체조거장 김수조씨

“전쟁 중 나동간에서 우연히 만난 네 아버지는 평양에서 방송예술학 강사진을 지내다 함으로 99년 이 세상을 떠나셨다.”

반세기 만에 삼촌을 만난 기쁨과 아버지의 비보를 접한 슬픔이 뒤엉켜 상봉장은 또다시 울음바다가 됐다.

아버지 수회 씨의 소식을 여타게 기다리던 북한 집단체조의 거장 김수조 씨(69)의 조카 복갑 씨(52·서

움 원평구 신사동)는 26일 오후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 들어선 삼촌 김씨의 품에 외라 안겨 친단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느껴야 했다.

수조 씨가 수회 씨 생전에 쓴 편지와 붓을 꺼내자 복갑 씨는 함께온 여동생 3명의 손을 꼭 잡은 채 무너지는 기쁨에 말문을 잊지 못했다.

수조 씨가 붓으로 직접 쓴 형 수회 씨의 편지를 차분히 읽어내려가자 남측 가족들은 끝내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북의 삼촌은 “이렇게 좋은 날 우는 것은 네 아버지 뜻이 아니다”며 북에서 준비해온 선물꾸러미급 하나를씩 쪼개 조카들을 달랠었다.

“조카들 만남 생각에 서 답 전부 터 직갑 키운 거야. 복갑아, 어서 이리와봐라. 이 꽃이 바로 네 아버지 뜻이다.”

북한 최고 영예로 통하는 ‘공화국 임웅’ 칭호와 ‘인민예술인’ 칭호를 받은 김씨는 북한 유명 공연단체인 피마디가극단의 총장(단장)이다.

## “애비노릇 못한 나를 용서해다오”

### 北 최고령자 임문빈씨

“어디 보자 내 딸들아, 애비 노릇 제대로 못한 나를 용서해 다오.”

두 딸이 내 살, 두 살 때 아내에게 남겨두고 홀로 북으로 갔다가 반세기 만에 두 딸을 인이반 북측 상봉단의 최고령자 임문빈 씨(86)는 최색감과 만남의 기쁨을 쏟아져 나오는 눈물로 표현했다.

두 딸도 “10년 전 아버지께서 북

한에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확인한 후 한시도 아버지를 잊지 못했다”며 지난 50년 동안 부르지 못한 아버지’를 인식 밝혔다.

지금까지 남편이 살아 있다고 굳게 믿어왔던 부인 남상숙 씨(81)는 남편이 상봉장에 들어서는 순간 알아보고 품에도 그리던 남편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임씨는 검상재대 의대 출신으로 6·25전쟁 당시 서울 임등포에서

경기도립병원 원장을 맡고 있었다.

임씨는 당시 전쟁이 나자 피난을 가지는 부인의 권유에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며 피난을 거부해 혼자 남았고 결국 50년의 이별로 이어지게 됐다.

인민군이 서울에 진주한 후 임씨는 인연으로 끌려갔고 이후 가족을 만날 기회는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 소리 못듣는 94세노모 안고 통곡

### 南 상봉단 이후성씨

94세의 어머니 장오독 씨는 50년 만에 장남이 왔다는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채 한동안 먼 곳만 쳐다보고 있었다.

장씨는 7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뒤 갖가지 노환에 시달려 오늘 내일 유 기약하기 힘든 상황으로 마지막 이별지 모를 이들을 할 수 있는 기회 갖기 위해 협제어에 의지해 상봉장에 나왔다.

이후성 씨도 자신의 품에 뒹어리며 “오빠, 왜 인제 왔어요”라며 울 부짖는 여동생 리옥순 씨(63), 리순금 씨(60), 남동생 리후선 씨(60), 아들 리인수 씨(55), 부인 김선녀 씨(74) 등을 껴안고 한동안 품 껴안 뒤에야 바로 곁에 어머니가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다.

여동생들이 어머니 장씨의 귀에 가까이 대고 “인수 아버지 왔어요”라고 소리쳐자 장씨는 천천히 고개 할 풀리 이세를 바라봤다.

이씨의 외마디 통곡음 그제서야 알아듣은 듯 어머니 장씨의 행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다.

황해도 평산군 안성면이 고향인 이씨는 지난 45년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와 7남매의 가장으로 살았다.

전쟁에 대한 압박과 시달림으로 51년 1·4후퇴 때 가족을 뒤로 하고 “3일 뒤에 오겠다”고 약속하고 단신으로 입어본은 임진강을 건너 평남 했다.

# 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 서울도 평양도 '눈물바다'

서울과 평양이 또 울었다. 50년의 이별이 서럽고 역류해 오는 감동이 버거워 부둥켜안은 가족과 친척들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쏟아내고 또 토해냈다. 지난해 8·15 이후 세번째 치러지는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지만 은거래는 이들의 만남을 지켜보며 히나임은 다시 확인했다. 남북 양측의 이산가족 200명은 26일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해 반세기 만에 그리던 가족을 만났다.

### 여기는 서울

#### 특별취재팀

북측 방문단은 26일 서울 센트럴 시티 밀레니엄홀 단체상봉장에서 수십 년 동안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가족들과 만나 또 한번 울음 바다를 이었다.

○...석남 후만 온다고 떠나버린 아들이 50년 만에 교수가 돼 돌아왔다.

6·25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가는 비압에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조원영 씨(69)는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 김서운 씨(89)를 보자마자

“어디 보자  
우리아들 맞나”  
잡은 손 놓을줄 몰라

큰절을 하며 그 동안의 절호를 사죄했다.

기둥이 튼튼한 어머니 김씨는 “의용군 갔다 3개월 후에 온다면 애가 어떻게 늙어서 나타났나”며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쪽 떨어졌구나”라며 자신 앞에 나타난 아들이 연신 믿겨지지 않는 듯 아들의 얼굴을 훑어저라 저다봤다.

동생 수임 씨(61)는 “오빠에게 선물로 주려고 오빠와 여섯살 작 뛰어놀던 동네 탄파리재에 유과 직진을 찍어왔다”며 “땀입되기 전까지 가족들이 그리우면 언제든지 이 사진을 보고 아픔을 달래기 바란



북측서온 류용구 씨가 남측의 누나 용림 씨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팀>

다”면서 조씨에게 사진을 건네줬다.

의용군으로 복무하던 조씨는 원산 경제대학을 나와 같은 대학에

서 상임강연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말을 가족들은 기뻐할 만큼 울었다.

○...북의 최경석 씨(66)는 남측

의 어머니 모기술 씨(84)를 만나 자마자 합체어에 의지한 어머니를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다른 가족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춰 흥을 돋웠다. 최씨는 자신이 부른 노래가 ‘사랑가’라고 소개하며 “북한에서 고향과 가족들을 그리울 때 즐겨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어 “오마니, 기쁘시죠. 염려 마시리요, 오마니. 통일되면 우리 함께 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살아계십시오”라며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디 보자.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아들이 맞나 내눈으로 다시 보자.” 단체상봉장에서 북측방문단 조기운 씨(66)는 동생들에게 둘러싸인 채 어머니 김매월 씨(87)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눈물 줄 흘렸다.

조씨는 “50년 동안 북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다 풀린다”며 헤어졌던 가족들과 이야기 붓을 괴었다.

가족들은 조씨가 죽은 줄만 알고 이듬해인 51년 사망신고할 한 뒤 매년 제사를 지내왔지만 어머니 김씨만은 돌아올거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한시도 고향방향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왔다.

어머니 김씨는 믿어들을 만나는 소식을 듣고 “아들 얼굴을 똑똑히 봐야 한다”며 얼마 전 지병인 백내장 수술을 받기도 했다.

### 특별취재팀

사회1부=윤경호 고성훈 배철  
홍성성 기자  
정치부=김인수 기자  
사진부=진용학 김성중 박상선  
김재훈 기자

## 반공포로 출신 감격의 해후

### 여기는 평양

#### 평양=공동취재팀

26일 평양 교려호텔에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장은 또 다시 눈물바다로 변했다.

남씨 세번째 진행되는 협곡간 만남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반세기 만에 이뤄진 감격의 해후이기 때문이다.

○...평양을 찾은 제3차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중에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로 석방돼 남한에 살고 있는 김한진(70), 장형남(78), 최인식(71), 최정환 씨

(70) 등이 포함됐다.

평양에서 남동생 근건 씨(60)와 여동생 기숙(65)·문숙 씨(55)를 만나게 되는 김한진 씨는 6·25전쟁 발발 직전 인민군에 입대하면서 가족과 헤어졌다.

김씨와 함께 평양을 찾은 장형남 씨 역시 인민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강원도 원산에서 포로가 돼 부산 등대와 거제도수용소에 수용됐다 휴전 후 석방된 이산가족이다.

가족이 남한에 모두 내려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한에 간류한 최인식 씨와 인민군에 징집되면서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이산가족이

던 최정환 씨 역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했던 반공포로 출신이다.

황해남도 벽성이 고향인 최인식 씨는 평양에서 누이 윤연 씨(74)와 남동생 은식 씨(63)를 만나 회포를 풀게 됐다.

○...평북 영변이 고향인 조구연 씨(90)는 북한에 남겨두었던 아들 남철 씨(57)와 한맺힌 민남을 기쁘다.

남들은 ‘아버지’ ‘아들’ 따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지만 아들 병철 씨(70)는 왼쪽 발목 골절로 합체어를 이용해 평양으로 가 그리운 협곡을 만났다.

현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쪽지 위에 글씨 써내려 갔다.

“아버지 저는 조병철입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조구연 씨는 아들이 전해 준 쪽지 답글에 읽어 주머니에 넣어놓았다. 50년 세월이 부지ろ 갈라놓았지만 자신의 얼굴을 담은 아들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번 남북 방문단에는 4명의 고령자들이 합체어에 의존해 가족을 만나러 평양으로 갔다. 특히 손사건 씨(90)는 심장박동기를 달고 평양에서 아들 손양록 씨(55)를 만났다. 이후성 씨(77)는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체어를 이용했다. 이희화 씨(77)는 대퇴부 골절, 윤체근 씨(70)는 왼쪽 발목 골절로 합체어를 이용해 평양으로 가 그리운 협곡을 만났다.



# “엄마... 엄마...” “내딸 맞니”

“엄마, 엄마.” “너 내딸 경희 맞니.”  
3차 이산가족 방문단으로 평양에 간 이후덕(77·서울 노원구)씨가 지난 60년 12월11일 KAL기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납북된 딸 성경희씨를 32년 만에 만났다.

이씨는 상봉장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몇 걸음 다가온 딸을 한참 쳐다보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성씨가 낯은 목소리로 “엄마”를 계속 부르자 결국 딸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 딸이야. 이름은 엄마 시위이고, 그리고 내 이름(성희·24)·딸(소영·26)들이야.”

외국유학을 다녀왔다는 외손녀와 인민군 복장의 손자는 이씨 품에 안겨 함께 울었다. 옆에 있던 김일성종합대

## ■ 남북 KAL승무원 성경희씨 모녀 감격의 상봉 30년전 아버지가 사둔 시계 건네며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

교수인 시위 임영일(58)씨가 “민갑순니다”라고 이씨에게 인사할 했다. 이씨는 상봉기간 내내 딸과 외손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난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야. 전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젠 아니야. 딸도 만나고 3월15일 시작한다는 서신교환 대상자에도 뽑혔어. 이젠 여한이 없어.”

이씨는 27일 개별상봉에서 조출한

생일잔치도 열 생각이야. 음력 2월12일(양력 3월6일)이 자신의 77회 생일이다. 딸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라고 생각해 서울에서 케이크까지 준비해왔다.

딸인 성씨는 비변암에도 친구를 따라가 남북했다. 성씨는 남북되기 전날 제주도도 다녀와 비변이었는데 고교 동창인 정경숙씨가 “같이 강릉에 가자”는 말에 근무를 바꿔 따라나섰다가 그것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당시 억류된 11명(승무원 4명, 승객 7명)의 가족들이 당국에 귀환을 촉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전태형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성씨의 아버지 성충연씨도 남북자 가족의 활동을 법이다 79년 세상을 떠났다.

딸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92년 자수한 김일 오길남씨의 아내가 딸과 같이 있었던 인연으로 재빨리 지체하게 소식을 전해왔다. 김일성 종합대 교수의 결혼했고 목소리가 고와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에서 일한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시위에게 줄 민지의 시계, 손자손녀에게 줄 대의와 스웨디시를 준비했다. 딸에게는 아버지가 30년간 사왔던 시계·복잡아·손수 든 손·코트 등을 준비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 50년恨 넘어 서울도 울고 평양도 울고

## ■ 서울에서

### 상봉기쁨에 즉흥시 낭송

○...시인 장지우씨의 아들 구관, 구인 형제는 이날 “네는 못 속인다는 옛 말처럼 상봉의 기쁨을 시 낭송으로 대신해 눈물을 흘렸다. 남쪽의 형 구관씨가 “이런 기쁜 날 아버지의 시 한 수 읊지 않겠나”며 “항수”를 낭송했다. 이에 북쪽의 동생 구인씨도 “나 오늘 지나가네! 그런데 고향에 왔노라!”로 시작하는 즉흥시를 읊어 화답했다.

○...북에서 온 아들 리승용(70)씨는 노모 어복례(90)씨를 만나자마자 큰절을 올리며 “어머님,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어씨도 “정한 아들”이라며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며 상봉의 기쁨을 나눴다.

○...어머니 모기술(84)씨를 만난 북의 최경식(66)씨는 입제에 앉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노래를 불렀다. 자신이 부른 노래를 “사랑가”라고 소개한 최씨는 “내전에서 고향을 그리며 즐겨 부른 노래”라고 설명했다. 그가 “오머니 기쁘시오, 안러마시라요, 봉일되면 모시고 살겠시오”라고 할까 지 모씨도 “오래 살아자이”라고 대답했다.

### 남편 얼굴 끝내 못알아봐

○...북측 방문단 가운데 최고령인 인민군(86)씨의 아내 남상숙(81)씨는 50년 만에 만난 남편의 손을 잡고 “왜 못 알아봐”를 인민에게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반 대희(53)씨와 은애(50)씨는 비록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지만 품에 안겨 “아버지”를 부르며 목매어 울었다. 은애씨는 아버지 가슴에 꽃을 꽂아준 뒤 두번 다시 들을 수 없

서울도 울고 평양도 울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함옥을 만난 이산가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부여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26일 오후 11시경 남측 측에 진행된 단체상봉에서 이산가족들은 일본일초가 아쉬운 듯 함옥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 동안의 인부를 물었고 일부에서는 즉석에서 큰절을 올리거나 허먼 반세기 만에 만난 이들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6일 오후 제3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단체상봉장인 서울 센트럴호텔에서 북측 아들 리강술(오른쪽)씨가 남측의 어머니 송오례씨에게 큰절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진공동취재단

을지도 모를 아버지의 목소리를 녹음했고 태희씨는 비디오 카메라로 아버지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 통일되면 백살잔치 해야죠

○...리강술(70)씨는 남쪽의 노모 송오례(92)씨를 보지마져 “50년 만에 만난 이들이 어머니 한번 안아드리겠다”며 송씨를 안아올랐다. 여동생 은애(63)씨가 “엄마는 치매가 있어 자신이 여든두살인줄 안다”고 말하자 강술씨는 “어머니 오래 사세요, 통일되면 이 이들이 백살잔치 치려드리겠습다”고 말했다.

## ■ 평양에서

남 만나면 모로겠어, 미안해”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 5남매 모두 생존소식 안도

○...남편의 뒤를 따라 이들의 손만 잡고 원망했던 선우덕순(74)씨는 북쪽의 5남매가 모두 상봉장에 모습을 나타내자 인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과 남쪽에 있는 동생을 포함해 7남매가 전쟁중에 모두 무사했던 것이다.

하지만 선우씨는 아버지가 전쟁중에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했고 동생 영희씨는 언니의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냈다. 막내가 어머니를 최근까지 모시고 있다는 소리에 “그대 내가 효자구나”라며 감시했다.

○...방북단 가운데 유일하게 노모를 만난 이후상(76·경기도 파주시 불암동)씨는 합제어를 타고 나온 노모 장오목(94)씨가 이들이 왔다는 소리조차 알아듣지 못하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후생씨 자신도 “오빠 왜 인제 왔어요”라며 울부짖는 여동생 옥순(63), 순과(60)씨, 남동생 후신(60)씨를 끌어안고 한동안 알아들을 수 없는 외마디 통곡을 했다.

### 농아 아들 아버지께 쪽지

○...어린 적 장미푸스에 걸려 말을 못하는 북쪽의 아들 조병철(57)씨는 50년 만에 아버지인 만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쪽지 위에 글을 써내려 갔다. 아버지 조구연(86·강원도 횡성군)씨는 아들의 쪽지를 함께 읽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 수절아내에 “미안해 미안해”

○...1·4후퇴 때 부인과 두 딸을 남겨둔 채 단신 원망했던 이기천(76·전남 나주)씨는 50년간 홀로 두 딸을 키운 부인에게 미안한지 말할부터 찾았다. 큰 딸의 이름을 확인한 이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큰 딸을 한껏 부둥켜 안았다. 둘째딸 강옥(51)씨도 포글포글해진 이씨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저기 계십니다”라며 사선을 어머니 쪽으로 유도했다. 그래서야 이씨는 아내인 림보미(71)씨에게 다가가 “그

3차 남북 이산상봉 사연 2제



북한의 공훈예술가인 정두명(67)씨가 서울 센트럴시티에 마련된 공개 상봉장에서 남쪽의 어머니 김인순(89·서울 영등포구)씨를 만나 "칭찬 우리 어머니가 맞는다"며 감격해하고 있다. /서울=사진공동취재단

“50년 불효 이제 갚을게요”

北공훈예술가 정두명씨 노모 상봉

“어머니 두명이에요 어머니...”

26일 가족을 만나러 서울에 온 북측 이산가족 정두명(67·공훈예술가)씨는 90세를 눈앞에 둔 어머니 김인순(89·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씨의 가슴에 파묻혀 어린아이 마냥 허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로 50년을 남게 가슴에 담은 보고핍의 한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김씨는 이날 반세기 전 됐던 소년에서 할아버지가 돼 돌아온 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이고 이 늙아 왜 이제야 왔느냐”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씨도 어머니를 쳐다보며 “어머니도 조금 늙으셨을 뿐이지 품에서 그리던 얼굴 그대로다”며 “50년간 끼친 철쭉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갚아가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전 LG화학 부사장을 지낸 동생 두환(60)씨는 “당시 경기중학에 다니던 형은 입학식 소절이 뛰어나 학교에서 밴드부 활동을 했었다”며 형과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두환씨가 형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6.25전쟁 발발 직후였다. 당시 서울은 북한의 침략하에 있었고 당시 중학생이던 형 두명씨는 서울 마포구 북이현동의 집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이내 북한군들이 들어닥쳤고 형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뒤로 한 채 전방터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정씨는 현재 취주악 작곡과 편곡으로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는 북한 취주악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정씨는 특히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영결식에서 연주해 유명세를 탔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얼굴 한번 못본 애비 미웠지”

한형춘씨 北아들 첫 대면

“용국아, 어머니 나를 원망했다” 아버지...

26일 오후 평양의 고려호텔 단체 상봉장에서 한형춘(73·부산시 서구 남부민동)씨는 난생 처음으로 보는 아들을 일찌anko 한동안 땀어질 줄을 몰랐다. 한씨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애비를 얼마나 미워했었다”며 아들을 용국씨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자 용국씨는 “아버지”를 연발하며 눈물만 흘렸다.

한경남도 한흥씨 인공기가 고향으로 한남일보 합작기술공으로 일했던 한씨는 1·4후퇴 당시 만삭인 아내를 한경남도 한흥의 차기에 남겨놓고 홀로 원남했다.

“복귀를 잠시 파하려고 국공을 따라 나선 것이 50년 이밖의 시적이

었다”는 한씨는 월남이후 부산에서 부두노동자로 일하다 지난 60년 김영국(65)씨의 재혼, 슬하에 5남매를 두고 있다.

1·4후퇴 당시 아내의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반세기를 살아왔던 한씨는 지난 17일 직신자사로부터 아들 용국씨가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한편으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노릇을 못했다. 이날 단체상봉이 이뤄진 2시간 동안 한씨는 아내 아들의 손을 간어제 “너희 이렇게 만나 소원을 풀게 됐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기적의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 /오철수기자 esol@sed.co.kr

“성경희씨 모녀 상봉 보며 새희망”

남북 KAL기장 유병하씨 아들 한민씨의 기대

남북 이산상봉

“남북된 지 3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꼬박꼬박 남아오는 아버지 이름의 투표용지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60년 남북된 대한항공 YS 11기의 기장 유병하(柳炳夏·당시 37세)씨의 믿어줄 한민(漢旻·42·무역업·서울 중계동)씨는 26일 생사 여부도 알 수 없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그는 “태권도 검은 띠를 띠면 자전거를 사주마”던 인자한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실 듯하다”고 되뇌었다.

그는 “같은 비행기에 탔던 성경희씨가 32년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모습에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금방이라도 풍일이 될 듯하다가도 냉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하도 많아 실망에도 익숙해졌다”고 애써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했다.



유한민씨가 아버지 유병하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kdaily.com

한민씨 어머니 엄영희(嚴永喜·67)씨는 “남편이 남북된 뒤 5년 동안은 남마다 교회에서 힘아기도를 하며 울면서 남을 샀다”면서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밝혔다.

●전영우기자 ansemus@kdaily.com

“어떻게 됐는지... 生死나 알았으면”

■ 미귀한 남북자 가족 표정

“근황이라도 알아보고 싶어서... 근황이라도 알아보고 싶어서... 근황이라도 알아보고 싶어서...”

제3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26일 51년 만의 만남 현장에서 에타게 가족들을 그리는 이들이 있었다. 60년 12월 11일 KAL기 남북사건으로 생이별한 남민과 형, 아버지와 딸의 얼굴을 가슴 속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미귀한 가족이다.

KAL기 남북사건 이후 귀환하지 못한 12명의 미귀한 가족들은 지난 70년대 초반까지는 성경희씨 아버지를 주축으로 ‘남북 KAL 미귀한 가족회’를 구성해 귀환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정부에 탄원도 해왔지만 오히려 해외출장을 가거나, 취직을 하는데 ‘남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다.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한 남북자 가족들은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했고, 미귀한 가족회 모임도 호지부지됐다. 이들 모임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 김봉욱씨(58·개인사업)도 당시 남북된 다섯째 형 김봉주씨(62·당시 지방MBC 기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정부에서 근황을 알 수 없는데, 남북자의 생존여부라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여경기자 kid@kdaily.com

51명 탄 강릉發 KAL기 간첩에 피랍

■ KAL기 남북사건이란

남북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지난 60년 12월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YS-11편 피랍사건이다.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돌아오던 KAL기가 승무원·승객 등 51명을 태운 채 기수탈 혐의로 풀려 한경남도 합흥과 원산 중간에 위치한 선덕

비행장에 착륙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강릉발 서울행 KAL기가 북한에 의해 피랍됐고,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던 고경간첩 조창희(趙昌熙·당시 42세)씨가 단독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70년 2월 KAL기 탑승자 51명 중 39명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통해 귀환했다. ●최여경기자

3차 이산상봉

32년만에 "엄마..." "내딸 맞아?"

남북 KAL기 여승무원  
성경희씨 어머니 포옹

"엄마! 나, 경희야, 흑흑..." "너, 내 딸 맞아?"

3차 이산가족 방문단의 일원으로 26일 평양을 방문한 이후덕(77·서울 노원구)씨는 지난 69년 KAL기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납북된 딸 성경희(55)씨를 업은 알아보지 못했다. 낯 낯했던 딸이 30년 세월을 넘어 중년이 된 데다 낯 같은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씨는 어머니를 한눈에 알아보고 다가온 딸 성경희를 한동안 쳐다만 보며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 성씨가 '엄마, 엄마'라며 계속 부르자 그때시아 딸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성씨가 32년만에 보는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리자 이씨는 "여기에



69년 납북됐던 대한항공 YS-11기의 동일한 기종의 비행기.

점이 없었는데..."라며 연신 딸의 얼굴을 매만졌다.

이어 성씨가 남편 임원일(대학교수)씨와 외손녀·손자집 소개했으며 시위 임씨는 "어머니 품만 같습니다. 맘사위 인사받으십시오"라고 인사했다. 어머니 허락 없이 곱흔한 것이 걸리는 듯 성씨가 "엄마, 어때요"라고 남편에 대해 묻자 이씨는 "어떻긴, 너무 좋지"라며 기뻐했다.

이어 외손녀 소영씨가 "할머니, 인사드리겠습니다"라며 부둥켜안자 이씨는 "이렇게 큰 딸이 있었어"

라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또 군인인 외손자 성학씨가 거수경례로 인사할 땐 성씨가 "우리 딸아들이예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고, 이씨는 "너무 고맙다. 이렇게 손녀 손자까지 보게 돼서..."라며 감격에 젖었다.

그러나 성씨는 "할머니가 80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79년에 먼저 돌아가셨다"는 이씨의 말에 또다시 풍뎠다.

외손녀 소영씨는 "지난해 12월30일 밤 꿈에 처음 보는 키 큰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더니 할머니가 평양



납북 당시 24세의 성경희씨.

에 온다고 알려줬다"며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전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젠 제일 행복한 어머니야. 어머니 없애"라며 "다음날 15일 서신교환 때는 이 번에 찍은 사진에 편지까지 써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69년 12월11일 KAL-YS11기를 타고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탑승객으로 위장한 고장간첩에 의해 다른 승무원 세 명 및 승객 47명과 함께 납북됐었다. 평양·공동취재단



고(故) 정지용 시인의 아들 구인(오른쪽)씨가 남측의 형 구관(가운데)씨와 여동생 구원씨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군포로 출신인 김재덕(왼쪽)씨가 남측의 동생 재조씨를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아버님 詩 같이 읊자"

정지용시인 아들 구인씨  
남쪽 형·여동생과 재회

'항수'의 시인 정지용(1902~1950)씨의 둘째 아들 구인(67)씨가 26일 북측 방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와 남측의 형 구관(73)씨와 여동생 구원(66)씨를 만났다. 헤어질 때 스무살을 갓 넘긴 장남이던 형은 노인이 됐고 '검은 귀뚜마리 날라던 어린 누이'도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이다.

이들의 화제는 당연히 아버지였다. 상봉의 첫인사건 건네자마자

형 구관씨는 "여기선 '지용화'를 만 들어 해마다 옥천에서 '지용제'를 열고 있다"며 기념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구관씨는 이어 "이렇게 기쁜 날 어떻게 아버지의 시 한 수 읊지 않겠나"라며 '항수'를 낭송했다. 그러자 구인씨도 "아버지였다면 이 감격적인 순간에 당연히 시를 읊으셨을 것"이라며 "나 오늘 지나가나 그리던 고향에 왔노라..."는 즉흥시로 화답했다.

하지만 이들은 짐작 아버지의 사망시기와 감위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시희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국군포로 두명 南동생 재회

손원호·김재덕씨 北 TV보도  
2차 이산상봉때 이어 두번째

북한은 제3차 남북 이산상봉에서 국군포로 출신 2명이 평양에서 남측의 동생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2차상봉때도 남측의 이형석(81)씨가 국군포로인 동생 정석(70)씨를 만났으나 그 사실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국군포로 출신인 김재덕(69)씨는 아내 미금순(61)씨 및 아들내외와 함께 남의 동생 재조(65)씨를 만났다. 재조씨는 형님의 입을 빌려 빼

죽히 솜은 어금니를 확인한후 "형님 이구나"를 연발했고 귀가 어두운 재덕씨는 눈시울이 붉어진채 "그래 그래"하며 동생을 끌어안았다. 재덕씨는 "장군님의 배려로 6남매 모두를 대학까지 보내 줬다고 있다"고 자랑했다. 국군포로 출신인 손원호(75)씨도 아내 김춘경(70)씨와 2명의 자녀를 동반하고 동생 준호(67)씨를 만났다. 원호씨는 국군 근무도중 같은 부대에 있던 아복출신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듣고 인민군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정태용 기자·평양·공동취재단 redael@hankyung.com

3차 이산상봉



이렇게 좋은걸- 유종린(75)씨와 북에서 온 남동생 홍구(70)씨가 서울 상봉장에서 반세기만에 만나 서로 반갑아 앉아서 흥겨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감격... 눈물...

**이산상봉**

26일 오후 4시 서울 센트럴시티 말레니엄 측은 북측 방문단이 입장하자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했다.

○...북측의 공훈예술가인 정두병(67)씨는 미국 LA에 거주하다 지난 밤 귀국한 동생 숙희(61)씨를 부둥켜 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려냈다. 우왕좌왕하던 숙희도 눈물겨운 김인순(89)씨도 눈앞에 나타난 장남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얼굴이 많이 변했어"라고 겨우 말을 건넨다.

○...북측 방문단 가운데 최고령자인 임문민(86)씨의 아내 남상숙(81)씨는 "마누라도 못 알아보냐"며 안락해워했다. 네살배기와 갖

백일을 남긴 두 딸을 남겨둔 채 전쟁통에 사라졌던 문민씨는 "애비 노릇도 제대로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며 두 딸을 위로했다.

○...북측의 최경석(67)씨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 모기숙(84)씨를 끌어안고 '사랑가'라는 노래를 불렀고 다른 가족들도 장단을 맞춰다. 최씨는 "오머니 기쁘죠. 입려 마시라우. 통입되면 모시고 살겠시오"라고 읊조렸다.

○...북측 김두식(71)씨는 남측 가족중 최고령자인 모친 허계(92)씨의 손을 꼭 잡은 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허씨는 "네 아내 사진은 어디있나"라며 밖의 며느리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서울=공동취재단

그리고 웃음...

**이산상봉**

○...세 차례의 방북단 가운데 유일하게 어머니를 만난 이추성(76)씨는 북의 노모 장모옥(94)씨를 만나고는 "최송해요 어머니"라며 50년동안 잡아 왔던 그리운 이빨을 되뇌었다. 치매로 10년째 말을 잊은 장씨는 썩한 눈으로 바라보다 아들임을 알아보고 "니가 인수 어머니"며 두 손을 꼭 잡았다. 1951년 1·4후퇴 때 휴전단상 임진강을 건넌 이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을 키우며 평생 수절해온 아내 김진녀(74)씨와 아들 인수(55)씨를 뵈었고 "어머니"라며 풍곡했다.

○...아버지 지는 조병립입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어릴적 장티푸스에 걸려 말을 못하게 된 아들은 50년만에 남에서 찾아온 아버지 조구연(90)씨를 만난 기쁨을 폭지 위에 글로 써내려갔다. 아버지 조씨는 아들 병립(57)씨가 전갈해준 쪽지첩을 꼭게 잡아 가슴에 집어넣으며 "해어질 때 시너 살아라 얼굴 윤곽까지 흐리지는 것 같아 애대왔는네..."라며 눈물만 흘렸다.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장사하던 조씨는 6·25전쟁 직전 장티푸스에 걸린 막내아들과 아내를 고향에 남기고 두 아들만 남으로 데려왔다.

/평양=공동취재단



"아들아" 남측 이금순씨가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50년만에 만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중풍아들 치매노모 남측 이후상씨가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두 여동생을 만나고 있으나 옆의 노모는 치매에 걸려 아들이 온 줄 모르고 앉아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동생 만나 26일 북에서 온 동생 류홍구씨 등에 업히는 남측의 누나 홍림씨가 두 손을 들어 민세를 부르며 온 세상에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사진공동취재단

## 비번날 탑승했다 '뒤바뀐 인생'

### 남북 여성무원 성경희씨

26일 북한 고려호텔에서 노모와 상봉한 성경희씨(55)는 1969년 12월11일 남북된 대한항공 YS11기 승무원이었다.

남북 당시 23세였던 성경희는 청역여교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여승무원으로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성경희는 원래 사견담임 비번이어서 탑승 스케줄이 없었다. 그러나 고교 동창생인 동료 여승무원 정경숙씨가 "함께 비행기를 타자"고 제의하자 흔쾌히 승낙했다. 별 생각없이 받아들인 이 재의가 성경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강릉을 떠나 서울로 오던 이 여객기가 이륙 25분만에 고장간첩 조항희 등에 의해 강제납치된 것이다. 이 항공기엔 성경희와 기장 유병희씨 등 승



1969년 납북된 대한항공 YS11기와 같은 기종의 항공기.

### '함께가자' 친구제의로 변 북서 결혼 對南방송 진행

무원 4명과 승객 47명 등 51명이 타고 있었다. 성경희의 어머니 이후덕씨(77·서울 노원구)는 납치사건 전담 느낌이 좋지 않아 성경희에게 "다른 사람 일을 맡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기구한 운명을 되돌리진 못

했다. 특히 48년 4월 4일 새벽에 성경희씨 등에 업고 먼저 월남했던 남편을 찾아 38선을 넘었던 이씨에게는 하루하루가 잔인한 전쟁의 시간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정부는 북측에 여객기와 탑승객 전원의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65일만인 70년 2월14일 승객 39명만을 돌려보냈다. 성경희씨 비롯한 승무원 전원과 승객 8명은 북한에 억류돼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후 소식이 끊겼던 성경희의 소식은 92년 독일유학생 출신 간첩 오갑남씨가 남한에 자수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당시 "성씨가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이나 문서로 원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오씨는 또 북한당국이 성경희가 남한에 대한 향수를 버리도록 임영일씨(58·김일성종합대 교수)와 결혼시켰다는 얘기까지 전했다. 성경희는 이날 심봉자에 남편 임씨와 딸 소영씨(26), 아들 심희씨(24·군인) 등과 함께 나왔다. 김근철기자 kckim@kookjinyang.com

## 한국경제

2001. 2. 27 (화)

### 취재여록

### 면회소가 시급한 이유

이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2차 이산가족 상봉때 3시간 동안이나 심술을 부렸던 평양 순안공항의 집은 안개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 '북한체제 비하 발언' (장종식 전 한적총재) 과문으로 인한 감옥도 디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감격과 눈물의 휴먼드라마는 여김없이 3차상봉에도 이어졌다.

20일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과 평양 고려호텔에 각각 마련된 남북 단체상봉장은 방문단이 도착하자 금세 오일의 바다로 변했다. 활육을 확인한 이산가족들은 엄싸안고 비비대며 잡은 손을 놓을 줄 몰랐다. 반세기동안 몽매에도 그리던 오빠와 동생 형을 원없이 불러냈다. 노인선치매에 심장박동기까지 달고 온 손사정(90)씨는 1·4후퇴 때 북에 두고 온 아들 안목씨를 보자 흥분으로 말문이 막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6·15 정상회담 이후 세번째 맞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확실히 종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도 가족상봉 기회를 1, 2차때보다 한차례 더 늘리는 등 이벤트성 행사는 가급적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의 오모카와 아코토 기지는 "차

분해서 좋다"는 말로 이번 3차 상봉의 감회를 표현했다. "1차 상봉 때는 일본 NHK방송이 단체 상봉장면을 생중계까지 했지만 2차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제3자로서의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상봉 횟수가 거듭될수록 1천만명이나 되는 이산가족들의 초조감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관심이 낮아져 흑사라도 흐지부지될까 우려해서다. 물론 이산가족들은 이같은 걱정을 애써 기우로 치부하고 있다. 적십자사에 상봉을 신청한 사람만도 10만명을 헤아리는데 상봉인원은 고작 1백명이니 그럴만도 하다. 앞으로 있게될 편지교환조차도 3백명으로 한정했다. 이런 속도라면 현재 60대의 젊은 할아버지들도 가족을 만나고 소식을 전할 기망성이 희박하다. 남북간에 평행선을 달리는 면회소 설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병일 정치부 기자  
kbi@hankyung.com



**"민족통일 기여 확산" 北  
총재회담 구상 전달 南**  
■ 남·북단장 적십자외교

**대한매일**

2001. 2. 27 (화)

**朝鮮日報**

2001. 2. 27 (화)

3차 이산가족 상봉단의 남북측 단장은 26일 김포공항과 순안공항에서 각각 도착성명을 발표한 뒤 상대측 적십자사를 방문하고 환영만찬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적십자외교'를 펼쳤다.

●남측 단장 장정자(張貞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측 방문단 대표는 이날 오후 평양시 중구역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를 방문, 장재인(張在彦) 위원장 등 북측 관계자들과 이산가족 문제 등을 주제로 15분 남짓 환담했다. 장 단장은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적십자사 총재 회담 구상을 전달했다. 장 위 원 장 은 "긍정적인 구상"이라고 화답했으나 수락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장 위 원 장 은 지난해 11월 제2차 이산가족 교 환방문 때 서 울에서 행사 를 주관했던 장 단장에게 약속을 칭하 며 "장 단장 일행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반갑게 맞 았다.



●북측 단장 김경라 조선적십자회 중앙 위 상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이 산가족 방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 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서영훈 대한 적십자사 총재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했 다. 김 단장은 답사를 통해 "현실적으 로 북남간에는 공동선언 후 출어진 가 족, 친척문제를 비롯해 많은 문제가 해 결됐다"며 "이번 방문단 교환사업이 실 질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한 다"고 말했다.



환영만찬에는 김명섭(金明燮) 국회 정보위원장, 고건(高建) 서울시장, 양영 식(梁榮植) 통일부차관, 이병웅(李炳雄) 한직 총재특보 등이, 북측에서는 김 경남 부단장, 전성철 기자단장과 이산 가족 방문단원들이 참석했다.

●평양 공동취재단·전영우기자 anselmus@kdaily.com

26일 저녁 평양과 서울에서 열린 만찬에서 남측 장 정자 단장(시진 위)과 북 측 김경라 단장이 인사말 을 하고 있다.

**북측 방문단 일부  
김정일花 선물 눈길**

日원예학자 개람 품종

26일 서울에 온 북측 이산가족 중 일부는 '김정일화(花)'를 남측 가족들에게 선물했다. 또 이날 평양 공항에서 평양의 급성2고등중학교 2학년 김원항양이 장정자(張貞子) 남측 단장에게 건넨 꽃다발도 '김정일화'로 만든 것이었다.

김정일화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상징하는 꽃으로, 1988년 2월 김 위원장의 46회 생일 때부터 소개되기 시작했다. '김일성(金日成)화'와 함께 북한에선 '실업의 꽃'으로 불린다.

일본 원예학자인 가모 모도데루가 남미가 원산지인 베고니아 뿌리로 20년간의 연구 끝에 개람해, 1988년 김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헌사한 것이라고 북한의 보도매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베고니아과(科)의 다년생 식물인 김정일화는 꽃의 직경이 10~20cm 정도이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잎사귀에서 첫 꽃이 핀 후, 10~15개의 꽃이 4개월 동안 차례로 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꽃은 진한 붉은색으로, 한 포기에서 수꽃과 암꽃이 따로 핀다. 전체 키는 30~40cm정도이고, 길고 둥근 잎은 어긋나게 자라며 푸른색을 띤다.

/全仁執기자 ginko@chosun.com

**중앙일보**

2001. 2. 27 (화)

**北억류 국군포로 가족 상봉**

**손원호·김재덕씨 평양서 동생 만나**

**北 중앙TV 전격 공개**

북한에 억류 중이던 두명의 6·25 국군포로가 26일 평양을 방문한 남측의 가족과 각각 상봉했다.

북측의 허용조치에 따라 남북자·국군포로를 '남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해결한다'는 정부 구상에 단 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기사 3면>

국군포로인 손원호(75)씨는 이날 고려호텔 집단체담장에서 동생 준호(67·경북 경주시)씨와 만났으며, 김

재덕(69)씨는 동생 재호(65·경남 남해군)씨와 상봉했다.

孫씨는 동생에게 "국방검비대 북부 중 안민군으로 넘어갔으며 56년 전역 한 뒤 탄광에서 40년 근무했다"면서 "내 인생같은 참으로 옳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2차 상봉 때 국군포로로 단광에서 일해온 이정석(69·함북 회령)씨가 남한의 형 형석(80)씨와 상봉 하는 것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집부는 '상봉 지속을 위해 비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보도자

재를 요청해 오다, 26일 밤 북한 중앙 TV가 "전쟁시기 공화국으로 의거한 손원호·김재덕이 가족과 만났다"고 보도함에 따라 사실을 공개했다.

6·25 직후 국군포로는 1만9천 여명으로 추정됐으며, 북한에 생존 이 확인된 숫자는 3백43명이다.

특히 장재인(張在彦)북측 중앙위 원장은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 린 환영만찬에서 "서신 교환이 시범 적으로 이뤄지고 조만간 면회소가 설 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 국군포로·납북자 상봉정례화 '기대'

## ■ 손원호씨등 상봉 성사

납북자와 함께 국군포로도 3차 상봉이 성사돼 향후 상봉 정례화 및 확대가 기대된다.

26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가족을 만난 국군포로는 손원호(75)씨 등 2명.

북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부의 협조요청으로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2차 방문단 교환 때에도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 출신으로 회령에 살고 있던 이정석(70)씨가 평양을 방문한 형형

정부는 이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풀어가자고 북한당국을 설득해 왔다. "동기·경위를 불문하고 남북으로 갈라진 사립들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 규정해 상봉 및 재결합을 추진한다"는 것.

북측이 '북한에 납북자는 없다'는 주장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납북자 및 국군포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어 풀어가자는 해법이 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들을 '의거 월북'으로 선전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 이들의 상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공식 확인하고 있는 납북자는 487명, 국군포로는 351명이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차 방문단 선발 때부터 후보자에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정책적으로 포함시켜 왔다. 2차 때에는 200명의 후보 가운데 강희근씨 등 2명의 납북

자와 2명의 국군포로를 선발해 전달했으나 북측이 감세와 이정석씨의 생사만을 확인해줘 상봉이 가능했다.

이번 상봉에도 200명의 후보자중에 납북자와 국군포로가 더 포함돼 있었으나 북측이 생사확인율 해 오지 않아 납북자 1명과 국군포로 2명만 상봉하게 된 것이다.

국내 언론들은 사전에 이들의 만남을 알고 있었으나 "공개할 경우 다른 납북자들의 상봉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받아들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보도를 자제키로 했다. 그러나 26일 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먼저 보도, 이같은 걱정이 사라지자 보도를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2차 방문단 교환 때에도 북측이 납북여부 강희근씨의 상봉사실을 먼저 보도해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석우기자 swlee@kdaily.com

## 北, '존재' 부인 태도 바뀌

## TV서 만남 보도 '간접 인정'

석씨(81·경기 수원시)를 만날 수 있었다.

## 혼장달고 나타난 국군포로 형 南동생, 이말 본뒤 "형이구나"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체험한 '국군포로'와 '반공포로'가 고려호텔에서 동시에 합육과 상봉. 50년 동안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국군포로 손원호(75)씨를 만난 남의 동생 준호(67·경북 경주)씨는 40년간 제사할 지냈으며 수질한 형수의 안부를 전했다. 원호씨는 영웅훈장 바로 아래인 '국기훈장 1급' 등 8개의 훈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덕(69)씨의 납북 동생인 재조(65·경남 남해군)씨는 가슴에 훈장을 4개나 달고 나타난 형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때죽히 솟은 어금니를 확인한 뒤 "맞구나, 맞아 형이구나"라며 감격 어린 포옹을 나눴다. 한편 53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인민군 출신 반공포로 김한진(70)·장형삼(78)·최인식(71)·최창한(70)씨 등은 북측 혈육들을 만나 모진 '한풀이'를 했다.

●오일만기자 oimn@kdaily.com

# 납북자·국군포로에도 훈풍 부나

3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계기로 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차 이산가족 방문 때 납북여부 강희근씨 모자 상봉이 이뤄진데 이어, 이번에 납북 대한항공기 스텔러스 성경희씨의 모녀 상봉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보도자제' 요청으로 보도가 되진 않았으나 2차 방문 때 국군포로 출신 이정석씨 가족 상봉이 성사된 데 이어 이번에도 두명의 국군포로 출신의 가족 상봉이 이뤄져 납북자·국군포로 문제가 급류를 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심스럽게 풀고들 트겠다'=납북자

## 北 잇단 상봉허용에 기대감 커져

## 정부 '포괄적 이산가족' 탄력 얻어

가족 상봉이 잇따라 이뤄짐에도 공식적인 정부 입장은 조심스럽다. 아직까지는 북측의 의도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심 납북자·국군포로를 해어진 이유와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포괄적 이산가족' 범주에서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해결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적이 지난해 1차 적

십자회담 때 북측에 비공식적으로 납북자·국군포로 가족 상봉을 언급하자 북측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나 그 후에는 반응이 누그러졌다"면서 "북한 방송이 국군포로 상봉을 보도한 것은 우리 정부의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식에 호응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북측 현실적 접근방법 택했다=납북자와 국군포로는 북한에 없다"는 게 북측의 일

관인 입장이다. 하지만 북측이 잇따라 납북자 가족들을 상봉해 한 것은 '원칙은 준수'하면서도 '인도주의적 명분'과 납북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은 이들을 '의거 월북'이나 '투항'으로 처리, 명분은 유지하면서도 납북 요구를 일정부분 풀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근본적 해결책'을 세워달라=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납북자 가족들은 아직까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한 뒤 '송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이산상봉' 해법뿐인가



분단의 어두운 그늘에 갇혀 외면받아 왔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통한 상봉이라는 '차선택'으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의거 입북자만 있을 뿐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은 2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지난해 11월30일~12월2일)에 이어 3차 상봉에서도 이들을 하나둘씩 내세우는 등 변화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냉전의 또 다른 희생자인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이 이산상봉 행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차 상봉 때도 국군포로 이장석씨(70)가 방북한 형 현석씨(81)를 만났다.

그러나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가 남북간에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임을 고려해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국군

포로의 만남이 공개된 것은 북측이 이를 보도한 데 따른 것이었다.

납북자 문제도 북측이 2차 상봉 행사에서 김삼례씨(73)가 87년 납북된 동진호의 갑판장인 아들 김희근씨(49)를 만난 사실을 먼저 밝힘으로써 알려졌다.

북측이 이처럼 국군포로와 납

북인 '관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 다.

또 남측이 비전향장기수 진위를 지난해 9월2일 북에 보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명지대 이동복(李東復·북한학과) 객원교수는 "북한에서 납북 가족을 상봉한 국군포로와 납북

## 北, '의거 월북' 명패 달아 한두명씩 상봉 주선

## 南가족 "끼워넣기식 안돼- 정식 송환 요구해야"

북자들 이산상봉 대상으로 내보낸 것은 이들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 해결하겠다는 남측 의사를 북측도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납북자는 487명이며 국군포로는 351명이다.

이 숫자는 조창호씨 등 탈북자의 증언에만 의존한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생존 국군포로가 1만9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를 정식 송환요구가

자들은 납치된 게 아니라 월북 또는 의거 입북했다고 말함으로써 이들의 문제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비행(非行)을 원천적으로 끊어주는 견과를 날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이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납북자 문제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국군포로 2명 南쪽 동생 만나

## 2차상봉 이어 두번째- 정례화 여부 주목

26일 평양에서 이뤄진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단체상봉에서 국군포로 출신인 손원호씨(75)와 김재덕씨(69)가 남쪽의 동생들을 만났다.

이로써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해결하려는 정부 구상이 일단 싹싹을 맺게 됐다. 특히 이들의 상봉은 지난해 11월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졌

으로써 상봉을 정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 중앙TV는 이날 국군포로 출신인 손씨와 김씨가 남쪽의 동생들 각각 만난 소식을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중앙TV는 "지난 전쟁 시기 공화국으로 의거해 회령시에서 살고 있는 손원호는 남에서 온 동생에게 국군살이를 박차고 인민군대에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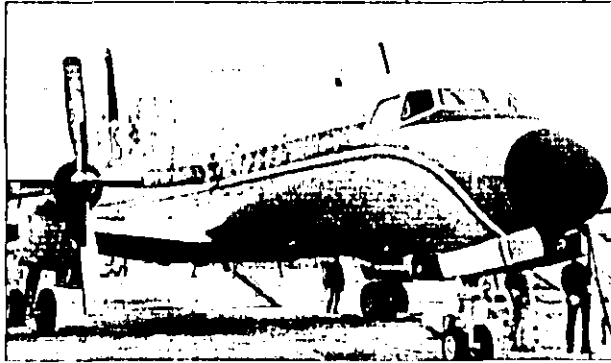
대해서 정의의 총을 잡았던 때를 회고하면서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인생길은 참으로 옳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하며 그가 국군포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앙TV는 또 "합북 청진시에서 살고 있는 의거자 김재덕은 공화국에서는 민족을 등지고 남조선 국군에서 복무한 오점을 가지고 있는 자기도 사람의 한몸에 안아주었다"면서 남에서 온 동생에게 처우 6년 매 모두가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힘껏 일해가고 있는데 대해 말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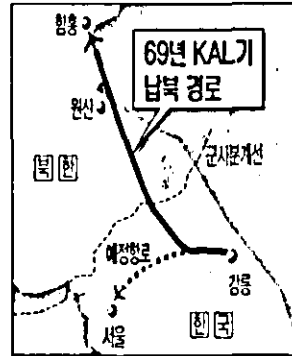
<김영식기자·평양=공동취재단>

spear@donga.com





69년 납북된 대한항공 YS11기와 동일 기종의 항공기. 동아일보 자료사진



# 강릉→서울 비행중 피랍... 진상 베일속

## 69년 KAL기 납북사건

대한항공(KAL)기 납북사건은 69년 12월11일 낮 12시25분 승무원 4명과 승객 47명을 태우고 강릉을 떠나 서울로 오던 YS11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고정간첩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납치된 사건을 말한다.

### 51명중 12명 억류

이 사건은 북한에 의한 첫 납한 항공기 납치사건으로 68년 김신조 일당의 '1·21' 침와대 습격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69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함께 남북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피랍 30시간만인 13일 새벽 북한 평양방송은 기장 유병하(柳炳夏)씨와 부기장 최석만(崔石滿)씨를 통해 "두 조종사에 의한 자진 입북"이라고 보도했다.

국군 레이더망은 피랍기가 함흥 근처에 있는 선덕비행장에 도착했음을 포착했다.

북한은 당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으나 국제

적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70년 2월5일 이들을 송환하기로 했으나 송환 당일 이 약속을 뒤집기도 했다.

갑국 사건 발생 66일 만인 70년 2월 14일 승객 39명은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그러나 승무원 4명 전원과 승객 8명은 북에 남게 됐고, 이들의 납북 가족들은 '납북 KAL 미귀환자 가족회'를 만들어 송환촉구 활동을 벌였으나 당국의 미온적 반응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 여승무원2명 北서 결혼

당시 미귀환자 중 서울 창덕여고 64년 졸업 동기동창인 여승무원 성경희(成敬姬·이화여대 사회생활과졸)씨와 정경숙(鄭敬淑·이화여대 도서관학과졸)씨는 북한에서 결혼했고, 특히 성씨는 북한의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아나운서로 활동해 온 사실이 92년 자수한 간첩 오갈남씨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장 유병하씨 등 북에 억류된 다른 납북자들의 소

식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납치범에 대해 당시 치안국은 "북괴의 고정간첩이며 강릉에서 지혜병원을 경영하던 승객 채현덕(蔡憲德)이 주범으로서, 다른 승객 조창희(趙昶熙)와 부기장인 최석만을 포섭해 비행기를 납북해 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측은 그해 12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석만의 가전과 생활대도로 보아 간첩행위를 합당한 결정적 단서가 없다"면서 "따라서 경찰의 발표는 단순한 추정일 뿐"이라고 말해 사건의 정확한 진상은 지금까지도 베일에 가려 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 당시 미귀환 12명 명단

- △기장 유병하(당시 37) △부기장 최석만(· 37) △여승무원 성경희 정경순(이상 · 23) △승객 채현덕(· 49) 장기영(張基英· 41) 임철수(林哲洙· 49) 황원(黃元· 33) 김봉주(· 29) 이동기(李東起· 48) 최정웅(崔貞雄· 29) 조창희씨(· 42)

### '김정일화'란

### 베고니아 개량종

### 88년 생일때 등장

국방위원장을 상징하는 꽃으로 1988년 2월 김위원장의 46회 생일 때부터 처음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26일 서울에서 이모와 조카들을 만난 북한 피바다가극단 총장 김수조씨(69)는 이남 조카들에게 "위대한신 지도자 동지를 상징한 꽃"이라며 꽃나무 화분 3개를 가족들에게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이날 평양 공항에서 장정자(張貞子) 납북 단장이 받은 붉은 꽃다발도 바로 이 김수조씨가 선물한 것과 같은 '김정일화'였다.

'김정일화'는 북한에서 김정일

이 꽃은 남미가 원산인 베고니아를 개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진한 붉은 색으로 직경이 10~20cm, 키가 30~40cm이고 5, 6번째 잎사귀에서 첫 꽃이 핀 후 10~15개의 꽃이 4개월 동안 차례로 핀다.

또 한 포기에서 수꽃과 암꽃이 따로 피며 번식력이 강하고 기르기 쉬운 장점을 갖고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2001. 2. 27 (화)

# 납북자-軍포로 해법 실마리?

## 평양서 '세기족 상봉' 의미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납북방문단으로 평양을 찾은 이후덕(77)씨가 1969년 12월 KAL기 피랍 때 억류된 밥 성경희(55)씨를 상봉했다. 또 김재조(64)·손준호(67)씨가 6·25전쟁 중에 국군포로가 된 북측의 형 김재덕(69)·손원호(75)씨를 만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2차 이산가족 상봉 때도 김삼례(74)씨가 87년 서해상에서 피랍된 아들 강희근(52·동진호·김관장)씨를 13년만에 만났다. 이정석(69)씨도 포로로 잡혀 탄광 막장에서 일한다고 은퇴한 형 형석(80)씨를 만났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이 이산의 한(恨)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생사확인 과 상봉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동기 불문 원칙'에 따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다. 사실 북측이 "공화국에는 납북자와 국군포로가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의견만 있다"고 주장해 온 데 따른 조치다. 이념과 북에 간 경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각종 당국간 회담을 통해 북측에 이런 방침을 줄기차게 전달한 결과 북측이 누그러진 반응을 보이자 2, 3차 방문단에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을 포함시킨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남북관계 진전을 감안해 북측이 우리 정부에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북측은 '상봉' 자체보다는 납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에 남는 것'이란 점을 보여주고 체제선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의 상봉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하는 납북 일부의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측의 반발로 방문단을 통한 상봉마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등은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일반 이산가족과 다르므로 봉상의 이산가족 해법 대상이 아니라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통일부는 국회에 제출한 납북 억류자 현황자료에서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는 모두 3790명이며 이중 13%인 487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휴전 직후 북한에 남아있던 국군포로가 1만9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남측 끈질긴 요구에 北 '성의' 보인다  
北, 체제선전 초점... 본격재회는 미시수  
정부, 野등 '송환' 요구 커질까 우려도



◇국군포로 김재덕(오른쪽)씨가 28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남측의 동생 재조씨를 만나 악수하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형님, 살아있었군요”

### 국군포로 김재덕씨 '형제상봉'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형님”  
“그래, 그래, 그만 앉거라.”

정부가 국군포로로 파악하고 있던 형 김재덕(69)씨를 50년만에 만난 김재조(65·경남남해군)씨는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한자리에서 께딱도 못하던 재조씨는 갑자기 재덕씨의 입을 벌리면서 치아부터 확인했다. 뼈죽이 솟은 어금니를 본 순간 재조씨는 “맞구나. 맞아, 형님이구나”라며 재덕씨를 꼭 껴안았다. 재조씨는 곧 “형님 눈 위에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요”라며 재덕씨의 얼굴을 훑어지게 쳐다봤고, 귀가 어두운 재덕씨는 눈시울을 붉힌 채 동생에게 한발자국 다가서더니 “공화국 품에서 드디어 동생을 만나게 됐다”며 재조씨를 의자로 끌었다. 이어 재조씨는 형수 마

금순(61)씨와 조카 영철(28)씨, 조카 며느리와 반가운 인사도 나눴다.

김씨 가족 주위에는 조선중앙TV와 외신기자들까지 둘러눴고 북측 기자는 재덕씨에게 헤어진 동기를 물었다. 그러자 재덕씨는 “남반부에서 미군이 전쟁을 일으킨 뒤 나를 괴뢰군대로 끌어가면서 헤어지게 됐다”며 “이 비극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다. 재덕씨는 또 “미국인들이 쥐어준 총을 종족의 가슴팍에 댈 수 없어 인민군에 지원입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南동생 재조씨 연신 눈물

北형수-조카들과도 인사

대했다”고 말했다. 재덕씨는 가슴에 훈장을 4개나 달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는데 청진 나남기계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덕에 훈장을 받았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조카며느리는 특히 재조씨에게 북측의 사회보장제도를 한동안 자랑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서울에선...

“오마니 병고치려 의사됐어요”  
69세 아들 90세 老母에 큰절  
반코트에 중절모 ‘복장통일’



○26일 서울(왼쪽)과 평양에 각각 도착한 미산가족방문단 북측 김경태 단장과 남측 정정자 단장이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평양에선...

6남매 반세기만에 한자리에  
재가한 아내 만나오자 고개떨귀  
치매 아버지 막내아들 몰라봐



○26일 서울(왼쪽)과 평양에 각각 도착한 미산가족방문단 북측 김경태 단장과 남측 정정자 단장이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어머니 인수아미지가 왔어요.”  
“저 양복이에요. 양복이, 양복이셨어요.”

중풍과 치매로 각각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50년 만에 만난 남의 아들과 북의 어머니. 치매로 50년 만에 만난 막내 아들을 못 알아보는 남쪽의 아버지. 재가한 아내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남편. 반세기 만에 한자리에 모인 6남매...

2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 이산가족 상봉장은 또 한번 눈물과 희안이 뒤섞였다.

이우석(76)씨의 북측 노모 장오목(94)씨는 치매로 한동안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딸과 며느리가 귀에 대고 몇 차례 큰 소리로 장남 이우석이 왔다고 하자, 아들을 쳐다보며 “내가 인수 어머니냐”며 말문을 열었다. 장씨는 휠체어를 타고 상봉장에 나왔다가 역시 중풍으로 휠체어를 타고 온 장남과 마주하는 기이한 운명이었다.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씨의 품속에 그제야 알아들은 듯 어머니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기억 되살리려 안간힘

치매에 심장박동기까지 단 손시침(90·경기도 고양시) 할머니는 북쪽의 아들 양복(55)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한장만 쳐다 보았다. “아버지, 가시어머니(장모) 기억하세요. 김씨 수씨 양이에요. 그럼 편하실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리려 안간힘을 썼다. 아버지는 가끔 막내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 들은 듯 눈물을 흘렸으나, 아내 또 다시 허공만 쳐다 보았다.

선우리순(74) 할머니는 연니인 휘복(76)씨와 여동생 영자(68), 영희(62)씨, 남동생 안구(65), 안순(60)씨 모두가 상봉장에 나와 있는 모습에 가슴이 북받쳐 왔다. “언니야” “그래 그래” 반가움과 기쁨도 잠시, 선우 할머니는 이 기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남쪽의 동생 안현(72)씨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북쪽에 5남매와 남쪽의 남매 둘 선우 할머니의 7남매는 모두가 이산의 아픔을 딛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

51년 만에 아내를 만난다는 기쁨에 들떠 있던 김차분(79) 할머니는 재가한 아내 김계옥(70)씨가 상봉장에 나타나지 않자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헤어질 당시 생후 9개월이던 아들 용근(51)씨와 동생 치삼(53)씨가 “아버지 못나왔다”고 했지만, 훗시 재가한 게 마음에 걸려 못나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고개가 숙여졌다.

○/평=공동취재단

26일 오전 고려호텔 편으로 서울에 온 북측 상봉단은 이날 오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도착. 남측 가족들의 50년 세월을 뛰어넘는 반갑음 기운이, 이들은 상봉장으로 이동하면서 남측 환영객들에게 손을 흔들는 등 삼가보지 않은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평양의 아들과 노모의 만남은 심복직을 품음비대로 만났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배종영(86) 할머니는 북의 반어를 김종실(70)씨의 위공유 어질만지네 “인수인 있다 오셨다고 했는데 왜 이처사 왔나”라고 했다. 김씨는 “내 오마니 병 고치려드리고 의사 시 의사가 왔는데...라네 고...였다. 리 승룡(69)씨는 어머니 어분데(90)씨에게 “건강해심시오”라네 관심을 쏟았고 노모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정인수(70)씨는 북측 방문단 가운데 가장 많은 9명의 남측 가족을 찾았지만 부인 유정숙(75)씨와 헤어질 당시 빗나갔던 딸 예영(51)씨 그리고 후손(2)을 만났다. 부인 유씨가 “오직도 잘라 없고 51년을 기다렸는데...”라네 동생분과 악연만지들 보여 주사, 전씨는 “북에서 재운했으매 고너니를 두고 있다”고 화답이 받았다.

“평화” 선상에 “통일” 화답

○...북측 상봉단은 오후 6시30분 메리야드호텔에서 시합을 한지 2시간 후 처음으로 열린 환영연회에 참석했다. 서훈태는 환영사(1)한 후 김대중 재야에게 “평화”를 선포했으며 아내 남측 양복은 인사말을 “통일”로 시작했다.

○...북한 고려항공 정제기를 타고 온 북측 상봉단의 단장인 김경태(남측은 조신식)와 중앙위원의 남부위원은 김포공항에서 “사과 나무 통일의 이정표인 6·15 북남공동선언이 앞장서서 북과 남이 다같이 변함없이 이룩해 나가야 할 애국애족의 기치, 민족자주 통일선언”이라는 내용의 환영을 받고 있다.

아예 앞서 김 단장은 매스너는 이명구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시의 군사문제(1) 먼저 해결해 반공주의 정책을 없애고 그 다음에 경제개혁(1)인도주의 문제 등이 모두 원상(1)할 것”이라는 논리를 피 눈길을 끌었다.

○...북측 상봉단 중 남자들은 휠체어 또는 전동차 반포트 차량에 걸러서 중환자모 버스를 통일했고 여자들은 긴 치마에 스카프를 북에 두른 차량이 많았으며 대부분 빨은 손가방을 손에 들고나와 있었다.

○/북=조선기자 hychol@chosun.com /남=조선기자 dampe@chosun.com /남=조선기자 dampe@chosun.com

‘남북사건’ 과거는 묻지 마세요?

1969년 12월 남북했던 대한항공(KAL) 승무원 김경희(咸慶姬·55)씨가 26일 평양에서 남쪽의 어머니 이후덕(李厚德·77)씨를 만났다. 또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손원호(75)씨와 김재덕(69)씨도 평양을 방문한 남측 동생들을 각각 만났다. 이런 일은 작년 11월 말 제2차 이산가족 교환행진 때도 있었다.

북한의 불법적인 ‘남치 행위’와 ‘강제 역류’로 가족과 생이별했던 이들이 이제 가족을 만나 겨우 잠시 한(1)을 달린 셈이다. 이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反)해 북한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고, 남-북한 회에 분위기에 걸

국군포로·성경회씨등 이산가족과 똑같이 처리

맞게 당연히 ‘원상회복’돼야 할 대상이다. 남측 가족들은 이들의 총환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은 “남북지와 국군포로를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소환’ 요구를 철외했고 “과거를 따지지 않기로 한” 정부의 일선 변경 때문에 이들이 만나게 될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앞으로도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KAL기’ ‘남친호’와

같은 각종 남북사건, 국군포로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부 당국의 ‘현실 인정’은 이 사건의 원인책 위함 모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지에 대해서는 ‘의거 인복’,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은 그저 ‘이산가족’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상 전환을 하지 않은 비전향장기수는 북한측 요구대로 북으로 보냈다. 결국 ‘현실’이라는 용기머가 이들이 ‘찾아야 할 지위’를 잃게 만든 셈이 됐다.

○/남=조선기자 bmccho@chosun.com



# 北서 강제결혼... 對南방송 진행



◀69년 12월 11일 공중피랍된 대한항공 'YS-11' 기와 동일 기종의 비행기.



◇어머니와 승을... 제3차 이산가족 상봉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 반포 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북측 리승용씨가 남측의 어머니 어문례씨를 50여년 만에 상봉해 승을 주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女승무원 成慶娣씨

26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22년 만에 노모와 상봉한 북측 성경희(成慶娣·55)씨는 지난 60년 납북된 KAL 'YS-11'기 승객·승무원 51명 중의 한 사람이다. 장녀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성씨는 당시 대한항공에 입사한 지 1년 4개월밖에 안 된 신입 스튜어디스였다.

남북 전남인 60년 12월 10일 성씨는 서울과 제주도를 마지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어느 때와 달리 낯선 느낌에 사로잡힌 어머니 이후디(李後迪·77·서울 노원구 중계동)씨가 심세를 붙잡았다. "다른 사람 대신 일하지는 말고 일 써 집으로 와라"고 신신당부했다.

## 梨大출신...입사 16개월때 '돌아오지 못한 비행'

다음날 비번이었던 성씨는 그러나 고교 동창생이던 동료 여승무원 장경숙(鄭敬淑·56)씨의 "같이 가자"는 제의를 받고 강릉발 비행기에 같이 탑승했다. 다음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딸 대신 자녀 어스름에 대한항공에서 사람이 찾아와 딸의 납북 소식을 전했다. 이듬해 2월 14일 승객 30명만 송환됐고 납북범 조창희(趙昌熙)를 제외한 11명은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항공이 원칙적인 성씨는 남북 당시 북한에 조부모 등 친척이 거주하고 있던 월남가족이었다. 어머니 이씨가 68년 4월 셋째 딸이 성씨를 업고 먼저 월남한 남편을 따라 38선을 넘어왔던 것. 전매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성씨의 아버지는 딸의 납북에 충격을 받고 '미친듯이' 순환활동을 하다 지난 70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 "김일성대 교수와 결혼"

### 92년 유학생 자수간첩 증언

이씨는 동독·미국 등의 적십자사에 "생사불알 수 있겠느냐"며 수백 차례 편지를 했지만 딸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이씨는 딸이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중앙전파대"나 '남북의 창' 등 북한 관련 TV프로그램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았다고 했다.

이후 성씨에 대한 소식은 92년 독일유학생 출신 간첩 오길남씨가 자수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성씨가 한국 내 지하방송으로 위장, 대남방송을 해온 '한민진' 신하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방송요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 남한 출신을 강추기 위해 성씨는 '신서연'이라는 가명을 썼다고 오씨는 증언했다. 또한 북한 중앙당 은 이틀이 남한에 대한 예찰을 버리도록

## 절대 울지 않겠다던 어머니

### 딸 얼굴 보자마자 부곡

본인의 회상과는 달리 성씨를 북한 출신의 김일성 종합대 교수의 간첩 결혼시켰다고 오씨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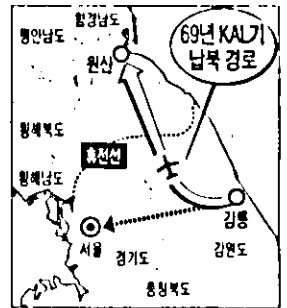
"납치일과 비행기 편명에 들어 있는 '11'이 가장 싫은 숫자"라는 어머니 이씨는 방북 전남인 26일 "시집 보낸 딸을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간다"고 했다. 이씨는 딸의 결혼 소식에 사위에겐 편지와 시계, 손자와 손녀들에겐 내의와 스웨터를 준비했다. 딸이엔 아버지가 30년 전 사운 시계·목걸이, 그리고 며칠 걸려 손수 쓴 숲·코트 등을 준비했다. 가장 광둥어 준비한 선물은 열병과 편지. 그리고 남에 있는 성씨의 남동생 2명과 여동생 2명, 그리고 조카 10명이 성씨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준비했다.

"일군 땀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 절대 울지 않겠다"던 이씨는 상봉장에서 딸을 보자 거의 혼전할 정도로 부곡했다.

/부평=공동취재단

/송진경기자 callin-u@chosun.com

## 69년 KAL 납북사건



## 강릉→서울 비행중 고정간첩이 납치 51명중 11명 억류

남북 여승무원 성경희(成慶娣·55)씨가 탑승했던 대한항공 'YS-11'기(기장 유병하) 공중피랍사건은 지난 60년 12월 11일 발생했다.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 등 51명을 태운 'YS-11' 쌍발여객기는 이날 낮 12시25분 강릉 비행장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중 대관령 상공에서 납치돼 오후 1시30분 원산 근처 선니비역장에 처우됐다.

납북 사건 다음날 북한 당국은 유병하 기장 등 두 조종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두 조종사에 의한 자진 납북"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정치적 용정대상으로 변질시키려다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2월 2일 51명 납북 민간인들을 송환키로 약속했으나 송환 기간 약속을 뒤집기도 했다.

이후 납북이 이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압록강의 위기상황으로 치닫자 북한은 종전의 태도뿐 배워 결국 남북 60일 만인 70년 2월 14일 탑승자 가운데 승객 30명(남자 20명·여자 7명)만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며, 귀환자들의 증언으로 납북경위가 상세히 밝혀졌다.

승객으로 가장 맨 앞좌석에 앉아있던 고정간첩 조창희(趙昌熙·당시 42세)가 이착 후 기장실로 들어가 권총으로 기장 유병하씨 등을 위협했던 것. 이후 북한은 승무원 및 승객 11명의 송환을 거부한 채 지금까지 억류해왔다.

다음은 억류된 승객·승무원 명단.  
▲유병하(당시 38세·서울 용산·조종사) 최석만(당시 37세·서울 심북·부조종사) 정경숙(당시 24세·서울 영등포·스튜어디스) 성경희(당시 23세·서울 성북·\*) 황원(당시 32세·강원 강릉·기자) 김병주(당시 27세·\*·프로듀서) 채현덕(당시 37세·\*·병원장) 장기영(당시 40세·경기 의정부·요식업) 임철수(당시 40세·강원 양구·회사원) 이승기(당시 47세·강남 원앙·한동민체소) 최진웅(당시 28세·강원 원주·한국슈레이트)

/송진경기자 callin-u@chosun.com

# “우리 아버지도 만나게 해주오” 3차 이산상봉

69년 남북 機長의 아들  
女승무원 모녀상봉 보며  
아픈 가슴에 눈물 복받쳐

“저 TV 속 모녀가 우리 부자(父子)의 모습이려면...”

26일 오후 3차 이산가족상봉 장면을 TV로 지켜보던 유한민(柳漢旻·43)씨는 평양에서 진송된 남북 대한항공 승무원 성경희(55)씨와 남쪽 어머니 이후덕(77)씨의 상봉 장면을 지켜보며 아픈 가슴을 쓸어 내렸다. 유씨의 아버지는 바로 성씨가 뒀던 비행기의 기장 유병하(柳炳夏 69)씨.

유씨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의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집 앞에 길게 늘어선 고급승용차들, 받디땀 톱 없이 복작대던 사람들, 머리를 싸매고 누운 어머니, 자기 방에 틀어 박혀 연신 울음을 터뜨리던 누이...

“대통령과 대한직업자사 총재는 물론, ‘김일성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를 돌려달라는 편지를 썼고, TV와 라디오에도 여러 번 출연했지요. 하지만 아무런 보람도 없이 강산이 세번이나 비껴만큼 세월만 흘렀네요.”

서른셋 나이에 남편을 잃고 2남1녀를 혼자 함으로 키운 유씨 어머니 엄영희(65)씨는 지금껏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건발생 3년쯤 지나 당시 중앙정보부로부터 “남편이 북에서 재혼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는 ‘그리움의 표현조차 하여 북의 남편에게 해가 될까’ 조심심을 해오던 터였다.

“남북자의 생사확인은 물론, 민남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 유씨는 “남북자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가서야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씩씩해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유한민씨가 26일 아버지 사진액자를 꺼내 닦으며 그리움을 식이고 있다. /고영권기자

## ‘강릉發 서울行’ 간첩이 권총위협 납치

### ■ 69년 KAL납치사건

#### 승무원·승객 11명 아직 억류

26일 평양에서 노모를 상봉한 전 대한항공 여승무원 성경희씨는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소속 YS-11 여객기가 북한 간첩 조창희에 납치되면서 지금까지 32년째 북한에 머물고 있다.

당시 간첩 조는 승무원 4명, 승객 46

명 등 50명을 태운 여객기가 강릉을 떠난 지 25분만인 낮 12시 25분 대관령 상공에서 권총으로 기장을 위협, 기수를 북으로 돌렸다.

이 사건은 첫 민간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냉각시켰다.

북한은 사건 다음날 유병하 기장과 최석만 부기장의 기자회견을 열어 조종사에 의한 자진 압박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자

이듬해 2월 14일 승객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려보냈다. 성씨 등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 등 11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억류된 11명 중 성씨와 또다른 여승무원 정경숙씨는 북한에서 결혼한 뒤 한 때 대남방송 ‘구국의 소리’에서 방송요원으로 활동했다. 남한에 세 편을 두었던 부기장 최씨는 1999년 4월 평양방송에 출연해 “북한 공군 대좌(대령)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의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병하 기장과 다른 민간인 승객 7명의 소재와 활동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박진용기자hub@hk.co.kr

# 남북 '이산문제 禁忌' 깨졌다

北, 국군포로·납북자 잇단 상봉 허용  
南측 '廣義의 이산' 해법 결실 맺어

북측이 납북자에 이어 이산가족 문제의 마지막 대등으로 남아있던 국군포로 문제를 우회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남북간에 분단과 전쟁에서 비롯된 이산문제의 '금기'가 반세기만에 완전히 지는 않지만 모두 깨지게 됐다.

이번 3차 상봉에서는 남북자, 국군포로 외에 반공포로, 전사처리지자 등 그간 남북이 언급조차 회피해왔던 모든 유형의 분단피해자들이 가족상봉과 감격을 누리는 등 반세기만에 '복권'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해 11월 2차 상봉때 국군포로 출신으로 함북 회령에 살고 있는 이정석(70)씨와 남측의 함형석(81)씨와의 상봉을 추진했다.

또 이번 3차 상봉에서 북측은 국군포로인 손원호(75), 김재덕(69)씨의 평양 가족상봉을 허용한 데 이어 이날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상봉사실을 자진해서 공개했다.

남북은 또 지난해 2차 상봉에서 지난 87년 납북된 동진호 선원 강희근(50)씨의 가족상봉에 이어 이번 3차 상봉에서도 89년 KAL기 납치 사건 당시 승무원 성경희(55)씨와 어머니 이후덕(77)씨가 32년만에 재회모를 했다.

남북자·국군포로에 대해 그간 '의거입북' 또는 '공화국 공민'이라며 존재를 무시해오던 북측의 중

##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200명은 방남 이틀째인 27일 가족·친척들과 서울과 평양의 숙소에서 각각 개별상봉 시간을 갖고 혈육의 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김경락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북측이산가족 100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숙소인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가족단위로 개별상봉을

해 태도와 비교할 때 이산은 심봉 허공은 획기적인 변화여서 남측이 추진해온 '광의의 이산가족'의 해법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번 교환방문에서는 ▲전사 처리됐던 국군출신자 2명의 남한방문 ▲반공포로 4명의 북한방문 등이 성사되는 등 존재자체가 금기시됐던 전쟁의 희생자들이 공개리에 남북을 오가며 가족들과 감격의 재회를 나눴다.

<서외동기자>

2면에 계속

하고 감성을 같이하며 회포를 풀었다. <관련기사 3·30·31면>

대한적십자사 장정자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측 이산가족 100명도 오전 10시와 오후 1시30분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북한의 가족들과 두차례에 걸쳐 개별상봉했다. 남측 방문단은 이어 평양고려극장에서 교역동연을 관람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한다.

<평양=공동취재단·서외동기자>

## 국군포로 해법찾기 서서히 '수면위'로

이산상봉 잇단 '포함' 의미

지난해 11월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에서 국군포로 출신 이정석(69)씨와 함형석(80)씨가 평양에서 만났던 데 이어 이번 3차 교환방문에서도 국군포로 출신인 손원호(75)씨와 김재덕(69)씨가 북한을 찾은 동생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이산가족 교류를 통한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간 명시적으로 '북한에는 단 한명의 국군포로도 없다'며

北 '존재' 강력부인 틀구

국군포로문제가 협상의제가 될 수 없다는

인도적 접근 요구 '수용'

입장을 보여온

상봉 이어질지 주목

북측이 2차 이산가족상봉 때부터 이산가족 교류에 이틀을 포함시킨 것은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교류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남측의 구상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현재 북에 생존해 있다고 추정하는 국군포로의 수는 1만 9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이름이 파악된 국군포로는 340명이다.

국군포로 문제가 남북간의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국군포로 조창호(포로 당시 소위)씨가 지난 94년 10월 귀환하면서부터였다. 조씨는 귀환한 뒤 국군포로의 비극적

인 북한내 생활상을 고발했고 뒤이어 양순용, 장무환, 김복기, 박동일씨 등이 탈북, 입국하면서 국군포로문제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북측은 2일 국군포로의 상봉 보도에서 보여주듯 국군포로를 '국군으로 복무하다 전향해온 자'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99년 3월 북한 평양방송에 따르면 남측이 제기하는 국군포로문제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소동'이라며 '국군포로니 남북자니 하는 사람들은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

했다.

정부는 지난 99년 1월에야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군포로와 가족

의 생활안정 및 복지조치에 나서는 한편, 광의의 이산가족으로 분류, 문제해결을 시도했다. 이 법은 귀환 당시 계급별 보수 기준을 마련해 국군포로를 3단계로 구분하고 정착금과 주거시설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사병의 경우, 입대일 기준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하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군포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북측의 완강한 태도로 성사가 어려운 것으로 전망

됐다. <김석기자>

## '이산문제 禁忌' 깨졌다

<면서 계속>

정부는 그동안 남북간의 입장차이가 부각될 경우 인도적 상봉조치도 무산될 수 있다고 보고 납북자의 경우에는 상봉 성사때까지, 국군포로의 경우 북한측이 스스로 보도할 때까지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언론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국방부가 추정하고 있는 미확인 국군포로는 1만 9000여명이며 당국이 귀환 국군포로 등의 증언을 통해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모두 340명이다.

정부는 또 53년 휴전 이후 북한에 납치·억류중인 납북자를 48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화일보

2001. 2. 27 (화)



회한의 '아버님 제사' 27일 오전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제3차 남북이산가족상봉방문단 개별상봉에서 북측 아들 정두영(67·공훈예술가·왼쪽)씨가 남측 어머니 김인순(89·가운대)씨와 동생 정두환(60)씨를 만나 방에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이산문제 禁忌' 깨졌다

## 北, 국군포로·남북자 잇단 상봉 허용 南측 '廣義의 이산' 해법 결실 맺어

북측이 남북자 이어 이산가족 문제의 마지막 매듭으로 남아있던 국군포로 문제를 우회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남북간에 분단과 전쟁에서 비롯된 이산문제의 '금기'가 반세기만에 완전히 풀지는 않지만 모두 깨지게 됐다.

이번 3차 상봉에서는 남북자, 국군포로 외에 반공포로, 전사처리자 등 그간 남북이 언급조차 회피해왔던 모든 유형의 분단피해자들이 가족상봉의 감격을 누리는 등 반세기만에 '복권'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해 11월 2차 상봉때 국군포로 출신으로 합북 회령에 살고 있는 이정석(70)씨와 남측의 형 형식(81)씨와의 상봉을 주선했다.

또 이번 3차 상봉에서 북측은 국군포로인 손원호(75), 김재덕(69)씨의 평양 가족상봉을 허용한 데 이어 이날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상봉사실을 자진해서 공개했다.

남북은 또 지난해 2차 상봉에서 지난 87년 남북인 동진호 선원 강화근(50)씨의 가족상봉에 이어 이번 3차 상봉에서도 69년 KAL기 납치 사건 당시 승무원 성경희(55)씨와 어머니 이후덕(77)씨가 32년만에 재회토록 했다.

남북자·국군포로에 대해 그간 '의거압박' 또는 '공화국 공민'이라며 존재를 무시해오던 북측의 종

###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200명은 방문 이틀째인 27일 가족·친척들과 서울과 평양의 숙소에서 각각 개별상봉 시간을 갖고 혈육의 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경락 조선직업자회 중앙위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북측이산가족 100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숙소인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가족단위로 개별상봉을

래 태도와 비교할 때 아같은 상봉 허용은 획기적인 변화여서 남측이 추진해온 '광의의 이산가족'식 해법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번 교환방문에서는 ▲전사 처리됐던 국군출신자 2명의 남한방문 ▲반공포로 4명의 북한방문 등이 성사되는 등 존재자체가 금기시됐던 전쟁의 희생자들이 공개리에 남북을 오가며 가족들과 감격의 재회를 나눴다.

<서의동기자>

2면에 계속

하고 점심을 같이하며 회포를 풀었다. <관련기사 3·30·31면>

대한직업자사 김정자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측 이산가족 100명도 오전 10시와 오후 1시30분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북한의 가족들과 두차례에 걸쳐 개별상봉했다. 남측 방문단은 이어 평양교예극장에서 교예공연을 관람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한다.

<평양=공동취재단·서의동기자>

## 중풍-치매 80~90代 3명 상봉도중 병원으로

### 평양에서

평양을 방문한 남측 이산가족들은 26일 단체 상봉에 이어 27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개별상봉을 갖고 반세기 동안 쌓아온 이산의 한을 달렸다.

●...51년만에 자식들을 찾아온 어머니는 애 꽃게도 이날 출장을 떠난 아들 소식에 또다른 한을 가슴에 품어야 했다. 27일 오전 개별상봉으로 두팔 김순영(56) 순복(53)씨를 만난 김유강(여·76)씨는 보이지 않는 아들 수남(59)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오빠는 중국으로 출장가는 바람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자 "내 나이가 지금 80이 다돼가는데 지금 못 만나면 언제 만나겠느냐"며 통곡했다.

●...북한을 방문한 이산가족들중 일부는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흥분에 북측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치매를 앓고 있는 손사정(90)씨는 수십년만에 헤어

진 가족을 만난 충격에 말진 상태에 빠져 27일 오전3시쯤 동평양 문수거리 친선병원에 입원했다.

또 7년전 중풍으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방북한 이후성(84·실제나이 76세)씨와 폐기종으로 서울대 병원 입원중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방북한 임재화(85)씨는 만찬 도중 기침을 하는가 하면 답답하다고 호소, 일찍 숙소로 돌아와 의료진의 특별보호를 받았다.

●...북한에 있는 형수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아 남한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방북자 A씨는 형수를 만나지 못했다. A씨는 함께 원남한 형이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북에 있는 부인과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문제로 남측 부인등과 갈등을 겪다 사망하자 형의 대리인으로 남측 형수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으며 북측 형수로부터 혼인무효소송과 호적 입적소송, 상속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위한 소송위임장을 받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평양=공동취재단·김석기기자>

## 팔순 노모, 아들 얼굴 쓰다듬다 내복 건네

### 서울에서

반세기만에 만난 꿈에도 잊지 못했던 혈육들. 말보다 눈물이 앞섰던 첫날 상봉이었다. 첫날 못다툰 그리움을 나누기 위해 모여든 이산가족들로 2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은 오전 이른 시간부터 부산했다.

●...감격의 상봉에도 피곤한 기색이 없어 27일 오전 10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이뤄진 개별상봉에 참석차 일찌감치 도착한 북측 김원중(68)씨의 남측 가족들은 다시 한번 만난 혈육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만남을 시작했다.

이날 상봉에서는 전날 아들을 보고 거의 실신한 노모 이음진(85)씨가 안장을 찾아 차분히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아씨는 아직도 50여년만에 아들을 만난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지 원중씨의 손을 어루만지며 계속해서 '원중아! 원중아!'만 불러댔다. 이들 가족은 극구 사랑하는

원중씨에게 미리 준비한 개량 한복과 내복을 선물로 건넸다.

●...개별상봉에 앞서 호텔로비는 반세기만에 만나는 혈육과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려는 남측 이산가족들로 분뻘었다.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 전할 선물을 챙기며 짧은 시간에 나눌 이야기 풀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번 상봉에서 북의 아버지 이정섭(74)씨를 만나기 위해 부인 정원향(52)씨와 함께 호텔을 찾은 남의 이교선(52)씨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척 보고 싶어 하는데 데리고 오질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첫날 상봉을 마친 때문인지 이날 오전 개별 상봉을 앞둔 북측 이산가족들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 북측 이산가족들은 오전 8시 호텔 32층 라센르 식당에서 돌각김치와 북어국 등으로 아침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호텔방에서 개별상봉을 준비했다.

<박선호·고민구·김연곤·유희연·이영희기자>



# 32년만에 “경희야” “엄마”

## 남북 이산상봉 3차

### 남북 KAL승무원 성경희씨 중년의 모습으로 모친 만나

지난 69년 대한항공 납치사건 때 납북됐던 성경희(여·55)씨가 26일 3차 이산가족교향방문단으로 평양을 찾은 어머니 이후덕(여·77)씨와 32년 만에 만나 그간 쌓인 이산의 한을 풀었다.

후덕씨는 경희씨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난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야. 전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후덕씨는 음력 2월12일(양력 3월6일)인 자신의 77회 생일을 딸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라고 생각해 서울에서 케이크까지 준비해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성씨가 탄 대한항공 YS11여객기가 69년 12월11일 대관령 상공에서 북한의 고정간첩 조창희(당시 42세)에 의

해 납치되면서 성씨의 북한 생활이 시작됐다.

승객 47명과 성씨등 승무원 4명을 포함, 모두 51명을 태운 이 여객기는 이날 낮 12시25분 감릉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중 납치돼 오후 1시18분 원산 근처 선덕비행장에 착륙했다.

납치사건 다음날 북한은 유명하 기자 등 두 조종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두 조종사에 의한 자진 입북”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사건 발생 65일만인 70년 2월14일 남북 민간인 중 39명만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고 성씨 등 8명은 북에 남았다.

이화여대 사회생활과를 졸업하고 68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성씨는 사건 당일 비변이였으나 참덕여교 동창생인 정경숙씨가 “감릉에 같이 가자”고 제의, 탑승했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성씨는 92년 자수한 독일 유학생



32년만에 극적인 상봉을 한 이후덕(오른쪽)·성경희씨 모녀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출신 간첩 오길남씨가 성씨가 대남심리전 공작기구 한민전 산하 ‘구국의 소리’ 방송국에서 ‘신서연’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방송요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생존 사실이 밝혀졌다.

<평양=공동취재단·김석기기자>

## “자식 잘키워줘 너무 고마워…”

### 남쪽아내 만난 北남편들

●…“나 알아보겠어요.” “흠로 고생 많았소.”

50년 이상의 세월도 동앗줄처럼 짙긴 부부의 정감을 끊어놓지 못했다. 26일 서울 센트럴시티 6층에 마련된 단체상봉장에서 헤어질 뒤 반세기만에 만난 북한측 방문단 최고령자 임문빈(86)씨와 남녘 아내 남상숙(84)

씨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한국전쟁 직후 서울 영등포에 있던 서울병원 원장이던 임씨는 가족들의 피난 권유를 뿌리치고 환자들을 돌보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움이 더 깊어질까봐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가족들의 약속처럼 돼 있었던 두 딸 태희(54·의사)씨와 은희(52·약사)씨는 이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마음껏 눈물을 흘렸다.

●…“혼자 힘으로 자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아내가 고마울 뿐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쪽에 사는 아내와 자식들을 만난 황창수(83)씨는 자신을 대신해 3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낸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줄을 물랐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50년 9월초 집을 나선황씨의 부인 송순섭(82)씨는 “난리통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을 이렇게 직접 보게 되다니 믿기지 않는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 태어나서 처음 만나 “아! 아버지”

## 남북 이산상봉 3차

### ‘유복자’ 6인 기막힌 사연

남북한을 갈리놓은 휴전선 때문에 자녀와 아버지가 서로 한반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유복자’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26일 통산과 논골속에서 이뤄졌다.

“내가 내 아들이 맞느냐”  
“아버지 제가 용국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만나면 어머니가 젊었을 때 고기 장사에 아버지가 계셨는지 사주셨다는 말을 하면 아

다했다. 아들 용국씨는 “몇 년전에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한강을 한해 남겨두었지만 미리 한강상을 차려 드렸습니다”라고 설명하자 한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평남 강서가 고향인 잠인서(80)씨도 이날 1·4후퇴때 부인과 어린 딸 4명을 진남포에서 남쪽으로 가는 배에 태우지 못하고 북한에 두고 내려온지 50년만에 이미 60살인 딸들을 상봉했다. 이들 딸들 사이로 당시 부인이 임신한줄도 모르고 내려온 뒤 태어난 아들 대선(50)씨가 아버지 정씨에게 첫인사를 했다.

첫만남이라 다소 어색한 듯 정씨는 아들 대선씨에게 “그동안 못보았으니 오늘이 처음이네”라며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대선씨는 “김정일 장군님이 훌륭하게 키워주셨다”고 말했다.



“아들아...” 활짝이를 타고 평양을 방문한 김봉민(80) 아버지가 단체상봉장의 고려호텔에서 북의 아들 진남(왼쪽)씨와 부인 변스름씨를 만나고 있다. <평양=시진공동취재단>

## 1·4후퇴때 뱃속 아이가 初老의 50대로

### “애비 노릇 한번 못했는데...” 통한의 눈물

신다고 했는데...”  
1·4후퇴때 임신한 아내를 북에 남겨두고 남으로 내려와 50여년 동안 생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한정은(73·부산시 서구 남부민동)씨가 26일 평양에서 한반도 보지 못한 아들 용국(50)씨를 만나 자신의 혈육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갔다.

언뜻 보기에도 영락없이 빼빼은 얼굴 때문에 부자지간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듯 연방 고개를 뚫었다.

“혹시 호적등본은 때어왔느냐”며 아버지 한씨가 묻자 아들은 “그런 것은 없다”며 대신 어머니 사진 등 북에서 가족들이 찍은 사진 30여장을 펼쳐 놓고 하나하나 설명했다. 한씨는 북에 두고 온 아내의 한강사진을 받아 한참동안 쳐다보고 또 쳐

평양을 방문중인 이번 3차 이산가족 남북상봉단에는 한정은, 잠인서씨처럼 부인이 임신중이어서 자녀들을 한반도 보지 못한 가족들이 6명이나 된다. 결혼한지 채 2년도 안돼 부인과 헤어진 김만수(79)씨도 임신사실도 모른채 남한으로 갔다가 이번에 아들 명모(50)씨를 만났다. 뱃속에 있는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른채 헤어졌다가 이번에 딸 안산녀(50)씨를 만난 안준수(88)씨는 딸과 사위로부터 처음으로 큰절을 받고 북반쪽으로 눈을 감지 못했다. 안씨는 “한번도 아버지 노릇을 못했는데...”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이밖에 이병식(82)씨도 아들 이만주(50)씨, 김봉민(79)씨도 딸 은복(50)씨를 만나 혈육의 끈끈한 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평양=공동취재단>

3차 남북이산상봉 가슴울린 세가족



정지용시인의 아들인 북측방문단 정구인(가운데)씨가 형 구관씨와 여동생 구원씨를 만나 활짝 웃고 있다.



북한 피비디가극단 김수조(오른쪽)씨가 남측 조카들에게 북에서 가져온 김정일화를 선물하고 있다.



정두명씨가 남측의 어머니 김인순씨를 껴안으며 감격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지용씨 아들 구관·구인씨

꿈엔들 잊힐리아... 아버지 詩 함께 낭송

●...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쁜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줍던 곳, 그 곳이 차마 고향엔들 잊힐리아...'

형이 아버지의 시를 암송하자 지그시 이 눈을 감고 경청하던 동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3차 이산가족 상봉장. 서정시인 정지용의 아들 구관(73·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씨는 전쟁 때 헤어진 북의 동생 구인(67)씨를 50년만에 만나 뜨겁게 끌어안고 흐느꼈다.

아삭하게 흘러버린 세월을 원망하던 이들은 아버지 얘기를 꺼내며 무너지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구인씨가 "북한에서도 아버지는 김소월과 함께 최고의 애국시인으로 꼽히시는 분입니다"라고 소개하자 구관씨도 "내년 아버지 탄생 100주년에 맞춰 일본에서도 아버지의 시비를 세우려고 한다"며 구인씨에게 '정지용 전집'과 '항수' 등의 시집 노래로 만든 테이프를 선물했다.

상봉장에 함께 나온 여동생 구원씨도 죽은 줄로만 알고 사망신고까지 했던 오빠의 얼굴을 말없이 어루만지며 세월의 무게를 실감했다. 어린 시절 "시는 배고픈 공부"라며 아버지가 말리던 사임을 회고한 이들은 함께 시를 암송하면서 덧없는 50년의 세월을 달랬다. <김연권기자>

北집단체조 거장 김수조씨

좋은날 울지말자며 조카들 슬픔 달래

●... '내 사랑하는 북경아. 언제나 너희들 생각에 아버지는 남마다 깊은 잠을 들 수 없구나... 아버지 자식답게 살길 바란다. 그래야 이 아버지는 눈을 감을 수 있다. 97년 1월 아버지가.'

남의 북경(52·서울 은평구 신사동)씨 가족이 삼촌인 북한 집단체조의 거장 김수조(69)씨로부터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는 순간 상봉장은 울음바다가 됐다. 수조씨는 "네 아버지는 평양에서 방송예술학 강직장을 지내다 암으로 99년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했다. 수조씨가 붓으로 직접 쓴 형 수희씨의 편지를 차분히 읽어내려가자 남측 가족들은 끝내 오열하고 말았다.

김수조씨는 6·25 전쟁 당시 북경씨의 아버지 수희씨와 월북, 가족과 생이별했다. 전쟁통에 행방불명된 두 삼촌 수영·수익씨도 각각 충주감육과 전선에서 사망했다는 연이은 비보에 상심한 가족들에게 북의 삼촌은 "이렇게 좋은 날 우는 것은 네 아버지 뜻이 아니다"라며 북에서 직접 키워 가져온 김정일화 3모기를 조카들에게 나눠 주고 이들을 달랬다.

"50년 동안의 입술 얘기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겠구만"이라는 수조씨는 애써 못어보이며 아버지 없이 50여년을 살아온 조카들과 지나간 추억으로 얘기꽃을 피웠다. <유희연기자>

北 공훈예술가 정두명씨

"왜 이리 늙었나..." 정신놓은 노모 알아봐

●... '왜 이렇게 늙었느냐...' "어머니, 아들이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남북으로 헤어져 있던 모자와 형제들은 반세기만에 이렇게 반백의 노인이 돼서야 다시 만났다. 취주악의 대가로 북한에서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은 정두명(66)씨는 전쟁통에 헤어진 노모 김인순(89)씨에게 큰절을 올리고 노모의 품에 안겨 그만 울먹이고 말았다.

상봉장에 나온 동생 두환(62·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두호(55·미국 거주), 여동생 숙희(64·미국 거주)씨도 서로 얼싸안으며 그동안의 한을 풀었다.

서울 출신의 두명씨는 94년 김일성 영결식때 연주된 취주악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편곡한 인물.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5돈짜리 금반지를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노환으로 가끔씩은 지난 일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어머니지만 '한달 후 다시 돌아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이제야 나타난 두명씨를 단번에 알아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남측의 가족은 그동안 고이 간직해온 두명씨의 빛바랜 사진첩을 꺼내 보이며 그동안의 세월을 되새겼다. 이들은 짧은 만남이 못내 아쉬워서인지 언젠가 다함께 '통일의 노래'를 연주하자며 굳게 약속했다. <이영희기자>



서울 이철호(63·왼쪽에서 세번째)씨가 형제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목놓아 부르다 울음을 터뜨리자 누나 우정(72)씨가 내 동생, 노래도 잘 하지'라며 뺨을 쓰다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평양 제3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평양 고려호텔에서 이산가족들이 기쁨속에 들 어두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기장등 3명도 살아있다”

## 남북 3차 이산상봉

### 성경희씨 모녀상봉서 밝혀

지난 60년 강릉에서 서울로 오던중 납북된 대한항공 YS 11기의 기장과 부기장, 승무원 2명이 모두 북한에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북한에서 돌아오지 않은 승객 7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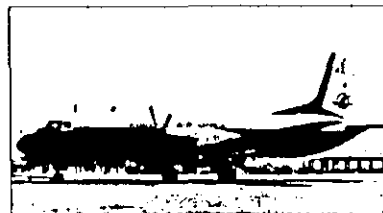
제3차 이산가족 남북방문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이추덕(77)씨는 20일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납북된 탑 성경희(55)씨를 만난 자리에서 항공기 기장이던 유병희씨와 부기장 최석만씨가 현재 북한

공군 근무... 부기장은 결혼 다른 승객 7명은 생사 몰라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기장 최씨는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성씨와 함께 납북된 여승무원 정경숙씨도 평양에서 성씨의 인근에 살면서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고 성씨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성씨와 친척이고 동기생으로 연세대 도서 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성씨보다 한해 뒤인 60년 대한항공에 입사했다가 납북됐다.



지난 60년 12월 납북된 대한항공 YS11기와 같은 기종의 항공기.

대한항공 YS 11기는 지난 60년 12월11일 강릉을 출발, 서울로 향하던중 승객을 가장한 고정간첩에 의해 납북된 뒤 사건 발생 66일만인 70년 2월14일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을 제외한 승객 39명과 기체만 돌아왔다. <평양·공동취재단>

# 우리는 언제 만날수 있나

## 납북자 가족들 반응

“30여년 세월을 생사도 모른 채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 건지...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남북 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이어 이번 3차 교환에서도 한 납북자 가족이 극적인 상봉을 이루고 일부 생존소식이 알려지자 납북자 가족상봉 정례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납북자 가족들은 이같은 희망과 동시에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 일부 당시지급의 반응은 냉담하기까지 하다.

이들은 두 가족의 만남이 납북자 가족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소수만의 상봉', '북쪽에서만 상봉' 등 해결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평의의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 생존 확인 소식에 기쁨의 눈물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최근 상봉신청을 한 납북자 가족중에는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투명하다는 복측의 답변을 들은 사람이 많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상봉을 한다는 게 오히려 납북자 가족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1960년 12월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사건'의 승무원 성경희씨 상봉소식에 당시 KAL기에 탑승했던 장기영(당시 40세·사업)씨의 아내 이순남(69·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씨는 “같은 KAL기 납북

지도 만났으니 재발 한번이라도 만남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싶고, 고생해온 여기도 다 하고 싶고 할말은 너무 많지만 한다...”라며 감내 울음을 터뜨렸다.

## 일부선 “소수만 상봉 상처 커져”

사고 KAL기 기장 유병희(당시 30세)씨가 북한 공군에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장남 유한만(41·회사원·서울 노원구)씨는 성경희씨 평양 상봉소식을 듣고 “일단 아버지를 만날 가능성이 생겼다는 마음에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유씨는 “북한에서 한명 한명씩이기는 하지만 납북자의 이산가족 상봉을 허락한 것은 이전의 북한 입장에서 진일 보한 진향적 자세”라며 “납북자 문제점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형·방송배지자>

# 경향신문

2001. 2. 28 (수)

## 이산가족 개별상봉

### 양측 숙소서...오늘 귀환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 이틀째인 27일 서울과 평양의 이산가족 각 100명은 가족, 친척과 두차례의 개별상봉과 공동 오·만찬 등을 가졌다.

이산가족들은 서울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가진 개별상봉에서 지난날과 현재의 생활을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고 족보와 반지 등 준비한 선물을 교환했다. 그러나 사실상 마지막 상봉인 공동만찬이 끝날 무렵 다가온 이별이 심감난 듯 쉽게 손을 놓지 못했으며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관련기사 5·22·23면

남측 평양방문단의 이후덕씨(77)는 남측 여객기 승무원이었던 딸 성경희씨(55) 가족과 함께 3월인 자신의 생일파티를 앞당겨 열었다.

한편 김한진씨(70) 등 반공포로 4명도 북녘에 두고온 가족들을 만났다. 양측 방문단은 28일 오전 가족들과 식별의 정을 나누는 뒤 아시아나항공편으로 각각 귀환한다.

최재영기자·평양 / 공동취재단  
cjyoung@kyunghyang.com



27일 평양 고려호텔 숙소에서 전 대한항공 여승무원 성경희씨 가족을 만난 남측 방문단 이후덕 할머니가 성씨와 시위 임영일씨(오른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외손지 성혁씨의 등에 업혀 즐거워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機長 등 3명 생존확인

### 3차상봉단 오늘 귀환

3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은 서울과 평양 방문 이틀째인 27일 각기 비공개로 가족, 친척들과 개별상봉 시간을 갖고 현역의 정을 재차 확인했다.

★관련기사 5·30·31면

방문단은 오전부터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 객실에서 가족들을 만나 점심·저녁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선물을 교환하면서 50여년간 쌓인 회포를 풀었다. 오후에 남측 방문단은 평양교예극장에서 교예관람을, 북측 방문단은 청력공을 관람했다.

한편 전남 남북 대한항공 YS-11기 여승무원 성경희(成敬姬·55)씨가 남의 어머니 이후덕(李後德·77)씨를 만난데 이어 당시 기장이던 유병하(柳炳夏·69)씨와 부기장 최석만(崔石滿·69)씨, 또 다른 여승무원 정경숙(鄭敬淑·55)씨도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미귀환 승객 7명의 생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은 28일 오전 2박3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한항공기 편으로 각각 서울과 평양을 출발, 귀환한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 朝鮮日報

2001. 2. 28 (수)

## “면회소 설치·상봉 정례화를”

### “만나야 할 사람 아직 10만명 남았는데...”

### 이산상봉, 3차로 사실상 종료... 오늘 귀환

서울과 평양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이 28일 각각 평양과 서울로 귀환하는 것을 끝으로,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남·북한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중단될 전망이다. 남·북한은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2~3차례의 이산가족 교환방문에만 합의했을 뿐, 정례화나 추가 신시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측은 앞으로도 계속 연(年)4회 정도로 교환방문을 정례화하자

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앞으로의 이산가족 상봉은 면회소에서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4·31면

송대성(宋大晟)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화답하게 만나야 할 사람이 1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몇 달에 한 번씩 100명 단위로 상봉토록 하는 것은 전시성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제성호(諸成鎬) 중앙대 교수도 “교환방문은 늘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고 불안정성을 띠고 있는 만큼, 면회소 설치에 남북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平壤=공동취재단

/崔秉默기자 bmchoi@chosun.com

서울서... 평양서... 애절한 만남 2題



남쪽의 이인규 할머니가 27일 북에서 내려온 남편과 만나기 위해 휠체어를 탄 채 잠실 롯데월드호텔로 들어오고 있다. 우일흔기자



27일 오전 평양 친선병원에 입원한 손사정씨(오른쪽)를 만난 북의 아들 양목씨가 아버지를 인타깝게 쳐다보고 있다. 평양 / 시진교동취재단

# 끝끝내 못알아본 남편 '휠체어 상봉'

남아내 이인규씨 119차량이용 도착

50년간 그토록 그리던 남편이 찾아왔건만 어느새 80살이 다 돼가는 아내의 병세 악화로 끝내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다.

27일 오전 10시쯤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1602호실, 뇌출혈로 투병 중인 남쪽의 아내 이인규씨(78)가 119구급대 차량을 이용해 호병에 도착했다. 북쪽의 남편 박창서씨(80)와 반세기 만의 '휠체어 상봉'이었다. 박씨는 휠체어를 탄 채 방에 들어서는 아내에게 다가가 "고생 많았소, 내가 죽은 죄값 진 것 갚구려"라고 사죄의 말을 건넸지만 아내는 알아듣지 못했다. 26일 단체상봉에서 두 아들로부터 아내의 병이 깊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신도 몰리보는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가슴이 무너져내렸다.

"여보, 당신의 무진한 남편이 이렇게 왔소. 낯 알아보겠소, 욕이라도 좀이나 무어라고 말 좀 해봐요"

"..."

그러나 그토록 보고파 뜯어본 눈앞에 두 고도 아내의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과 생이별한 뒤 온갖 고생을 해온 이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의 상봉을 불과 8개월여 앞두고 뇌출혈로 쓰러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다. 보다 못한 아들 친호씨(58)가 이씨의 귀에 대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러 북에서 오셨어요"라고 여러차례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편은 아내의 손과 얼굴을 연방 어루만지며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목에 호스뿐 쫓은 상태였지만 반세기 만에 상봉하는 남편을 위해 화사한 연분홍빛 스텐더와 검은 코트 차림에 얹은 화장까지 했다. 이씨의 며느리 홍기연씨(53)는 "비록 아내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체취를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1950년 8월 29살의 나이에 의용군에 징집되면서 뜻밖의 아내와 생가져 헤어졌다. 이씨는 삼남일녀, 식당일 등 온갖 곳을 입읍 하며 혼자서 두 아들을 뜻껏 키우면서 매일 새벽 정화수단 떠놓고 남편의 무사귀환을 받고 또 받았다. 언제 남편이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50년 동안 문밖 잠그지도 않았다.

김형기기자 hgi@kuryhgyang.com

# 치매악화 아들앞 탈진 '쓰러진 父情'

남손사정씨 병세악화 끝내 입원

치매에 시달리는 외증에도 아들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병榻한 구순의 아버지가 눈앞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급작스런 탈진증세까지 겹쳐 쓰러졌다.

7년 전부터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손사정씨(90)는 1·4후퇴 때 이모 집에 맡겼던 막내아들을 만나기 위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방북을 강행했다.

하지만 손씨는 방북 후 치매 증세가 악화돼 정작 아들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쉬운 장면들을 연출했다.

손씨는 26일 평양 고려호텔 단체상봉장에서 50여년 만에 만난 아들 양목씨(55)의 얼굴을 외면한 채 그저 천장만 올려다봤다. 양목씨가 "아버지, 가시어머니(장모) 기억하세요, 가시어머니 김해수씨 딸이에요. 그럼 평양동네는요"라며 손씨의 말을 흔들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가끔 막내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듯 눈물샘 글썽이기도 했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다시 먼 허공을 쳐다보지만 할 뿐이었다.

급기야 손씨는 26일 밤 갑작스레 변화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탈진증세를 보이다 숙소인 고려호텔 인근 친선병원으로 실려갔다. 손씨를 진찰한 이 병원 의사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데다 26일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해 탈진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아들 양목씨가 개별상봉을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손씨의 치매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손씨는 "양목이? 내가 몇째 아들이야"라며, 여전히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제가 늙어갔어요, 몸목이 다이에 양목이잖아요. 북조선에 있는 양목이라니까요"라는 아들의 집규는 차마에 시달리는 아버지에게 공허한 메아리였다. 친척들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리진 못했다. 보다 못한 북측 안내원들까지 나서 "할아버지 여기가 평양입니다. 평신이 드십니까"라고 거듭었지만 손씨는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다.

친척 관계자는 "손씨가 과거를 기억하지만 현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증세에 시달리고 있어 방북단 선정때부터 고심했다"면서 "아들을 만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 모시고 왔는데..."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용목기자·평양 / 공동취재단 woody@kuryhgyang.com

## 조금일찍 만났더라면... 남편, 멍하니 벽만 응시

## 주변만류 불구 방북 강행 목소리듣고 눈물만 글썽

# 경향신문

2001. 2. 28 (수)



케이크 자르고...

/ 사진공동취재단

27일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인천에서 25일이 생일이었던 북측 류남수씨(가운데)가 재기한 남북 부인 이봉희씨(오른쪽)와 딸 영희씨가 준비한 케이크의 솜씨를 보고 있다.



술잔 바치고...

공동 / 사진공동취재단

27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남북가족 통식 인천장에서 고회상을 받은 남측 어머니 이 후덕씨(오른쪽)가 딸 성경희씨로부터 술잔을 받고 있다.

## '고향의 봄' 합창속 아쉬운 작별

### 3차상봉 **서 울음**

○...북한 피바다 가극단 총장인 심촌 김수조씨(69)로부터 아버지 수희씨(75)와 사랑소식을 전해들은 북경씨(52)는 이날 심촌이 가져온 부친 사진과 공훈예술가 영예증명서를 영장 대신 놓고 '첫 재식'을 지냈다. 북경씨와 여동생 경숙(52), 정순(51)씨 등은 아버지 사진에 큰절을 한번 도중 경정이 북반씩 "아버지..."라고 외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남측 가족들이 개별상봉을 하면서 북측 가족에게 건네준 선물 보따리에는 어김없이 영장제가 들어 있었다. 가족 앨범과 가족사를 담은 북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북반에서 취주악의 대가로 공훈예술가 칭호까지 받은 정두영씨(67)와 동생 두현씨(62)는 이날 영장제와 진흥소망제 등 구급악을 선물로 준비했다. 북에서 온 강서구씨(70)와 남북형인 항구씨(78)는 고대 생이별한 동생에게 서구씨가 초등학교때부터 고1대까지 받은 성적표와 상장, 북보를 선물했다.

○...류영희씨(53)는 이날 3살때 헤어져 단 한 번도 볼러보지 못한 아버지 류남수씨(74)를 위해 뒤늦은 생일상을 차려드렸다. 영희씨는 케이크

### 표찰 바꾸며 '릴레이 만남' 휴대폰으로 '음성 재회'

크와 도일로 상을 치린 뒤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며 만수무강을 받고 시계와 반지 등을 생일선물로 드렸다. 한편 이날 개별상봉에서는 동시어 만남 수 있는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많이 찾아온 이들은 표찰을 바꿔가며 '릴레이 상봉'을 했다. 또 미처 상봉장을 찾지 못한 가족들은 북측에서 내려온 가족과 휴대폰으로 서로의 인사와 인부를 묻는 '음성 상봉'으로나마 이산의 한을 달랬다.

○...롯데월드호텔에서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열린 인천은 이산가족들의 짧은 만남과 긴 이별의 기쁨과 아픔으로 아찔했다. 해외를 곳곳에서는 '고향의 봄' 등을 가족이 함께 부르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인천이 끝났으니 자리를 정리해 달라는 행사 관계자의 부탁에도 상봉자들은 아쉬움으로 자리를 뜨지 못했다. 북의 공훈예술가 정두영씨(67)와 어머니 김인숙씨(89)는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북반인데 북보 부르고"며 '눈물짓는 두란금'을 곡이 쉬도록 불렀다.

권재현·임영주기자

janeyn@kyunghyang.com

## 유복자 첫상면에 '회한의 눈물'

### 3차상봉 **평양**

○...남측 방문단에는 임신한 아내를 두고 홀로 떠남, 처음으로 북의 자취를 만나는 이산가족들이 6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현영준씨(73)는 26일 고려호텔에서 아들 윤국씨(50)를 만났다.

한씨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으나, 윤국씨가 어머니 사진 등 가족사진 30여장을 펼쳐놓고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안준수씨(88)도 딸 선녀씨(53) 내외의 집을 방문 뒤 "한번도 아버지 노릇을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상봉에선 반공포로 출신의 남측 방문자 4명이 가족들을 재회했다. 김한진씨(71)는 북측의 동생 근진씨(60)가 전하는 어머니 얘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로고혼 때 어머니는 흑시나 하고 모로들이 돌아온 참전까지 갔었어", 같은 처지의 정형섭(77), 최인식(71), 최창현(70)씨도 동생들과 만나 지난 얘기를 하며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는 시간을 보냈다.

○...이후덕씨(77)는 대한항공 여승무원으로 남편인 남정경씨(55)를 북측 가족들과 생일잔치를 가졌다. 이씨는 "생일까지 담겨서 큰딸 가족들과 보내고 나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 임신 아내 두고 월남 6명 '애비노릇 한번 못했는데'

며 눈가를 흘렸다. "엄마가 안 늙었으면..."이라는 딸의 말에, "잘 사는 걸 보니 이제 돌이 가면 네 걱정은 안할 거다"라며 안심시켰다.

○...3차 이산가족 북측 방문단장 류미영(柳美英·79) 한도고 황우남 중앙위원장과 3차 이산가족 남북단회 일원인 사돈 손성근씨(79)와 만남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한지 관계자는 "류위원장이 한복수 외장 중대시 참석차 일본에 갔다"고 전했다. 그는 "류위원장의 넷째딸 최경애씨가 손씨의 큰아들 기현씨와 결혼했다"고 밝혔다.

○...가족 공동관심은 '짧은 만남 뒤 긴 이별'이 예정된 때문인지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북측 가족들은 돌아가면서 인천장 앞으로 나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정근남' 등의 노래를 부르고 지지사를 낭송했다.

남측 방문단은 인천 갈무렵 귀에 익은 '반갑습니다'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나오자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합창을 했고 일부는 어깨춤을 추었다. 이용욱기자·평민 / 공동취재단 wood@kyunghyang.com



# '北아들 중국출장' 소식에 노모 목놓아

## 3차 이산상봉 개별만남 이모저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은 상봉 이틀째인 27일 숙소인 서울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별상봉을 갖고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그러나 상봉의 기쁨도 잠시, 또 한번의 생이별을 앞둔 이들은 너무나 짧은 만남의 시간을 끝내고 뜬눈으로 밤을 지냈다.

### ▷ 북측 방문단과 서울 표정

●개별상봉 서울 롯데월드호텔 객실에서는 헤어지긴 부모님을 애도하며 임종을 모시고 재식을 지내는가 하면 50년 동안 치러주지 못한 생일상을 준비해 축하해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동시에 반납 수 있는 인원인 5명으로 제한되면서 가족임을 확인하는 표정을 바꿔가며 '릴레이 상봉'이 이뤄졌고 미처 상봉장을 찾지 못한 가족들과의 휴대용을 통한 '음성 상봉'도 이

### ○ 서울 표정

너도나도 영양제 선물  
생일상 받으며 웃음꽃  
김일성 사진 싸고 소동

어졌다.

●영양제는 필수 선물목록 개별상봉을 앞둔 가족들은 전날보다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고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다는 기대감에 들뜬 표정이었다. 남측 가족들이 준비한 선물 가운데 빠지지 않고 포함된 것은 영양제. 대부분 북측 가족들이 필요한 것보다 많은 양을 준비했다.

●김일성 장군 사진 실랑이 최경석씨(66)와 남측 가족들의 개별상봉에서 난대없이 남북 행사진행요원 사이에 핏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발단은 최씨가 객실에서 "김일성 장군의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주겠다"며 사진이 실린 책을 펼쳐려고 한 것. 이에 남측 요원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합

### ○ 평양 표정

김위원장 찬양에 당황  
"우리보고 적이라면서"  
주적론 거론 한때 썰렁

의사항 위반"이라며 제지하자 최씨가 "자유로운 상봉을 왜 가로막느냐"며 항의, 최씨와 남측 요원들이 실전을 벌였다.

### ▷ 남측 방문단과 평양 표정

●생일상 이날 밤 고려호텔에서 가족이 함께 한 만찬에서는 2차 방문 때처럼 남측 방문단 노부모를 위한 생일상이 차려졌다.

남북 여승무원 성경희씨(55)의 어머니 이순덕씨(77)와 채현석씨(87)는 민찬장 연단 쪽에 별도로 마련된 생일상을 받았다.

●김정일 위원장 선전 만찬에서 북측 가족들은 애타무어 상봉을 김 위원장의 덕으로 돌리는 노래를 불러 남측 가족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흘러나오자 만찬장의 가족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합창했고 일부는 어깨를 툭 치기도 했다.

●개별상봉 "수난이든 왜 없어, 얼굴 한번 보려고 50년을 수절하며 살았는데..." 평양 고려호텔 1921호실에서는 남에서 간 김유강 할머니(77)가 북의 두 딸을 앞에 놓고도 나오지 않은 아들만 찾아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김 할머니는 "동생이 기계공과 기사로 중국에 출장가서 나오지 못했다"는 딸들의 설명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듯 실움의 눈빛만 흘려냈다. 할머니는 "내일이면 여든인데 여기까지 와서 아들도 보지 못하고 가야 하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넋두리했다.

●난대없는 주적론 골짜기와 조카를 만나기 위해 평양에 온 여승복씨(73)에게 조카 여승준씨(54)가 난대없이 '주적론'을 펼쳤다. 승준씨는 "왜 남한에서 우리들 보고 적이라고 하는지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다"며 주적론을 거론해 분위기를 뒤흔치게 만들었다.

●평양 공동취재단 최여경 이송하기자 kud@kday.com



"오마니 드세요" 오마니 많이 많이 드세요. 북에서 온 아들 이영환씨가 27일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공동동찬에서 어머니 이기남씨에게 마음을 떠 먹여주면서 호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집니다 아버지" 건강악화로 27일 새벽 평양 천선병원에 입원한 남의 아버지 손시정씨(오른쪽)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북의 둘째 아들 양록씨가 안타까운 듯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北자식 앞에두고 "아들 만나게 해줘"

"우리 양육이 만나게 해줘..."

제3차 이산가족 개별상봉이 있었던 27일 평양시내 천수거리에 위치한 천선병원 7호실에서는 안타까운 부자의 만남이 이어졌다.

치매에 심장박동기까지 단 손사정씨(60·경기도 고양시)는 수십년동안 그리웠던 아들 양복씨(55)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다.

치매 90대 아버지 탈진 입원  
평양병원서 안타까운 상봉  
동행 의사 "법문제 없을것"

손씨는 연신 "내 아들 양육이 어디 있어, 양육이 만나러 왔는데 왜 못만나게 하느냐"고 복정을 높였다. 양복씨는 아버지에게 계속 말을 하며 정신

을 물러놓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손씨를 돌보고 있는 이병원 내과의사 한일준씨는 "오늘 새벽 들어왔을 때는 정신상태가 나쁘고 혈압이 100을 웃도는 데다 맥박이 빨라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했다"면서 "신경안정제 주사도 맞고 점심에는 미음을 먹기도 했지만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손씨는 50년만에 헤어진 가족을 만난 데다 남측 가족들과 떨어진 충격 등으로 혈압과 맥박에 이상증세를 보여 이날 새벽 4시에 입원했다.

방북단 지원차 함께 동행했던 직심자 병원의 서상연 내과과장은 "방북 남북 의사들이 공동으로 상태를 살펴 있다"면서 "손씨가 정신이 없을 뿐 혈압과 호흡은 정상유 보이고 있어 서둘러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6일 단체상봉에서 치매로 인해 아들을 만나 알아보지 못했다. ●평양 공동취재단



# “정말 그이가 살아 있나요”

## 3차 이산상봉

남북 KAL기장 유명하씨 남측 아내

“정말 그이가 살아있는가요, 정말 살아 있어요?”

32년 만에 남북된 남편 유명하(鄭炳夏·60·당시 KAL 기장)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부인 엄영희(嚴永喜·67)씨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남편의 소식을 알아보았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서 믿어지지 않는 듯 붉은 눈물을 흘리었다.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던 엄씨는 “남편이 남북된 뒤 2남1녀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신공이 워낙 강직해 걱정했는데 그래도 공군에서 일한다니 다행”이라고 말하다가 그동안의 설움에 북받치는 듯 오열을 멈추지 못했다.

남편 유씨는 지난 53년 공군 조종간부 1기로 입관, 13년 동안 F-86 등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조종간부도 전투기 조종교육을 받을 때는 비행실력이 뛰어나 동기생들 가운데 1등으로 조종훈련 과정을 마쳤다.

유씨가 소위 때 만나 열렬한 연애 끝에 사친공군기지 근처 셋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는 부인 엄씨는 “처음에 남북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지난 69년 성경희씨와 함께 남북된 대한항공 유명하 기장 가족들이 78년에 찍은 사진. 왼쪽부터 큰아들 한민, 부인 엄영희씨, 딸 혜연, 막내아들 종민씨.

### 성품 강직해 걱정했는데 공군서 일한다니 남편위해 항상 기도...편지라도 교환했으면

밀 수가 없었다”면서 “처음 5년 동안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불도 덮고 자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엄마만 바라보는 3남매가 있었기 때문이다. 엄씨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월바 안되는 보상금을 밑천으로 해 김포공항에 작은 스낵코너를 열었다. 그 작은 가게에서 밤이나 낮이나 일에 매달렸다.

그래서 딸 혜연(惠燕·43)씨와 아들 한민(韓

旻·42)·종민(鍾民·40)씨 형제들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딱치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었다. 엄씨는 “남편 생각이 날 때마다 밤을 새며 기도했다”면서 “아이들이 창밖에 대고 ‘아버지’하고 부를 때면 울음을 킁 수가 없었다”고 지난 세월의 설움을 털어냈다.

엄씨는 “이렇게 3남매와 늙으신 어머니만 남기고 떠난 남편이 답기도 했지만 요즘도 남편을 위해 꼭 기도한다”면서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편지라도 교환했으면 연인이 없겠다”고 다시 한번 붉은 눈물을 흘리었다.

●전영우 이승희기자 anselmus@kdaily.com

## “어머니 두달만 더 사셨다면 막내딸 소식 들으셨을텐데”

남북 여승무원 정경숙씨 오빠 현수씨

“두달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 69년 남북된 대한항공 여승무원 정경숙(鄭敬淑·55)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오빠 현수(賢洙·70)씨는 기쁨도 잠시, 지난해 12월5일 노환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김금자(金錦子·당시 91세)씨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눈물지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사는 현수씨는 “어머니는 남북된 막내딸 만나기만을 기다리며 여든다섯살까지 2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를 다니셨다”면서 “두달만 더 사셨으면 막내딸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텐데...”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잊지 못했다.

경숙씨 가족은 해방 뒤 아버지가 소련군에 억류돼 6남매 가운데 현수씨 등 4명만 어머니와 함께 월남했다. 이후 어머니 김씨는 동네문자집에서 장사할 하며 4남매를 키웠다.

현수씨는 “경의처럼 경숙이도 남북 당일에 다른 사람 대신 근무한 것”이라면서 “남북 한달 전



남북당시 정경숙씨

어머니 한갑 때 ‘오래오래 사시라’면서 어머니께 이불을 선물하며 활짝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토해냈다.

경숙씨는 165cm로 당시로서는 매우 큰 키였음에도 스스로 장장을 지어 입을 정도로 손재주도 뛰어났다. 참덕여고 졸업 뒤 연세대 도서관학과에 다니면서 장학금까지 받아 15년 손위 오빠를 기쁘게 하던 귀여운 여동생이었다. 유난히도 활발하고 씩씩했지만 여승무원이 된 뒤에는 하루도 걸근이 없을 정도로 성실했다.

막내동생을 잊을 수 없었던 현수씨는 이미 몇 년 전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몰입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냈지만 소식이 없어 최근에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현수씨는 “그저 살아 있다는 사실이 고맙고 김책공과대 교수와 결혼도 해 잘 살고 있다니 마음



69년 남북된 대한항공 여승무원 정경숙씨와 오빠 현수씨의 부인 김종희씨가 27일 동생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을 보며 지난날을 그리워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c@kdaily.com

이 놓인다”면서 “하루빨리 경숙이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빛바랜 막내동생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전영우 최여경기자 anselmus@kdaily.com



TV속의 남편 이상연 할머니가 27일 TV화면에 비친 남편(손원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기뻐하고 있다. 국군포로인 손씨는 이날 평양 고려호텔에서 동생 준호씨와 상봉했다. ●경주 이등구기자 yidonggu@kdaily.com

# 남편과의 수절 약속 지켜... 청춘 보냈지만 후회 안해

## 국군포로 北 손원호씨 아내의 望夫歌

아내는 50년 넘게 남편과의 약속을 굳세게 지켜왔다.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북한에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군포로 손원호씨(75)의 아내 이상연(李相連·70)할머니. 전쟁터로 나가며 "내가 죽으면 혼자라도 가정을 지키달라"고 한 남편의 유언같은 한마디를 잊지 않고 50여년을 살아왔다. 이 할머니는 슬하에 자녀도 없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염월리에 있는 한 사찰에서 기거하며 가슴 깊이 望夫歌(望夫歌)를 부르며 반세기를 버려온 것이다.

이 할머니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얼굴이 27일 TV화면에 비치자 참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그러나 손

도 잡고 얼굴도 쓰다듬어 보았지만 화면 속의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기만 했다. 같은 1주일 만인 50년 6월 전장으로 떠났던 남편은 25살 청년의 모습에서 75세의 노인으로 변해 있었지만 단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이 할머니는 시동생(손준호·68)과 함께 방북길에 오르지 못한 게 못내 아쉽지만 남편에게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다 청춘을 보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말미에 "그렇지만 미안해 하지는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할머니는 "하루빨리 만날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로 지난 50년의 한을 대신했다. ●경주 이등구기자 yidonggu@kdaily.com

# "장군님 덕에..." "그럼, 그럼" "장군님 덕에..." "..., ...?"

## 北협육 체제에찬에 가족들 엇갈린 반응

이산가족 단체상봉이 벌써 세차례나 이뤄지면서 남·북한측 모두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일정진행도 매끄러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남측 가족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북한 협육들의 한결같은 '장군님'과 '공화국' 예찬.

남측 가족들은 그러려니 하고 대부분 가볍게 맞장구를 치며 넘어가지만, 돌연 어색해진 분위기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북의 삼촌을 만난 조카(52)는 "만나자마자 시종 '수령님 은혜'만을 언급해 처음엔 너무 어색했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터라 고개 틀고 넘어가며 넘겼다"고 말했다.

형을 만난 C(62)씨는 "방송을 통해 이미 익숙해진 데다 '체제 차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다"고 말했다고 언니를 만난 한 이산가족은 "피붙이끼리 사상이 대수냐"면서 "오�히려 '장군님 덕이지'하고 먼저 말을 건네 언니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L



(56·여)씨는 "아버지가 공화국 대신 '북한'이라고 표현한 기자를 쫓아내는 순간 너무나 당황했다"면서 "어후 말을 가려서 하는 등 상봉 분위기가 씩씩했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이산가족은 "형이 반세기가 넘어 만난 가족을 앞에 놓고도 체제찬양에만 열을 올려 당혹스러웠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우리 정부도 남측 가족에게 "자극적인 발언은 피하라"고 교육할 뿐,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 통일부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김현정기자 tryout@hk.co.kr

# 통곡 대신 잔잔한 웃음꽃

## 한결 지분해진 이산상봉

이번 이산가족 3차 상봉자들은 흥분과 오열로 가득했던 1, 2차 상봉과는 달리 한결 차분한 태도를 보여줘 대조적이었다.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서 이뤄진 상봉에서는 1, 2차 때와 같은 '통곡에 가까운' 오열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대신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리는 이들이 보다 많이 눈에 띄었다.

울음보다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린 것도 특징. 가족들의 안부를 물으며, 혹은 반세기 전 고향에서 함께 뛰놀던 추억을 되살리며 환한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 옛 추억 풀어 놓으며 환한 표정

26일 센트럴시티에서 북의 오빠 정순석씨(67)를 만난 순남씨(61)는 북한 기자들이 상봉의 소감을 묻자 활짝 웃는 표정으로 "우리 오빠가 너무 예뻐졌어요"라며 오빠의 얼굴을 쓰다듬는 '애교'를 보이기도 했다. 정지용 시인의 셋째아들로 북에서 온 구인씨(67)도 이날 첫 상봉에서 여동생 구원씨(66)가 눈물

을 보이자 "이런 기쁜 날 왜 우느냐"고 달려며 환한 모습을 보였다.

27일 오전 오후 두 차례의 개별상봉 때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다. 상봉을 마치고 나온 남측 가족 대부분은 "옛날 함께 지냈던 추억을 즐겁게 나누고 왔다"며 밝은 표정들이었다.

## 만남 정리화로 마음의 여유

이처럼 만남이 비교적 차분해지고 '즐거워진'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 3차까지 이어지면서 이산가족들이 한결 마음의 여유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북에서 온 누나를 만났다는 한 이산가족은 "오히려 1, 2차 상봉 때 남들이 만나는 모습을 TV에서 보고 많이 울었다"며 "그런 경험을 미리 하고 나서인지 누나를 만났는데도 눈물보다 즐거움이 더 앞섰다"고 말했다. 북측 상봉단의 한 방송기자는 "1, 2차 때도 취재차 내려왔지만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더 차분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완배·박윤철기자>  
roryrery@donga.com

# “네가 정말 내 아들이냐...”



“네가 내 아들 맞느냐?”

“아버지, 제가 용국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면 어머니가 젊었을 때 고기장사해 아버지에게 금시계를 사주셨다는 말을 하면 아신다고 했는데...”

1·4후퇴 때 임신한 아내를 북에 남겨두고 내려와 생이별

의 아픔을 겪었던 한형춘씨(73·부산 서구)는 26일 평양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아들 용국씨(50)를 만나 자신의 혈육인지 하나하나 확인해갔다. 언뜻 보기에도 영락없이 빼닮은 얼굴 탓에 부자지간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한씨는 믿기지 않는 듯 연방 고개를 돌렸다.

## 빼닮은 얼굴 한눈에 알아봐

한씨가 “혹시 호적등본은 떴었느냐”고 묻자 아들은 “그런 것은 없다”며 대신 어머니 사진 등 북에서 가족들이 찍은 사진 30여장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했다.

평양 감서가 고향인 정린서씨(80·서울 중랑구)도 이날 1·4후퇴 때 북에 두고 내려온 60줄에 들어선 딸들과 함께 낯선 아들 대신씨와 상봉했다. 당시 아내가 임신한 줄도 모

## ‘유복자’ 6명 첫 부자 상봉

르고 남으로 내려왔던 한씨는 아들의 첫 인사를 받은 뒤 어색한 표정으로 “그동안 못봤으니 오늘이 처음이네”라며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다.

## “아버지 노릇 못했는데-” 눈물

3차 이산가족 남측방문단에는 이와 같이 부인이 얘기를 가졌을 때 남으로 내려와 이번에 자식을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이 6명이나 된다.

벅속에 있던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른 채 아내와 헤어졌던 안준수씨(88)도 이번에 딸 선녀씨와 시위의 큰절을 받고 북반쳐 오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안씨는 “한번도 아버지 노릇을 못했는데...”라며 말끝을 잊지 못했다.

이 밖에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 아내와 헤어진 김만수씨(79)도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남으로 내려왔다가 이번에 아들 명모씨를 만났고 이병식씨(82)도 아들 원주씨를, 김봉빈씨(80)도 딸 은복씨를 만나 혈육의 정을 확인했다. <이철희기자·평양=공동취재단>

# '6·25 戰死者'가 멀쩡히 살아돌아와

○...이산가족 북측 방문단이 포함돼 서울에 온 최인권씨(67)가 6·25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실종돼 전사자로 처리돼 있는 사실이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6·25전쟁에 참전한 최씨는 50년 12월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전사 처리됐다는 것.

그러나 고향인 경남인 최씨는 국군포로 출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들에게 "나는 의용군으로 자진 입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씨가 국군포로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반지 끼워주며 "잊지말자"

○...개별상봉에서 51년 만에 북의 남편 황장수씨(84)를 롯데월드호텔 숙소에서 만난 송순섭씨(82)는 "다시는 나를 잊지 말기 바란다"며 새로 마련한 금반



## 서울에서

지를 남편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50년 6·25전쟁 당시 전북 고창군 성내면에서 살고 있었던 송씨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자녀 3명과 함께 남편이 사망한 줄 알고 재산을 지내왔다.

북에서 온 최경석씨(66)는 남측 가족들에게 "김일성 장군의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주겠다"며 사진이 실린 책을 집어들려고 하자 남측 진행요원이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제지.

이 과정에서 최씨는 "왜 자유로운 상봉을 가로막느냐"며 거침겨 항의했고 남측 양측 진행요원들간에 몸싸움과 욕설이 오가기도.

○...이날 낮 롯데월드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오찬에서

는 테이블 곳곳에서 '건배' 소리가 터져나오고 '백도라지 타럼' '고향의 봄' '반갑습니다' 등의 노랫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흥겨운 분위기.

정지용 시인의 장남 구관씨(72)는 북에서 온 동생 구인씨(67)에게 건배를 권하며 "꿈엔들"이라고 외치자 가족들이 모두 "잇힐리아"라고 화답.

## 눈물속 기약없는 석별

○...역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동 만찬은 제3차 이산가족상봉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행사여서 남북의 가족들은 눈물 속에 기약없는 석별의 정을 교환.

만찬이 시작되기 전부터 내내 울음을 터뜨리던 이봉희씨(72)는 남편 유남수씨(74)가 만찬장에 들어서자 유씨의 품에 안겨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전승훈·전 참·정위용기자>  
raphy@donga.com

# 성경희씨 어머니 "죽어도 여한없다"

○...아들과 두 딸을 북에 남겨두고 홀몸으로 남으로 내려온 최책감이 51년 동안 재혼도 하지 않은 김유갑할머니(77·경기 평명시)는 상봉장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억장이 무너졌다. 딸 김순영씨(56)와 순복씨(53)에게 "아들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지만 "오빠가 중국 출장을 가는 바람에 나오지 못했다"는 대답만 들었다.

## 유미영씨와의 만남 불발

○...지난해 8월 1차 이산가족 방문단 북측 단장 자격으로 서울에 왔던 유미영(柳美英·79)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과 이번에 여동생을 만나러 평양에 간 사돈 손성근씨(79·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만남이 추진됐지만 불발로 끝났다.

한직측은 북측에 의뢰해 이들의 상봉을 추진했지만 유위원장이 최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한덕수의장 장례식 참석차 일본



## 평양에서

에 가는 바람에 무산됐다.

○...치매를 앓아온 손사정씨(90)는 수십년만에 헤어진 가족을 만난 데 따른 충격으로 탑진해 27일 새벽 동평양 문수거리 친선병원에 입원했다. 북측은 이남 아들 양복씨(55)가 병원에서 아버지 손씨를 만나도록 허용해 북측에서 첫 '병원 상봉'이 이뤄졌다.

또 7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방북한 이후성씨(84)와 폐기종으로 서울대병원 입원 중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방북길에 오른 임재희씨(85)는 만찬 도중 기침을 하는가 하면 답답하다고 호소, 일찌감치 숙소로 돌아가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다.

○...이곳에 있으면 장군님이

내 미래 운명, 그리고 가족들을 책임져 줄 수 있어서 내가 남기로 한 거야. 남에 갔으면 엄마가 내 운명을 책임지지 못했을 거잖아. 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엄마."

"말 안해도 다 안다."

69년 대한항공(KAL)기 피랍 사건 당시 여승무원으로 북에 남게 된 딸 성경희(成敬姬)씨와 27일 고려호텔에서 이롭게 만난 이후덕(李俊德)씨는 "잘 사는 네 모습을 봤으니 이제 돌아가면 걱정 안할 거다"라며 딸을 안심시켰다.

## 서울 케이프로 생일잔치

다음달 6일이 생일인 이씨는 서울에서 준비해간 케이프로 조촐한 생일잔치를 열었다. 이씨는 "생일까지 미리 당겨서 큰딸 가족들과 보내고 나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연방 눈가를 훔쳤다.

〈하태원기자·평양=공동취재단>  
scoop@donga.com



69년 대한항공(KAL)기 피랍사건으로 납북된 승무원들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당시 여승무원 성경희씨(55)에 의해 알려지자 27일 이들의 남북 가족들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어쩌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겠다"는 희망과 함께 "이제 상처가 겨우 아물려고 하는데..."라며 허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 “꿈에 남편이 보이더니...”

## 생존확인 납북 승무원 가족 표정

### “칠순 아버지 건강하기만”

당시 KAL기 부기장 최석만(崔石滿·71)씨의 큰딸 은주(銀珠·45·경기 성남시 분당구 잠자동)씨는 가슴이 메어 두 동생 은희(銀喜·44·대전거주) 은심(銀心·40·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씨에게 전화도 못했다고 한다.

“아버지들 그러다 2년 전 돌아기신 어머니(장순옥·당시 63세)생각에 그저 눈물만 나왔다”는 최씨는 “그나마 돌아가시기 직전 일본에서 온 친지가 평양TV좌담프로에 나온 아버지들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회고했다.

딸 3형제를 ‘삼공주’라 부르며 정을 쏟아 부었던 아버지였건만 생존 소식을 듣고도 가족은 축하라도 누가 된가 싶어 이산가족 상봉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은주씨는 “알다시피 중학생 시절 헤어진 아버지가 이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작년에 칠순을 맞았던 아버지의 건강만을 빌 뿐”이라며 눈가를 훔쳤다.

### “어머니 살아계셨더라면”

또 납북 당시 여승무원 정경숙씨(55)의 생존소식을 전해들은 오빠 현수(玄洙·70·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씨는 “경숙이들 부르며 눈을 감지 못하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면서 안타까워했다.

“막내딸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눈을 감을 수 없다”던 어머니 김금자씨는 불과 두달여 전

인 지난해 12월5일 92세로 세상을 떠났다. 현수씨는 “경숙이의 납북 후 생존 여부라도 확인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었다”며 “몇년 전 남파간첩 출신이 쓴 책을 통해 함께 납북됐던 성경희씨가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일한다는 대목이 나와 경숙이도 같이 있었거니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심씨와 창타이고 동기생인 정경숙씨는 연세대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심씨보다 한 해 뒤인 69년 대한항공에 입사했었다.

### 남편과 살던곳 여태 안떠나

한편 당시 납북된 KAL기 기장이었던 유병하씨(69)의 부인 엄인희씨(67)는 “지금 와서 찾아 나선들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나하고는 13년간 살았지만 북한에서의 생활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라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구주 이름은 32년 전과 똑같은 ‘유병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홀로 2남녀를 키우던 엄씨는 남편과 함께 살던 서울 용산을 수십년째 떠나지 않고 있다.

“이상하게도 헤어진 후 한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던 남편이 그저께 꿈에 나타났으나 아무 말 없이 사라져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그랬던 모양”이라고 씩씩리한 웃음을 지은 엄씨는 “현재로서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선뜻 만나 용기가 없다”고 말했다.

〈허문영·성동기·민동홍기자〉  
angelhuh@donga.com



69년 피랍 KAL기 기장 유병하씨의 부인 엄인희씨가 남편의 생존사실이 전해진 27일 자택에서 친지의 전화를 받고 있다. 작은 사진은 유병하씨의 피랍되기 전 모습.



당시 납북된 KAL기 부기장 최석만씨의 큰딸 은주씨가 27일 아버지와 생존사실을 전해받고 피랍된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 납북 승무원 4명 모두 생존

기장·부기장 공군 근무·승객7명 生死는 확인안돼

### 성경희씨 소식 전해

69년 납북된 대한항공(KAL)YS11기의 기장과 부기장, 승무원 2명이 모두 북한에 살아 있는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그리

나 당시 북한에서 돌아오지 않은 승객 7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여승무원인 딸 성경희(成敬姬·55)씨를 26일 평양 고리호텔에서 만난 심씨의 어머니

이후덕(李後德·77)씨는 이날 “따로부터 기장 유병하(柳炳夏)씨와 부기장 최석만(崔石滿)씨가 현재 북한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씨는 1남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동료 여승무원인 정경숙(鄭敬淑)씨도 평양에서 상해 집 부근에 살며 서로 자매처럼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7순 아버지 언제 볼수있나요”

世界日報

2001. 2. 28 (수)



피랍 KAL기장 아들 유한민씨

“살아계실 때 단 한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으면...”

1969년 강릉에서 서울로 오던 중 납북된 대한항공기 기장 유병하(柳炳夏)

은 눈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유 기장이 하루아침에 기약 없는 인연이 돼버린 뒤 유씨의 어머니 엄영희(67)씨는 회사의 알선으로 김포공항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세 남대



◇유병하씨 67년 모습.

를 곳곳이 키워냈다. 32년 동안 백방으로 유 기장의 안부를 수소문해왔던 유씨 가족들이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 한마디에 앞뒤 짐 겨릅도 없이 매달렸다가 사기를 당한 것도 여러 차례다. 그러던 중 7년 전 북에 다녀온 기자인 친구에게서 “아버지가 북에서 공군요직에

## 女승무원 모녀상봉에 그리움 더해 北공군 근무-재혼소식 7년전 들어

4차 이산상봉편 어머니 설득 꼭 신청할것

69씨의 장남 유한민(43)씨는 27일 함께 납북되었던 승무원 성경희(55)여씨가 평양에서 어머니 이후덕(77)씨를 열싸안는 장면을 TV로 지켜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삼켜야 했다.

유 기장이 납북될 당시 유씨는 고작 11살이었지만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생생하다. 비행기 구경조차 어렵던 시절 어린 3남매는 아버지가 모는 비행기 조종석 옆에 앉아 부산으로, 제주도로 마음껏 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유씨의 꿈속에서 아버지는 멋진 비행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잠에서 깨면 아버지가 곁에 없다는 현실

있고 재혼해 건강하게 잘 산다더라”는 희망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1차 이산가족 상봉 때는 ‘납북자 가족은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에 유씨는 신청조차 포기해야만 했다. 2, 3차로 이어지는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보면서도 ‘우리는 언제쯤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만 더 아플 뿐이었다. 유씨는 “납북자 관련법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차 이산가족 상봉 때는 행여 아버지에게 누가 될까 걱정하는 어머니를 설득해 반드시 상봉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군기자 belle@sgt.co.kr

한국일보 2001. 2. 28 (수)

## 반공포로 4명도 北가족 만나

3차 이산상봉 부모님 빛바랜 사진에 50년세월 헛되어 눈물

“포로 교환 때 안 오니까 부모님이 사망처리 했지. 어머니는 형이 흑시나 울까 하고 포로들이 돌아오는 청진까지 갔었어.”

반공포로 출신 김한천(71·전주사 송천동)씨는 27일 북측 남동생 근천씨가 전해 준 어머니 얘기를 듣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17세 때 인민군에 차출돼 부모님 사진 한 장 행거지 못했던 김씨는 여동생 기숙씨가 전해 준 부모님의 빛바랜 사진을 받아 들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김씨는 1950년 10월 강원 철원에서 납북하다 포로로 잡혀 부산 동래와 거제도, 논산 포로수용소로 옮겨 다녔다. 반공포로로 남한을 향해 북측 가족들과 생이별한 김씨는 다시 국군에 입대, 월남전에 참전하는 등 20여년간 군에서 복무했다. 동생 얼굴도 알아보지 못해 부모에 대한 기억, 고향(평남 대동군)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근천씨 등이 피붙이임을 확인한 김씨는 동생들에게 손목시계도 일일이 채워 주었다.

이번 방북단에 반공포로 출신은 이

밖에도 장형섭(77·대전시 동구) 최인식(71·대전 대덕구) 최창환(70·경기 양평)씨 등 3명이 더 있다. 이들 모두 고향이 북쪽으로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뒤 남한에 잔류했다.

장씨는 전장으로 가족이 모두 숨졌을 것이라고 판단, 거제수용소에서 남쪽을 택했는데 이번에 여동생과 남동생 둘과 만났다. 누나와 동생을 만난 최인식씨는 가족들이 월남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남쪽을 선택했었다. 19세 때 인민군에 차출된 최창환씨는 인천 상륙작전 때 북으로 퇴각하지 못해 포로로 잡혀 수용소 생활을 하다 석방된 뒤 국군에 재입대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아들보러 왔는데 왜 없나”

世界日報

2001. 2. 28 (수)

## 평양에서

평양 고려호텔 객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별상봉에서 이산가족들은 어렵지 않게

와 고향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깃거리를 피웠고, 쪽보와 반지 등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회포를 풀었다.

○“포로 교환에 안 오니까 사망처리했지. 어머니는 형이 죽어나 울까 하고 포로들이 돌아온 청진까지 갔었어.”

반공포로 출신인 김한천(71·전주시송천동씨)은 27일 북측 남동생 근진씨가 전해준 어머니 얘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열일곱에 갑자기 인민군에 차출돼 부모님 사진 한장 챙기지 못했던 김씨는 여동생 기숙, 문숙씨가 전해준 부모님의 빛바랜 사진을 소중한 선물로 받았다.

인민군으로 남하하던 중 김씨는 50년 10월 강원도 칠원에서 포로로 잡혀 거제도, 노산 포로수용소를 옮겨다녔다. 반공포로로 남한을 택한 김씨는 다시 국군에 입대해 월남전을 치르는 등 20여간 국군으로 복무했다. 김씨처럼

○27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남북가족 동상 만찬장에서 김병도씨 가족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50년수절 母情 “출장”소식에 허탈

### 치매 9순 노인 상봉 충격으로 입원

반공포로 출신은 이번 방문단에 장형섭(77) 최인식(71) 최창환(70)씨 등 모두 4명이다.

○“수남이는 왜 없어. 한번 보려고 50년을 수절하며 살았는데.” 아들과 두 딸을 남겨두고 홀로 남쪽으로 넘어왔던 김유감 77·경기도 광명)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부픈 가슴을 안고 상봉장에 나왔지만 살아 있던 아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 김 할머니는 상봉장에

나온 두 딸 김순영(56)씨와 순복(53)씨에게 아들의 행방을 물었지만 “오빠는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나오지 못했다”는 허탈한 대답만 들었다. 답답한 마음에 북측 안내원을 붙들고 아들을 만날 수 없느냐고 하소연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평양=공동취재단

# “다시보니 당신 참 젊구려”

## 北남편 한마디에 50년 회한 녹아

### 공훈예술가 “아버지 영정 모실터”

북한의 공훈예술가 정두명(67·평양시 낙랑구역 정백2동)씨는 27일 롯데월드호텔 개별상봉에서 아버지 제사

를 지내며 지난 반세기 세월의 한을 되짚었다.

두명씨는 아버지 영정 앞에 큰절을 올린 뒤 “아버지 영정을 내가 가져가겠다”면서 눈물을 쏟아냈다.

1977년 6월 69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자신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낯장자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리워했다는 가족들 얘기를 듣고 그만 목을 놓았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어머니 김인순(89)씨가 밤새 “내 아들이 아니야”라고 중얼거렸다는 얘기를 가족들에게 들은 두명씨가 51년 1월 의용군에 지원했을 때 찍은 흑백사진을 내밀자 인순씨는

비로소 “내 아들이야”라고 알아봐 또다시 방안은 울음바다를 이

## 서울에서

50년간 자신을 기다린 아내를 두고 재혼한 남편의 무안함과 어색함도 27일 개별상봉에서는 상당히 풀린 것 같았다.

북측 남편 전영수(79)씨는 남측 아내 류정규(74)씨에게 “간밤에 임자는 잠 잤느냐. 당신과 가족들을 만난 흥분 때문에 밤새 한 잠도 못 잤다”며 꼭 친 아내의 손을 놓을 줄 몰랐다.

전날 “잘 몰라보셨구먼...”이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못내 섭섭해했던 아내는 “생각한 것보다 젊어 보인다”는 남편의 따스한 말에 얼굴이 환하게 피어올랐다.

“당신은 아직도 우리집 가장이예요”라는 화답까지 했다.

전씨는 1950년 5월 31일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고 그 해 6월 16일 딸 애일씨를 낳은 뒤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다.

/이천중-이상현기자  
skylee@sgt.co.kr

## 한국일보

2001. 2. 28 (수)

## ‘장군 사진’ 상봉장 몸싸움

“어머님께 보여주겠다”

南 “합의 위반” 제지

27일 오후 노모와 형제자매 등 9명의 환육을 만나 화제가 됐던 최경석(67)씨의 개별 상봉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한때 고성아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객실에서 최씨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김일성 장군의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주겠다”며 사진이 실린 책을 집어 들려고 하자 남측 당국자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이를 제지했다. 이에 최씨가 “왜 자유로운 상봉을 가로막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최씨와 당국자간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북측 관계자들이 기세, 다른 남측 당국자들간의 말싸움으로 변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거친 몸싸움도 벌어지고 욕설이 오갔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적인 상봉에서 정치적인 전근을 금지한다는 규정 때문에 서로가 약간 과잉 대응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소동이 가리앉자 최씨는 “한복을 지어드리려고 갖고 있다”며 갈색 꽃무늬 옷감을 꺼내 어머니 모기술(84)씨 복에 감아드리는 등 안심시키려 애썼다.

/고천유기자 jutdae@hk.co.kr

이산가족 개별상봉 현장

“아버지 영정 가져가겠다” 눈물

3차 이산가족 북측 서울방문단의 남측 가족들과의 개별 상봉이 이뤄진 27일 서울 롯데호텔은 '분단이 빛은 비극의 현장'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출신인 리상무(69)씨는 이날 숙소인 호텔 객실에서 누님 무교(82)씨 등을 만나자 “가난으로 고생하던 어머니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방문단에 포함된 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이룰 수 없었다”고 오열했다.

그는 “머슴 생활하던 내가 북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철 졸업하고 남쪽의 ‘재벌’과 비슷한 ‘재철소 지배인’을 지냈다”며, 가져온 인상주와 ‘홍성술’, 친대보 등을 남측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새기와 더꿨어’라는 책자에 실린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벽면 선반 위에 올려놓고 남측 가족들에게 “한게 절을 올리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北취재기자 연성 높아

○...북한의 공연예술가 정두명(67)씨는 북에서 준비해온 인상곡주와 과일로 제사상을 차려 놓고, 남측 가족들이 가져온 아버지 영정(影幀)에 쓴 절을 올린 후 “영정을 가져가겠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정씨는 북한 취재와의 대가로 지난 94년 김일성 영결식 때 연주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편곡한 인물이다.

○...정지용(鄭芝裕) 시인의 북측 아들 구인(67)씨는 남측 현 구관(73)씨를 만난 자리에서 전날에 이어 “아버지는 6·25 전쟁중에 소요산 기슭에서 미군의 폭격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것

은 남측 언젠의 오보”라고 주장했다. 현 구관씨는 대우하지 않고 묵묵히 담배만 피웠다.

그러나 구관씨가 “나이든 이산가족을 위해 통일 전 독일처럼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왕래해야 한다”고 하자 취재하던 북한 기자가 “우리 민족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갑자기 연성을 높여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다.

/全起弘기자 darms30@chosun.com

/全要九기자 roadrunner@chosun.com



◇50년만에 생겨주는 생일케이크

27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공동민찬에서 북측 류남수씨가 남측 부인 이봉희씨와 함께 이틀 전의 생일을 뒤늦게 축하하는 케이크를 지르고 있다.

/平壤=시진공동취재단

빛바랜 부모님 사진... 반공포로 출신 눈시울

50년만에 生還의 기쁨

“포로교환 때 안 오니까 사망처리했지. 어머니는 힘이 흑시 옮겨 하고 포로들이 돌아온 천진까지 갔었다.”

반공포로 출신의 김한전(71)씨는 27일 고려호텔로 찾아온 북측 동생 근전씨가 전해준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열일 곱살에 갑자기 인민군에 징집돼 부모님 사진 한 장 챙기지 못했던 김씨는, 여동생 기숙·문숙씨가 전해준 부모님의 빛바랜 사진을 소중한 선물로 받았다. 김씨는 1950년 10월 강원도 칠원에서 국군에 체포돼 거제도와 논산 수용소를 옮겨 다니다 전향해 남쪽에 남았다. 김씨는 국군에 재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하는 등 20여년간 복무했다고 한다.

남측 이산가족에는 김씨를 비롯해 50년 만에 북의 가족들과 생환(生還)의 기쁨을 나눈 반공포로 출신이 4명이나 포함됐다.

한편, 지난 1·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때에도 반공포로 출신인 김준성, 박관선, 엄대성, 이태훈, 임경옥, 최태현씨 등이 반세기 만에 평양을 찾아 가족들과 만났다. /平壤=공동취재단

아들 중국 출장중 끝내 못 본 50년恨

평양 간 老母 탄식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둘째날인 27일 기대했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 아쉬워한 가족들도 있었다.

평양 고려호텔 1921호실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김유강(77) 할머니는 아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수남이는 왜 없어. 한번 보려고 50년을 수절하며 살았는데...”라며 탄식했다. 김 할머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속소를 찾은 두 딸을 앞에 놓고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너희들 속시원히 얘기 좀 해다오. 어젯밤 한숨도 못잔단다”라며 재근했다. “기계공학 기사로 중국에 환장가서 나오지 못했다”는 딸들의 설명을 듣고도 김 할머니는 설움의 눈물만 쏟아냈다.

김 할머니는 “내일이면 여든인데 여기까지 와서 아들도 보지 못하고 가야 하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두 딸은 “오빠는 국가를 위해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들도 만났잖아요”라며 어머니를 위로했다.

/平壤=공동취재단



# “생사라도 알려달라” 승객 가족들은 절규

## KAL機 피랍 피해가족 표정

69년 대한항공 여객기와 함께 납북돼 돌아오지 못하는 승무원과 승객 11명의 가족들은 27일 '북에 승무원 4명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모르는 일 아니냐" "생사확인조차 안된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생야번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승무원 가족은 안도

당시 조종사 유병하(70)씨의 장남 유한민(柳漢旻·43)씨는 "작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때 수행 취재했던 기자들을 통해 아버지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래도 아버지의 생존이 오늘 공식적으로 확인되니까 더 기쁘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69년 12월 아버지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다.

"납북 초기엔 부조종사 최석만씨가 북한 고정간첩과 연결됐다는 소문이 돌아 나머지 다른 역류자들도 간첩 취급을 받아 이종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안사 분실에 몇차례나 끌려가 조사된 것은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고요."

유씨는 남북간 화해무드가 형성될 때마다 '곧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가슴 설레다 곧 쓰라린 실망을 맛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와와의 상봉 가능성에 대해 유씨는 "나라를 지키다 북한에 잡힌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한마디 말도 못하는데, 납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며 고개를 내저었다.

### “얼굴 한번 봤으면...”

이승무원 정경숙(56)씨의 오빠 정현수(70)씨는 "혹시 우리 경숙이 이야기가 나왔을까봐 1차때부터 이산가족 상봉장면을 TV로 꼼꼼히 살피봤었다"며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의 형제들이 서로 진화를 하며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경숙 이름 보기 전에는 침대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시다가 결국 작년 12월 5일 돌아가신 게 못내 가슴에 걸린다"고 했다.

정씨는 "92년 귀순한 오길남씨를 조사했던 안기부 직원을 통해 경숙이가 대남방송국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살아있을 때 동생 얼굴을 한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40대로 식당을 운영하다 납북된 승객 장기암씨의 부인 이순남(68)씨는 "정부가 장기수들은 대기 돌려보내면서 영문도 모른채 끌려간 민간인들은 귀환시키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납북됐다 돌아오지 못한 승객과 승무원 11명 전원이 조속히 돌아올 수 있게 정부가 나서서 일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廣濟기자 ksyoom@chosun.com  
/韓在賢기자 rookie@chosun.com

형이 北 가족에 남긴 유산 찾아주려-

# 이산 상속 소송위임장 불발

## 방북 동생 형수 못 만나

3차 이산가족 방문단으로 평양에 간 이산가족이 방북 기간 중 상속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해 북에 사는 형수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받아 상속 법정에 제출하려 했으나 형수가 상봉장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1·4주회 직전인 50년 12월 A씨와 함께 입남한 형 B씨는 남한에서 밀가루 수입 사업 등으로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모은 뒤 지난해 숨지면서 재산의 일부를 북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남쪽에서 재혼한 부인과 갈등을 겪었다.

사망한 형 B씨의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남측 형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A씨

는 이번 방북기간 중 북의 형수를 만나 소송위임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었다.

방북에 앞서 혼인무효 소송과 호적입적 소송,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 등의 위임서류를 준비했던 A씨는 27일 "형수나 조카들이 상봉장에 나오지 않아 미리 준비해 온 소송 위임서류에 서명을 받지 못했다"며 "상봉장에 나온 다른 가족들에게 소송 위임서류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앞으로 형수가 위임장에 서명을 하면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우편으로라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태원기자·평양=공동취재단>

世界日報

# 백발 노모-아들 '보고 또 보고'

## 92세 허계씨 "또 헤어져야하나"

"어머니 100세까지 사시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전남 집단상봉에서 51년만에 어머니를 만난 김두식(70)씨는 27일 개별상봉에서 남측 상봉가족 중 최고령자인 어머니 허계(92)씨를 연신 쓰다듬었다.

김씨는 지난 50년 7월 전쟁이 한창일 때 수원 의 집에서 과수원을 돌려보냈더니 나간 뒤 소식을 끊었다.

허씨는 "집을 보니 아들이 죽었다고 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50년만에 살아 돌아온 걸 보니 기쁨 따름"이라며 "아들의 얼굴을

봐서 그런지 어제는 여느 때와 달리 잠을 푹 잤다"고 말했다. 김씨는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집은 미신이야요.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라며 어머니에게 "음식"을 부러기도 했다.

김씨는 "다 만나는 것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6·15 공동선언만 이행하면 통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산 위해서는 단국자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나침반으로 통일관을 피리쳤다.

김씨는 "어머니가 나이 22세에 낳았는데도 나보다 더 정정하신 것 같다"며 농담을 던지는 등 시종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범기자 topbum@sgt.co.kr

拉北 승무원 정경숙씨 모친 안타까운 사망

# “두달만 더 사셨어도...”



정경숙씨

지난 26일 평양에서 극적으로 모친을 상봉한 전 대한항공 승무원 성경희(成敬姬·55)씨의 소식에 당시 KAL기 납북자 가족들은 더

어타는 심정이 됐다.

그중 같은 승무원이던 정경숙(鄭敬淑·56)씨의 어머니 김금자(金鎭子)씨가 한을 안고 두달 전 사망(당시 91세)한 사실이 27일 확인돼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鄭씨가 북한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오빠 현수(甄洙·71·경기도 고양시)씨는 이날 “지난해 12월 5일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경숙이가 보고 싶다’는 말만 거듭하다 돌아가셨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어머니가 조금만 더 살아계셨으면 기쁜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현수씨는 “우리 형제들도 빨리 막내인 경숙이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경숙씨는 1968년 연세대 도서관학

## 3차 이산상봉

### “기장·부기장 공군근무”

### 성경희씨가 근황 밝혀

### 승객 7명은 확인 안돼

과관 졸업하고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鄭씨와 함께 69년 12월 11일 강릉발 서울행 KAL YS-11기를 탔다가 비행기가 고정간첩에 납치되면서 북으로 갔다.

70년 2월 14일 납치된 사람들 중 39명이 북에서 돌아왔지만 경숙씨 등 11명은 오지 못했다.

이후 평양방송은 “성경희와 함께 보람된 새 생활이 기억된 북반부에 남겠다”는 경숙씨의 육성을 내보내기도 했다.

현수씨는 “해방 당시 우리 식구들은 아버지가 소련군에 잡혀가는 바람에 여섯 남매 중 네 명만 어머니를 따

라 월남했다”며 “이후 경숙이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 어머니는 평생을 눈물로 보내셨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모친을 만난 鄭씨는 27일 “동료 여승무원 정경숙은 우리 집 가까이 살면서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현지의 공동취재단이 알려졌다. 鄭씨는 김책공대 교수와 결혼해 1남2녀를 뒀다.

鄭씨는 또 “기장이었던 유병하(柳炳夏·69)씨와 부기장 최석만씨는 현재 북한 공군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부기장 崔씨는 북한에서 결혼해 부인과 1남1녀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억류된 승객 일곱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돌아오지 못한 승객 장기영(75)씨의 아내 이순남(67·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씨는 “지금까지 수차례 상봉 신청을 했지만 무산됐다”며 “생사 여부도 알 수 없으니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정철국·이경희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gojhm@joongang.co.kr>



이상연 할머니가 TV에 비친 남편의 얼굴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루만지고 있다.

경주=황선운 기자

## “再嫁 말라 해 기다렸어요” TV비친 국군포로 남편 南아내 애달픈 50년수절

국군포로 출신으로 북한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손원호(75)씨의 아내 이상연(李相連·70·경북 경주시 안강읍)할머니.

27일 오전 남편이 TV에 모습을 나타내자 50년간 참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화면 속의 얼굴을 만지고 쓰다듬어 봤지만 남편은 꿈에서처럼 여전히 무심하기만 했다.

李 할머니가 孫씨와 결혼한 것은 1950년 음력 4월 4일. 소위로 임관

예정이던 남편과 경주의 시대에서 5일을 함께 보낸 것이 부부생활의 전부였다.

전쟁은 끝났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李 할머니는 시동생의 아들(36)을 양아들로 입양시키고 남편 제사까지 지내왔다. 재가하지 말라는 남편의 뜻을 받들어 집 일을 돌보면서 보살로 혼자 살아왔다.

시동생이 형의 생사확인을 위해 신청했던 방북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

지 않아 이번의 상봉조차 무산됐다.

20여년 전부터 경주에서 교회소남으로 활동 중인 李 할머니는 둘째 시동생 준호(68)씨 편에 남편에게 한봉의 편지를 보냈다.

“51년 전 당신이 나의 손을 꼭 잡고 ‘재가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라고 당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언젠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경주=황선운 기자 <suyohwa@joongang.co.kr>

50년 아픈 세월... 기다림이 병이 됐다

# 자식 몰라보는 老患

## 3차 이산상봉

"아버지 제발 한마디라도 하세요. 큰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북쪽의 아들 정종득(67)씨는 아버지 정무희(87)씨를 찾달고 혼들어 보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다. 무희씨가 노환으로 병상에 누운 지 벌써 수년째. 북쪽의 아들이 살아 있다는 소식에도 일어나지 못했다. 가족들은 아들의 얼굴을 보면 조금이라도 기려줄 뉘웃음을 해서 무희씨를 업고 상봉장에 왔지만 무희씨는 의자에 앉기도 힘겨운 듯한 모습이었다.

종득씨는 "이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장남인 제가 모셔야 하는데..."

라며 눈물만 쏟았다.

3차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27일. 그러나 50년이란 세월을 기다리기엔 부모들은 너무 늙고 병들었다. 생전에 자식 얼굴을 한번만이라도 더 봐야겠다며 버텨온 시간이었지만, 서울과 평양의 상봉장 곳곳에서는 마주한 자니

### "제발 한마디만..." 아들 뚝뚝 들 다 치매 母子 상봉도

를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출하고 있다.

2년째 치매 증세에 시달리는 남쪽의 노모 손오례(92)씨는 상봉 이틀째는 아예 개별 상봉장에 나오지도 못했다. 1차 상봉에서 6·25 때 의용군으로 끌려간 큰아들 이강술(70)씨를 만난 남쪽의 노모는 끝내 아들을 알아보

지 못했다. 남쪽의 차남 강민(54)씨는 "1차 상봉 뒤 가족들과 상의해 어머니가 할님 얼굴을 못 알아보니 차라리 다른 가족이라도 더 만나게 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강술씨는 "어머니의 살아계신 얼굴을 본 것만으로 기쁘다"면서 손에 쥔 어머니 사진을 놓지 않았다.

둘 다 치매에 걸린 모자의 황체어 상봉도 있었다. 평양을 방문한 이후성(76)씨는 7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 왔지만 어머니를 만나려 황체에 몸을 싣었다. 그러나 어머니 장오복(94)씨도 치매를 앓은 지 10년. 장씨는 전혀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치매를 무릅쓰고 평양을 찾은 90대의 손사정씨도 딱상 50년 만에 맞은 큰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 이때 표정

## 김일성 사진 놓고 南北 한때 몸싸움

○...30여년 전에 남북했던 탑 성경회(55)씨를 평양에서 만난 이후덕(77·여)씨는 사위 임영인(58)씨와 외손자·외손녀가 참석한 가운데 숙소에서 생일파티를 열고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이씨는 상씨에게 준비해간 핸드백을 선물하고 손녀에게는 손수 편 목도리를 돌려주었다.

북한의 아들을 만나지 못한 김유감(77·여)씨는 개별 상봉장에 온 두 딸 김순영(56)·순복(53)씨에게 "아들이 못 오면 머느리나 손자라도 올 것이지..."라며 울먹였다.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27일 오후 7시 서울 롯데월드 호텔 3층

크리스탈 홀에서 열린 마지막 만찬에선 헤어질 가족과 함께 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생각에서인지 테이블에 놓인 음식에 손이 잘 가지 않는 분위기.

이번 상봉에서 남쪽의 언니 해석(72)씨와 여동생 정석(63)씨를 만난 서희숙(69)씨는 양편에 앉은 지매의 손만 붙잡고 있을 뿐 음식은 이랑곳하지 않았다. 희숙씨는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며 다가오는 이별의 순간을 아쉬워했다.

○...북한 피바다가극단 총단장 김수조(69)씨는 개별 상봉에서 북경(54)씨 등 조카 네명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찍은 사진과 각종 상훈을 꺼내 보였다. 50년 동안 수감해 온 남측 부인 유정규(75)씨와 북측의 전영수(79)씨는 다정히 앉아 기념 사진을 찍으며 재회의 정을 나눴다.

○...김일성 사진을 두고 한때 승강기도 벌어졌다. 북에서 온 최경석(66)씨는 객실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김일성 장군의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주고 싶다"고 사진이 실린 책을 꺼냈다. 그러자 남측 당국자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합의 사항 위반"이라며 제지했다. 남북 당국자들이 기세,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 한국경제

2001. 2. 28 (수)

## 이산가족 개별 상봉 서울·평양 오늘 귀환

대한적십자사 시영훈 총재는 27일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장인 김경락 북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상임위원과 만나 시신교환 확대와 면회소 설치 등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김 단장은 북측을 원하는 비전환 장기수와 그 가족의 추가 송환을 요청. 의견대립을 보였다. ▶ 관련기사 2,38,39면

한편 남북한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2백명은 상봉 둘째날인 이날 속도에 시 두 차례의 개별상봉을 가졌으며 서울에선 창덕궁을 관람했고 평양에선 교예공원을 관람했다.

방문단은 28일 오전 마지막 작별상봉을 한 뒤 각각 귀환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redael@hankyung.com

## “우리 차례도 곧 오겠지”

### 남북·국군포로가족 상봉 부푼기대 “살아있기만…”

#### 겨레의 만남

##### 3차 이산상봉

“우리 차례도 오겠지요.” 아직까지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남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은 2·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활약을 만났다는 소식에, “다시 희망을 품게 됐다”고 기대하면서도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1971년 1월 시해에서 조업하다 남북된 ‘취업37호’ 신원 박동순(69)씨의 부인 임희순(66)씨는 “지난해 6월 생사확인과 상봉을 신청했다”며 “이번에 상봉한 대한항공 승무원과 어

니가 너무 부럽다”고 했다.

임씨는 “우리 가족에겐 이런 기쁜 소식이 왜 이리 안 오는지 너무 속이 탄다”며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같은 배의 통신사였던 박길운(61)씨의 형 김종(64)씨도 “다른 남북자 가족들이 하나둘 상봉하는 것을 보고, 이런 동생이 살아 있기만 고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87년 남북된 동진27호 어로장 최종석(56)씨의 딸 최우영(31)씨는 “남북자 가족들의 애타는 처지에선 상봉 횟수가 너무 적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희망을 다시 갖게 됐다”고 말했다.

300~400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등의 가족들도 그동안 포기하다시피 한 상봉의 희망을 되살리는 분위기다.

국군포로가족협의회 허태석(64) 회장은 “100여 회원 가족들이 탈출한 국군포로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존을 확인했다”며 “이들 국군포로 가족은 대부분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두 가족이 평양에서 국군포로를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우리는 언제 상봉이 이뤄질 것 같으나?”는 회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군포로 가족인 대구시 이아무개(65)씨는 “지난해 탈출한 국군포로들 통해 형님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예전에는 형님의 생사만이라도 알았으면 한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만나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이 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 고령 상봉자 건강 비상

### 치매 손상정씨등 병원행 잇따라 의료진 긴장

3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의 일부가 노령인데다 가족 상봉에 따른 긴장과 충격으로 건강이상 증세를 보여 서울과 평양 의료진에 비상이 걸렸다.

치매에 심장박동기까지 단 채 방북해 26일 북쪽의 아들 양복(55)씨를 만난 손사정(90)씨는 끝내 탈진상태에 빠져 평양 문수거리에 있는 친선 병원에 27일 새벽 긴급 입원했다.

방북단 지원요원인 서상업(51) 적십자병원 내과 과장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데다 26일 하루종일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해 일종의 탈진인 ‘흔돈’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긴급 입원 시키기로 했다”며 “28일 서울 귀환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쪽 친선병원의 내과 의사 한일훈씨는 “처음엔 할일이 높고 맥박이 빨

라 생명이 지장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날 아들 양복씨가 곁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아들 양복이 어디 있어. 빨리 찾아줘”라는 말을 거듭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손씨는 서울에서부터 과거는 기억하지만 현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증세를 보였다.

7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방북한 이후성(76)씨와 폐기종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방북한 임재희(85)씨도 26일 만찬 도중 기침을 하는가 하면 답답함을 호소해 일찍 숙소로 돌아가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사 서씨와 간호사 이영숙(38)씨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상봉장과 숙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북단 노인들의 협압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바빠 움직였다.

서울에서도 ‘환자’가 속출했다. 서울에 온 북쪽의 동생 리문식(70)씨를 반세기 만에 만난 누나 이순금(76·충남 당진)씨는 26일 밤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 조카집으로 돌아간 뒤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동네 응급실에 실려갔다.

평양/공동취재단, 서울/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남북상봉단 손사정씨가 상봉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탈진상태에 빠져 27일 새벽 평양 친선병원에 입원한 뒤 병실에서 둘째 아들 양복씨와 만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더 애타는 미상봉 승무원가족

“경회가 어머니를 만나는 걸 보면서도 정말 미안할 것만 같았어요.”

평양 방문단의 이후디(77)씨와 32년 전 대한항공기 납북 뒤 북쪽에 살고 있는 딸 심경희(55)씨의 상봉을 지켜본 ‘대한항공 납치사건’ 여승무원 정경숙(당시 23살)씨의 어머니 김자(57·서울 강동구 천호동)씨는 27일 만나까운에 시종 육이 메인 목소리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92살로 숨진 어머니 김금자씨가 “생전에 ‘딱내 딸 보고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었다”며 “이번에 살아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젠 시일 안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 당시 대한항공기 기장이던 유병하(당시 38살)씨가 생존해 있음이 확인되자 유 기장의 아들 한민(43·서울 노원구 중계동)씨도 “살아계실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생존소식을 들은 뒤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전남 평양에서 이워진 성씨와 그의 어머니 이후디씨의 상봉을 눈물로 지켜봤다는 한민씨는 “하늘을 나는 사나이’였던 아버지를 언제나 자랑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북에서 귀환하자 못한 뒤 한민씨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슴앓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어머니 엄영희(67)씨는 작은 식당을 꾸려 3남매를 키웠다.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한민씨의 꿈은 “이들까지 아버지와 같은 일을 시킬 수 없다”는 어머니의 단호한 반대에 꺾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를 잊어가던 한민씨가 아버지를 찾기 시작한 것은 결혼해 아버지가 된 뒤부터다. 그는 “아버

유병하기장 아들 한민씨  
“살아계실 거라 생각  
이젠 기다림도 습관”

부기장 최석만씨  
인민군 공군 복무중  
가정이워 1남1녀

남쪽의 최씨 부인  
3~4년전 사망  
정보기관 조사 곤욕

여승무원 정경숙씨  
김책공대 교수 납편  
2녀1남 자녀

나는 자신이 재혼을 하면 아버지를 찾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겠냐며 평생 혼자 사셨다”며 “아버지도 잘 사신다니 이젠 두 분을 꼭 만나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가족들도 아버지를 곧 뵈 수 있겠죠. 이젠 기다림도 습관이 됐어요.”

부기장 최석만(남북 당시 38살)씨 역시 생존 사실이 확인됐다. 최 부기장은 “인민군 공군에서 일하고 있으며, 북쪽에서 가정을 이뤄 1남1녀를 두고 있다”고 심경희씨에 말했다.

한편 또다른 스텝이다스 정경숙씨는 지금도 평양의 성씨 집 근처



1969년 대한항공기 승무원으로 일하다 납북된 심경희씨의 아들 임성희씨가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27일 평양 고려호텔 숙소에서 외할머니 이후디씨를 만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에 심어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 성씨와 장녀이고 동창이기도 한 김씨는 1992년 북쪽에서 김책공대 교수와 결혼해 2녀1남을 키우며 살고 있다고 성씨는 전했다.

하지만 유 기장의 아들 한민씨는 “남쪽에 살고 있는 최 부기장 가족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됐다”고 말했다. 한민씨는 “특히 최 부기장은 남북 당시 여객기를 납치한 번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

남쪽의 부인이 정보기관에서 조사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며 “재혼했으나 3~4년 전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인다끼워했다.

한편 함께 납북된 나머지 승객 7명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남북 승객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도 하루 빨리 생사가 확인돼 상봉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북북취재팀 society@hani.co.kr

世界日報

2001. 2. 28 (수)

## 이산가족 개별상봉 '50년 회포' 풀어 오늘 또 '기약없는 이별'

빈새가 돌아온 그리던 협곡을 만나 서울과 평양에서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낸 남북 3차 이산가족 방문단은 27일 숙소인 서울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 객실에서 가족단위의 개별 상봉으로 쌓인 한을 달렸다.

평양을 방문한 남측 이산가족 100명은 고려호텔 객실에서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북측 가족과 만난 후 평양 시내에서 교예공연(서커스)을 관람했으며 가족과 다시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서울을 방문한 북측 이산가족은 서울 롯데위

드호텔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개별 상봉을 가졌다. 이어 청담공을 둘러보고 점심과 저녁식사를 가족과 같이하며 회포를 풀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뒤 28일 오전 숙소인 롯데월드호텔과 고려호텔 앞에서 짧은 상봉을 끝으로 다시 기약없이 헤어지게 된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 끊긴 기억 잇고 50년 맺힌 한 풀고

### 서울

만남의 시간은 너무 짧았다. 하지만 오손도손 모여 앉은 남북의 협육들은 끊어진 기억을 서로 이어주며 50년 맺힌 한을 풀어냈다.

◇…27일 오전 개편상봉이 이뤄진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남북의 이내 송순섭(82)씨는 “나를 기억해달라”며 51년만에 북에서 돌아온 남권 완창수(81)씨의 마디진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줬다. 송씨는 “결혼할 때 남편이 끼워준 반지는 1908년 ‘금모으기 운동’ 때 내놓았다”며 “남편과 상봉을 앞두고 금반지를 새로 마련했다”며 수줍게 웃었다. 북에서 재혼한 황씨는 북한에 있는 1남4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다.

◇…북녘 아버지의 생신을 위해 남녘 딸이 마련한 초콜렛 케이크에 꽂힌 75개의 촛불이 50년만에 처음 맞는 저녁식사에서 떠올랐다. 이날 저녁 7시경부터 롯데월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마지막 만찬에서 류남수씨의 딸 류영희(53·경기 의왕시)씨는 케이크에 불을 붙인 뒤 지난 25일 생일을 맞은 아버지를 위해 북매인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류씨는 “사람이 사정이 있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라며 성급 다가선 이별에 눈시울을 적시는 딸과 아내 이봉희(72)씨의 등을 도닥었다.

◇…오후 3시30분경 창덕궁 관람에 나선 쌍남단 김희복(68)씨는 “결핵증 때 석산동에서 고혈압에 췌장·명동·광화문·효자동 임대집 잡았다”며 “변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수천(78)씨는 “전쟁 전 참전군인 식당원과 동떨어진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쓰러져 26일 단체상봉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인규(75)씨가 남편 박창서(79)씨를 만나기 위해 이날 개편상봉에는 모습을 나타냈다.

오전 9시54분경 119구급차에 실려 롯데월드호텔에 닿은 이씨는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나타났으나 남편을 만나고도 아무말을 하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 겨레의 만남

#### 3차 이산상봉

제의 체취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국군포로 손인호(75·함북 회령)씨는 가슴에 ‘국기훈장 1급’ 등 8개의 훈장을 달고 동생 준호(67·경북 경주시)씨를 만났다. 형 원호씨는 “장군님의 배려로 동생을 만나게 돼 너무 기뻐 어젯밤은 술도 안 먹었다”고 말했다. 동생은 남북의 취재진을 향해 “형님이 나와 많이 닳았어. 나이가 들어 머리는 세었지만 코도 똑같고…”라고 애정어린 말을 건넸다. 원호씨는 이어 “50년 동안 난 동생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었다”며 동생을 꺼안았다.

◇…“포로 교환 때 안 오니까 사랑치러했지. 형이 혹시 나올까 하고 포로들이 돌아온 청진까지 갔었어.”

반공포로 출신인 김한진(70·전북 전주시)씨는 27일 북쪽의 동생 근진(60)씨가 전해준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50년 10월 인민군으로 남하하던 중 강원도 철원에서 포로로 잡혀 부산 동래와 거제도, 논산 포로수용소를 옮겨 다녔다. 반공포로로 남쪽을 택해 북쪽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김씨는 다시 국군에 입대해 베트남전을 치르는 등 20여년 간 군에서 복무했다.

◇…지난해 1차 이산가족 방문단 북쪽단장 자격으로 남한에 왔던 류미영(79)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과, 제3차 방문단에 참가한 사돈 손상근(79·서울 송파구 신천동)씨의 만남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손씨는 전남 여동생 원순(72)씨와 조카를 만난 뒤 사돈과의 상봉을 고대했으나 “류씨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한덕수 의장의 장례식 때문에 현재 일본 체류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바깥을 접어야 했다.

대부분 가족만의 오붓한 시간으로 이뤄진

상봉 이틀째인 27일 평양 고려호텔에선 생이별 50여년 동안의 길고 험한 사연을 나누며 가족의 정을 되새기는 한편, 짧은 시간 속에서 부모·부부·형

### 평양

제의 체취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국군포로 손인호(75·함북 회령)씨는 가슴에 ‘국기훈장 1급’ 등 8개의 훈장을 달고 동생 준호(67·경북 경주시)씨를 만났다. 형 원호씨는 “장군님의 배려로 동생을 만나게 돼 너무 기뻐 어젯밤은 술도 안 먹었다”고 말했다. 동생은 남북의 취재진을 향해 “형님이 나와 많이 닳았어. 나이가 들어 머리는 세었지만 코도 똑같고…”라고 애정어린 말을 건넸다. 원호씨는 이어 “50년 동안 난 동생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었다”며 동생을 꺼안았다.

◇…“포로 교환 때 안 오니까 사랑치러했지. 형이 혹시 나올까 하고 포로들이 돌아온 청진까지 갔었어.”

반공포로 출신인 김한진(70·전북 전주시)씨는 27일 북쪽의 동생 근진(60)씨가 전해준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50년 10월 인민군으로 남하하던 중 강원도 철원에서 포로로 잡혀 부산 동래와 거제도, 논산 포로수용소를 옮겨 다녔다. 반공포로로 남쪽을 택해 북쪽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김씨는 다시 국군에 입대해 베트남전을 치르는 등 20여년 간 군에서 복무했다.

◇…지난해 1차 이산가족 방문단 북쪽단장 자격으로 남한에 왔던 류미영(79)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과, 제3차 방문단에 참가한 사돈 손상근(79·서울 송파구 신천동)씨의 만남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손씨는 전남 여동생 원순(72)씨와 조카를 만난 뒤 사돈과의 상봉을 고대했으나 “류씨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한덕수 의장의 장례식 때문에 현재 일본 체류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바깥을 접어야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politics@hani.co.kr

## 북한주민 소송 위임장 南법정서 효력 있을까

한 이산가족이 북측에 거주하고 있는 형수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받아 남한 법정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를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에 포함된 안모씨(79)는 27일 “소송 당사자인 형수나 조카들이 상봉장에 나오지 않아 미리 준비해 온 소송 위임서류에 서명을 받지 못했다”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소송 위임서류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망한 형의 수익의 상속재산 방북동생이 형수에 위임 요청

안씨는 지난 50년 12월 함께 일하던 형(2000년 사망)이 사업을 통해 모아놓은 수익액인데 재산의 일부는 북에 있는 부인과 자식에게 남기기를 위해 남쪽 부인과 갈등을 빚자 혼인무효 소송, 효직임직 소송,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 등을 냈다.

형의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남측 형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안씨는 이번 방북기간에 북의 형수를 만나 소송 위임장을 받고 남한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형수를 만나지 못한 안씨는 “향후 형수가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나면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공동취재단 박홍희기자

## 생존국군포로 유족에 年金 계속 지급키로

정부는 전사자로 처리된 6·25 전쟁 참전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더라도 당분간 유족연금 지급을 계속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국군포로 생존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성 차원에서 유족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찬반 양론이 맞서 일단 유보하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군포로가 귀환하지

않는 한 생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유족들은 당분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전달된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북측 후보 명단에 국군포로로 추정되는 2명이 포함되자 이들에 대해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에 대해 유족과 참전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廣龍源기자 kysu@chosun.com

## 朝鮮日報

#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 겨레의 만남

3차 이산상봉

“어머니 일생 ‘서구야, 서구야’ 하시다 하직하시었다. 양 부모 고향 산에 편히 안장해드렸다. 동생 너는 후세에 상봉토록 자녀에게 꼭 인도 하여라. 건강에 유의하여 퐁업까지 기다려보자...”

형과 누나를 만나러 서울에 온 이산가족상봉 북쪽 방문단 강서구(70)씨는 부모님 사진 뒷면에 백곡이 적은 발칙의 편지를 펼끄러미 쳐다보며 한동안 입을 잊었다.

말형 송구씨가 지난해 83살로 세상을 등진 지 겨우 8개월.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와 락 울음을 터뜨리며 서구씨는 사진을 끌어안았다.

말형은 충남 부여 고향 땅에서 농사일을 지으며 이시할 때마다 낡은 나무상자 하나를 예지준지 행기며 숨 켜 때까지 고이 지켰다. 상자 안엔 의운군에 입대해 19살 막내 서구씨가 집에 남긴 흔적들이 다소곳이 담겨 있었다.

뎨 위연 부모 생전 사진이 놓여 있었고, 서구씨가 부여 장암공립국민학교-부여공립초급중학교-부여고등학교를 다니며 받은 ‘소화 O O년’이란 낱짜가선명한 우등상장-종지표-졸업장-생활기록부 등도 있었다. 게다가 고등학생 때 썼던 일기장 3권과 공채, 예모장을 발견한 서구씨는 짐짓 놀라는 표정이었다.

“오늘 학교에서 영어단어 시험을 보았다. 나의 반어십력이 형편없음

북 강서구씨 둘째형 만나 막내 못보고 떠난 부모·큰형님 회한 풀어 옛일기장 보며 세월 원망

을 깨닫고 더 열심히 정진해야 함을 알았다. 아는 것은 무엇이건 힘이 되어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행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누렇게 바랬지만 한장 공작거나 구겨진 데 없이 보관된 자신의 일기장을 넘겨보며 서구씨는 말형 송구씨의 따스한 손길을 느낀 듯 또한번 눈물을 삼켰다.

송구씨는 동생에 대해 “강직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북에서도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지 않았고, 이직까지 호적에 서구씨 이름을 남겨줬다고 한다.

서구씨는 서울에서의 첫날인 26일 말형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 달려온 둘째형 황구(79)씨와 감격스런 상봉을 했다. 황구씨는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도 119구급차와 휠체어에 기대면서까지 “사진과 일기 등을 내 손으로 서구에게 쥐어 한다”며 상봉장을 찾아왔다.

“형들이 답사리하는 걸 따르다보면 게 엇그제만 같은데...”

고향 마을 전경을 찍어 이어붙인, 사진 7장을 겨우 바라보는 서구씨는 50년 이어진 형들의 깊은 사랑 앞에서 그저 어린 막내동생 입 편이었다.

●발취사팀 society@hani.co.kr



2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제3차 이산가족 상봉 오찬에서 북쪽 방문단 강서구씨가 중풍으로 누워 있는 형 강황구씨에게 축을 락며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쪽 상봉단 강서구씨의 큰형 송구(지난해 사망)씨가 동생에게 전해 주기 위해 보관해 온 부모의 영장(위)과 그 뒷면에 백곡이 적어놓은 편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와 락 울음을 터뜨리며 서구씨는 사진을 끌어안았다. 말형은 충남 부여 고향 땅에서 농사일을 지으며 이시할 때마다 낡은 나무상자 하나를 예지준지 행기며 숨 켜 때까지 고이 지켰다. 상자 안엔 의운군에 입대해 19살 막내 서구씨가 집에 남긴 흔적들이 다소곳이 담겨 있었다. 뎨 위연 부모 생전 사진이 놓여 있었고, 서구씨가 부여 장암공립국민학교-부여공립초급중학교-부여고등학교를 다니며 받은 ‘소화 O O년’이란 낱짜가선명한 우등상장-종지표-졸업장-생활기록부 등도 있었다. 게다가 고등학생 때 썼던 일기장 3권과 공채, 예모장을 발견한 서구씨는 짐짓 놀라는 표정이었다. “오늘 학교에서 영어단어 시험을 보았다. 나의 반어십력이 형편없음

## 대한매일

# “남북 승무원 4명 살아있다”

### 성경희씨 밝혀... 이산가족 2차례 개별상봉

지난 60년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납북된 성경희(成敬姬·55)씨할 비롯, 당시 기장 유명희(柳炳喜·60)씨 등 승무원 4명 모두 명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5-26-27면

32년 만에 딸 성씨를 만난 이후덕(李後德·77)씨는 27일 “기장 유씨, 부기장 최석만(崔石滿·70)씨가 북한 공군에서 근무 중이며, 다른 여승무원인 정경숙(鄭敬淑·55)씨도 평양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틀째 상봉이 계속된 이날 이산가족들은 평양 고려호텔과 서울 롯데월드호텔 객실에서 가족단위로 2시간 가량의 비공개 개별상봉을 가졌다.

이후덕씨는 고려호텔에서 이뤄진 개별상봉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를 몇일 앞당겨 딸 가족들과 함께 치렀다. 김재조(65)·손준호씨(67)는 국군모로인 형 김재덕(69)·손원호씨(75)를 각각 만나 가족사진 등

을 전하고 이산의 한을 풀었다. 치매를 앓아온 남측 방문단의 손사정씨(90)는 전 날 상봉 직후 탈진상태에 빠져 이날 새벽 평양 문수거리 친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김정락 북측 방문단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로 서영훈(徐英勳) 총재를 예방한 자리에서 “남측에 남아 있는 비전향 장기수와 그 가족 모두를 북으로 보내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총재는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양측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겸의선 연결지점에 면회소를 설치하지”고 제외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정재연(張在彦)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이 본인을 초청하거나 본인이 좌 위원장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남북의 적십자 지도자들이 만나자”고 제외했다.

●평양 공동취재단-이석우기자 anho@daily.com

# “50년 기다린 남편인데...” 앰블런스 상봉

## ■ 평양상봉 이모저모

상봉의 흥분을 식힌 이산가족들은 27일 협육의 사진과 선물 등을 꺼내놓고 반세기 세월이 만든 벽을 허물며 정답을 나왔다. 이들은 “종일할 때까지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다짐으로 짙은 만남을 위하여 잡은 손을 놓을 줄 몰랐다.

○“수남이는 왜 없어. 한번 보려고 50년을 수절하며 살았는데...”

27일 평양 고려호텔 1921호실. 어린 아들과 두 딸을 평남 강서의 천정집에 남겨 놓고 홀로 남으로 왔던 김유경(76·경기 광명) 할머니는 두 딸을 마주하고도 아들 김수남(59)씨만 찾았다.

김 할머니는 “기계공학 기사로 중국에 출장 가 오지 못했다”는 딸들의 설명이 믿기지 않는 듯 “머느리와 손자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니냐”고 울부짖었다. 김 할머니는 준비해 온 선물도 품지 않은 채 “내일이면 여든인데 여기까지 와 아들도 못보고 기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오열을 그치지 않았다.

## 北형수 안와 유산訴 위임장 못받아

○이산 병복단에 포함된 이산가족 가운데 북에 있는 형수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아 남한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A씨는 결국 형수를 만나지 못했다. A씨는 “형수가 나오지 않아 준비해 온 서류계 사인을 받지 못했다”며 “다른 가족에게 부탁, 형수의 사인을 받아 일본이나 미국의 친척에게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1·4후퇴 때 A씨의 함께 월남한 형 B(지난해 사망)씨는 수십억대의 재산을 모았고 이 중 일부를 북에 있는 부인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희망. 남측에서 만난 부인과 갈등을 빚었다. 형의 유언을 지키려는 A씨는 형의 대리인 자격으로 남측 형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이날 저녁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만찬에서 북측 가족들은 앞 다퉈서 김정일 위원장의 덕을 기리는 노래를 불렀다. 구름남아 그리운 장군남(정서란씨 가족),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남(양인경씨 가족) 등을 합창했고, 호텔 직원은 추석에서 이코디언 반주를 넣어 흥을 돋우었다. 북측 가족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평실평실 춤을 추기도 했다.

정사육(76·여)씨의 아들 최상규(57)씨는 자작시 ‘상봉’을 낭송하며 김 위원장의 은덕을 기렸다. 그는 시 낭송 막바지에 “김정일 장군님 인세”를 낭송했고 이에 북측 가족들은 일제히 일어나 함께 “인세”를 외쳤다.

/평양=공동취재단

## 3차 이산상봉 이틀째



27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한 김경락(북측 단장)과 서영훈(남측 단장)이 서영훈 총재에게 북에서 준비해 온 지수역지를 선물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사진공동취재단

## “장기수 추가 北送을”

### 北 김경락단장, Seo Jae-che 만나 요구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의 김경락(金京澤) 북측 단장은 27일 30여명의 전향 장기수와 이미 복송된 장기수들의 남한 내 가족에 대한 복송을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날 낮 서울 중구 남산동 대한적십자사를 방문, 서영훈(徐英勳) 총재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김 단장은 “먼저 북으로 송환된 63명 장기수의 남한 내 가족을 북으로 보내줘야 한다”며 “강제로 전향 조치된 장기수의 경우도 자유의사에 따른 복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전향된 장기수가 30여명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총재는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북측 요구만을 들어준다는 남측 여론이 있다”고 언급한 뒤 “경의선이 복원되면 양측 군사분계선 부근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일에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 총재는 또 “장재인(張在淳) 북측 중앙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하고 싶다”며 초청의사를 전했다.

/이명섭기자younglee@hk.co.kr

## ■ 서울상봉 이모저모

반세기만에 협육을 만난 북측 상봉단은 27일 저녁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고향의 봄”을 합창하며 눈물속에 이별의 잔을 들었다. 이날 2차례 개별상봉에서 50년간 남편을 기다린 아내가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남편을 만났고, 재기한 남측의 아내는 민천장에서 남편에게 “눈물의 케이크를 선물하는 등 세월의 벽을 뛰어넘는 진한 가족애가 오갔다.

○이인규(77·여)씨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끌려간 남편 박창서(79)씨를 50년만에 만나기 위해 앰블런스에 실린 채 숙소를 찾아왔다.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쓰러져 말도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던 이씨는 전날 집단상봉에도 못나왔으나 “덜것에 실려서라도 남편을 만나겠다”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 남편을 상봉했다. 손만 꼬옥 잡은 ‘무연의 대화’였지만 이씨의 눈물속엔 50년 기다림의 한이 끝없이 녹아내렸다.

○개별상봉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북측 남편 류남수(75)씨의 애를 태웠던 재기한 아내 이봉희(72)씨는 이날 민천장에 뛰놀게 나타나 반세기만에 손을 맞잡았다. 일흔 다섯개의 초가 쫓겨 케이크를 앞에 두고 류씨가 “50년간 허투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하자 아내도 “당신이 살아 있다는 게 고마운 따름”이라며 희한의 눈물을 흘렸다.

○정지용 시인의 남측 아들 구관(73)씨는 “3남녀중 구인이 아버지를 닮아 가장 마냥이었고 머리도 좋아서. 피아노도 잡히고 예능에 소질이 있어서 아버지가 많이 귀여워하셨지”라며 동생의 손을 어루만졌다. 동생 구인(67)씨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꿈에도 잊은 적이 없다”며 아버지의 사망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나이든 이산가족을 위해 통일전 독일처럼 자유행태가 돼야 한다”는 구관씨의 말에, 북한측 기자가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여 한때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다.

## 북측 최인권씨 국군전사자로 기록

○이산가족 상봉 북측 방문단에 포함된 서울에 온 최인권(67)씨가 한국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실종된 뒤 전사자로 처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1950년 12월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사망, 전사 처리돼 있다. 그러나 최씨는 “의용군으로 자원 입대했다”며 국군포로 출신임을 부정했고 국방부도 “최씨가 국군포로 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고찬유기자jutdae@hk.co.kr  
최문선기자moonson@hk.co.kr





**희환의 생일상** 27일 잠실롯데월드호텔 공동만찬장에서 지난 25일이 생일이었던 북측 류남수(왼쪽)씨가 가족들이 차려준 생일상을 앞에 두고 재기한 남측 부인 이봉희씨와 지난날을 급습고 있다. /서울=사진공동취재단



**어깨동무** 인민군포로 출신으로 남한에 정착한 김한전(왼쪽 두번째)씨가 27일 평양 고려호텔 숙소에서 북의 세 동생 문숙·근전·기숙(왼쪽부터)씨를 만나 어깨동무를 한 채 환담을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홀거운 형제** 잠실 롯데월드호텔 오찬장에서 북측 조원영(오른쪽)씨가 남측 동생 수영씨와 손을 맞잡은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있다. /서울=사진공동취재단

### 매일경제

2001. 2. 28 (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별 상봉에서 27일 북측 아들 정두명 씨(67)가 남측 어머니 김인순 씨(89) 등을 만나 아버지의 영정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 아버지 영정앞 눈물의 큰절

### 北 정두명씨

“어보, 생전에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두명이 왔어요.”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27일 남한의 어머니가 가져온 아버지 영정과 북한 아들이 가져온 인삼곡주가 만나 남북통일을 상징하는 듯한 제사가 이뤄졌다.

북한의 공훈예술가 정두명 씨(67·평양시 낙랑구역 광백2동)는 이날 오전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개별 상봉에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 제사를 지내며 지난 반세기 가슴 속에 품었던 한을 토해냈다. 두명 씨는 북에서 준비해온 인삼곡주와 과일 등을 차리고, 남쪽 가족들이 가져온 아버지 영정 앞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 가족수 제한돼 '릴레이 상봉'

북측 방문단 중 최대 가족 생존확인자인 전영수 씨(79)의 동생 청자 씨(58)는 50년 만에 만난 영수 씨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쏟았다. 청자 씨는 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상봉 가족수가 5명으로 제한돼 있어 영수 씨 아내 류정규 씨(74)와 딸 애일 씨(50) 등 서울에 있는 가족 다섯 가지 못했다. 청자 씨는 “미국에는 나를 포함

해 황희(69), 명희(64), 근수(55) 등 형제 네 명이 산다”며 “모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명희 씨와 다른 형제들은 친척들이 나와 ID카드를 넘겨주기만 읊고 대대하고 있다고 전위 사위인 심영일 씨(57)가 전했다. 심씨는 “가족 15명이 모두 와 있다”며 ID카드를 넘겨주기 위해 20여 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 北. 국군포로·납북자 해법

## 명분 챙기고 현실은 인정

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통해 국군포로 2명과 납북자 1명이 평양에서 남측 가족들과 상봉한 '사건'에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관한 한 명분과 현실을 분리하는 북측의 태도가 스며있다.

남북 대한항공기 여승무원 상경희(成敬姬·55)씨 모녀 상봉과 국군포로 손원호(75)·김재덕(69)씨 형제 상봉 과정에서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존재를 여전히 부인했지만 상봉에는 응하겠다는 의사 표시를했다. 손씨와 김씨는 26일 “국군살이를 박치고 인민군에 입

### “그들은 의거자” 주장

### 이산차원 상봉 응해

대했다”며 국군포로가 이념을 주

장했다. 북한 방송도 이들을 ‘의거자’로 지칭했다. 납북자인 성씨도 “내가 원래 북한에 남았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북한이 국군포로 존재를 부인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과 함께 이뤄진 포로 교환을 통해 남북간 전쟁포로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본다.

북한은 2차 방문단 교환 당시 국군포로 이정석(69)씨와 남측 이형석(80)씨의 형제 상봉을 허용하면서 명분을 접어두는 태도를 취했다. 이는 ‘이유아 어쩔든 남북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자’는 남측의 절충안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2차 상봉 당시 어머니와 만난 납북여부 강희근씨가 “지진 월북”을 주장한 얘기를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 미뤄 향후 면회소 및 방문단 교환에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상봉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여기는 서울

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여기는 평양

# 만나자마자 이별...보고 또 보고

## 특별취재팀

○...“오빠가 나 대신 북에서 가져 온 이 술을 아바님 어머님 염전에 꼭 올려주세요.”

북한에서 온 장기준 씨(69)는 27일 오전 개별 상봉 시간에 오빠인 기홍 씨(71)를 만나 술 한 병을 꺼내 놓으며 눈시울을 적었다.

이내 헤어질 것이 걱정스러운 듯 남매는 만나자마자 평생 딸 소식 기다리다 돌아간신 부모님 얘기로 눈물범벅이 됐다.

기홍 씨는 여동생을 위해 특별히 6·25 전에 찍은 부모님 사진으로 안경을 만들어 왔다.

○...27일 북측 이산가족 100여명은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잠실 롯데월드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가족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가 막 시작되자 가족 상봉의 감격을 표현하려는 듯 여기저기에서 건배소리와 함께 노래가락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북에서 온 김원중 씨(68) 가족은 오찬이 시작되고 숨이 한 순배 돌아

### ‘고향의 봄’ 함께 불러 “삼촌 만나니 아버지 생각” 눈시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고향의 봄’을 제창하기도 했다.

○...정지용 시인의 아들 구관 씨(72)는 오찬장에서 “홍일 전 독일척업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동생 구인 씨(65)에게 백세주를 따라주었다.

○...“너희를 생각해 밤새 잠을 설쳤다. 빨리 돌아오라.”

27일 진행된 개별 상봉에서 북한 집단체제의 거장 김수조 씨(69)는 목고 있던 롯데월드호텔 12층 20호 객실 방은 밖까지 나와 북경 씨(54) 등 조카 4명과 이모 진양덕 씨(79)를 반갑게 맞았다.

전날 전해 들은 아버지 수희 씨의 사망 소식으로 상심했을 조카들에게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빈 자리를 채워주려는 듯 김씨는 일일이 조카들과 포옹하며 어깨를 어루만졌다.

조카들과 얘기하면서 시종 웃음을 잃지 않던 수조 씨는 이모 진씨를 보자 세상을 흔 부모 생각이 나는지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눈시울을 적었다. 이어 조카 북경 씨도 “50년 만에 삼촌을 만나니 북한에서 돌아간신 아버지를 뵈는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를 지켜보던 북경 씨의 여동생들도 “아버지가 남긴신 편지를 보니 아버지도 늘 우리를 가슴속에 안고 살았다는 생각이 위로가 됐다”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반세기 만에 합류과 만난 남북 이산가족들은 27일 서울과 평양의 숙소에서 가족, 친척들과 두 차례 개별 상봉과 공동 식사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뒀을 입을 확인했다. 첫날의 흥분을 다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어릴 적 얘기와 고향에 대한 옛 추억을 떠올

리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미리 준비한 선물도 교환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짧은 만남 뒤의 긴 이별에 아쉬움은 더하기만 했다. 양측 방문단은 28일 오전 숙소인 롯데월드호텔과 고려호텔 앞에서 가족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뒤 귀환한다.



지난 25일이 생일의 북측 류남수 씨(72)가 재가한 남측 부인 이 조 씨(65·오른쪽)가 서로 얼씨이고 있다. <평양시진공동우체국> <사진공동우체국> 27일 평양 고려호텔 객실에서 국군포로의 형 제국 씨를 만난 김재홍 씨(72)와 생일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평양시진공동우체국>

## 평양 = 공동우체국

○...“내 아들 양복이 어디 있어. 빨리 찾아줘.” “아버지 재가 양복이예요.”

27일 오후 평양 시내 문수거리에 위치한 친선병원 7호실에서는 안타까운 부자 상봉이 26일에 이어 계속됐다. 남측에서 치매로 고생해 온 손사정 씨(90)는 5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아들 양복 씨(55)를 만났지만 전날 단체상봉에 이어 아들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들을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날 집단상봉 때 바깥 환경 때문에 현재 상황을 알지 못하는 치매상태가 되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손 할아버지는 이날 새벽 합류과 도착 이상으로 긴급히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10여 분 떨어진 친선병원으로 옮겨 입원했다.

남측 대표단측은 지원단 2명을 병실에 배치해 손 할아버지 상태를 점검하고 지원요원으로 동행한 적십자병원 내과과장 서상열 씨(51)도 손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 방북 김유감 할머니 아들 중국출장으로 끝내 못만나 눈물

○...“수남이는 왜 없어. 한 번 보려고 50년을 수급하며 살아 왔는데...” 27일 오전 10시 평양 고려호텔 1921호실. 김유감 할머니(77)는 개별 상봉차 숙소를 찾은 두 딸을 앞에 놓고도 나오지 않은 이집만 찾았다.

김 할머니는 ‘기계공학 기사로 중국에 출장가서 나오지 못했다’는 딸들의 설명을 듣고도 끝내 믿어지지 않는 듯 실음의 눈물만 쏟아냈다.

“내일이면 여든인데 여기까지 와서 아들도 보지 못하고 가야 하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빨일이 되면 온가족이 모여 심금을 털어놓을 기회가 오겠지요.” 27일 평양 고려호텔 1922호. 국군포로로 알려진 김재덕 씨는 동생 조씨 씨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얼굴을 부었다.

○...이날 개별 상봉에서는 전남 32년 만에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남북된 딸 성경희 씨(55)를 만난 이후덕 씨(77)는 자신의 생일(3월 6일) 잔치를 미리 앞당겨 했다.

서울에서 준비해 간 케이크를 딸과 사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자른 이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 부모영정 건네며 “다시 만나자”

■ 北 장기전씨 남매 ‘짧은 만남’  
“통일 그날까지 건강 하세요”  
얼굴 보듬으며 석별 아쉬움

“통일되면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건강 해라.”

27일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북측가족 장기전(60·이씨)씨는 오빠 기흥(71·경기도 수원시)씨의 손을 꼭 잡고 놓을 줄 몰랐다. 50년이란 긴 세월의 이산 끝에 만났건만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만 흘러내렸다. 협육의 정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 보기 위해 시모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져왔다.

“연세라도 고왔던 친북 부인에 오면 큰 비서용 세 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놓았으니 내가 죽은 후 예라도 부모님 산소를 꼭 찾아 보거라.” 오빠 기흥씨는 가족들의 이름·생년월일을 적은 메모와 함께 부모님의 영정과 산소 사진을 건네줬다.

“평생 짝에 그러던 모습 그대로네요.” 기흥씨는 오빠가 건네준 영정을 꼭 끌어 안았다. 기흥씨는 “47년 인가 48년인가 그때 찍은 사진이니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모님) 모습 그대로일 게다. 큰 누이에게도 해주지 않은 건데 특별히 해주는 거야”라고 말해 모처럼 남매의 얼굴에 웃음이 일었다.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던 기흥씨는 북에서 가져온 선물이러면서 숨 헌병을 꺼냈다. 기흥씨는 “아버지, 어머니 영정에 술 한잔 드리지 못했는데 오빠가 나 대신 꼭 피리올리세요. 남쪽 사람들 잘 산다고 들었고 5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보다 더



50년만에 치린 남편 생일상 27일 저녁 롯데월드 호텔에서 열린 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방문단 공동만찬장에서 북에서 온 남편 류남수(가운데·75)씨가 남쪽의 부인인 이봉화(오른쪽·72)씨와 딸 류영희(53)씨가 마련한 50년만의 생일상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큰 선물이 어니 있었어요”라며 눈물을 뉘뉘게 후회했다.

기흥씨는 이어 “장군님이 곧 답장 하신다니 통일을 이뤄주실 겁니다. 오빠 우리의 힘으로 꼭 통일을 이뤄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기흥씨도 “그래 우리 꼭 통일을 이뤄 다시

만나자, 그 동인은 북으로 시집갔다고 생각했는데니 아무것도 건강해라”며 석별을 아쉬워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만났건만 이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한을 풀기에는 이별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오철수기자 csuh@sed.co.kr

## 남북 KAL 기장·부기장 ‘北 공군에 근무중’ 확인

지난 60년 강릉에서 서울로 오다 남북 대항 항공 YS-11기 기장 유병희씨와 부기장 최석만씨가 북에서 공군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이산가족 방문단 중 북측의 심경희(55)씨는 남측의 어머니 이후덕(77)씨를 평양에서 만나 북에 남은 사람들의 생사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심씨는 또 “대한항공 YS-11기 승무원들은 북에서 가끔씩 위례를 해 시모의 소식을 알고 있다”며 “북기장이던 최씨는 현재 평양에서 기장을 이뤄 1남1녀를 두고 있다”고 소상히 밝혔다.

92년 자수한 간첩인 오길남씨에 의해 생사가 확인된 승무원 정진숙씨는 신세 전 근처에 살면서 자매처럼 기깝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와 최씨는 창덕여고 동기생으로 대한항공 입사 1년 선후배이다. 심씨는 92년 당시 김책공대 교수와 결혼해 1남2녀를 낳고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의 이나운사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승객 39명 중 북에 남은 7명의 생사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한항공 YS-11기는 69년 12월11일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중 남북된 뒤 시간 발생 66일 만인 70년 2월14일 산둥을 비롯, 승무원 4명 전위와 승객 7명을 제외한 39명과 기체만 남아왔다.

/김홍길기자

91anyall@sed.co.kr

## 옛추억 떠올리며 밤새 얘기꽃

■ 남북 3차상봉 이돌때

“만나지 마자 또 이별이리니.” “부디 건강하시라요.”

전날 집단체상봉에 이어 27일 두차례 개별상봉을 가진 남북 이산가족들은 “내일이면 또 생이별을 한다”는 생각에 이별의 아픔을 토해내며 시모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졌다. 한이 돼버린 이산의 아픔을 달랠 수 없었던 심경희의 기쁨도 잠시, 이산가족들은 다시 남으로 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슬픔과 재회를 기약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한숨만 내쉬었다. “면회소가 설치되면 다시 만나자”며 약속을 해보지만 당장 생이별이 물고 올 서글픔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서울에서** ○단체상봉 후 잠을 설치다 북측 집단체조의 거장 김수조(69)씨는 북간(54)씨 등 조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별을 만나시 또 헤어지면 얼마나 허망하나. 빨리 통일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운우살의 노모를 두고 다시 북으로 가야 하는 김두식(71)씨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큰절을 올린 뒤 두 동생에게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며 참았던 눈물을 티뜨렸다. 어머니 허게 씨도 “피땀만 뀌어내 한끼 차려줄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이라며 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북의 동생 구인(65)씨를 만난 장지용 시인의 큰 아들 구관씨는 “내 나이에 일흔인데 언제 다시 동생을 만나 기쁘어 답답하다”면서 “숨추에 있는 어머니 묘소에 데려가자 못한 게 한”이라며 다가오는 이별을 아쉬워했다.

○남편 임은빈(74)씨를 만난 남쪽의 부인 김옥란(75)씨는 “반세기 만에 남편을 만나 반갑기 그지 없지만 (헤어질) 내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며 “남편과 다시 옛날로 돌아가 남은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안다끼워했다.

**평양에서** ○“살아 있는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라고 울며 울었다. “어머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과 두 딸을 만나러 간 김유강(76·경기도 평영시) 할머니는 27일 끝내 “중국 출장 중”이라는 아들 김수남(59)씨를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오열을 티뜨렸다. 김 할머니는 “수남이를 한번 보려고 50년을 수절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나”며 “이제 곧 여든인데 살아 있는 아들들을 못 만나고 가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실움의 눈물을 한없이 쏟아냈다.

○69년 남북된 KAL기 이승무원이던 성경희(55)씨도 만나러 간 어머니 이후덕(77·서울시 노원구)씨는 이날 심씨에게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 돌아가도 네 걱정은 안 할 것”이라며 작별의 말을 전했다. 심씨는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몸 건강하세요”라며 또 다시 맞이해야 하는 이산의 아픔을 달랠다.

○치매로 심병 첫날부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27일에는 병신신세마저 저야 했던 손사정(90) 할아버지는 이날 오후 병실 침대 위에서 아들 양록(55)씨와 다시 상봉했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해 반세기의 기다림도 헛되이 남으로 발걸음을 준비해야 했다.

/김홍길기자 91anyall@sed.co.kr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내 아들 양복이 어디 있어. 빨리 찾아줘"

"아버지 제가 양복이에요"

27일 오후 평양시내 문수거리에 위치한 천선병원 7호실에서는 안타까운 부자상봉이 26일에 이어 계속됐다. 남측에서 치매로 고생해온 손사정(90)씨는 50년동안 꿈에도 그리던 북의 아들 양복(55)씨를 만났지만 전남 단체상봉때 이어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남 집단상봉때 변화된 환경때문에 상대를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상태가 되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손씨는 이날 새벽 협압과 맥박



평양 천선병원에 입원한 손사정씨가 아들 양복씨와 만났지만 치매증세로 잘 알아보지 못하자 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평양·시진공동취재단

# 불러도 대답없는... '아버지'

이상으로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10여년 떨어진 천선병원으로 옮겨져 입원했다.

이날 오후 병실에서 다시 아들과 만났지만 손씨는 눈앞에 그리던 아들을 두고도 "양복이잖 만나러 왔는데 왜 못만나게 하느냐"고 목심을 높였다.

평양에서 여관을 경영하던 손씨는 1백여리 떨어진 평남 순천의 장인댁에 둘째아들을 잠시 맡겨왔는데 1·4후퇴이후 소식이 끊겨 생이

## 치매로 아들 못알아본 남측 90세 손사정씨

별했다. 현재 손씨를 경기 일산에서 모시고 있는 큰아들 응록(60)씨는 "당시 외할머니댁 동네사람들이 곧 내려올거라고 전해 기다렸는데 결국 만나지 못해 동생만 남기고 오게 됐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손씨가 치매로 아들을 못알아본

경우에 대비, 가족들은 미리 급반지와 미화 5백달러를 양복씨에게 전해달라고 지원요원에게 부탁해 놓았다.

남측 대표단은 지원단 2명을 병실에 배치해 손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원요원으로 동행한 직할자병원 내과과장 서상열(51)씨도 손씨를 수시로 돌보고 있다. 남측 관계자는 "내일 서울로 돌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북에서 온 아들 김두식씨에게 어머니 허계(92)씨가 글을 읽어 넣어주고 있다. /시진공동취재단



북측 김원중씨가 서울 롯데월드호텔 공동만찬장에서 어머니 이윤진씨에게 큰절을 올리고 있다. /시진공동취재단

# "50년만에 편히 잤어" 선물 전하며 또 '눈물'

北에서 온 아들 만난 92세 허계씨

"50년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잤다" 반세기동안 잃어버렸던 아들 김두식(70)씨를 만난 남측 이산가족 최고령자인 허계(92)씨는 잘 주무셨느냐고 밤새 안부쯤 묻는 아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허씨가 "너를 잃어버리고 나서 집을 보니 내가 죽었다고 해 그동안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하자 두식씨는 "집은 미신이야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라며 노모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수원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던 두식씨는 지난 50년7월 고창(충북 충주)을 둘러보고 오겠다고 나간 뒤 소식이 끊겼었다. 이젠 슬하에 3남3녀를 두고 손자까지 할 정도로 나이를 먹어버린 그는 "어머니는 나를 22세에 낳아도 이렇게 정정하신데 오히려 내가 나이를 더 먹은 것 같아 힘들다"며 웃음지었다.

이병실 기자 smile@hankyung.com

북측 김원중씨, 장모님 선물 전달

북에서 온 김원중(68)씨는 서울에서의 히로밤을 꿈처럼 즐겼다.

돌아가신줄 알고 상봉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가슴속에만 담아왔던 어머니 이윤진(85)씨의 모습을 어제 상봉장에서 확인하고 50여년의 긴 세월 동안 잊고 있던 어머니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생존뿐 아니라 생이별한 이후 태어난 동생들까지 보게 된 것이 감격에 겨운 듯 김씨는 "이제야 고향땅을 밟다니..."라며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북에서 준비해온 선물보따리를 꺼냈다.

보따리에는 인삼복주 황신술 리과담배 등이 있었다. 북에 있는 장모가 선물했다는 거로 새로 1m가량의 천으로 된 겹겹그림을 어머니 윤전씨에게 건네며 "장모님이 오마님께 선물한거야. 이걸 꼭 오마니 방에 걸어 놓아야 해"라며 목놓아 울었다. /서울=특별취재단

이산상봉 둘째날



“해어지지 않자” 반공 포로 출신으로 남한에 정착한 김한진(71·왼쪽 두번째)씨가 27일 오후 고려호텔에서 동생들과 잡거운 표정으로 환담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꿈에 그리던 얼굴모습 그대로..

서울에서

○...북측 상봉단 최인권(67)씨는 6·25때 국군으로 참전, 전사처리돼 남측 가족들이 72년까지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국군포로였을 가능성이 높아 북한이 국군포로 출신의 남측 방문을 허용한게 아니냐는 분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군포로 가능성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1007호. 북측 가족 장기순(69)씨는 남쪽 오빠 기홍(71)씨가 건네준 부모님 영정틀 가슴에 꼭 붙여

안으며 “평생 꿈에 그리던 모습 그대로다”며 눈물지었다. 또 1521호에 묵은 북측 전영수(79)씨는 태어난 지 10일 만에 헤어진 딸 예일(50)씨 모습이 보이지 않자 “예일은 왜 안오느냐”며 애타게 찾았다.  
개별상봉 인원이 5명으로 제한돼 있어 다른 친지의 신분확인용 카드 할 넘겨받아 뒤늦게 아버지의 방을 찾은 예일씨도 아버지의 모습을 가슴에 새겨두려는 듯 친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해 주위 친지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서울=공동취재단

남북 조종사 2명 공군에 복무

평양에서

○...69년 강릉에서 서울로 오던중 납북된 대한항공 YS-11기의 기장과 부기장, 승무원 2명이 북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북한에서 돌아오지 않은 승객 7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납북됐던 성경희(55)씨는 어머니 이후덕(77)씨를 만난 자리에서 비행기 기장이었던 유병희씨와 부기장 최석만씨는 현재 북한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성씨는 또 “같이 납북된 정경숙(56)씨는 인근에 산머리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51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평양=공동취재단

반세기 만에 이들과 두 팔을 만나려 평양에 간 김유감(76)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살아있었다던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딸(김순영, 순복씨)에게 아들 수남(59)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오빠는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나오지 못했다”는 허탈한 대답만 나왔다.  
“내 나이가 지금 80이 다돼가는 데 지금 못 만나면 언제 만나겠느냐”며 김씨는 한동안 허공만 바라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는 주위에서 “왜 혼자 사느냐”며 재혼을 하라고 성화였지만 눈에 밝히는 지식들 때문에 혼자서 포복절음 운 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평양=공동취재단



27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가족 만찬에서 최수(홍홍·77세 생일)를 며칠 앞둔 이후덕씨(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사위의 손자·손녀 등 북측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딸 성경희씨가 돌리는 술잔을 받고 있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원해서 남았어” “말 안해도 안다”  
성씨母女 걱정 가라앉히고 위로

3차 이산상봉

개별상봉 2편

첫날의 감격스런 단체상봉에 이어 27일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속속인 서울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가족들과 개별상봉했다. 이들은 지난 세월의 깊은 고통 단념에 배우려는 듯 원분일초를 아끼며 화해의 정을 나누었다.  
●남북 여승무원 성경희씨 “장군님아 내 미래, 운명, 가족들을 책임져 줄 수 있기에 내가 원해서 이곳에 남은 거야.

손수 뜨개질 한 목도리와 모자달 씌워줬다.

생일을 며칠 앞둔 이씨는 딸과 손자·손녀, 사위 임영열씨(58·김영삼대 교수)와 둘러 앉아 서울에서 준비해 온 케이크로 조촐한 생일잔치도 열었다. 이씨는 “생일까지 미리 당겨서 큰 딸 가족들과 보내고 나니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며 인신 흉리내리는 눈물을 닦아냈다.

●평양 공동취재단·김성연기자  
●피바다극단장 김수조씨 “너희들 생각해 봐서 감을 살렸다. 빨리 뛰어오나라.”

북한 김단체조의 거장 김수조씨(63)는 롯데월드호텔 객실 밖까지 나와 박경씨(54) 등 조카 4명과 이모 진양덕씨(79)를 반갑게 맞았다.

성씨모친 조촐한 생일잔치 “이제 여한없어”  
김수조씨 ‘영웅증서’ 보여주며 조카들 포옹

남에 갔으면 엄마가 내 운명을 책임지지 못했을 거잖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엄마.”

32년 만의 감격스런 해후의 기쁨을 가리앉히고 어머니 이후덕(李後德·77)씨의 고려호텔 숙소를 찾은 대한항공 공 납북 승무원 성경희(成敬姬·55)씨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딸의 위로에 눈시울을 붉힌 이씨는 “내가 말 안해도 나는 다 안다. 잘 사는 모습 봤으니 이제 돌아가면 네 걱정은 안할거다”라고 애써 위로를 전시키려는 모습이었다.

분위기가 다소 어색해지자 외손자 임상혁씨(24)가 나섰다. 그는 “할머니 한번 업어봅시다”라며 어찌할 거둔히 업어 보이더니 “(남에) 가지 말고 손자랑 같이 살아요”라며 화해의 정을 담백 표시하기도 했다.

이씨는 외손녀 임소영씨(26)에게는 “너 주려고 직접 목도리랑 짜았다”며

전날 김씨로부터 전해들었던 아버지 수희씨의 사망소식으로 상심했음 조카들에게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빈 자리를 채워주려는 듯 김씨는 일일이 조카들과 포옹을 하며 어깨를 어루만졌다.

북한에서 최고영예로 통하는 ‘공화국 영웅’과 ‘인민예술인’ 칭호를 받은 김씨는 북한 유명 공연단체인 피바다극단의 총장(단장). 그는 조카들에게 “애들아, 이것 좀 보라. 이 삼촌이 자랑스럽지 않냐”며 자신이 연출한 평양 세계이생축전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찍은 사진과 공화국 영웅 증서 등을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북경에서도 평양 연극영화대학에서 강좌장까지 지내다 99년 안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아버지 생각으로 “50년 만에 삼촌을 만나니 돌아가신 아버지랑 뵈는 것 같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최여경기자 swlee@kdaily.com

# “다른 승무원 3명도 살아있다”



1969년 납북돼 북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기 기장 유병하씨, 부기장 최석만씨, 승무원 정경숙씨(왼쪽부터)의 피랍전 모습.

## 납북 성경희씨 모녀상봉서 밝혀

### 기장·부기장 북한공군서 장교로 근무 승무원 정경숙씨와 친자매처럼 지내

1969년 12월 강릉에서 서울로 오다 납북된 대한항공 YS11기의 여승무원 성경희씨(55) 외에 이 여객기의 기장과 부기장, 다른 여 승무원 1명도 북한에 살아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비행기 납치한 것으로 알려진 조창희씨와, 함께 납북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승객 7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산가족 납북 편양방문단의 일원으로 방북중인 성씨의 어머니 이후덕씨(77)는 딸로부터 기장 유병하씨(69)와 부기장 최석만씨(64)가 현재 북한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이날 밝혔다. 부기장 최씨는 북에서 재혼,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또 동료 여승무원 정경숙씨(56)도 편양 자신의 집 인근에 살면서 친자매같이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어머니 이씨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성씨

와 친덕여고 동기동창. 연세대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정씨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성씨보다 한해 뒤인 69년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성씨는 당시 비변이었으나 “강릉에 함께 갔다오자”는 정씨의 권유로 사 고기를 탕다가 함께 피랍됐다.

기장 유씨의 아들 한민씨(43)도 이날 “사건 발생 3년쯤 지나서 당시 중앙정보부로부터 ‘아버지가 북에서 재혼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수간첩 오길남씨는 지난 92년 “정씨가 김책공대 교수와 결혼해 1남2녀를 두고 있으며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당국자는 “부기장 최씨가 지난 99월 4월 편양방송에 출연해 공군 대좌(대령)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의 근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최재영기자·평양 / 공동취재단  
cjyoung@kyunghyang.com



납북된 정경숙씨의 생존 소식을 들은 정씨의 오빠 현수씨가 27일 친척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다. 고영 / 연합뉴스

### “어머니 두달만 더 사셨더라면...”

#### 생존확인 정경숙씨 오빠 회한의 눈물

“두달만 더 사셨더라면...”

1969년 납북된 KAL기 여승무원 정경숙씨(55)의 오빠 현수씨(71·경기 고양시 일신구)는 27일 여동생이 북한에서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여동생을 그토록 기다리다 지난해 12월 숨진 어머니 김금순씨(사망 당시 92세)를 떠올리며 연방 눈가를 흘렸다. 여동생의 참덕여고 동창생이자 함께 납북된 성경희씨가 남쪽 어머니 이후덕씨와 만나는 장면을 몇차례나 TV를 통해 지켜보다 질로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그 고통을 겪고도 내색 안하시고 잘 버티시더니 끝내...”

시암하던 막내딸이 납북된 뒤에도 슬픔을 내색하지 않았던 어머니, 오직 교회를 다니며 매일같이 막내딸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두손 모아 빌 뿐이었다. 지수간첩 오길

남씨를 통해 딸이 ‘구국의 소리’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듣고는 더욱 딸을 그리워했다. 그러던 김씨도 기다림에 지치는지 99년 11월 몸져 누운 뒤 1년여의 투병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등졌다.

현수씨는 “늦기는 했지만 누이 동생의 생존소식을 동생 친구 김희철 통해 직접 확인하게 돼 기쁘다”며 “어머니 영전에라도 누이의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말했다.

납북 당시 여객기의 조종간을 잡았던 기장 유병하씨(당시 37세)의 부인 엄영희씨(67·서울 노원구 중계동)도 남편이 공군 조종사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언젠가는 남편이 꼭 돌아오리라는 믿음 하나로 갖은 고생에도 2남1녀를 키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권재협기자

jaynews@kyunghyang.com

# 北 이산상봉 유연해졌다

## 엄격한 상호주의서 전향적으로

북측이 3차 이산가족 상봉사업 과정에서 진과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측의 자세변화는 상봉일정 협의를 위한 적십자 연락관 접촉에 예고됐다. 북은 당시 "이산가족들이 점심, 저녁을 함께 함으로써 만남의 기회를 더 갖게 하자"는 남쪽 제안에 "우리

는 사장이 있어 어렵지만 서울은 알아서 하라"며 양해했다. 서울과 평양에서 똑같이 행사를 치러야 한다며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던 과거와 달라진 것이다.

교환방문 첫날인 26일 국군포로 출신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북측 조선중앙TV가 이날 저녁 뉴스를 통해 먼저

### 국군포로 TV서 먼저공개 남북 성경회씨도 '예상밖'

공개한 점도 눈에 띈다. 지난 2차때에 이어 이번에도 국군포로 가족이 만났지만 남측은 당초 "국군포로가 없다"는 북측의 입장을 고려해 이를 밝히지 않을 방침이었다. 자칫하면 국군포로나 '의거 인민군 입대자'라는 논쟁이 벌어져 어렵게 이뤄진 상봉에 차

## 거동불편자 제외 원망에 월제어에 태워와 만나게

집을 빚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국군포로 출신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상봉을 허용한 데다 밤송이를 통해 먼저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내심 안도하는 눈치다. 남북된 대한항공 여객기 여승무원 성경희씨의 상봉 허용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측의 적극적 자세는 26~27일 몸이 불편한 정오목씨(93·남측 이산가족 이후성씨의 모친)를 월제어에 태워 상봉장에 데려온 데서도 잘 나타난다. 북측은 1, 2차와 거동이 힘든 북측 가족을 상봉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산가족들의 원망을 산 바 있다.

"조만간 면회소가 설치될 것" "서영훈(徐英勳) 한적 총재와의 만남은 아주 긍정적 구상"이라는 조선적십자회 장재언(張在彦) 중앙위원장의 발언도 이같은 흐름의 하나로 보인다.

정부 담국자는 이에 대해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영기자 c.jyoung@kyunghyang.com

## '늦깎이' 효도

"어머니 50년 만에 인사드리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반세기 만에 부모를 만난 남과 북의 자녀들은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한 효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북한의 강원도 회양군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종실(71)씨. "1주일 만에 돌아오겠다"고 집을 나선 지 51년 만에 어머니 배송영(89)씨를 다시 만났다.

"아버지 옷 지어 드리겠다" 김씨는 27일 재단사 아들 줄자 들고 나와 개별 상봉 때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신지 제가 봐 드리겠습니다"며 진맥을 보고 이마에 손을 짚었다.

어머니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어엿한 의사가 돼 돌아오다니 꿈만 같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서울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황순종(53)씨는 북에서 온 아버지 황창수(84)씨의 옷을 지어드리겠다고 나섰다. 순종씨는 상봉장에서 "옷을 손수만 만들어 드리고 싶어 줄자까지 들고 나왔어요"라며 "예상보다 아버지의 어깨가 넓어서 넉넉하게 만들어야겠네요"라고 웃음을 지었다.

홍주연 기자 <jdream@joongang.co.kr>

## 구급차 상봉

이인규(李仁奎·73·서울 관악구 신림동) 할머니는 27일 서울 롯데월드호텔 객실에서 북에서 온 남편 박정서(朴正禧·80)씨를 50년 만에 만났다. 하지만 뇌졸중 때문에 기도에 가래 제거용 구멍을 뚫어 놓고 있어 아무런 말도 못했다.

李 할머니는 이 때문에 상봉을 포기했으나 차씨가 아들 박찬호(58)씨에게 "보고 싶다"고 간청해 이날 119구급대에

실려왔다. 차씨는 "당신 모 습을 보니 가 북남편 간곡한 요청에 실려와

습이 아프다. 재혼해서 편히 살지 그랬느냐"면서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남편이 1950년 8월 인민군에 징집돼 떠나자 그후 30년 가까이 매일 새벽 정화수 한 사발을 떠놓고 무사귀환을 빌어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을테니 포기하시라"는 두 아들의 권유에 따라 15년 전부터 남편의 생일에 제사할 지내왔다.

상봉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 박기연(52)씨는 "아버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만나면 때려주겠다'고 하시던 어머니가 말 한마디 못하시니..."라며 안타까워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 국군포로·납북자 '송환문제' '잠깐의 상봉'으로 때울수 있나

이번 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납북자 1명과 국군포로 2명이 남쪽의 가족들과 만났다. 작년 11월 2차 상봉 때에도 납북자 1명과 국군포로 1명이 가족과 상봉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납북자(460여명)와 국군포로(380여명)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적은 숫자이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더 없다면 대부분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은 '시범적 상봉'에 대한 희망도 접어야 할지 모른다.

## “만나는게 더 중요” 주장

우리 정부 남북자들과 대다수 전문가들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 이번처럼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 외에 효과적인 대안(代案)이 없다는 것이다. 한 한국인은 “우리 측의 중요한 요구로, 북한이 그나마 납북자 2명과 국군포로 3명의 가족 상봉을 허용한 것”이라면서 “납북이나 아니냐는 논쟁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재진(徐載珍)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홍보 방송물을 보면, '월남(越南)=반역'이라는 기

존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면서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카드란 것을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도 “북한측에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실체를 인정하려면, 이 문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도 조금씩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문가 이항구(李恒九)씨도 “납북자와 국군포로 출신들도 이미

북한에 가족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면회소 설치, 서신교환과 자유왕래 등으로 제도화하면서 이들의 상봉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일반 이산가족과 분리해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납북자의 경우, 일반 이산가족들과 달리 '타의에 의해 강제로 가족과 헤어진 사람'으로 당연히 국가가 이들의 '송환'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지적이다. 재성호(諸成鎭) 중앙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은 이산

가족과 분리해, 정부가 주저지 선택을 보장하고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족과 재결합하게 해야”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라 비판도 있다. 피랍자에 관한 국제적 관례에 따라 본인에게 귀한 의사를 물어보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북대학 전문가인 이동복(李東服)씨는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한다면, 비전향장기수는 왜 전원 송환했느냐”면서 “납북자들을 북측 주장대로 '의거 입북자'로 만드는 것은 이들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인희기자 ginko@chosun.com

## 정부·전문가 “이산가족 차원의 代案 없다” 일부 “우린 비전향 장기수 보냈는데…”



◇평양간 반공 포로 출신 27일 반공포로 출신 김한진(인경 쓴 사람)씨가 평양 고려호텔에서 있는 두 번째 개별 상봉 자리에서 북측 동생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壤=사진공동취재단

## 눈물 半... 웃음 半... 한층 여유로워진 상봉장

과 상봉을 내보일 때도 스스럼없이 카메라를 향해 펼쳐 보이거나 남쪽 가족들에게 “한계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맞장구’를 유도하는 등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적극적인 북한 취재단 북측 기자들의 취제도 훨씬 적극적 으로 변했다. 테이백 주위에서 머뭇거리던 과거와 달리 남쪽 가족들에게 질문을 퍼붓기도 했고, 취재를 위해 남쪽 가족들에게 김일성·김정일 초

상화에 집을 하게 하는 일종의 ‘연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집단상봉장에서 피대다가극단의 김수조(70) 총장이 남쪽 조카들에게 김일부와 3쌍을 전달하며 “7000만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을 흠모하는 꽃이니 주위에 나눠줘 널리 퍼뜨려라”라고 말하자, 북 취재진 5-6명이 달려들어 포장을 풀어주고 “(꽃을) 그대로 들고 서있으라”는 등 북 취재진은 ‘극적인’ 장면 연출하느라 애썼다.

◆여전한 체제 선전 예전에 비해 훨씬 여유있어진 외양과는 달리 북측 인사들의 체제 선전은 여전했다. 북측 상봉자 대부분은 북측 수행원들이 다가설 때마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덕”을 배송지 않았다. 27일 오후 개별상봉에선 북에서 온 최경서(66)씨가 남쪽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김일성 장군의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주겠다”며 사진이 실린 책을 집어 들었다. 남측 안내요원이 제지하자 최씨는 “왜 자유로운 상봉을 막느냐”며 거칠게 항의했고, 회시와 남측 안내요원의 승강이는 한때 남북간 관계자 사이의 거친 말싸움과 욕설로 번지기도 했다. /송인희기자 ginko@chosun.com /송인희기자 roadrunner@chosun.com

## 1·2차때와 달라진 풍경

3차 이산가족의 상봉에 참가한 북측 수행원과 가족들은 1·2차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 남측 취재진과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 개별 상봉장에서 북측 가족들은 과거와는 달리 한하게 웃는 모습으로 가족남을 만났고, 북에서의 생활을 적극 자랑하기도 했다.

◆유연해진 북측방문단 방문 첫날인 26일 북측 상봉단이 센트럴시티의 집단상봉장으로 향하는 계단에 이르자, 4-5층 난간에 환영 플래카드를 걸고 서 있던 남측 가족들은 ‘오빠부대’처럼 환성을 올리며 북측 방문자들의 이름을 일호했다. 문은 표정으로 북측히 상봉장으로 향했던 1·2차 때와 달리 이번 북측 상봉단은 회담이라도 하듯 남측 가족을 향해 두 손뼉을 쳤었다. 북측 방문단들은 북에서 받은 훈장



# 6백명 오고 가... 3천여명 恨풀어

남북한은 지난해 8·15 상봉을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 방문단을 주고 받음으로써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인식시킬 기쁨을 마셨다.

하지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법(解法)과 이산가족 면회소 개설 등 남은 문제도 적지 않다.

◇국군포로·납북자 해결될까= 1969년 남북간 대한항공기 여승무원 상경희(成敬姬)씨의 모녀 상봉과 국군포로 가족상봉 허용에서 보듯 북한 당국은 '포괄적 이산가족'의 범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제한적이나마 호응했다.

하지만 북측은 이들을 '의거납북자'로 주장하며 정치선전에 동원, 남측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처럼 남북은 '입권된 원칙'은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만남' 자체는 이어지게 하는 접근방법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 '추고받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 김경락(金敬若)방문단장이 27일 한적을 방문해 "비전향장기수 30명 추가 송환"을 요구한 것은 국군포로·납북자 상봉의 '반대급부'를 염두에 둔 것이란 시각이 나오는 것도 그것은 시장에 연유한다.

그러나 변수도 없지 않다. 명단이 확인된 3백51명을 포함한 익명 국군

## 3차례 이산상봉 결산

### 拉北者·국군포로 속제로 계속 남아

#### 이산가족 문제 남북 입장차

- 납북자·국군포로
  - '남은의미 이산가족'에 포함
  - 의거 납북자로 주장하며 납북상봉 허용
- 이산가족 면회소
  - 상봉장소의 위해 조속 개설 필요
  - 평양성 공경단 장소·시기 등 이견
- 가족간 면회교편
  - 생사·주소확인에 즉시 규약 필요
  - 3월 30일 시범교편규약 필요
- 비전향장기수 복송
  - 63명 복송(지난 9월)으로 종결
  - 추가 30명 복송 및 가족동반 요구
- 이산가족 상봉행사
  - 형제회 및 비·시간 불규칙
  - 3차례 시범사업 정기화 지향(4월 결정)

포로와 대한항공기 납북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필요한 시간을 '이벤트형 상봉'으로 넘기려는 분위기를 견제해자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납북자나 국군포로 가족

들이 "이산가족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제성호(諸成浩)중앙대 교수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민감한 북한이 이들의 상봉장면을 공개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계속 이산가족 상봉이란 틀로 얼버무리려는 게 바람직 한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무단히 끝났다=3차 방문단 교환은 '장송식 과등'이 발생했던 2차 때에 비해 특별한 문제 없이 끝났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엔 서울에 온 북측 방문단은 모두 4백97명의 납북 가족과 만났다. 또 평양에 간 남측 방문단은 2백43명의 가족과 상봉했다.

8·15상봉 때 1천1백70명이 만난 것을 시작으로 ▶2차(2000년 11월) 1천2백명▶3차 7백40명 등 모두 합치면 남북한의 상봉 숫자는 3천1백10명에 이른다.

또 상봉에 실패했지만 생사·주소 등 확인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6천명 이상이 가족의 소식을 들었다.

상봉 위주로 일정을 짜 서울의 경우 여섯차례에 걸쳐 10시간 이상 만날 수 있게 내실을 기한 점은 평가받힌다. 북측도 서울·평양에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입장에 큰 차질이 없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 돌아온 '6·25 戰死者'

## 北측방문단 최인권씨 兄弟 상봉

6·25 때 국군으로 참전, 전사자로 처리된 사람이 3차 이산가족상봉 북측방문단에 포함돼 남한으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 등 일부에서는 "그가 국군으로 참전한 만큼 포로수용소를 거쳐 북한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군포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이번에 내려온 북측상봉단 중 최인권(67)씨는 지난 50년 12월 5일 00진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전사자 처리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포로수용소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봐 국군포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씨의 동생 인균(64·경남 진주)씨는 이날 형과 개별상봉하기 전 본사 기자에게 "형은 50년 8월 고등학교에 다니다 육군에 입대했으며, 포로로 잡혔다 생환한 비유사실로부터 '포로수용소에서 형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최씨의 형제들은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은 이미 오래 전에 사망했다"며 "인권이 형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수재'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북측 사람들이 포로 교환 때 내보내지 않았

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개별상봉 때 "국군포로로 고생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참 동안 말을 아꼈고, 그의 형제들은 최씨에게 합구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최씨는 이후 "나는 (국군포로가 아니라) 의용군으로 입대했다"고 말했다. 최씨 형제의 이번 상봉은 북의 최씨가 먼저 남쪽 형 2명, 동생 2명과 사촌의 생사확인요를 요청해와 상사였다. 남측 형제들은 오랫동안 최씨가 북에 살아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나, 10여년 전 한 정수집에서 "이미 사망했다"는 정체를 밝힌 것은 엄연결혼식을 시켜 제사할 지내오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최씨의 어머니 흥모씨는 최씨가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7년까지 보훈연금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날 형제들에게 "북에서 장모를 잘 만나 대학도 나오고 출세했다"며 가족들에게 여과담(1보 두와 용성술2명, 인삼주2명, 고급 옷감 등을 선물했다. 최씨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합구했다. 그는 북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결혼, 현재 합경남도 함흥에 살고 있다고만 밝혔다.

최씨의 형 인욱(75)씨는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와 너무 기쁘다"며 "아직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崔宰赫기자 jhchoi@chosun.com / 申東新기자 dshin@chosun.com

## 이산 방문단 오늘 귀환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 이틀째인 27일 서울과 평양의 이산가족 100명은 가족 친척들과 오전 10시 후 두 차례의 개별상봉을 갖고 합육의 정을 나누었다.

(A29·30·31면에 권경기자) 이들은 28일 오전 숙소인 서울 집십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 앞에서 30분 정도 석별의 시간을 가진 뒤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각각 귀환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사연밴 선물교환 웃음꽃

남북 이산상봉 이틀째... 남북 기장등 3명도 생존 확인

3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각 100명은 2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별상봉 두 차례와 식사를 함께 하며 반세기 넘게 가슴에 묻어둔 사연을 주고 받았다. 남북 대한항공 여승무원 성경희씨를 32년 만에 만난 어머니 이후덕씨는 이 남북의 사위 등 자식들이 애타게 차려준 생일잔치상을 받고 즐거워 했다. 현진호(73) 씨 등 평양 방문단 6명은

존재조차 몰랐던 북쪽의 유복자였 만났다. ▶관련기사 5·18·19면  
롯데월드호텔과 고려호텔 곳곳에 선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일기장 등 가족의 사연이 짙게 밴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또 '내일이면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에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많았다. 92살의 노모를 두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김두식(71)

씨는 롯데월드호텔 1112호 객실에서 "어머니 오래 사세요"라며 큰집을 올린 뒤 남쪽의 두 동생에게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며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이후덕(77)·성경희(55) 모녀의 만남을 계기로 '대한항공 납치사건'으로 북쪽에 남은 승무원들의 생존사실과 근황이 새롭게 확인됐다. 기장 유병희씨와 부기장 최석만씨는 현재 북쪽

공군으로 근무중이며, 여승무원이었던 정경숙(55)씨도 북쪽에서 가정용 꾸러품과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고 성씨가 밝혔다. 그러나 성씨는 나머지 승객 7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고 이씨가 전했다.

한편, 북쪽의 김경락 서울 방문단장은 이날 오전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찾아 북송을 원하는 30여명의 장수와 그 가족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이어 서 총재는 "장기수 문제의 기본인 송환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본다"며 "국인 여론에 따라 해결할 문제"라고 원만한 답변을 했다.

남북 방문단은 28일 오전 아시아나 전세기편으로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귀환한다.

평양/공동취재단, 서울/특별취재단 society@hani.co.kr

## 한겨레

2001. 2. 28 (수) ▼

### '남북·포로 이산' 절충점 찾은셈

'광의의 이산 편익적 만남' 일부 송환요구 여론 살얼음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교류활동 계기로 그동안 남북간 미묘한 현안이었던 남북자·'국군포로'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찾아가고 있다.

2차 방문단 때인 지난해 11월30일 남북자·국군포로가 각각 한가족씩 만난 데 이어, 3차 방문 첫날인 26일

남북자 한가족, 국군포로 두 가족이 상봉했으며, 북쪽은 이 사실을 전면 공개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남북의 공식 견해는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쪽은 이들을 남북자·국군포로 가족으로 '특별배려'해 교환방문단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북쪽은 일관되게 "(국군포로와 남북자는 없으며) 있다면, 지난 시기 공화국 품으로 의거 입북해온 군인과 민간인들이 있을 뿐"이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잇따라 상봉에 성공하고 또 공개됨에 따라, 이들과 같은 처지의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북 단국이 '상호 편의주의적 해석'으로 접충점을 찾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쪽이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이들 가족의 평양 상봉 사실을 보도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2차 때 남북자 가족인 김상래(73)·강희근(49, 87년 동진27호 감관장으로 남쪽)씨 모자, 3차 때 남쪽이 '국군포로'로 파악하고 있는 손원호(75)·김재덕(69)씨가 남쪽의 동생 손준호(67)·김재조(65)씨를 각각 만난 사실을 북쪽 언론이 먼저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이산동기 불문' 원칙에 따라 남북자·국군포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풀어나

간다는 남쪽 정부의 방침에 북쪽이 내심 호응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남북 여론의 향배다. 남북자 가족 등 일각에선 사안의 성격이 일반 이산가족과 다르다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당분간은 명분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남북자는 어부 436명을 포함해 모두 487명이고, 명단이 확인된 '전정중 실종자'(미귀환 포로)는 351명이다.

특별취재단 politics@hani.co.kr

## 朝鮮日報

2001. 2. 28 (수)

# 남북 KAL 승무원 살아있다

4명 가끔 왕래... 두 조종사 공군 복무 성경희씨 "승객 7명 生死는 몰라"

지난 1969년 12월 남한의 고질 간첩에 의해 납북된 대한항공 YS-11기의 기장 유병희씨와 부기장 최석만씨, 여 승무원 성경희·정경숙 씨 등 4명은 요즈음도 가끔씩 서로 왕래하면서 안부담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경희씨가 26일과 27일, 평양에서 32년 만에 만난 어머니

이후덕씨에게 전한 내용이다. 그동안 우리 정보당국은 남북자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해왔다. 그러나 성씨는 "원인, 장기영씨 등 승객 7명의 생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씨와 최씨는 남에서 비행기탑 조종한 경험을 살려 북한 공군에 복무하고 있으나 조종사인지 여부



◇기장 유병희씨 ◇부기장 최석만씨 ◇승무원 성경희씨 ◇승무원 정경숙씨

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기장 최씨는 북에서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정경숙씨도 김책 공대 교수와 결혼해 1남2녀를 두었으며, 평양의 성씨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성씨와 자매처럼 지내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2년 자수한 간첩 오길남씨에 의하면 두 사람 모두 남한 내에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는 선전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의 아나운서로 일했다. /평壤=공동취재단

# “이젠 우리 가족도...”

## 3차 이산상봉

### 남북·국군포로 가족 생사확인 요구 빗발

26일 남북 대한항공기 여승무원 성경희(成敬姬·55)씨가 노모 이후덕(李後德·77)씨를, 국군포로 손원호(75)씨와 김재덕(69)씨가 남측 동생을 각각 만난데 이어 남북 여행자의 또다른 승무원 생존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27일 대한직접사 등에는 생사여부 확인과 생장가능성을 타진하는 남북자와 국군포로 등의 가족 전화가 줄을 이었다.

생존사실이 확인된 대한항공 YS-11기의 기장 유병희(柳炳熹·69)씨의 부인 임영희(64)씨는 “꿈에 그리던 남편이 살아있더니 가슴이 찢어 찢어 뱀도 못잡 지경”이라며 “빨리 남편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임씨는 “하지만 부기장 최석만(崔石滿·69)씨의 부인은 만나볼 수도 3년 전 세상을 떠났다”며 “경기 성남에 산다는 최씨의 큰 딸 은주(46)씨라도 아비를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슷한 승객들의 가족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승객 장기영씨의 부인 이순남(李順南·69·경기 의정부시)씨는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네 자녀를 키우며 32년을 기다려 왔다. 이산가족과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생장과 송환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남북 승객 위원씨의 아들 인철(35·경기 부천시)씨도 “그동안 가족의 미움과

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남북 승무원 생장과 생존소식 등에 접한 다른 남북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도 결코 낮지 않다.

1972년 4월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된 이윤식(64)씨의 아들 이재호(李宰浩·32·경기 수원시)씨는 “일회성·진시성의 ‘맛보기’ 생정보다 실질적 송환이 중요하다”며 “반일 물이 가셨다면 사망일시와 원인, 경위라도 확실하 동보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95년 중국에서 선교활동 중 납북된 안승운(57)씨의 부인 이연순(李延順·53·서울 금천구)씨는 “이산가족이 나뉘어도 가족을 만나러 내려오는 데 남북자의 생장과 송환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남북가족의 힘을 모아 정부당 상대로 남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군포로협의회도 북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의 명단과 생사여부를 밝히고 이른 시일내 송환조치를 요구했다. 허태석(許泰碩·63)회장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에 국군포로들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는 시종 무관심과 저지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배성규기자 vega@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남북한 대한항공 YS-11기 미귀환 승객 장기영씨의 부인 이순남씨가 27일 남편의 사진을 들여보이며 지내는 힘겨운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 기장·부기장 北공군에 근무

### ■ KAL남북자 생존 추가확인

#### 씨씨 동료 정경숙씨 평양거주

1969년 남북한 대한항공 YS-11기의 기장과 부기장, 승무원 2명이 북한에 모두 생존해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승객 46명 중 끝내 돌아오지 못했던 7명의 소식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여승무원 성경희(成敬姬·55)씨는 26일 어머니 이후덕(李後德·77)씨를 만나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성씨에 따르면 기장 유병희(柳炳熹·69)씨와 부기장 최석만(崔石滿·69)씨는 현재도 북한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씨는 다시 기장을 이뤄 1남1녀를 두고 있다.

성씨는 또 동료 여승무원 정경숙(鄭敬淑·55)씨의 있는 평양에서 가까이 살면서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책공대 교수와 결혼, 1남2녀를 둔 정씨는 92년 자수감합 오깁남에 의해 대남방송 ‘구국의 소리’ 아나운서로 일하는 사실이 알려졌다.

성씨와 정씨는 청덕덕고 동기로 이화여대 사회생활과를 나온 성씨는 1968년에, 연세대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정씨는 이듬해 대한항공에 각각 입사했다.

대한항공 YS-11기는 69년 12월 11일 김포를 출발, 서울로 향하던 중 승객을 가장한 고정간첩에 의해 납북된 뒤 66일만인 70년 2월 14일 기체와 승객 39명만 돌아왔다.

/평양=공동취재단

## 北손자 등에 업혀... ‘감격의 생일상’

### 성경희씨 어머니

전날 밤 성경희(成敬姬·55)씨를 32년만에 만난 이후덕(李後德·77)씨는 27일에는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 객실에서 딸가족과 조촐한 생일상을 차렸다. 원래 생일은 다음달 7일이지만, 굳이 딸의 축하를 받고 싶어 떠날 때 생일케이크까지 준비해갔다.

딸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행거 드리지 못한 죄송스러움 때문인 듯 누누이 치지를 ‘변명’했다. ‘이 곳에 있으면 정군님이 내 미래와 운명,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거야. 남에서는 엄마가 내 운명을 책임지지 못했을 것이잖아. 난 이 말

을 꼭 하고 싶었어. 엄마.” 그러면 성씨는 북에서 최고로 여기는 ‘표창’인 김일성 주석 친필사인 시계를 보여주었다.

노모는 그런 딸이 못내 안쓰러운 듯 엄신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래 다 안다. 내가 밥 안데도 난 다 안다. 잘 사는 모습을 봤으니, 돌아가면 엄마도 더 이상 내 걱정은 하지 않을 거야.”

손자 임성희씨는 “할머니, 한번 업어 보시다”라며 이씨를 선뜻 등에 업고는 “가지말고 이 손자랑 같이 살아요”라고 한껏 ‘음썬’을 부렸다. 이씨는 손녀 소영씨에게는 “날 주려고 내가 작정 했다”며 목도리와 모자를 손수 감아주고 띄워 주었다. /평양=공동취재단

# 국군포로 문제 실태 풀리나

## 남북이산상봉으로 본 실태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으로 평양을 찾은 손준호(67)씨와 김재조(65)씨가 국군포로 출신으로 북한에 살고있는 황 손원호(75)씨와 김재덕(69)씨를 지난 26일 각각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남북간 최대 현안중 하나인 국군포로 해결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고 있다.

이번 상봉은 '국군포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넣고 점진적으로 해결한

'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북한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차상봉 당시 국군포로 가족의 상봉을 비합에 부쳤던 북측은 3차때는 이를 공개, 앞으로는 남측의 국군포로 가족들이 계속해서 상봉할 가능성을 엿어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군포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되기까지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남북지나 국군포로 문제를 다룰 때 이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에 남는 것이라든 짐을 들어 체재 강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김경

락 북측 방문단장(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도 27일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만나 "남한 언론들이 이번 상봉과 관련 '국군포로 억류'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들은 의거입북해 인민군으로 복귀했고 현재 북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지 억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군포로 가족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하대석 국군포로가족협의회 회장은 "전쟁중에 피난가

사람들은 단순한 이산가족과는 다르다"며 "국군포로 문제는 이산가족과 법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단인 한나라당도 국군포로 송환을 정부의 대북관련 기본 정책으로 세워야 한다고 돌아붙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4년 조참호 중위 귀환 이후 현재까지 19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고 탈북 귀순자 및 국내 연고자 진술 등을 통해 현재 3백70여명 정도가 북한에 생존·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병실 기자  
smile@hankyung.com

## 방북단6명 '분단둥이' 자녀와 첫만남

# "애야 미안하구나"

## 벋속 아이와 생이별...첫인사에 어색한 답례

"네가 내 아들이 맞느냐!" "아버지 제가 용국이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만나면 어머니가 젊었을 때 고기장사해서 아버지께 금시계 사주셨다는 말을 하면 아신다고 하셨는데..."

한형춘(73·부산시 서구)씨와 북쪽의 아들 용국(50)씨, 반세기 넘게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지내온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머니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하며 부자의 연을 확인하려 했다. 전쟁중인 1·4후퇴 때 단신 월남했던 형춘씨는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혹시 호적등본은 때 왔느냐"고 물었다. 아들은 "그런 것은 없다"며 대신 어머니 등 북쪽 가족이 찍은 사진 30여장을 꺼내놓고 그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헤쳤다. 형춘씨의 눈길이 부인의 환갑사진에서 오래도록 머물렀다.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환갑을 한해 남겨두었지만 미리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맡았이 틀던 형춘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남쪽의 평양 방문단에는 형춘씨처럼 헤어질 당시 부인이 임신 중

이어서 자녀를 한번도 보지 못한 아가 6명이나 된다. 이들은 생사 확인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새로 확인된 자식이 있다는 통보를 받을 때만 해도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26일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자신을 빼놓은 자식을 보고는, "미안하구나"는 말을 되풀이하며 고개를 떨궜다.

평남 감시가 고함인 정민서(80)씨는 1·4후퇴 때 북쪽에 두고 온 어린 딸들을 만났다. 이미 할머니가 돼버린 딸들 사이로 당시 부인이 임신 중이었던지조차 몰랐던 아들 대신(50)씨가 아버지에게 낯선 처음 인사를 올렸다. 인사씨는 "그 동안 못 봤으니 오늘이 처음이네"하고 어색하게 답례했다.

이밖에도 김만수(79)씨가 아들 명모(50)씨를, 안준수(88)씨가 딸 선녀(50)씨를, 이병식(82)씨가 아들 원주(50)씨를, 김병민(79)씨가 딸 은복(50)씨를 만났다. 평양 고려호텔은 이렇게 '분단둥이' 유복자녀들과 그 아버지들의 한뼉 한 눈물에 소리없이 잠겼다.

평양/공동취재단 politics@hani.co.kr

## 세계日報

2001. 2. 28 (수)

# 보고싶은 당신 어디있어요

피랍승객 장기영씨 부인  
남편 생사조차 몰라 애타

"식량난 때문에 건강은 잃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나보다 마음 고생이 더 심했을 텐데..."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사건 당시 여승무원이었던 상경희씨가 26일 평양에서 방북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본 이산남(69)·사진씨는 남편 생사에 혼이치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이씨는 장롱속에 간직한 남편 장기영(당시 41세)의 빛바랜 사진을 어루만지며 갈국 눈시울을 적셨다.

이씨는 당시 2남2녀를 키우며 남편과 의정부 시내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한 식당 종업원의 가족을 찾아 주고 오겠다고 강릉으로 갔다가 돌아오



는 비행기에서 납북됐다. 3살 난 아이를 부둥켜안고 공항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이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였다. 남편이 납북된 지 65일만인 1970년

2월14일 이씨는 또 한차례 몽곡했다. 탑승자 51명중 39명이 관문점으로 송환될 때 남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씨는 남편을 잊으려 했다. 남북대화 노력이 무산될 때마다 기대가 뭉개짐이 되면서 내심 다진 각오였다. 하지만 잊으려고 할수록 남편의 모습은 더욱 뚜렷했다. 그렇게 32년이 흘렀다.

/의정부=신상득기자 sdshin@sgt.co.kr

# “다시 올테니 꼭 살아주세요”

## 남북 3차 이산상봉

### 북측방문단 아쉬운 이별

그리움의 한을 푼 것도 잠시뿐, 또 다시 기억없는 생이별의 이픔에 울어 야했다. 2박3일간의 3차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모두 끝난 28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과 김포공항은 남북 이산가족들의 눈물로 가득했다. 밤새 내린 봄비가 이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남는 자도, 떠나는 자도 말보다 눈물로 이별사를 대신했다.

### 버스잡고 오열하다 실신

●…순간을 영원으로 간직하려는 가족들의 몸짓이 애처롭기만 했다. 이날 오전 8시10분 북의 방문단이 차량 14대에 나눠타고 김포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남측 가족들은 한명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작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북의 최북래(68)씨를 배웅하러 나온 동생 복순(62)씨는 환송행사 내내 오빠가 타고 가는 버스를 붙잡고 오열하다 끝내 실신해 구급차로 옮겨졌다. 최고령인 허계(92)할머니는 북의

아들 김두식(70)씨가 “어머니, 꼭 다시 돌아올게요. 꼭 살아 주세요”라고 하자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두식씨가 버스여 탄 뒤에도 할머니가 애타게 아들을 찾자 주위의 이산가족들이 허 할머니를 들어 올려 열린 차창문을 통해 아들의 손을 잡게 해줬다. 출발 뒤에도 허 할머니의 눈빛은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1200여 명의 남측 가족은 플래카드와 피켓이 짙지만 뜨거운 작별의 아쉬움을 담았다. 20여개의 플래카드에는 “합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통일돼서 또 만나요”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북의 최경석(67)씨 가족은 길이 3m의 대형 플래카드를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최씨의 노모 모기술(84)씨는 “경석이 가는 것은 봐야 섭섭하지 않지”라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환송장에 나타나 눈시울을 붉혔다. 북의 동생 강서구(70)씨를 환송하러 나온 형 황구(78)씨는 몸이 불편해 간이침대에 실려 나와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서구씨는 “꼭 다시 올테니 건강하게 살아 계십시오”라며 작별인사를 건넸다. 황구씨는 동생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한 채 버스만 하염없이 쳐다볼 뿐이었다.

●…마지막 개별상봉에서 몇몇 가족들은 차분한 가운데 먼 훗날을 기

약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지용 시인의 두 아들은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남의 형 구관(72)씨가 “내가 나이가 많아 이제 다시 못할 것 같다. 이번에 아버지 얘기를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에 구인(68)씨는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이라며 형을 달랬다.

●…남측 가족들은 전날 봄비로 서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 5시30분쯤

### 3m 대형플래카드 환송

부터 호텔 주위환 서성이며 아쉬움을 달래는 모습이였다. 북에서 온 동생 이문식(70)씨와 작별하게 되는 누나 이순금(76)씨는 “50년만에 다시 만난 동생을 보낸다는 생각에 환송도 못 잤다”며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서 동생을 보고 싶어 서둘러 왔다”고 말했다. 북측 방문단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호텔 32층 라센느 식당에서 탕평채, 콩치구이, 김치찌개로 준비된 아침식사를 했다. 피바다 가득한 김수조(69)씨는 “편안하게 잤느냐”는 직원들의 인사에 “아주 잘 잤다”고 말하기도 했다. 몇몇 북측 방문단은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호텔직원들과 취재진에게 “꼭 다시 만납시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강연관·이영희·유희연기자>

### 이산상봉단 오늘 귀환

남북 이산가족들이 2박3일간의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교환 일정을 마치고 28일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귀환했다.

<관련기사 4·30·31면>

북측 방문단은 남측가족의 환송을 받은뒤 오전 10시쯤 아시아항공 OZ1007편으로 먼저 김포공항을 출발, 평양으로 귀환했다.

또 남측방문단 151명도 이날 오전 10시30분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측가족과 작별상봉을 한 뒤 낮 12시30분쯤 북측방문단이 타고온 항공편을 이용, 서울로 귀환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서의동·김석기자>

### 이산가족 남북 귀환

남북 이산가족들이 2박3일간의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8일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귀환했다. <관련기사 3·22면>

그러나 다음번 교환방문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4차 상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경락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상무

위원을 단장으로 한 북측 방문단 140명은 오전 7시30분쯤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앞에서 남측 가족과 작별 상봉을 가졌다. 북측 방문단은 아시아 나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평양으로 돌아갔다. 김정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인솔한 남측 방문단 151명은 오전 10시30분쯤 평양 고려호텔에서 작별상봉을 갖고 순안공항을 통해 같은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다.

## 문화일보

2001. 2. 28 (수)

## 國民日報

THE KOREAN DAILY GOMIN

2001. 2. 28 (수)



제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날인 28일 북측 방문단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을 떠나 김포공항으로 향하면서 마중나온 남측 가족 들을 향해 작별의 손을 흔들며 울먹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여보... 아버지... 어머니...” 가는 이도 보내는 이도 목메어 울었다

서울 평양  
3차 상봉

반세기동안 기다린 끝에 이제야 겨우 만났는데 또 다시 그들은 기억 없는 이별을 해야 했다. 재회를 기약할 수 없다는 막막함이 이들을 더욱 짓눌렀다.

○...28일 오전 북측 방문단이 떠나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앞 주차장은 그래서 더 큰 희한이 사무쳤다. 서로의 이별을 마지막으로 힘껏 불러보았으나 가슴은 더욱 미어졌다.

구순의 노모를 두고 가야 하는 김두식씨(71)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큰 절을 올린 뒤 두 동생에게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 하계씨도 “따뜻한 밥이나 한

끼 차려줄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이라며 아들의 손을 놓지 못했다.

남편 임용빈씨(74)를 보내는 남측 부인 김옥랍씨(75)는 “또 헤어지다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안타까워했다. 50년동안 수절해온 부인과 딸을 만난 전영수씨(79)는 “언제 다시 만날 지 막막하다”며 슬픔을 달랐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인민군에 끌려간 뒤 50여년만에 서울을 방문한 박창서씨(79)의 아내 이인규씨(77)는 지난해 6월 주말농장에서 풀을 뽑던 중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27일 오전 엠블런스에 실려온 뒤 들것에 실린 채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이 기다리던 호텔방으로 올라가 마침내 남편과 눈물의 대화를 나눴다.

○...평양에 살고 있는 전 대한항공 승무원 성경희씨를 통해 당시 함께 납북됐던 승무원 정경숙씨(55)

가 평양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정씨 오빠 현수씨(70·경기고 양시)는 “품문으로만 들었던 동생의 생사를 이렇게 확인하게 돼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면서 두달전 세상을 뜬 어머니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다.

## 북측 방문단 최인권씨 전사자 처리 밝혀져

이산가족 상봉 북측 방문단에 포함돼 서울에 온 최인권씨(67)가 6·25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실종돼 전사자로 처리돼 있는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6·25전쟁에 참전한 최씨는 지난 50년 12월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전사 처리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향이 경남인 최씨는 국군포로 출신 여부를 확인하는 언젠에 “의용군으로 자진 입대했다”고 주장했다. 사회부

# '6·25 전사자' 50년만에 해후

## 짧은 만남 사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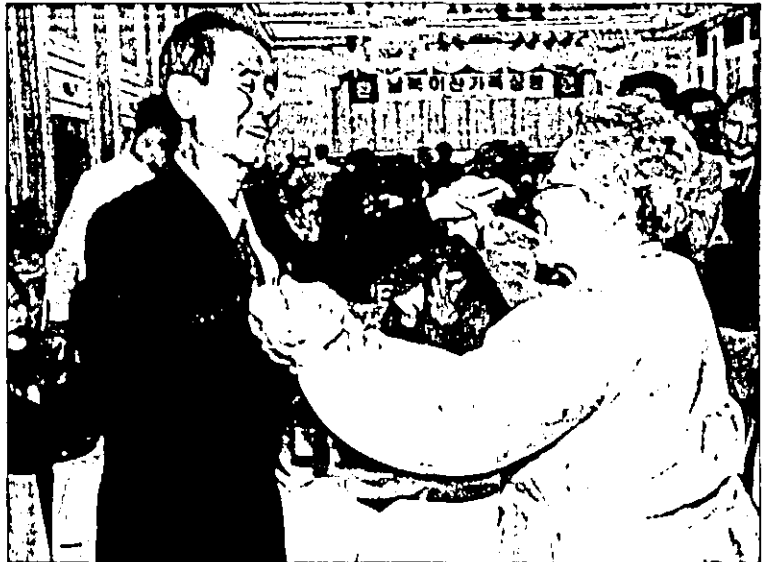
반세기를 기다린 끝에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기약없는 이별의 시간 속으로 헤어져야 할 이산가족들은 떨어질 줄을 몰랐다. 사흘동안 남북의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비비대며 마음 속에 그려넣는 모습이었고, 50년간 쌓인 사연을 전하는 이들은 시간을 붙들고 매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 서로 손꼭잡고 부부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내 학생 때 사진을 늘 간직하시며 ‘낮잡자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단다.”

27일 잠실롯데월드호텔에서 아버지 재사를 지내던 북한의 공훈예술가 정두명(67·평양시)씨는 이같은 가족의 전언에 “아버지 영정을 가져갈래요”라며 한스런 지난 세월을 달랐다. 두명씨의 어머니 김인순(89)씨가 재사를 지내는 아들을 바라보며 “두명이 왔어요”라고 흐느끼듯 말하자 두명씨는 “아버님, 불효자식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라며 조아렸던 머리를 들지 못했다.

●...이날 개변상봉에서 북한 집단체조의 거장 김수조(69)씨는 롯데월드호텔 객실 방문 밖까지 나와 북경(54)씨 등 조카 4명을 반갑게 맞았다. 전날 전해들은 아버지 수희씨의 사망소식으로 상심했을 조카들에게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빈 자리를 채워주려는 듯 김씨는 입입이 조카들과 포옹



북측 유홍규씨와 남측 누나 유홍림씨가 27일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공 흥겨운 춤 동오찬도중 손을 맞잡고 '고향의 봄'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을 했다.

●...50년 세월을 혼자 살아온 아내와 다시 만난 진영수(79)씨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에서인지 아내 유정규(74)씨의 손을 꼭 한 채 눈을 줄 몰랐다. 유씨는 “전날 남편이 생각보다 젊어보인다고 해 기뻐”며 “남편도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다”고 말해 반세기를 훌쩍 넘어선 부부간의 사랑을 보여줬다.

### “100세 사시라 매일기도”

●...“어머니 100세까지 사시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51년만에 어머니를 만난 김동이 미처 사라지지 않은 듯 김두식(70)씨는 남측 삼봉가족중 최고령자

인 어머니 허계(92)씨를 연신 쓰다듬으면서도 허씨의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이산가족 상봉 북측 방문단에 포함돼 서울에 온 최인권(67)씨가 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실종돼 전사자로 처리돼 있는 사실이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6·25전쟁에 참전한 최씨는 지난 50년 12월 중국군과의 치열한 전투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전사 처리돼 있다는 것. 그러나 고향이 경남인 최씨는 국군포로 출신 여부를 확인하는 일부 언론에 “의용군으로 자진 입대했다”고 주장했다.

<강연곤·이영희·유희연·이종석기자>

서울 평양 3차 상봉

2박3일 결산

恨풀기 요원한 '방문단' 근본적 해법은 '면회소'

남북자 재회등 성과불구

소규모·정치색등 한계

서울과 평양에서 지난 26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행사는 조속한 면회소 설치 등을 통해 언제든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이런 식의 전시성 행사는 아무래도 남북 당국간의 체면이 걸려 있게 마련이라 형식적으로는 이산가족들의 똥인 한을 푸는 것이지만 일종의 '외압'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봉할 이산가족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달걀 걸러 100명 단위로 상봉해서는 이들의 한을 모두 풀기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

다는 점도 재삼 확인됐다.

서로 세번째 치르는 행사라 그런지 최소한 같보기로는 1.2차 때보다 나왔다.

우선 상봉시간이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점심과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평양에서도 가족과 자리를 같이 하는 저녁식사 자리가 마련됐다. 2차 상봉 때 8시간 정도였던 상봉시간이 이번엔 10시간을 넘었다.

또 이번 상봉에서 북측이 남북자와 국군포로, 반공포로 가족 상봉도 허용한 것은 진일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2차 상봉 때도 이들 일부가 방문단에 포함됐으나 비공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북이 거리낌없이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전시성 행사란 관계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북측 이산가족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꺼내놓는가 하면 접을 하

기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장군님의 은덕'으로 강조했다.

즉 이산가족의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남북 양측의 행사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에서 온 일부 가족의 이런 돌출행동은 남측 가족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순간적이나마 어색한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순수한 만남의 장에 티가 났다.

또 김정일 북측장은 대한적십자사 본사로 서영훈 총재를 예방한 자리에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요구하고 '국군포로는 북한에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다음달 15일 서신교환이 이뤄지면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된다"며 "이제 보다 근원적인 이산가족 상봉의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2001. 2. 28 (수)

핏줄의 情에 묻혀가는 '이념 돌출'

남북 이산상봉 3차

달라진 분위기

이산가족 상봉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지난해 8월15일 1차상봉 이후 횡수를 더해가면서 남북의 가족들은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터득했다. 이데올로기에 대물된 무조건적인 거부감도 희석됐다. 반면 역사의 아픔, 민족의 아픔에 대한 공감대는 회복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일수록 더욱 그렇다. 지나친 무관심은 통일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체제선전에 유연한 대처

북측 이산가족들의 체제 선전은 이전과 다름없었지만 가족끼리는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화는 요령있게 피하는 등 한층 유연해진 모습이다. 이는 짧은 상봉시간을 '가족' 사이에 따뜻한 정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간직하려는 이산가족들의 '지혜'가 발휘된 것. 가족들의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행사진행으로 이어졌다.

사흘동안의 상봉에서 대화 도중 간혹 폭발적으로 언급되는 '체제 우월'



27일 정지용 시인의 남북 두아들 구관(왼쪽), 구인(가운데)씨 형제의 개별 상봉장. 구관씨가 자신의 주장을 독일 흡수통일론으로 오해한 조선중앙통신기자(오른쪽)와 화의에 해공을 하며 웃음으로 진정시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발언에 남측 가족들은 간혹 당혹할 때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경직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날 북의 형 안기창비를 만난 동생 용기씨는 '형 가족을 위해 웃을 준비했다'고 건넸다가 기침씨가 '나는 웃이 많아 필요없다'고 사양하자 '나도 잘 안다. 장군님이 뽐봐주시는데 웃이 많지 않겠느냐'며 선수를 쳐 오련만에 단란 가족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를 뚫고 웃음으로 넘길 수 있었다.

체제 선전과 관련, 소동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27일 개별상봉장에서 북에서 온 최경석(66)씨가 갑자기 '김

젊은층 관심 갈수록 시들

일성 장군의 시진을 보여 주겠다'며 책을 꺼냈다가 남측 안내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때 양측 진행요원 사이에 거친 말싸움이 벌어졌지만 곧 비로 진정됐다.

한편 이산가족문제는 민족 모두의 아픔이자, 시대가 만든 아픔이지만 이런 아픔에 대한 공감대가 회복 거듭할수록 퇴색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지나친 무관심은 통일교육 부재라

는 지적과 함께 '자칫 이산이 민족의 문제'가 아닌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상봉장인 잠실롯데월드호텔 안의 뜨거운 감동의 열기는 현장중 한발짝만 벗어나면 사뭇 달라졌다. 1.2차 상봉 때만 해도 행사장 주변에는 방문단을 격려하는 시민이 많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지난 1.2차 행사만 해도 '상봉드라마'에 소감을 담은 글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지만 지금은 심지어 '행사 소식'이 지겹다'는 글마저 보일 지경이다.

<강연근·고민구·이영희기자>



# 남북 '정서적 화해' 진일보



## 결산·향후 전망

### 면회소설치 '타결' 가능성

지난해 8월 첫 이산가족상봉 후 3차에 걸쳐 실시된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은 이산문제가 남북화해·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남북 쌍방이 실감케함으로써 남북이 연대의 길로 나가는 '정서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단 3차 방문 이후 추가교환이 합의된 바 없고 100명의 이산가족이 비싼 비용을 치르며 오는 1회성 행사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상봉행사를 대체할 다른 방안이 이른 시일내에 도출돼야 한다. 남북은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회소설치를 비롯한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등을 협의해 왔다. 이중 남측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면회소 설치 문제도 장소 문제만 남아있을 뿐 설치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별다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4월3일 적십자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3차 교환방문 첫날인 26일 북측 조선적십자 장재언위원장이 "출어진 가족·친척들의 서신교환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조만간 면회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북측이 면회소설치에 대해 이미 내부결론을 내렸음을 짐작케 한다.

북측은 지난 1월10일 이산가족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주장한데 이어 바로 다음날 3차 이산가족 상봉일정 협의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하는 등 옅들어 이산가족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측이 이처럼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상반기로 예정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 앞서 남측사회에 우호적인 대북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산가족 문제의 비중이 미미한 북측사회와 달리 남측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갖는 중차대성을 3차례의 상봉과정에서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남북화해를 위한 '정서적 인프라'의 구축을 뜻하는 이산문제 해결을 외면한 채로는 여타 남북간 화해일정을 진척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북측은 이런 측면에서 이번 3차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 같다. 북측 이산가족과 수행원의 태도도 부드러워졌고 행사진행에 시비를 거는 일없이 일사천리로 일정을 진행시켰다. 특히 남측이 꾸준히 요구해온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북측이 '북한식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호응해온 점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김경락 조선적십자회담중앙위 상무위원이 서영훈한적총재를 만나 비전향장기수 북송문제를 언급했고 3차 이산가족이 부쩍 체제찬양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은 북측이 아직도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문제로만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서의동·김석기자>

# 문화일보

2001. 2. 28 (수)



**다시 기억되는 이별** 제3차 남북이산가족 교환 방문을 마친 북측방문단 강희중씨가 27일 오전 서울 잠실롯데호텔로 발도  
트에서 남북 조카와 눈물을 닦아주며 작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國民日報

2001. 2. 28 (수)



**"다시뵙수 있을까..."** 남북 이산가족 상회 일정을 끝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최경선씨가 고향 오산 김포공항으로 떠나기 앞서 서울  
잠실 롯데호텔로 발도트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감싸며 오래 사시라며 이별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내외경제

2001. 2. 28 (수)



**"오마니, 오래오래 사세요"** 북측의 아들 이강술 씨(70)가 28일  
243일 간의 남북이산가족 교환 방  
문일정을 마치고 숙소인 서울 롯데호텔로 발을 떠나기 전 어머니 송오례 씨  
(90·전북 전주)의 얼굴을 부여잡고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관련기사 27면 [사진공동취재단]

# 경향신문

2001. 3. 1 (목)

## 남북 이산방문단 귀환

남북한 3차 이산가족방문은 28일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만남의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반세기 만의 상봉으로 감동과 희한 속에 밤을 뜯어내 눈으로 지낸 이산가족들은 이날 숙소인 서울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30여분간 환송 상봉한 뒤 서울과 평양으로 귀환했다.

/관련기사 22면

이번에 평양을 방문해 남북했던 대한항공 승무원 탑승 만나고 돌아온 이

후덕씨(77·여·서울 노원구)는 "딸은 같은 승무원이었던 정경숙씨와는 왕래가 없지만 기장 등 다른 승무원들과는 소식만 들었을 뿐 연락은 없다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이씨는 또 당시 함께 남북된 승객들에 대해서는 "경희가 '소식은 잘 모르겠다'면서 여기(북한을 지칭)에 왔으니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투로 말했다"고 밝혔다.

최재영·이호승기자

cyjyoung@kyunghyang.com

# 東亞日報

2001. 3. 1 (목)

## 3차 이산방문단 귀환

제3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단이 2박3일간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한 채 28일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귀환했다. <25·26면에 관련기사>

북한적십자회 김경락(金京落)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북측 방문단은 오전 10시 아시아나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해 평양으로 돌아갔으며, 장정자(張貞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비롯한 남측 방문단은 낮 12시경 같은 비행기로 순안공항을 이륙, 서울로 돌아왔다.

<하태원기자>

scoop@donga.com

# 朝鮮日報

2001. 3. 1 (목)

## 3차 남북 이산 상봉단 귀환

3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 방문단이 28일, 2박3일간의 짧은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각 서울과 평양으로 귀환했다.

▶관련기사 30면

김경락(金京落)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북측 방문단 140명은 이날 오전 아시아나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해 평양으로 돌아갔으며, 장정자(張貞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인솔한 남측 방문단 151명은 같은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남·북한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전 귀환에 앞서 각기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 로비와 서울 잠실롯데호텔 앞 도로에서 30여분간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상봉을 한 뒤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1969년 남북된 대한항공 여승무원 심경희(55)씨의 어머니 이후덕(77)씨는 "너를 두고 어떻게 가냐"며 딸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平壤=공동취재단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 중앙일보

2001. 3. 1 (목)

## 이산상봉단 귀환

서울·평양에서 헤어졌던 가족과 만난 남북한 각 1백명의 이산가족들이 사흘간의 상봉일정을 마치고 28일 귀환했다. <관계기사 26, 27면>

장정자(張貞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측의 3차 이산가족 방문단 1백51명(진행요원·취재진 포함)은 아시아나항공 특별기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오후 1시 40분 서울로 돌아왔다.

이에 앞서 김경락(金京落) 북한적십자회 상무위원이 단장인 북측 1백40명은 오전 10시쯤 아시아나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남북 이산가족은 50여년 만에 만난 감흥과 기약없는 이별 때문인지 27일 밤을 뜯어내 지새운 뒤 숙소인 잠실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30여분간 작별 상봉을 하고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고 다짐했다.

이영중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 世界日報

2001. 3. 1 (목)

## 이산방문단 각각 南北 귀환

남북 이산가족들은 2박3일간의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귀환했다.

그러나 남북은 오는 15일 이산가족 300명씩 서신을 교환한 후 이산가족 일정에 대해 합의한 것이 없어 4차 상봉 등이 불투명하다. 남북은 3월중 5차 장관급회담과 4월초 4차 적십자회담에서 면회소 설치와 생사확인·서신교환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대해 새롭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관련기사 27면)

김경락(金京落)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북

측방문단 140명은 오전 10시 아시아나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평양으로 돌아갔다. 장정자(張貞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인솔한 남측방문단 151명은 오후 1시48분쯤 같은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다.

마지막 밤을 뜯어내 눈으로 지낸 이산가족들은 이날 귀환에 앞서 숙소인 잠실 롯데호텔과 평양 고려호텔 현관에서 30여분간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상봉을 갖고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다짐했지만 북발치는 슬픔에 일순 울음바다로 변했다.

/윤상현기자 shyyoon@sgt.co.kr

# 한겨레

2001. 3. 1 (목)



또 긴 헤어집 제3차 남북이산가족상봉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북쪽 방문단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앞에서 마지막 상봉을 마치고 버스에 오르는 북쪽 이산가족이 차창 사이로 손을 내밀어 남쪽 가족의 손을 잡고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언제 다시 만날까” 기약없는 생이별

### 3차 이산상봉단 귀환

“너를 두고 어떻게 가나. 나 못가겠다. 못가겠어...” “꼭 가야해?” “건강해. 건강해야 또 만나지.”

“나 200년까지 살린다.” “통일돼서 다시 만날 때까지 나 집대로 안죽을 거야.”

반세기 기다린 뒤의 만남은 너무도 짧았다. 3차 교환방문 마지막 날인 28일 아침 서울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 앞마당은 서로 부둥켜안은 채 헤어지지 않으려는 남북 이산가족의 몸부림으로 충만했다. 평양 방문단의 변승우(69)씨는 “만남의 기쁨보다 헤어짐의 아픔이 너무 크다”며 먼 하늘만 올려다봤다.

가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향의 봄>과 <우리의 소원>을 부르며 흐느꼈다. 그러곤 서로의 주소와 생일, 부모님 기일 따위를 꼼꼼히 챙겼다.

이날 남북의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은 사흘간의 임정을 모두 마치고 아시아나 전세기편으로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귀환했다. ▶ 관련기사 18면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및 면회소 조기 설치, 상봉 정례화 등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4월 업업 4차 적십자회담에서 적어도 4차 상봉 일정 등에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politics@hani.co.kr, 서울/특별취재단 society@hani.co.kr

# 매일경제

2001. 3. 1 (목)



언제 또 보나... 2박3일 긴 가족 상봉을 마친 북쪽 방문단 강희중 씨가 28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앞 도로에서 남쪽 조카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 “통일의 그날까지 꼭 살아계세요”

## 짧은 만남 또 이별

3차 상봉단 귀환

꿈같은 2박3일의 상봉을 마친 3차 이산가족 방문단은 반세기 만에 만난 혈육들을 다시 위로한 채 평양과 서울로 각각 떠났다. 보내는 이나 떠나는 이 모두 기막은 이별에 눈물을 쏟았다.

### 남누이 버스잡고 오열하다 출발후 실신 北방문 치매아버지 뒤늦게 아들 알아봐

○...중풍에 걸려 몸을 가눌 수 없는 김향구씨(80)는 이날 새벽 북으로 떠나야 하는 동생 서구씨(69)를 만나려고 119구급대 차량을 타고 숙소인 롯데월드호텔에 도착했다. 향구씨가 “너를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자 동생 서구씨는 “종일의 그날 다시 만날 수 있게 건강하세요”라며 부둥켜 안았다.

정지용 사인의 아들 구인씨(68)는 남측의 형 구관씨(72)의 손을 붙잡고 “내년에 연변에서 열리는 ‘자유제’에 꼭 참가하고 싶다”며 “내가 갈 수 있도록 공식초청 해달라”고 신신 당부했다. 또 구인씨가 구관씨에게 “형,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야”라고 말하자 구관씨는 “아, 인마, 난 이제 너 다시는 못 봐”라며 울부짖었다.

○...북측 방문단의 최경석씨(67) 조카들은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인내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다 또 만나지요”라는 3m 크기의 대형 킷카드를 흔들며 “경석 삼촌”을 독어터져라 외쳤다. 경석씨의 노모 도기

술씨(84)는 버스에 올라탄 아들들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며 “경석아, 잘다와~”라고 말했다. 끝내 눈물을 흘렸다.

북의 오빠 최복래씨(68)가 타고간 버스를 붙잡고 오열하던 남측 누이동생 옥순씨(62)는 오빠를 실은 버스가 출발하자 눈물을 흘렸다.

○...아들들을 만나려고 평양을 방문했으나 치매 증상과 북측 방문의 흥분이 겹쳐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손사정씨(90)가 귀국을 앞두고 극적으로 정신을 회복했다.

이남 숙소인 고려호텔로 돌아온 손씨는 아들 왕복씨(55)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취재진에게 “여가 내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등 뒤늦게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 왕복씨도 “오빠여야 나를 알아보셨다”며 기뻐했다.

○...중국 출장을 갔다는 아들 김수남씨(59·기계공작사)와 함께 상봉하지 못하고 평양을 떠나게 된 김유감씨(76·여)는 환송 상봉에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28일 북측이산가족 방문단이 탄 김포공항행 버스가 떠나려하자 남측 가족들이 손을 흔들며 작별인사를 한다.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 눈물의 이별

남북편 딸 성경희씨(53)를 만난 이후덕씨(77·여)는 “너를 두고 어떻게 가노니”며 딸을 부여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쓰디듬으며 귀뚨를 나누기도 했다. 이씨는 “오랜만에 만나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딸이 수다쟁이가 됐다”며 직말을 아끼워했다. 두근포로 출신의 형 손원호씨(73)를 만난 남측의 준호씨(67)는 형의 손을 꼭 잡은 채 차분히 자신과 남의 가족이 살다운 얘기를 전해주는 것으로 이별의 아픔을 달랬다. 준호씨는 탁자 위에 손으로 이틀까지 새겨져 형에게 자신을 꼭 기억하라고 부탁했다.

○...서울로 떠나기에 앞서 나병오씨(72·여)는 남동생에게 모자랜 선



북측 방문단의 최경석씨가 28일 김포 공항행 버스에 오르기 위해 어머니의 손을 부여안고 있다.

물하며 브레이크가 망가서 즉석 사견을 꺼내 동생들에게 한장씩 나눠줬다. 이은삼씨(61·도 동생 5명과 정유미·김형기·임영주기자 일일이 기념사진을 찍고 기념촬영



오래 오래 사세요 마지막 석별상봉이 이루어진 28일 서울 롯데월드호텔 로비에서 휠체어에 몸을 싣은 송오래 할머니가 북외 아들 이강술씨로부터 큰 줄을 받고 있다. ●시진공동취재단

#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 3차 이산상봉

### 서울·평양 작별 이모저모

또 기약없는 생이별이다. 반세기 만에 그리던 협육을 만나 사흘간의 짧은 만남을 가진 남북 이산가족들은 28일 다시 북으로, 남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산가족들은 귀환에 앞서 숙소인 서울 잠실롯데호텔과 평양 고려호텔 현관에

서 각각 30여분간 마지막 작별 상봉을 갖고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다짐했다. 이별의 슬픔을 재회의 약속으로 이겨 보려고 애를 썼지만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는 없었다.

●서울 북에서 내리온 아들 조기운씨(67)는 어머니 김매월씨(86)에게 “오래 오래 사세요”라고 이별을 고하자 노모는 “나 200살까지 살란다”며 이들을 부둥켜 안았다.

작곡가인 정두명씨(67)는 “북에

올라가면 이산가족 상봉을 다룬 통일 주제가와 어머니를 소재로 한 노래를 만들겠다”면서 “꼭 가야 하느냐”고 율머이는 노모 김인순씨(80)를 달랬다. 오빠 최복래씨(68)를 떠나 보낸 여동생 복순씨(62)는 버스가 출발하자 심신했다.

이날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강항구씨(80)는 북으로 향하는 동생

못하고 평양을 떠나게 된 김유갑씨(76·여)는 작별하러 나온 두 딸의 위로할 받았다. 김씨는 “아들을 못봐 너무나 서운했지만 이제 마음이 진정된다”며 딸들과 밝은 모습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아들에게 주려고 서울에서 산 겨울 점퍼를 큰딸에게 입혀주며 건강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조씨(65)와 손준호씨(67)도 이날 국군포로 출신인 형 김재덕(90)·손원호씨(75)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 재덕씨는

동생 재조씨에게 “내가 너보다 더 건 강하다. 내가 한 말 꼭 잊지 말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기천씨(76)는 50년 만에 만난 아내 립보미씨(71)와 두 딸에게 주소를 써주며 “꼭 연락하라”고 신신 당부. 북의 가족들도 “이제 편지 교환이 된다”는 안내원의 말에 아버지에게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평양 공동취재단·전영우기자  
anselmus@kdaily.com

## “정말로 가야 하느냐” 통곡·실신 주소 건네며 “연락하라” 눈시울

서구씨(70)가 “형님 통일될 때까지 오래 오래 사세요”라고 말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

●평양 이들을 알아보지 못한채 병원에 입원했던 손사정씨(90)는 이날 기억을 회복, “애가 내 아들”이라며 아들 양육씨(55)를 주위에 소개하는 등 뒤늦게나마 상봉의 기쁨을 나눴다.

끝내 아들(김수남)과는 상봉하지

## 시대식구와 ‘덤 상봉’ 행운

### 친자매 만나러온 北사회속씨

### 시동생 수소문 극적으로 만나

친자매를 만나러 남에 온 북측 상봉단의 사회속씨(60)가 예정에도 없던 시대식구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로 밝혀졌다.

서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롯데월드호텔 개별상봉에서 이미 사망한 남편 조남식씨(92년 사망)의 동생 남희씨(66) 등과 감격적인 첫 인사

를 나눴다. 중학교 3학년때인 50년 친구를 따라 월북한 회숙씨는 의용군으로 출로 월북해온 조씨와 61년 결혼, 세 남매를 두었다.

언니 혜석(72), 여동생 정석씨(63) 등 친자매를 만나러 온 회숙씨는 상봉 첫날인 26일 친정 식구들에게 “남편의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 회숙씨가 시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시동생의 이름과 남편의 고향 주소(충북 옥천군 동이면 남죽리)뿐이었지만 수소문 끝에 이날 반

남희씨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남희씨는 형이 죽은 줄 알고 10년 전부터 제사들 지내오다 흑시나 하는 마음에 2차 이산가족 상봉때 신청하기도 했지만 탈락했던 터라 얼굴도 보지 못한 형수와 극적으로 상봉하는 ‘행운’을 잡았다.

“어머니는 형이 행방불명된 뒤 병으로 54년 돌아가시고 아버지(88년 사망)는 형의 사진을 앞에 놓고 울다 북에서 피를 토하기도 했다”는 시동생에게 회숙씨는 남편의 독사진 등을 건넸고 남희씨는 족보 등을 형수에게 전해줬다.

●울원성기자 wshong@kdaily.com



서희숙씨의 북한 가족 사진. 왼쪽 끝이 숨진 남편 조남식씨, 오른쪽 끝이 서희숙씨 본인이다.

친정식구 찾아왔던 北 서희숙씨

뜻밖의 시대상봉

이번 3차 상봉에서 여정에 있었던 1백1번째 상봉이 기적적으로 이뤄졌다.

북측 방문단의 서희숙(69)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롯데월드호텔 개별 상봉장에서 이미 사망한 남편의 동생 조남희(66)씨 등 시댁 식구들과 감격적인 첫 인사를 나눴다.

중학교 3학년이던 1950년 좌의 사상에 빠진 친구를 따라 월북한 희숙씨는 의양군으로 출로 월북해온 조남식(92년 사망)씨와 61년 결혼해 세 남매를 두었다.

언니 혜석(72), 여동생 정석(63)

남출신 남편 이름 들고와

수소문끝 시동생과 만나

"제가 큰형수입니다"

씨 등 친자매를 만나러 온 희숙씨는 상봉 첫날인 지난달 26일 친정 식구들에게 "남한 출신인 남편의 가족들을 찾아줄 수 있느냐"는 말을 꺼냈다.

그러나 희숙씨가 시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시동생 조남희씨의 이름과 남편 조씨의 고향주소(충북 옥진군 동의면 남쪽리)뿐이었다.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은 희숙씨의 부탁은 그러나 극적으로 이뤄졌다.

언니의 막내사위 박연권(38·산상건설 근무)씨가 마친 남편의 고향인 충북 옥진군 동의면 경부고속철도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희숙씨는 이 기막힌 우연을 하늘에 있는 남편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사위 박씨는 연사무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26일 오후 9시쯤 조남희씨의 인락치점 확인해 보았다.

조씨는 흰 남복이 죽은 줄 알고 10년 전부터 재시를 지내 왔다고 한다. 그러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차 이산가족 상봉 때 신청을 했지만 탈락해 헛님 찾기를 포기하고 있었다.

조씨는 연락을 받지마자 뜬 눈으로 밤을 지낸 뒤 27일 오전 4시 집을 나섰다.

상봉 첫날 날 힘수에게 줄 선불은 미처 준비하지 못해 집에 있던 새 내의 원본과 복사, 가족 사진첩을 가지고 상봉장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 희숙씨는 40년 전 결혼한 남편의 동생을 만났다.

모두 10시간밖에 안돼 자신들의 회포를 푸는 데도 부족했지만 희숙씨의 친정식구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상봉장 출입카드를 조남희씨에게 빌려줬다.

"어머니는 힘이 행방불명된 뒤 화병으로 54년 돌아가시고 아버지(88년 사망)는 형의 사진을 앞에 놓고 울다 목에서 피를 흘리기도 했지요."

시동생이 전해준 시부모 소식에 머느리는 눈물을 쏟았다. "형님은 북에서 성공한 학자였다"는 형수의 말에 조씨는 "중년에서 신중 소리를 들은 권익이었다"며 베풀어 웃었다.

희숙씨는 남편의 독사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집 조씨에게 주었다. 조씨는 족보와 형의 어렵 적 사진집을 "큰집에서 갖고 계셔야죠"하며 힘수에게 주었다.

손민호 기자

<phiveson@joongang.co.kr>



인터뷰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경의선 복원전이라도 면회소 추진"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8일 100명씩인 이산가족 방문단을 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횡수도 늘리는 방안을 4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총재는 이날 3차 이산가족 방문행사를 마친 뒤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대한매일과 인터뷰를 갖고 "경의선이 완성되면 철원 등 주변지역에 면회소 여러 곳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국이 추진중인 경의선 남북 중금지점 면회소 설치. 경의선 복원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복원 전이라도 설치할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9-10월경 경의선이 완성되면 북측도 경의선 지역의 면회소 설치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상봉은 계속 가능할까.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 간주해 교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면회소를 통해서도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적십자는 이들을 국군포로, 납북자란 의미보다 이산가족이란 차원에서 접



근하고 있다.

●면회소 장소에 대해 남북한 간 이견이 있는데, 북측이 관문점은 곤란하다며 거부 의사 표하고 있다. 경의선 복원 이전의 임시 면회소란 집을 들어 북측을 실행하고 있다.

●다음 방문단 교환은, 5월 중순 이후나 6월중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3일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하겠지만 방문단 규모를 늘리고 횡수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규모는 최소 2배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방문단이 혈육의 기쁨을 방문하거나 함께 갈 수 있게 되니, 신변안전 문제와 시간 제약 때문에 당장 실현은 어렵다. 집권직은 그런 방향으로 나기도 하 노력하고 있다.

●오는 15일 첫 서신교환을 하는데, 새로 생시할 확인한 이산가족과 이미 상봉을 마친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면회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지는 것이다. 모든 이산가족들에 대한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을 심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석우기자

오늘의 논

차분하고 성숙해진 이산가족 만남



전영우 사회평론가

"나의 실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싹꾸욱 이기 잔달래..." 이번 제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고향의 봄'이 '단골메뉴'인 '우리의 소원'을 압도, 최고의 '히트곡'으로 자리잡았다.

바뀐 것은 노래뿐이 아니다. 짙은 교류 탓인 지 상봉행사도 한층 차분하고 성숙해졌다. 북측 방문단의 태도는 1-2차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속조예 비치한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던 2차 때와 달리 밤마다 준비된 백세주와 소주 1병씩을 거의 비웠다. 식사 때도 종업원들에게 "음식이 맛있다"는 등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남측 가족들은 간혹 "중군남..."으로 시작되는 찬양성 발언에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건강한 것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북측의 피땀을 감싸 안았다.

한 북측 방문단이 남측 가족에게 김연성 주석의 사진을 보여주려 해 남·북 진행요인 간에 실랑이와 폭언이 오가기도 했지만 행사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지난 2차 방문 때는 숙소인 롯데월드호텔에서 접어

서 15분 거리에 있는 롯데월드 민속관까지 '걸어가느냐' '버스도 이동하느냐'를 놓고 남·북 관계자들이 1시간 이상 입씨름을 벌여 행사가 지연된 적도 있었다. 한직 관계자는 "사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했고, 자주 만나다 보니 이견도 적어졌다"고 전했다.

평양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지난 60년 납북된 대한항공기 여승무원 성경회씨가 어머니 이후덕씨를 만나고, 국군포로 출신 손원호씨가 남측의 동생 준호씨를 만나는 등 2차 상봉에 이어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의 상봉도 이뤄졌다. 그리고 북측 언론이 오히려 이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

앞부에서는 북측의 변화에 대해 "깜짝쇼다. 체제전전용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이나 국군포로 출신들이 남측의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히 남북관계에서 한걸음 전진을 이룬 것이다. 북측조선 적십자회와 장애인 위원장은 면회소도 곧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온 지 불과 8개월 남짓만의 일이다.

3차 이산상봉 행사는 남과 북 사이에 믿음의 싹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중간에 장애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꽃샘추위'가 '한반도의 봄'을 막을 수는 없다.

●ansemul@daily.com

# “꼭 가야 하나” 눈물만

## 3차 이산상봉 마지막날

2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은 협곡과 다시 헤어져야 하는 이산가족들의 눈물로 얼룩졌다. 가족들은 “꼭 다시 만나지”며 재회의 꿈을 간직했다.

○북측 방문단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서울 롯데호텔을 떠났다. 호텔 앞길 1백여m에 줄지어 선 이산가족 1천여명은 ‘고향의 봄’을 부르며 환송했으며 버스 출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중풍 때문에 간이집대에 실려나온 강장구(78)씨는 북의 동생 서구(70)씨의 작별인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채 동생이 탄 버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북에서 온 오빠(68)를 배웅하러 온 최복순(62)씨는 출발하려 하자 버스를 붙잡고 오열하다 끝내 실신, 구급차로 옮겨졌다.

○김수조(69)피바다가극단 출연장 등 북측 방문단원들은 호텔 직원과 취재진에게 “꼭 다시 만나다”고 인사했다. 북의 작곡가 정두명(67)씨는 “꼭 가야 하나”고 울먹이는 어머니

김인순(89)씨를 “북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제로 한 통일 주제가와 어머니를 소재로 한 노래를 만들겠다”며 답했다.

○남측 방문단도 오전 9시30분 출발에 앞서 고려호텔 로비에 산산오오 모여 사진과 선물 등을 교환하며 이별의 아쉬움을 내뿜었다. 끝내 아들과 상봉하지 못한 김유감(76)할머니는 두 밤에게 “아들을 못 봐 너무도 서운했지만 이제 마음이 진정된다”며 밝은 표정이었다.

○남측 이산가족 상방단은 28일 오후 1시50분쯤 아시아나항공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1969년 납북된 대한항공 승무원 성경희(55)씨를 만나고 온 어머니 이후덕(77)씨는 딸과 함께 납북됐던 정경숙(56)씨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현재 국립도서관에서 근무하는 鄭씨가李女士 모녀 상봉사실을 알고는 “나도 어머니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鄭씨 어머니는 이미 무단 전 사망했다. 鄭씨는 그러나 피랍 항공기 승객 7명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전진배·손민호·홍주연 기자 <allonsy@joongang.co.kr>

## 3차 상봉 특징은

### 이전 비해 분위기 침착 돌발상황 대처도 유연

3차 이산가족 상봉은 1, 2차에 비해 전체적으로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는 성숙된 모습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측 상방단이 체제를 선전하려는 움직임은 더러 있었지만 남측 가족들의 습기로운 대처 덕분에 상봉 분위기를 깨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심지어 북에서 온 정두명(67)씨가

“어머니가 살아계시디니까 김정일 위원장께서 하시하셨다”며 어머니 김인순(89)씨 앞에 비단 헌물을 내놓았다. 그러자 어머니 등 남측 가족들은 “고마운 위원장님이시구나”며 바로 말을 받아주는 등 소중한 시간을 좋은 분위기로 이끌었다.

납북한 행사 관계자들을 또한 예전과 다르게 유연히 대처하는 모습이었다.

지난달 27일 오전 평양의 개별상봉장에 들어선 남측 공동취재단이 행사요원의 착오로 지정된 색과 다른 비포탈 차고 있었으나 북측은 심하게 제지하지 않았다. 손민호 기자 <plovesson@joongang.co.kr>

# 국군포로등 해결 실마리 '1회성 행사' 한계는 여전

## 3차 이산상봉 결산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1회성 행사'라는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국군포로의 상봉은 2차 교환방문에서는 비공개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북측이 중앙TV 뉴스를 통해 이튿 날 보도함으로써 공개됐다.

## 北체제선전 대응 필요

북측은 이들을 '의거입북자'라고 부르면서 상봉의 의미를 평가절하했으나 어쨌든 북측이 남측이 제시한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상봉 해법에 호응해 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은 '냉전의 희생물'로 다른 이산가족들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마다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도 북측 가족들의 체제선전이 눈에 띄었다. 서울에서 북측 가족을 만난 최경석씨(66)는 “김일성 장군의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주겠다”고 사진을 꺼내다가 남측 진행요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28일 평양으로 귀환한 한 북측 이산가족은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님께”라고 쓰여진 꽃바구니를 남측가족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해 한적과 관계당국을 ‘긴장’ 시키기도 했다.

물론 대부분의 남측 가족들은 북측 가족의 판에 박힌 체제선전에 의연히 대처하면서 오히려 더 따뜻하게 북측 가족을 감싸안아 이념보다 더 진한 민족의 정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체제선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적당한 선에서 그것을 끊어주는 것이 오히려 북측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다.

또 체제선전과 같은 부작용과 '1회성 행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면회소 설치가 급실한 과제임이 다시 확인됐다.

이번 상봉은 일부 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양적인 변화도 있었다.

## 면회소상설 서둘러야

북측 이산가족 100명은 서울에서 750여명의 가족과 만났고 남측 이산가족 100명은 평양에서 가족과 친척 243명을 만났다. 교환방문이 한번 이뤄질 때마다 상봉가족이 1000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1~3차 교환방문을 통해 상봉한 이산가족 연인원은 3000여명에 이른다. 또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사람은 6000여명에 달한다. 물론 76만7000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이산가족(2, 3세대 포함) 수에 비하면 아직 크게 부족하지만 교환방문의 지속이 그나마 이산의 한(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딸도 남북승객소식 모르더라”

### ■ 남측 방문단 귀환표정

‘짧은 만남, 긴 이별’에 상봉가족들은 또 눈물을 쏟았다.

### “남북당시 평양인줄 몰라”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사건 때 헤어진 딸 성경희(成敬姬·55)씨를 만났던 이후덕(李後德·77·여)씨는 28일 낮 김포공항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감격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딸과의 만남을 소상히 털어 놓았다.

이씨의 전언에 따르면 딸은 남북당시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도 평양인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고, 처음 출발한 강릉으로 알았다는 것.

이씨는 특히 “딸이 미귀환 승객 7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번에 평양으로 떠나기 전 모 언론사 기자가 그들의 이름을 적어주며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해 딸에게 물어보았지만, 딸은 “처음 듣는 이름들”이라며 “어쨌든 여기오면 모두 잘 지내니 걱정마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딸은 함께 납북된 여승무원 정경숙(鄭敬淑·55)씨와는 자녀들이 ‘이모’라고 부르고, 이번에 갖고간 생일 케이크도 “경숙이와 나눠 먹겠다”며 싸가는 등 가깝게 잘 지내고 있다고 이씨는 전했다.

### “아들 못만나恨 더커져”

○… “남들은 한(恨)을 풀었지만, 나는 더 키워왔어.”

평양까지 가서도 아들 김수남(59)씨를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김유감(77·여·경기 광명시)씨는 “중국



32년전 납북된 딸 성경희씨를 만나고 28일 돌아온 이후덕 할머니가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김포공항을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사진공동취재단

출장갔다면 손자나 며느리라도 나왔어야지. 어떻게 마련한 자리였는데”라며 “평양에서 우리 대표단을 통해 ‘목소리라도 듣게 해달라’며 전화통화를 요청했지만 그마저 허용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마중나온 여동생이 “50년 만에 새끼 찾으러 갔다가 못 만났으면 거기서 죽어야지, 왜 내려왔느냐”며 부둥켜 안자,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왈칵 터뜨렸다.

방문 기간에 두 딸을 만나 “오빠 어디다 감추고 너희들만 왔냐”고 힐책하기도 했던 김씨는 “이제 어디 가서 소원을 이루겠냐”며 맥없는 발걸음으로 공항을 떠났다. 김 할머니는 자식들을 낳고 흠로 낚아한 죄책감에 50년간 수절했었다.

### 국군포로 동생 입다물어

○…국군포로 형제에게 분단의 벽

은 누구보다 높았다. 남의 동생들은 국군 출신이라는 명예를 쓰고 살아 가야 하는 북의 형들을 생각해 굳게 입을 닫았다.

28일 오후2시 국군포로인 형 김재덕(金在德·69)씨를 만나고 밝은 표정으로 김포공항에 내려 선 재조(在祚·65)씨는 다른 국군포로 소식 등을 묻는 질문에 줄곧 고개를 내저었다. 김씨는 “다른 포로들은 고사하고 형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얘기 안 나왔어. 안내원 없이 형님과 단 둘이 한 시간도 얼마 안돼”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역시 국군포로 출신의 형 손원호(75)씨를 만나고 돌아온 준호(67)씨도 “세월이 말하지, 내가 바란다고 되겠느냐”고 에둘러 답변한 뒤 종종히 공항청사를 떠났다.

/김 훈기자 hoony@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 남북자 이어 국군포로 가족 만남 큰 의미

### ■이산가족 3차상봉 결산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운영은 3차 교환으로 사실상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28일 2차 3일간의 일정을 마친 이번 만남은 지난 1·2차 때에 비해 자발한 분위기 속에서 부난히 치러졌다는 평이다. 남북자가 이어 국군포로 가족상봉도 이뤄졌고 북측은 이틀 TV에 보도, 사실

및 서신교환도 이산가족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선 함께 진행돼 나가야 할 분야다. 남북한 당국도 원칙적으로 면회소 설치에 합의한 상태다. 지난 1월 3차 직접자회담에서 남북은 "면회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오는 4월3일 열리는 4차 회담에서 협의·확정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와 두고 줄다리기가 남측은 올 9·10월경 복원되는 경의선 중간지점에 합

### 북한측 TV보도·포로 실제 처음 인정 '소득' 많은 이산가족 만나게 면회소 설치 서둘러야

상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해결 희망을 던져주기도 했다.

그동안 방문단 교환은 단절됐던 이산가족 교류의 실마리를 푸는 역할을 했다. 생사주소확인 등으로 이어졌고 시범적인 서신교환 합의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상봉이 상징성과 일회성적인 '이벤트'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풀어줄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할 때란 지적이 많다. 제한된 수의 방문단 교환은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데 이견은 없다. 지난 2월3일동안 서울·평양에선 100명씩의 이산가족이 각각 750명과 243명의 얼굴을 만났을 뿐이다. 시간도 50년을 기다려 겨우 10시간, 8시간밖에 없었다.

실질적인 해법은 면회소 설치, 생사주소확인

구적인 면회소를 설치하지는 않겠. 그 전에 판문점과 금강산에 임시 면회소를 세우자는 것이다. 반면 북측은 금강산에 항구적인 면회소를 운영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오는 4월3일부터 열리는 4차 직접자회담에선 면회소문제가 주 의제다. 면회소 문제는 향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열쇠인 셈이다. 서신교환은 오는 15일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교환을 앞두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언도적인 시안이지만 북한 정치체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미묘하다. 북측에선 남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주요 협상 수단이란 측면도 있다. 전체적인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진전과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

이석우기자 swlee@kcdaily.com



### 안타까운 이별

243일간의 짧은 만남을 가슴에 품고 이산가족은 28일 다시 기차없이 남과 북으로 헤어졌다. 북측 김원중씨가 버스 창문을 열어 남북 가족의 손을 잡는가 하면 (왼쪽) 남측 임원남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아쉬움을 달라고 있다.

●서울·평양 시간경통취재단



### ■독일은 離散 어떻게 풀었나

40여년간 분단을 경험했던 독일도 동서독 시절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지난 51년 만에 3차례 방문단을 교환했을 뿐인 남북한과는 처음부터 크게 달랐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로웠고 제도적으로 상봉이나 왕래를 보장했다.

2차대전 직후부터 제한적이거나 동시다발이었다. 우리처럼 동족간 전쟁을 겪지 않은 터라 비교적 자유로웠다. 53년 11월 점령지역간 여권제도를 폐지하면 서법적으로는 자유 여행도 가능했다.

그러나 동독 정부가 각종 제한을 가해 동독에 부모나 형제가 있는 서독인에 한해 '1년 1회 방문, 최장 4주간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61년 동독이 동독인의 발길을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면서 이마저도 끊겼다.

이산가족 교류에 위기를 느낀 서독 정부는 63년 종교단체를 앞세워 동족측 불프강 포켓 변호사와 이산가족 재결합과 정지법 서독 이후 협상을 추진했다. 이산가족 이주할 아예 합법화하지는 취지였다.

서독 정부는 이산가족 재회할 위해 63년부터 77년까지 1인당 4만~9만마르크

씩의 현금이나 현물을 동독 정부에 지불했다. 64년부터는 대규모 물지도 지원했다.

66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분단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이산가족 결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가속도가 붙었다.

서독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49년 분단 이후 90년 통일 때까지 동독 정지법과 가족을 포함, 25만명의 이산가족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서독 정부의 노력은 72년 동서독이 이산가족 방문과 일반인 여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통행 조약'을 맺으면서 최대의 결실을 봤다. 이 조약에 따라 이전까지 영구대상자에 한해 허용하던 서독 친척 방문을 모든 이산가족으로 확대했다. 관혼상제와 위독한 병문안의 경우 즉각 서독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산가족 문제가 거의 해결된 셈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산가족 교류가 분단 초기인 동서독 냉전기(1949~1965년) 말기에 시작돼 우여곡절을 거쳐 30년 세월 끝에 통일을 이뤄내는 기초가 됐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홍성기기자 mem01@kcdaily.com

### ■ 전문가 제언

#### 비행기보다 기차 이용한 이동 바람직



박종화  
대통령 통일고문

지금까지 새차례 치러진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산가족들이 남과 북을 오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산가족들이 서울과 평양이 아닌 제3의 지역에서 만나는 것이 다. 판문점, 금강산 또는 남과 북이 합의한 장소에 '면회소'를 설치, 이산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신 교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송송문제도 재고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이용된 비행기보다는 기차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이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경의선을 활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경의선을 서울과 평양을 잇는 수단뿐 아니라 경의선에 있는 기차역을 '면회소'로 이용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이제 경의선에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50년간 떨어져 살아온 민족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상봉가족·회수 늘리고 정례화 해야



이종석  
세종대 연구위원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개최됐다. 50년간 남과 북으로 헤어져 살아온 가족들의 만남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회수가 좀 더 높아야 하고 정례화돼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생사확인문제, 서신교환문제, 가족간 금전지원 등 더 광범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남북지와 국군포로 문제도 이산

가족 뿐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 남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과 떨어져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 수준이나 북한의 주장으로 볼 때 명분상 지중하는 기싸움보다 심요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남북 경의와 전향 여부등 따지기 전에 먼저 가족들이 서로 만날 권리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이념 바탕으로 한 신뢰구축과 안보상 안전이 필수과제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진공동취재단

작별의 입맞춤

28일 오전 서울 롯데월드호텔 앞에서 이산가족 서울방문단의 최경석씨(66)가 평양으로 떠나기에 앞서 어머니 모기술씨(84)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있다.

교수... 의사... 北중상류층이 다녀갔다

“방 3개” “김일성大 재학” 자부심  
“장군님 은혜로 잘 살고있다” 강조

이번 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북측 방문단은 북한 중상류사회의 생활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1, 2차 방문단에 워낙 유명한 인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3차 방문단의 명단은 평범해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북한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중상류층이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남측 가족들은 “북에서 온 가족들이 한결같이 ‘장군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도 잘사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다.

가족들의 입을 통해 알려진 이들의 직업은 고급공무원 군인 교수 발명가 노동당중앙위원 예술가 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이중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 출신인 이상무씨(69)는 자강도청에서 국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고 전직 군인인 감서구씨(70)는 계급

이 상좌(중령과 대령 사이)였다.

집단지조 연출자 김수조씨(69)나 취주의 대가로 공훈 예술가 김호를 얻은 정두명씨(67)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인사이고 원산 경제대학 교수 조원영씨(68), 발명가로 ‘노력 영웅’ 칭호를 받은 전영수씨(79) 등도 방문단 일원이었다.

방문단을 통해 북한 상류층의 생활상 단면도 엿볼 수 있었다. 상당수가 “우리 자녀도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잘살고 있다” “손자 중 아무개가 대학을 다닌 정도로 똑똑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에 대한 이들의 자부심은 대단해서 가족 중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으면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화제에 올랐다. 저녁 5남매 중 3명을 김일성대에 보냈다는 이상무씨는 남측 가족들에게 이를 칭이 마를 정도로 자랑했다고 한다. 또 이씨는 “평양에서 방 3개짜리 집에 사는데, 집세가 담배 1갑 가격밖에 안된 정도로 사회복지가 잘 돼있다”고 북한 사회를 소개하기도 했다.

〈진 창·이완배기자〉  
jeon@donga.com



이상무씨



감서구씨



김수조씨



정두명씨



조원영씨



진영수씨



언제 또 만날지...

제3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을 마친 북측 방문단이 28일 오전 롯데월드 호텔을 떠나며 버스 안에서 남측의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산상봉 600명뿐... 남은 10만명은 언제...

# 면회소 빨리 만들자

■ 상봉 사실상 끝... 다시 기억없는 기다림

남북 이산가족 3차상봉 이후에 대한 남북단국의 협의가 없어 현재로서는 당분간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이뤄지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과 전문가들은 남북단국이 조속히 면회소를 설치하고 상봉을 장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1, 2차 상봉에서 문제가 된 고비용 '이벤트형' 행사를 지양하고 체제전환 동성치상을 배제해야만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한다.

○상봉 참여와 지급=남북단은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2~3차례의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지난해 3차 남북 최상위회담에서 3월15일 각각 300명씩의 시신교환에만 합의했을 뿐 아직 강대하나 강릉 추가 상봉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이산가족들은 3차 상봉으로 더 이상의 상봉이 없는 것이 아니

나는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다. 북에서 온 동생을 만난 정지용 시인의 이류 구관(72세)은 "면회소 설치 등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나이를 생각하면 죽는 날까지 동생을 다시 못볼 것 같아 참안하기만 하다"고 답했

“제도직장치 조속 마련 50년恨 씻어줘야”

전문가들, 高비용 지양 인도적행사 주문

“김정일장군 운운” 체제찬양도 탈피시급

다. 2차 상봉 때 동생을 만난 이광호(71·서울마포구도회동)씨도 “면회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한 동생을 다시 만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이종석 박사는 “3월 입원 직입사회담에서는 시신교환을 비롯한 상봉 장려 회,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비용과 정치성 지양=이

벤트싱 상봉 행사에 이산가족들이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번 상봉에서 북측 방문단 1명에게 찾아온 남측가족은 평균 15명 정도. 이들이 쓴 숙식비, 각자 준비한 선물, 은밀하게 건넨 담뱃피와 연과 등을 포함해 최소한 300만원 정도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누나를 만난 A(67)씨는 “미화 500달러를 주고 따로 10만엔을 더 줬는데 누나대비용까지 합치면 400만 원 정도 썼다”고 말했다.

북측 이산가족들의 체제선전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입을 열 때마다 “김정일 장군” 운운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일쑤고 정치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역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27일 개발상동장에서 북에서 온 최경석(66)씨가 “김정일 장군의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사진용 꺼내다가 남측 안내요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때 양측 진영요원 사이에 거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천종 이산법기자 sklive@srgt.co.kr

미움이 아렸다”고 말했다.

중호씨는 “형님은 상봉기간중 마음을 잘 하지 않고 눈물만 글썽거리었다”면서 “다리도 흔들려선 안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국군포로의 생존과 현황에 대해서는 “형님과 조카 셋이 모두 탈북해서 일한다”고 말했다며 “형님 손을 잡아야 하는 순간 손이 너무 거칠어

## “광부된 포로출신 형님 안쓰러워”

■ 南동생 손은호씨 눈물

국군포로 출신인 손은호(75·김제대동69)씨를 만나고 돌아온 남측 동생들은 28일 김포공항에서 “형님들이 북에서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손은호씨를 만나고

조카들 모두 탄광서 고생

다른포로군항 모른다더라

은 동생 중호(68)씨는 “형님과 조카 셋이 모두 탄광에서 일한다”고 말했다며 “형님 손을 잡아야 하는 순간 손이 너무 거칠어

## “KAL 남북 승객도 살아있다는 말 들어”

■ 땀 만나고 땀이온 상경씩씨 모친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객들도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1969년 남북된 땀 상경희(55)씨를 평양에서 만나고 28일 오후 돌아온 이후덕(77·서울노원구)씨는 대한항공 승무원-승객들의 근황과 상봉의 감정에 대해 땀씨는 북소리로 전했다. 이씨는 “꿈에 그리던 땀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남북된 땀 상경희씨를 만나고 28일 돌아온 이후덕씨가 김포공항에서 보도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이씨와의 일문일답. -다른 승무원의 근황은. △여승무원 장경숙씨와는 자매처럼 지내며 완래가 찾지만 기장 유병희씨와 부기장 최석민씨, 승객들에 대해서는 잘 살고 있다고만 들었을 뿐 완래가 없다고 했다. 정씨는 어딘지 정확히 모르나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장씨가 땀을 통해 남측 가족에게 전한 말은 없었나. △김숙이가 내 딸에게 “너는 엄마가 찾아와서 좋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가짜간담을 통해서 시계와 약품을 김숙이에게도 나눠주려고 했다.

내 딸 보고와 이젠 죽어도 여한없이 對南방송서 근무한 적 없다고 허더라 정경숙씨와 자주 완래-축하인사 전해

△거기서 일한 적이 없다고 했다.

-땀을 만나고 온 소감은.

△보고 싶은 땀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 땀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아 한시름 덜었다. 무엇보다 사위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땀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김일성종합대학 지리학과 교수와 결혼. 1남1녀를 두고 있다. 땀은 남측의 대외원격인 연구원에서 3년간 한국사학 공부했으며,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손자녀가 남한 친척들의 생일과 기념일, 나이를 다 알고 있어 늘었다.

-헤어질 때 땀과 어떤 대화를 나눴나.

△내 걱정은 절대 하지 말고 잘 사시라고 했다. 남한의 조카들이 적어보내 편지를 많이 읽고 밤새 울었다고 했다.

-시신교환 명단에 포함됐나.

△이번에 찍은 사진을 받아서 보내줄 생각이야.

/김귀수·이강은기자 seuwool0@srgt.co.kr

남측 가족이 전달 꽃다발서 ‘김정일’리본 발견 확인소동

○3차 이산가족 상봉을 마치고 28일 평양으로 돌아간 북측 방문단의 최모(66)씨가 남측 여동생 최모(61)씨에게서 받은 꽃다발에 ‘김세기 내할. 김정일 장군님께’라는 리본이 달려져 있어 행사 관계자들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평양 출발에 앞서 김포공항에 도착한 최씨가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모습이 행사 관계자에게 발견됐으며, 한 일감과 전날 오후 개별 상봉 때 완래의 의미로 전달한 꽃다발에 북측의 최씨가 리본을 단 것으로 밝혀졌다. /윤심향기자 shyoon@srgt.co.kr

“남북승객 生死몰라 딸 北 최고대우 받아”

성경희씨 어머니 일문일답

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단으로 평양을 방문, 69년 남북된 대한항공기 여승무원이었던 딸 성경희씨(55)를 만나 화제를 모은 이후더씨(77·사진)는 28일 오후 1시반 김포공항에 도착해 딸에게서 들은 얘기를 전했다.



-남북 항공기의 승무원 외에 승객들의 생사는 확인하지 않았다.

“알 수가 없었다. 승무원 중 현재 북한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장 유병하씨와 부기장 최석만씨는 평양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했다. 동료 여승무원이었던 정경숙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쪽 가족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정씨는 내 딸과 자매처럼 지내며 평양의 국립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객기가 어떻게 납치됐다고 하던가.  
“딸은 69년 당시 서울인 줄 알고 내렸는데 평양이었고 인민군이 도입한 가운데 착륙했으며 비행 도중 동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딸과 가족들은 북한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북한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름을 바꿨다고 보도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스물여섯살된 손녀 위소인은 김일성종합대 독어독문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외할머니가 신발을 날고 평양에 오는 꿈을 꿨다고 했다. 딸은 납북되기 전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번 만남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고 나름대로 행복해 보여 흐뭇했다. 사위는 73년 김일성대학 도서관에서 딸과 만나 김혼했다는데 매우 뜬금없게 보였다.”

〈정위용·성동기기자〉  
vionz@donga.com

KAL 승무원 성경희씨 어머니 “승객 7명도 잘 살고있다고 들었어요”

69년 대한항공(KAL)기 납북 후 귀환하지 못한 11명 중 생사가 확인되었던 잔류승객 7명의 생존 가능성이 28일 제기됐다. 3차 이산가족 방북단의 일원으로, 당시 승무원이었던 딸 성경희(55)씨를 만나고 이날 돌아온 이후더씨(77·사진)는 기자회견에서 “딸이 ‘승객들이’ 다들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러나 “딸이 ‘승객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또 “(납북 당시) 연포비행장에 내린 때까지 북한 땅인지 몰랐고, 내려보니 인

민군이 늘어서 있었다”는 딸의 말을 전했다. 이 딸은 납북 사건 직후 “두 조종사에 의한 자진입북”이라고 한 북한당국의 발표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씨 일문일답.  
-방북소감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딸은 북에서 무슨 일을 하나?  
“조국통일 연구원에서 일한다고 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원(대학원) 3년 동안 역사학을 공부했다. 남쪽에서도 역사학을 전공했었다.”

-다른 납치자 얘기는 들었나?  
“다들 잘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 정경숙(납북당시 동료 승무원)과는 자매처럼 지내며 애들끼리도 ‘이모’라 부른다고 했다. 기장과 부기장도 잘 살고 있더라.”

-딸이 기장, 부기장과는 만나나?  
“진엔 만났는데 지금은 안 만난다고 했다.”

-딸이 다른 승객들은 만났다고 했나?

“만나지는 못하고 잘산다는 얘지만 전해 들었다고 했다.”

-정경숙도 만났나?

“만나지는 못했다. 딸이 얘기하기를 ‘너는 엄마가 찾아와 좋겠다.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며 부러워했다고 한다.”

-딸이 납치라는 말을 썼나?

“납치라는 말은 하지 않고, ‘서울이 아니더라’라는 말만 했다.”

/崔宰赫기자 jhchoi@chosun.com  
/송윤희기자

roadrunner@chosun.com



평양 이별 상봉 마지막날인 28일 평양 교려호텔 앞에서 어머니 이후덕씨를 태운 방북단 버스가 떠나려 하자 성경희씨가 차창에 손을 댄 채 기약 없는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있다. ●평양 시진공동취재단

# “피랍승객 7명도 잘 산다더라”

## 3차 이산상봉

### 성경희씨 어머니의 전언

“승무원 옷차림을 한 분이 비행기에 따라 타고 온 것만 같아요.”

지난 60년 납북된 대한항공 여승무원 성경희(成敬姬·55)씨의 어머니 이후덕(李後德·77)씨는 28일 오후 여서녀나 다름없는 한국, 김포공항 국제선 1층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차 이산

가족 방문 '정경숙씨도 南가족 기다린다' 들어  
내딸은 김일성대서 공부... 학계 활동

답답하게 밝혔다. 이씨는 “30여년 동안 꿈에 그리던 딸을 만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함께 피랍됐던 승객 7명도 다들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씨에 따르면 성씨는 대한항공 서울발 강릉행 YS-11기 여객기가 연포공항에 내린 뒤에야 북한 군인들을 보고 납북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피랍 직후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원(대학원)에 입학해 역사학 전공, 현재 김일성대 국토통일연구소에서 일하며 북한 곳곳을 탐사하고 강연을 하는 등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지리학 교수인 남편 임영일씨(58)와는 김일성대 재학 때 도서관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다 73년 결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평양에서 사위가 직접 마련해 준 회수(歸壽) 생일상과 깊은 보라색 한복을 받고 외손자의 기타반주에 맞춰 온 가족이 노래를 부르는 등 감동은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다. 이씨는 “손녀 손자를 처음 봤는데도 너무 다정하고 어리서부터 보아온 아이들 같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올해 26세 된 손녀가 어떤 남편감을 맞을지 벌써 궁금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말 성씨가 상봉 전 3일 동안 거의 막가나 자식들 못해 첫날 단체상봉이 끝나고 나서는 실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이씨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딸이 역사를 전공한만큼 남한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가,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마지막 희망을 피력했다.

같이 납북돼 북한에서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는 창덕여고 동창생 정경숙(鄭敬淑)씨가 남쪽 가족 상봉을 손잡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팔에게서 들은 이씨는 서울을 떠날 때 가자간 가정상담 의학봉제트를 “정씨와 나뉘 쓰라”며 성씨에게 건네줬다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 onesk@kcdaily.com

## 3차이산상봉 결산



母子 이별의 입맞춤 제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일정을 마치 고 28일 북으로 돌아가는 최경석씨가 서울 호텔롯데월드 앞에서 어머니 모기숙씨의 얼굴을 감싸며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있다. /시진공동취재단

# 면회소설치 남북합의 실패 국군포로송환 해법 찾아야

## 남은 과제들

제3차 이산가족 상봉(2월26-28일)은 남북간 화해및 교류협력의 폭을 한단계 진전시켰으나 4차 상봉과 면회소 설치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남북합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봉 회수가 거듭될수록 만남은 지연스러워지고 있다. 북측 방문단의 체재선전은 여전했으나 동행은 아주 늦어졌으며 따라서 행동도 비교적 자유스러웠다. 북한은 남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의 상봉도 허용하는 등 '이산가족 범주내 해결'이라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동조해줬다.

이처럼 가족상봉이 순항하고

있으나 앞으로가 문제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일정이 경색된 게 없다. 남북은 장소에 대한 이견으로 면회소 설치할 무무고 있다. 이산상봉 정례회에 대해 북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경락 북측 방문단장은 대한적십자사 시영춘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비전향 장기수 수가 북측'을 요구, 남측 관계자를 긴장시켰다. 남북자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하는 가족 등의 반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측 이산가족이나 남측 모두 시진공환과 면회소 설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안고 돌아갔다는 점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언제 다시보나”--기약없는 이별

## 이모저모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은 28일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마지막 작별상봉을 통해 이별의 이픔을 달았다.

○...강두수(68)씨는 “면회소가 개설된다고 하니 또 만나지”며 남측 가족들과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나눴다. 강씨는 “강성진이라고 아들이 하나있고 딸이 넷이야, 내가 뜻외도 가족들이 할 수 있으니 꼭 만나라”며 남측 가족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반세기 만에 만난 오빠 최백래(68)씨를 북으로 돌려보낸 남의 여동생 북순(62)씨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생이별을 아쉬워했다. 그는 전쟁중에 오빠가 한쪽 눈을 실명했다며 “50년동안 못본 것도 억울한 데 또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오열하다 버스가 출발하자 슬픔을 이기지 못해 실선했다.

○...이후덕(76)할머니는 납북된 대한항공 여승무원이었던 딸 성경희씨와 작별인사를 나누며 “나 못가겠다. 못가겠다”며 울음을 터뜨려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 할머니는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딸이 수다쟁이가 됐다”며 모녀간의 정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서울·평양·공동취재단

## ‘상봉의 눈물’ 이념을 녹이다

### 남북합쳐 3500여명 만나...6천명 넘게 ‘소식’ 들어 서신교환 15일 예정...면회소·생사확인 확대될듯

#### ■ 이산가족 1-3차상봉 결산

이산가족 상봉은 나라 안팎에서 남북 화해협력과 긴장완화의 '상징적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7일 '푸틴 방한 기간에 북한인들 서울에서 힐육상봉'이라는 기사에서 "남북 긴장완화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이산가족 상봉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최근 남북관계의 가장 큰 진전으로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생사확인을 꼽았다.

그 이산가족 상봉이 '기약없는 헤어짐'의 눈물을 흘리며 지난달 28일 끝났다.

◇ 눈물에 녹아내리는 이념-3차 교환방문은 '상봉의 눈물'이 냉전적 적대의식을 녹이는 특효약임을 거듭 확인시켜줬다. '국군포로'·'남북자 가족의 상봉이 특히 그렇다. 지금까지 다섯 가족이 평양에서 품에도 잊지 못한 피붙이를 만났고, 북쪽은 이 사실을 관영매체 보도로 공식 확인했다. 서울에선 50년 맺힌 한을 풀어내는 '월북자' 가족의 상봉이 1·2차에 이어 계속됐다. 제네바 협약으로 상징되는 '경위 철폐, 인도주의 우선'이라는 국제 인도주의 정신이, 남북간에 가장 여민한 현안의 하나인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념의 문제는 남아 있다. '남북·포로'와 '의거 입북·입대·잔류'라는 남북의 견해 차이가 언제 해소될지 가늠할 수 없고, 북쪽 동포들이 되짚어보는 '장군님 은덕'도 남쪽 가족에겐 서글픔을 자아내는 낯선 풍경이다. 하지만 남북은 지금 상봉의 눈물 속에 이념의 장벽을 넘어선 관용의 미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 얼마나 만났나-3차 상봉 때 서울에선



지난달 28일 평양 고려호텔 앞에서 마지막 상봉을 마친 국군포로 김재덕(오른쪽)씨가 남쪽의 동생 김재조씨와 헤어지며 손을 흔들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여섯차례 10시간에 걸쳐 750명이 북쪽 힐육을 만났다. 평양에선 다섯차례 8시간에 걸쳐 243명이 남쪽 가족을 만났다. 1~3차 교환방문 기간 상봉자는 3500여명에 이른다. 만나진 못했지만 생사를 확인한 이들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6천명을 넘는 이들이 가족 소식을 들었다. 교환방문 횟수가 거듭될수록 전시성 일정보다 상봉에 집중한 일정이거나, '장충식 한적 총재' 문제 등 잡음이 적었던 2차 때보다 행사 진행이 대체로 매끄러웠던 점도 눈에 띈다.

◇ 앞으로 어떻게 되나?-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관련 일정 가운데 남은 것은 15일 실시 예정인 서신교환뿐이다. 그러나 남북의 이산가족 교류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북쪽은 남쪽이 촉구하고 있는 생사·

주소 확인의 전면 확대와 면회소 조기 설치 등 제도적 해결 방식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북쪽 또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선 이산가족 문제의 진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라도 북쪽은 남쪽 요구에 '징검다리 놓기'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관측이다. 제도적 접근에 앞선 내부준비를 위해 시범사업 성격의 상봉과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을 좀더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많은 이들이 남북간에 4차 교환방문 일정 합의가 없는 데도, 4차 상봉 성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4월 중 열릴 4차 적십자회담에서 5월께 4차 상봉 등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사 설 · 칼 럼



# '이산상봉' 더 많이, 더 자주

올 들어 첫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이 어제 서울과 평양을 방문, 반세기만에 꿈에 그리던 가족들과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 상봉에서도 1·2차때와 마찬가지로 감격적이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아 상봉 가족들은 물론 TV 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해 두차례 상봉행사를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차분하고 내실있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가급적 관광 및 공연 관람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줄이고 상봉 횟수와 시간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상봉 위주로 스케줄을 짤 것은 잘한 일이다. 이산가족들이 각종 행사에 끌려다니느라 짐작 오뎅하게 수십년 쌓이고 쌓인 한을 푸는 일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북측이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 먼저 3차 적십자회담을 제의하는 등 행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성의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새해 벽두 신사고를 주창한 데 이어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북측의 이런 태도변화는 3차 이산가족 상봉을 시발로 줄줄이 대기중인 각종 남북관계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

중요한 것은 북측이 구호나 선언 차원을 탈피,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상호 100명씩의 교환방문 정도로는 이산가족 문제가 어느 세월에 해결될지 알 수 없다. 올들어 두차례 남북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이 있었고 3월에는 각 300명의 서신교환 사업이 시

범 실시될 예정이지만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기에 면회소를 설치, 대규모 인원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북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면회소 설치 장소에 대해 금강산만을 고집해서는 곤란하다.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다른 장소가 얼마든지 있는데 구태여 금강산 아니면 안된다는 이유가 뭔가.

아울러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대상인원의 확대는 물론 고향방문까지 실현돼 정말 고향에서 가족, 친지를 만나고 성묘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남북자와 국군포로문제 해결에도 성의를 보이길 촉구한다. 3차 이산가족 상봉의 산뜻한 출발이 북측 김경락 단장이 말한 '정치와 군사문제의 해결'이라는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01. 2. 27 (화)

## 社說

### '禁忌' 깬 남북자 가족상봉

지난해 11월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에서 남북된 동진호 선원과 국군포로가 남쪽의 가족과 재회한 데 이어 3차 상봉에서도 남북자 1명과 국군포로 2명이 그리고 그리던 혈육을 만났다. 이산가족의 사연은 하나같이 가슴 아프고 절실하겠지만 이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산을 강요당한 처지라는 점에서 다른 이산가족의 상봉보다 훨씬 붕절(痛切)한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남북자와 국군포로가 2·3차 상봉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된 현실을 다행으로 여긴다. "남북자나 국군포로는 없다"는 북한의 완강한 태도를 감안할 때 이들의 송환을 요구함으로써 상봉의 기회마저 봉쇄되는 것보다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봉의 문扉를 트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은 남북자나 국군포로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산가족상봉 형식을 빌려 자연스럽게 해결하려는 것 같다. 남북자와 국군포로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오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런 만남이 차라리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32년전 남북된 대한항공 여객기 승무원 성경희(成慶姬)씨의 어머니 상봉을 지켜보며 혈연의 연(緣)이 강제로 단절된 남북자와 국군포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스물세살의 훗다른, 나이의 곱던 치녀가 초로의 모습으로 남쪽 어머니를

만나 뽐нок하는 모습은 처절하기조차 하다. 본인은 북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진월북했다'고 말했다지만 성씨는 32년전 남쪽의 가족에 돌아와야 할 남한 국민임이 분명하다. 1969년 고정간첩에 의해 북으로 납치된 성씨등 KAL기 승무원과 승객 11명 역시 아직까지 '강제역류' 상태고 이들중 7명은 생사조차 불확실하다. 북한은 이들이 '자진월북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인들의 의사가 검증된 사실이 없다. 그렇다고 성씨처럼 북에서 일가를 이룬 남북자나 국군포로들이 남쪽 귀환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그래도 성씨의 경우는 어머니를 만난 것은 행운에 속한다. 북에는 아직도 340여명의 국군포로와 450여명의 남북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당국이 이들을 이산가족 범주에서 상봉을 추진한다지만 100명 가운데 1~2명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는 이들의 가족상봉은 불가능하다. 남북자 등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상봉 방식을 바꿔야 한다. 북한은 약속한대로 이산면회소를 하루 빨리 설치하고 일반이산가족은 물론 남북자와 국군포로가 남쪽 가족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봉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북한적십자회 장재연 위원장이 "조만간 이산가족면회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한 발언이 어떻게 실천될지 주시할 것이다.

## 이산가족 상봉 폭 대폭 넓혀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이 어제 서울과 평양에서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 반세기 만에 회포를 풀었다. 28일까지 2박3일의 짧은 만남이지만,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던 한과 그리움을 푸는 자리였다. 수십년 떨어져 지냈어도 애뜻한 협육의 정은 지울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 이루어진 상봉이기에 일반 국민에게는 흥분과 관심이 다소 떨어진 느낌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꿈만같은 만남이다. 처음에는 요란한 행사위주 진행과 언론의 지나친 조명으로 들떠서 정작 이산가족들에게 오붓한 만남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그런 대로 틀이 잡혀 차분하고 내실 있는 상봉이 되려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상봉이 횡수를 거듭할수록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만남으로 승화돼 무리 없이 정착할 것으로 믿는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정치 선전이나 내부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이 다져지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쳐 앞으로 이산가족들의 상봉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수많은 이산가족 수에 비해 정작 만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현재 남북 간에 생사·주소 확인과 편지교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금강산이나 판문점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 문제가 하루빨리 타결돼 남북 이산가족들이 헤어진 가족 소식을 알고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간절한 소원을 모두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산가족 만남이 지속되려면 기술적 문제도 풀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대와 반목을 접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자세를 지닐 때, 가족끼리 반세기나 만나지 못하는 비인간적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순조롭게 마쳐 민족 화해를 두터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한겨레

2001. 2. 27 (화)

## 사설

### 해결 실마리 보인 국군포로 문제

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북된 대한항공기 여승무원 성경희씨와 국군포로 손원호·김재덕씨가 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났다. 북한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를 꺼리며 '금기시' 하던 사람들이 감격스럽게 만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만남이 거듭될수록 남북을 가른 두터운 벽이 차츰 허물어지리라 믿는다.

특히 국군포로 상봉이 공개된 것은 남북문제 해결의 아킬레스踵이었던 이 문제가 풀릴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2차 상봉 때도 남북 이형석씨가 국군포로인 동생 정석씨를 만났으나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남쪽에서는 혹시 북쪽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해 보도를 자제했으나, 북쪽이 먼저 방송으로 보도함으로써 물꼬가 터졌다. 남북자의 경우도 2차 상봉 때 남북어부 강희근씨가 가족을 만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항공기 여승무원이 어머니 품에 안겼다.

그동안 국군포로나 남북자 문제에 대한 북쪽의 공

식 견해는 "공화국에 남북자나 국군포로는 없다"는 것이었다. 의거입북이나 자원 입대지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였다. 북쪽이 이번에도 당사자 입을 통해 '자원 입대' 등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인도적 차원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한 것은 태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며 즉각 송환을 요구하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 규정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 가족 상봉을 모색해온 정부의 단계적 해법이 결실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상황 진전을 환영하면서 그 폭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진척되어야 한다. 화해·협력의 흐름이 빨라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날이 앞당겨지리라 본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법이 생사확인, 상봉, 편지교환, 자유로운 왕래를 거쳐 가족 재결합에 있다면,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社說

영원히 실종된 '납북'과 '국군포로'

이번 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우리는 일부 극소수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납북'과 '전쟁포로'에 관한 우리의 원칙과 기본 입장을 포기했다. 어느 것이 현실적이냐의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원칙을 포기한 나라, 기본을 실리에 양보한 정부가 과연 가치있고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우리는 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32년 전 납북됐던 KAL 여승무원 성경희(成慶姬)씨가 남에서 간 어머니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북에 억류된 국군포로 2명이 남쪽 가족을 만난 것은 '이산'의 차원에서는 정말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이들의 문제를 '포괄적 이산가족' 문제로 다루기로 한 것은 편의주의적이고도 원칙을 저버리는 정책으로, 이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에서는 영원히 실종되어 버렸다.

북한은 그동안 이들의 송환요구에 대해 "북에는 의거

입북자는 있어도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는 납북자나 국군포로도 단지 '이산가족'에 포함될 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상봉에서 가족을 만난 국군포로에 대해 북측이 '전쟁 때 의거한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정부당국은 아무 말도 못했다.

정부가 추정한 국군포로는 1만9000여명, 납북자는 6·25때의 수많은 사람과 휴전 이후 487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봉한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이들의 상봉이 제도화된 것도 아니다. 상징적인 몇 사람의 상봉을 위해 정부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정부는 북이 요구한 비전향 납파간첩들은 대거 보내면서도 결과적으로 "북에는 납북자나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합법화시켜준 셈이다. 아무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그렇게 무원칙하게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

한국일보

2001. 2. 27 (화)

社說

지평넓힌 이산가족 상봉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에서 반세기 동안 꿈에서나 그렸던 그리운 가족들과 재회했다. 1·2차 상봉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상봉도 구구절절한 시연으로 가득했고 다시 만난 가족은 물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많은 가족들도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감동의 드라마를 지켜 보았다.

지난해 두 차례 상봉 경험의 축적 탓인지 이번 3차 상봉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실속있게 이뤄졌다. 남북 양측은 사실상 자기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려 했던 단체관광, 공연 등 이벤트 성격의 행사를 가급적 줄이고 개별 상봉회수와 시간을 늘린 점 등은 상봉행사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로 평가 받을 만 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상봉에서 이뤄진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도 좋은 방향타가 될

듯 싶다. 남측 방문단으로 평양을 찾은 이후덕씨가 69년 12월 KAL기 피랍 때 북한에 억류중이던 딸 성경희씨를 만난 사실이나, 역시 남측의 김재조, 손준호씨가 6·25전쟁중 북측에 포로가 된 형 김재덕씨와 손원호씨를 평양에서 상봉한 일이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촉구한 바 있다. 까닭은 북한이 납북자의 경우 의거 입북자라고 강변하고 있고, 또 국군포로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상봉에서 북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일부의 상봉을 허락했다. 우리는 이 같은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평가하면서 다수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는 면회소 설치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한다.



### 역시 면회소 설치 이뤄져야 한다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각각 100명이 지금 서울과 평양에서 가족들과 눈물의 상봉을 하고 있다. 16년 전인 지난 85년 남북 각 50명씩 교환 방문한 숫자까지 합쳐 각 350명씩, 남북을 다 합쳐서 총 700명이 그간 이산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1000만 이산가족 전체 숫자와 비교해 보면 한을 푼 상봉자들을 퍼센티지(%)로 뽑아보기조차 민망하다. 1만분의1도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과 규모로 하다가는 앞으로 상봉의 기회를 1만번도 더 주선해야 이산가족 모두가 1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이산가족 상봉은 한두번의 시범 사업으로는 몰라도 이제는 그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번의 대한항공기 남북 승무원 성경회씨와 지난번 2차 때의 동진호 기관사 강화 근씨 경우처럼, 몇 사례를 뽑아 이들은 남북

이 아니고 '의거 입북자'라는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물론 이런 형태로라도 기회를 가진 성경회씨를 포함하여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만남을 주선하면 차례가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의 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획기적 개선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행히 남북 당국자 모두 이에 동감하고 상설 면회소 설치문제를 지난 1월말 3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협의는 했었으나 북한이 면회 장소를 금강산만을 고집하여 합의를 못 이뤘다. 올해 있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 전에 만약 북한이 이 상설 면회소 장소 문제에 긍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김 위원장 환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국군포로의 가족상봉



이원섭 칼럼

다. 김재역씨도 "동족의 가슴팍에 총을 달 수 없어 인민군에 지원 입대했다"고 주장했다.

국군포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계기는 1994년 국군포로 조함호씨가 탈북해 귀국 하면서부터다. 그는 국군포로들이 탄광 등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는 현재 영단을 확보한 생존 국군포로가 34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휴전당시 '송환' 뒤엎기

남한 여론과 북한의 완강한 태도에 끼여 난처해진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국군포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 점진적으로 풀어간다는 것이다. 북쪽이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국군포로를 송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호과를 보도록 실효화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두 국군 포로와 남북관 대한항공기 여승무원을 만나 도록 한 것도 그들 나름의 원칙을 허물지 않으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남쪽 해법에 응한 것으로 해석한다.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2차 상봉 때도 이형보씨가 국군포로인 동생 정석 씨를 만났다. 뒷수가 거듭될수록 그 폭이 넓

어질 것이란 기대가 줄어 있다.

국군포로 송환 주장은 지난해 비전향 장기 수용을 북에 돌려보낼 때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굳이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비전향 장기 수와 대칭되는 것은 (생존해 있다면) 남쪽에서 북쪽에 파견한 간첩들이다. 국군포로와 대칭되는 것은 남쪽의 '반공포로'들이다. 사실 국군포로 문제가 생긴 것도 53년 휴전 당시 포로송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엉켜주춤 처리된 탓이 크다. 양쪽은 제네바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전쟁포로를 자력으로 소환할 것이냐(경제송환 원칙), 인도주의에 따라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할 것이냐(자의송환 원칙)를 두고 날카롭게 맞섰다. 민족 내부 전쟁인 탓에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결국 당시 북에서 남으로 송환된 국군포로가 8343명이다. 정부는 돌아오지 못한 미군 환자를 1만9천명 정도로 추정한다. 송환된 유엔군 포로는 5126명이었다. 반면 남에서 북으로 돌아간 인민군 포로는 7만6119명이다. 포로 중 강제 징집된 남쪽 출신이거나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은 포로들은 휴전회담 반대하건 이승만 대통령의 독단적 지시

어 따라 국군의 안내로 미군 관할 수용소를 집단 탈출했다. 이들의 수가 2만7000명여 이른다. 그러나 혼란 중에 자신의 뜻에 반해 뒤걸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중국(중공)군 포로 가운데도 송환자가 7139명이고, 대 단으로 간 수가 1만4235명여 된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처럼 남쪽 양쪽을 거부하고 인도 동 중립국을 택한 126명의 포로들도 있다. 반공포로들 역시 방북단에 포함돼 조용히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고향인 북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 단계적 해결이 현실적

국군포로 문제는 긴 논의로 보아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 해법은 생사확인, 상봉, 편지 교환, 자유방역에 이어 궁극적으로 옮겨진 가족의 재결합에 있다. 지금은 공같은 여기로 돌리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사실상의 통일상태가 되면 실현될 수도 있는 일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안다까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이 문제 해결도 앞당겨진다. 남북화해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세력들이 가족들의 순수한 바람에 관습해 즉각 송환 주장을 꾀는 모순이 남북문제 해결을 오히려 더디게 하는 것이다.

본섭칼럼, 통일연구소장 wslee@hani.co.kr

반세기 만에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데 어느 사연 하나 애절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국군포로' 두 명이 포함돼 더욱 눈길을 끈다. 남쪽 방문단의 손준호-김재조씨가 한국전쟁 때 국군으로 참전했다 포로가 된 뒤 귀환하지 않은 형남 손원호-김재역씨를 만난 것이다.

국군포로 문제는 남북문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북한의 공식 견해는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는 것이다. "전쟁포로들은 정전협정의 요구대로 전원 송환했으며, 우리에게 있다면 공화국 품으로 의거하여 온 이전 괴뢰 정병들이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한

# 世界日報

2001. 2. 27 (화)



시론

金日洙

오늘로서 제3차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고 방문단은 각각 서울과 평양으로 돌아가고 있다. 꿈에도 그리던 부모형제들 반세기만에 만난 남북 방문단의 가족들은 협육의 정을 나누며 눈물바다를 이룬 것도 잠시뿐,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그리움의 새기를 보내게 된다.

풀이켜 생각해 보면 이산가족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일태한 것은 맞긴 나위 없이 일제 식민지배가 가져온 유산이다.

## '離散'은 일제침략의 유산

일본의 한국침략으로 국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마소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됨으로써 민족적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검국 남북북단은 이데올로기적 대립 갈등 끝에 한국전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이산가족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의 이산가족을 반세기 한 원인을 따져보면 그 책임은 일본의 침략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은 그들의 한국침략의 심상을 왜곡 미화시키는 데 급급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일본 도쿄대의 교육학자(역사학자) 아키히라 후지오카 노부키씨(藤岡健郎)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자유주의 사관론 주장하는 국수주의 논자들은 종래의 역사인식은 지하시관(自虐史觀)이며 일본의 주변국가 침략은 전쟁책임이 없다는 독선적 역사해석을 한 바 있다.

# 3·1정신기려 '분단극복'을

이러한 역사인식의 연속선상에서 작금에 와서는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곧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편찬, 검정을 신청한 2002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한국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왜곡 기술하고 있다.

이들처럼 한일합병을 국제법상 합법적 조약이라고 기술하고 식민지 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해 감압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을 축소하거나 식재외명령을 일부 반대파의 저항으로 축소하고 징용 종군위안부 등

의 강제연행에 있어서 그 강제성을 부인했다. 그리고 간토(關東)대지진에 대한 기술에서는 조선인 대학살이라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그들의 잔학성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은 자유주의 사관의 계보를 잇는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가 1999년 10월 간행한 '국민의 역사'에 맞닿아 있다. 그 기초는 독선적 국수주의에 기울어져 있어, 태평양전쟁의 개전 책임의 대부분을 미국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번 검정을 신청한 중학교 역

들이거보면 일본은 태평양 침략 전쟁의 패배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1세기에 들어와서도 한국침략에 대해 반성할 적도 책임을 진 적도 없다. 일본이 한국과 신뢰 친선관계를 맺기 위해선 새로운 반성 위에 서서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한일관계부터 자유부터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한-일관계 새출발 바람직

다시 82주년을 맞이하는 3·1일이 돌아왔다. 근래 신문보도에 따르면 3·1독립운동 때 경기 화성군의 재암리교회 외에도 이 근처 16개 마을 5개 교회에서 주민학살이 자행됐으며 시공간에서만 30명이 학살됐음이 미국 김리교 선교사 노블의 일기에 의해 밝혀졌다.

3·1 독립운동으로 가족적인 지향에 부딪힌 일제는 무력에 의하여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민병을 지원했다. 그러나 3·1정신으로 고양한 항일민족운동은 면면히 이어져 8·15의 광복을 맞이하게 됐다.

오늘날 3·1정신을 되살려 분단과 이산의 이픔을 극복하는 평화통일의 길로 승화시키기 니기야 한과 재가 우리의 역사적 의무로 남겨져 있다.

/前한국민족운동사학회장, 동국대 명예교수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설

### 서신왕래·면회소 설치를

3차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행사가 어제 끝났다. 반세기 동안 꿈에서나 그리던 협육들이 만나는 광경에 온 국민이 다같이 감격스러워했다. 하지만 이들의 짧은 재회가 다시 긴 이별로 이어진다는 데서 이산가족 문제가 새삼 민족의 아픔으로 다가온다. 남북이 하루속히 면회소 설치 등 이산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합의해야 할 시점이다.

2백3일 상봉기간 중 일부 눈에 거슬리는 점도 있었다. 북측 가족이나 진행요원들이 부쩍 체제찬양 목소리를 높인 사실이 그것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남측 이산가족들이 이를 대변하게 받아넘겨 이런 만남이 거듭되면 남북 간에 깊게 파인 골도 조금씩 메워지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특히 이번에 남북자 1명과 국군포로 2명을 광의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상봉하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해법이었다. 우리로서는 차선의 선택이지만, 그 동안 "의거 입북자만 있지 남북자나 국군포로는 없다"는 태도를 취해온 북측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렇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아제는 극소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

범 차원의 상봉 행사를 뛰어넘는 새 해법을 찾을 시점이다. 용케 상봉단에 선정된 가족의 행운에 함께 기뻐하기에는 전체 이산가족들의 한이 너무나 깊지 않은가. 그나마 남북은 추가 방문단 교환에도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형편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또는 왕래-재결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당장에는 무제한 상봉이나 고향방문 등 이상적 해법을 접어두고 단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화 상대방인 북측이 체제 내부에 이질 파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다. 현 시점에서는 북측이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비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게 현실상 있는 차선책이다.

그런 맥락에서 일차적으로 방문단 교환을 정리하고, 횡수와 규모를 대폭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북측은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을 전면 실시한 뒤 면회소를 통한 상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호응하기 바란다.

## 중앙일보

## 사설

### 남북자·포로는 이산가족 아니다

평양방송은 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국군포로 출신 두명이 평양에서 가족을 상봉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2차 때도 한명이 가족상봉을 했지만 비밀에 부쳤는데 이번에 이를 공식화한 것은 국군포로를 '포괄적 이산가족' 범주 안에 넣자는 남측 주장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북측엔 국군포로가 없다는 명분을 고수하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마치 중대한 진전이라도 이룬 듯 받아가는 입각의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국군포로나 남북자 문제는 이런 어물쩡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 이들은 결코 이산가족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정부가 송환노력을 해야 할 전쟁포로이고, 강제납치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의 송환요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그러나 북한 입장은 국군포로는 한명도 없으며 남북자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때 국군이었지만 인민군에 '자원입대' 했거나 아니면 '의거입북'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북에는 국군포로가 3백43명 남아있으며 남북자는 4백여명이

이른다. 이들 유가족은 유엔고등판무관실 등을 통해 접촉노력과 송환요구 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슬쩍 이산가족에 포함시키면 그들이 인민군 자원입대자요, 의거입북자라는 북한 주장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수용하는 결과가 된다.

더군다나 북측은 또 비전향장기수와 그 가족들의 송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국군포로와 남북자들이 정말 자원입대하고 의거입북했다는 의사를 확인해볼 검증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또 포로와 남북자들의 숫자와 현황에 대한 정보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설령 북측이 이들을 '포괄적 이산가족'에 끼워넣더라도 우리측은 국군포로나 남북자라고 명확하게 분류함으로써 언젠가 그들의 송환을 요구할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국군포로나 남북자들이 비록 한 두명이라 해도 가족을 만나는 현실적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놓아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들 모두를 포괄적 이산가족 명단에 넣어 두루뭉술리로 넘어간다면 국가 스스로 재 소임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현장 메모

尹翔煥 <정치부기자>



이니 주위에 나눠줘 널리 퍼뜨려라"며 김정일 화를 전달해 남측 가족들을 당황케 했다.

28일 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막을 내렸다. 예전과 달리 북측방문단과 수행원의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행사진행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북측이 유연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또 남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의 '시범적 상봉'도 성사돼 남북간 화해를 실감케 했다.

그러나 북측 인사들은 여전히 '장군님 은덕'을 들먹이고 관에 박은 '봉일선전'이나 '체제자랑'을 늘어놓아 상봉장을 썰렁하게 만들었다.

27일 저녁 평양 고려호텔 가족동식 식사에서 북측 가족들은 사전에 준비한 듯 앞다투어 '구름 넘어 그리운 장군별님께' 등

상봉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덕으로 돌리는 노래를 불렀다. 이어 김 위원장의 은덕을 기리는 시를 낭독한 뒤 북측 가족들은 일제히 일어나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상봉장의 '김정일花'

서울 개별상봉에서는 "김일성 장군의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북측 가족과 이를 제지하는 남측 안내요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26일 집단상봉장에선 피바다가극단 김수조 단장이 "장군님을 흠모하는 꽃

이같은 형태는 북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반기로 예정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앞서 남측사회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전의 장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당국자들은 북측과 협상과정에서 정치선전 금지 등을 명문화해 북측의 의도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산가족의 한(恨)을 풀 수 있다.

shyoon@sgt.co.kr

朝鮮日報

기자수첩

27일 남북 이산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은 서울 롯데월드호텔 크리스탈 볼룸. 북측 방문단 한 명이 식탁 위 메뉴판에 뽕가를 황급히 적었다.

'사랑하는 동생 00야. 형제들 가운데 너만 없구나. 참 할 말이 많은데, 눈물, 눈물...'

미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전할 편지라 했다. 그는 편지 말미에 '꼭 만날 날을 위해'라고 쓴 뒤 '건강'이란 단어를 열 번이나 적었다. 북측 수행원과 우리측 진행요원의 눈길을 의식한 때문일까, 그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 오빠의 정이 절절히 뻗 '메뉴판 편지'를 써 가족들에게 건넸다.

북측 방문단이 숙소인 롯데월드호텔에 도착한 26일 오전, 한 노인이 쓰러질 듯한 걸음으로 호텔 정문쪽으로 향했다. 여든 살이라는 그 노인은 "북한사람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다 부질없어. 어느 세월에 내 차레가 돌아오겠어." 노인은 신음 같은 탄식을 내뱉으며 "면회소는 언제 설치되느냐"고 물었다.

3일간 '영화'처럼 펼쳐졌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50년 이상의 한(恨)을 털어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주인공들은 형식에 얽매인 천사 같 따르느라 애를 태워야 했다.

물론 성과는 있었다. 3차 상봉을 계기로 국군포로·남북자 등도 상봉 대상에 포함돼 그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도 북측의 '호의와 결단'에 의지해 풀려다닌 것이었다.

세 번의 행사에 모두 참여했던 한 적십자 자원봉사자도 "지금까지의 이산가족 상봉은 솔직히 국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이제는 이벤트가 아니라, 편지가 오가고 '면회소 설치'를 통해 1000만 이산가족 전체가 이산의 아픔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때가 됐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崔宰赫 사회부기자 jhchoi@chosun.com



이젠 면회소 설치를

시론



정세현 (전 통일부차관)

지난해 8·15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600명의 상봉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과정에서 모두 3110명의 이산가족이 뿔뚝의 정을 나누고 이산의 한을 풀었다.

제도화된 만남엔인恨못풀어

생사와 주소를 확인한 사람까지 합하면 6000명 이상이 직간접으로 가족의 소식을 들었다. 횡수를 거듭하면서 북측요원들의 자세가 유연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정책 변화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단초

‘두세 번’에 걸쳐 ‘시범적으로’라는 단서를 달고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단기간 4차 상봉은 기약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생사 및 주소 확인과 상봉을 신청한 사람이 남쪽에만도 11만명이 넘고 이산의 한을 풀은 채 세상을 뜨는 이산 1세대 노인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시범적 상봉이냐 마 기약이 없으니 가슴 아픈 일이다. 물론 생사나 주소가

확인된 남쪽 300명, 북쪽 300명의 편지를 15일 교환하게 돼 있고, 4차 적십자회담이 4월 3~5일로 예정돼 있어 벌써 살아 있는 셈이다.

한편 그동안 많은 사람이 교환방문이나 상봉 방식의 이산가족 사업에 대해 불만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우선 희망자에 비해 숫자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이산 1세대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행사성이 되다 보니 경비문제도 만만찮고, 체제선전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도 흠으로 지적돼 왔다.

상봉단 교환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고 부담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면,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라도 상설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를 운영하는 쪽으로 이산가족 사업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면회소는 지난해 6월 말 1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9월 초 적십자회담을 열어 면회소 설치 운영을 합의 확정한다”고 합의했는데도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면회소 설치장소가 문제인 것처럼 돼 있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남쪽과의 협상에서 내놓을

건에서 북이 면회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올지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어려운데 무엇을 또 퍼주는냐”라고 비판만 해서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여러 번 만나고 오랜 시간 함께 있을 수 있는 상설 면회소 방식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문제를 풀려면, 자신이 이산가족이 아니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北이 南에 잘해야 할 때

우편물 교환소도 있어야 한다. 한 번 만나고 끝날 일도 아니고, 건강 등의 이유로 때때로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면회소와 보완적인 시설로서의 우편물 교환소는 꼭 설치돼야 한다. 그동안 미뤄온 서신교환이 3월중에 시범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제도화 차원에서 4차 적십자회담부터는 우편물 교환소 문제도 본격 협의돼야 한다.

요즘 북측 인사들이 부쩍 “금년이 중요한 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 남쪽이 북쪽에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함의(含意)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등 주변정세를 보더라도 금년이야말로 북쪽이 남쪽에 잘해주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에서의 ‘합조적인 자세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면회소가 ‘상봉 갈증’에 단비

것이 별로 없는 북의 입장에서 면회소 설치에 여러 개로 쪼개 쓸 수 있는 큰 협상카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대가를 줘야 면회소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인도적 사업에 뭘 대가냐”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북쪽에서는 이산가족 사업에 점적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최소한 실(失)보다는 득(得)이 커야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3차 상봉 때 장재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출어진 가족들의 서신교환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조만간 면회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한 만큼 4차 적십자회담을 기대하지만, 어떤 조

## 북녘가족의 곁과 속마음



광외문에서

69년 대한항공기 납북사건 당시 여승무원 성경희(成敬姬·55)씨. 그는 이번 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인물이었다. 23세 꽃다운 얼굴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평양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32년 만에 만나러 간 어머니 이후덕(李後德·77)씨에게 어떤 말을 할까.

TV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은 역력했으나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첫 대면 때 김일성대학 교수라는 사위와 장성한 손자손녀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찬찬히 딸의 얼굴을 살피던 어머니는 "이제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일단 안심이 되는 듯 그제야 처음보는 딸 가족의 인사를 받았다.

다음날 개별상봉. 이날의 딸은 옛날의 조용하던 딸이 아니었다.

"이곳에 있으면 장군님이 내 미래 운명, 그리고 가족들을 책임져 줄 수 있어서 내가 남기로 한 거야. 남에 갔으면 엄마가 내 운명을 책임지지 못했을 거잖아. 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엄마."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머니는 그냥 "말 안해도 다 안다"며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

또 상봉 첫날 서울에서 조카들을 만난 북한 파바다가극단 총장 김수조(金壽組·69)씨. 그는 조카들을 만난 기쁨의 표시 보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데 열을 올렸다.

'지도자 동지'의 은덕을 생각하며 자신이 석달 전부터 키웠다는 '김정일화' 화분 3개를 조카들에게 나눠주고 '위대한 장군님 만세'를 부르자고 제의했다. 조카들이 어색해 하자 그는 혼자 우렁차게 만세를 불렀다.

본보 2월 28일자 A29면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현주소



육정수  
(사회부장)

를 시사한다. 서울의 개별상봉에서 정지용(鄭芝溶) 시인의 아들인 남쪽의 구관(求寬·73)씨가 북쪽의 동생 구인(求寅·67)씨에게 '독일식 자유로운 상호방문'의 필요성을 얘기하자 북쪽의 한 '기자'가 구관씨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장면. 그 사이에서 당황한 구인씨의 표정이 안쓰러웠다.

한편 북한에 살아 있다는 남북 대한항공기 기장 유병하씨(69)의 부인 엄영희씨(67)의 차분함은 인상적이었다. 그는 세월과 체제의 어쩔 수 없는 위력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지금 와서 남편을 찾아 나선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하고는 13년을 살았지만 북한 생활은 벌써 30년을 넘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도 32년 전에 살던 서울 용산의 집을 떠나지 않고 가구주 이름도 아직 '유병하'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제는 몇 달에 한 번씩 요란한 '상봉 잔치'만 벌일 때는 지난 것 같다. 반세기의 벽이 며칠간의 감성적 만남으로 허물어질 수 없음을 실감한다. 보다 냉철한 이성과 비정치적 발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할 때다.

북한측도 상설 면회소 설치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연히, 또한 조속히 그것이 실현돼야 한다. 더 바란다면 남북의 가족거리 속 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일이다. 그래야 남북의 벽은 점점 낮아질 수 있다.

sooya@donga.com



제3차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신문기사집

---

인 쇄 2001년 3월 15일  
발 행 2001년 3월 15일

발행처 통일부 인도지원국  
(☎ 732-7950)

인쇄처 웃 고 문 화 사  
(☎ 2267-9795)

---

